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ISSN 2714-1187

2024년 7월 제10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UMANITIES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SSN 2714-1187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062-530-5218 홈페이지 <http://www.jnuinmun.org/>

E-mail familycommunity@naver.com

기획특집 미래 커뮤니티를 그리다: 인문학의 시선으로 본 커뮤니티의 진화

005 박미선·신향수 |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본 가족 담론의 변화:
1-2학년 사회과 교과서 및 통합교과서를 중심으로

041 김대현·이유나 | 게이 남성 관계·돌봄 실천의 조건:
첫 세대 비(이성애)혼 게이커뮤니티의 명암

079 김순남·나영정 | 퀴어생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천으로서의
돌봄: 게이 남성을 중심으로

115 최대희 |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의 출현
배경과 의미

145 류도향 | 초개인화시대,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양성방안 연구

일반논문

167 정천구 | <진정사효선쌍미>의 서사적 특성과 효선 재해석

193 김동연 | <부여노정기>에 나타난 연안 이씨의 다층적 공간
인식과 여행 인식

215 최은주 | 玉川 趙德鄰의 親族 관련 祭文에 나타난 애도방식과
의미

제10집 / 2024년 7월 31일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편집위원장 류도향

편집위원 김청우·김형주·박미선·신선혜·이현재·정미선·최대희·한우리·한익송

- 239 김종수 | 유의(儒醫) 석봉(石峰) 김병태(金柄泰) 가문의
대택(大宅) 경영
- 269 김동규 | 레비나스에게 가족의 의미: 『전체성과 무한』
4부 C “번식성” 및 D “에로스 속의 주체성”에
대한 한 가지 해석
- 293 우양호 |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공무원과 회사원의 비교
- 321 윤선숙·조유영 |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방안: 제주지역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 349 정숙경 | 노인 돌봄의 특징과 현실, 정책의 전환: 지역공동체
디지털 돌봄을 위하여

서평

- 367 김재민 | ‘잃어버린’ 모성과 상실의 트라우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377 ■ 발간 및 투고 규정
- 381 ■ 논문 심사 규정
- 385 ■ 연구 윤리 규정
- 390 ■ 임원 명단

| 기획특집 |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본 가족담론의 변화*

— 1-2학년 사회과 교과서 및 통합교과서를 중심으로 —

박미선·신향수**

목 차

1. 머리말	3. 삽화를 통해 본 가족담론의 변화
2. 가족 관련 교육과정의 변화와 그 내용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교수요목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기까지 교육과정의 흐름을 살피고, 초등학교 1-2학년 사회과 교과서 및 통합교과서의 ‘가족단원’ 삽화를 파악한 후, 가족 형태와 가족돌봄노동과 관련한 담론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첫째, 가족 형태에 있어서 ‘표준가족’ 담론의 변화가 확인된다.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가족계획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나타났다. 5인 핵가족/불완전한 6인 확대가족 → 4인 핵가족/6인 확대가족 → 4인 핵가족/6인 확대가족/3인 핵가족 등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둘째, 가족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가족’ 담론이 수용되고 확장되었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가족 현실과 가족담론을 수용하면서 ‘표준’, ‘정상’에서 벗어난 현실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록하였다. 2015 개정 교과서 ‘가족단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이 논문은 2024년 6월 28일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과 만주학회가 공동개최한 <인문·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변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박미선(제1저자),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조교수 / 신향수(공동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삽화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확장된 담론의 내용이 삽화로 포함되었다.

셋째, 남녀성역할에 따른 기능주의적 가족담론에서 양성평등 담론을 수용한 삽화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생계 부양’, ‘가사노동’, ‘양육’을 축으로 조부, 조모, 부, 모, 언니/누나, 형/오빠 등 가족 구성원의 가족돌봄노동에서 이러한 담론 변화가 나타났다.

주제어: 가족담론, 가족형태, 가족역할, 초등학교, 사회과교과

1. 머리말

전통 사회에서 가족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였고, 이외에도 교육을 비롯한 각종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 속에서 개인은 ‘가(家)’의 일원으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가족은 점차 가족만이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여타의 다른 기능은 별도의 전담 기능에 이전해 왔다. 그 속에서 개인은 ‘가(家)’와 분리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역사적 변천에 착안하여 본고는 가족 제도와 정책, 연구 담론 등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가족담론의 지형을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살펴볼 교과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사회 교과서와 관련 통합과목 교과서이다. 사회 과목이 ‘국민의 자질’이나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핵심 과목이라는 점에서 국가·사회적 요구를 직접 반영하고 있으며¹⁾, 1-2학년(군)의 사회(통합 교과) 교과서는 현재까지도 국정이다. 즉 공교육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규정한 가족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되었다. 서재천은 해방 이후 7차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 사회과 4학년

1) 1987년 고시된 5차 교육과정까지 사회 교과의 목표는 ‘국민적 자질’을 기르는 것이었으며, 1992년 고시된 6차 교육과정의 목표에서는 그것이 ‘민주 시민의 자질’로 수정되었다(문교부,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7;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92.).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내용을 가족 이론과 연관하여 검토하였다.²⁾ 현재적 내용, 역사적 내용, 현실적 내용, 이상적인 내용 등이 혼재된 교육과정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잡힌 교육 내용 기술이 필요함을 촉구한 연구였다.

이외 연구들은 대체로 교과서에 대한 비판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³⁾ 강운선은 사회문화 교과서의 ‘가족단원’에 반영된 편견의 요소를 지적하였다.⁴⁾ 박윤경은 7차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이미지가 가족 다양성이 증가하는 사회 현실에 반하는 ‘성역할이 완화된 구조기능론적 정상가족 모델’이었음을 비판하였다.⁵⁾ 최근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삶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가족’을 다루는 방식이 제안되었으며,⁶⁾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 중 가족을 묘사한 삽화를 분석하기도 하였다.⁷⁾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는 교과서 ‘가족단원’에 대해서 대부분 갈등론적 시각에 기반한 비판적 입장에서 교과서 서술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주로 3-4학년(군) 교과서의 ‘가족단원’을 분석하였다.

-
- 2) 서재천, 「초등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내용의 변천 고찰」, 『초등사회과교육』 17(2), 2005.
 - 3) 교과서에서 ‘가족단원’은 대체로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체계로서 가족을 바라보는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이에 가족이 계급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라는 입장의 갈등론적 관점(여성주의적 접근)에 기초하여 교과서 내용을 비판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안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이나 갈등론적 관점 등 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유계숙·최연실·성미에 편역, 『가족학 이론 : 관점과 쟁점』, 도서출판 하우, 2017).
 - 4) 강운선, 「제7차 사회·문화교과서의 ‘가족단원’에 대한 비판적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 49(2), 2010.
 - 5) 박윤경, 「초등 사회과 가족 단원에 대한 내용 분석 : 가족 다양성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연구』 37(3), 2005.
 - 6) 백선영, 「초등 사회과의 ‘다양한 가족’ 담론에 대한 대안 탐색 : 가족 실천의 관점으로」, 『사회과교육』 60(1), 2021.
 - 7) 오지영,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3학년 사회 교과서의 ‘가족’ 묘사 분석 : ‘가족 단원과 타 단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교육전문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9.

선행연구는 주로 3-4학년 교과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1-2학년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족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나타난 가족의 상은 공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에 국가·사회적으로 공인된 가족상을 교육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일 것이다. 또 후술하는 바와 같이 1-2학년 과정에서는 직관적으로 가족의 형태나 가족 성원의 역할 등을 그리고 있어 가족과 관련된 담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교과서의 삽화를 분석하여 가족담론의 지형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⁸⁾ 먼저 1-2학년 교육과정의 시대적 흐름과 각 교과 ‘가족’ 단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교육과정마다 나타나는 내용 요소의 변화를 시대적 상황과 비교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흐름을 살펴보겠다. 주로 교과서의 삽화 내용을 통해 가족담론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2학년 교과서는 텍스트보다 삽화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삽화의 변화를 포착하고 이것을 해석할 것이다. 삽화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 내용, 지도서의 지도 방향, 목표 등도 참고할 것이다. 또 담론 변화의 현상을 역사적 사건과 제도의 변화와 연결해서 교과서 가족담론의 변화 계기를 살펴볼 것이다.

2. 가족 관련 교육과정의 변화와 그 내용

1) 가족 관련 초등 1-2학년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가족을 다루는 과목은 시대별로 변천하였다. 1946년 미군정기에 교수요목이 발표된 이후 과목명이나 과목 구성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 사회생활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사

8) 가족담론은 가정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 정치적인 것과 관련되며 공적 행위와 상호작용으로 생겨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즉, 가족담론으로 만들어진 가족상(家族象)은 사회적·문화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담론은 가족 안팎의 관계를 묘사하며 가족에 대한 다양한 모델과 이론을 포함한다(제이버 구브리움·제임스 홀스타인, 최연실·조은숙·성미애 옮김, 『가족이란 무엇인가 :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가족담론』, 도서출판 하우, 1997, 27~49면 참조).

회생활 과목은 2차 교육과정부터 사회로 개편되었다. 4차 교육과정부터는 국민학교 1-2학년 과정의 여러 과목을 통합하여 통합 교과가 성립되었다. 즉 교과별로 교육과정은 고시하되 교과서는 여러 교과를 통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가족 관련 내용은 사회와 도덕 교과의 통합 교과서인 바른생활에 실렸다. 6차 교육과정부터는 도덕은 기존대로 바른 생활 교과서로 발행되었으며, 사회는 과학과 함께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로 발행되었다.⁹⁾

이상과 같은 초등학교 1-2학년 가족 관련 과목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¹⁰⁾

〈표 2〉 초등학교 1-2학년 가족 관련 과목의 변화

교육과정(고시연도/적용연도)	과목	비고
교수요목(-/1946)	사회생활	정식 교과서 미발행
1차 교육과정(-/1954)	사회생활	국정
2차 교육과정(-/1963)	사회	국정
3차 교육과정(-/1973)	사회	국정
4차 교육과정(1981/1982)	바른 생활	국정
5차 교육과정(1987/1989)	바른 생활	국정
6차 교육과정(1992/199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국정
7차 교육과정(1997/2000)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국정
2007 개정 교육과정(2007/2009)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국정
2009 개정 교육과정(2011/2013)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국정
2015 개정 교육과정(2015/2017)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국정
2022 개정 교육과정(2022/2024)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국정

9) 함중규, 『韓國教育課程變遷史研究』, 교육과학사, 2003, 51면, 610면. 4차 교육과정 이후 국민학교(초등학교)의 통합 교과와 교과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4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와 교과서

통합 교과	기존 교과	
	4·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현재
바른 생활	도덕, 사회	도덕
슬기로운 생활	자연	자연, 사회
즐거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	체육, 음악, 미술

10) 이하 교육과정은 모두 국가 교육 과정 정보 센터(<https://ncic.re.kr/mobile.index2.do>)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별도로 출처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2) 교수요목 (1946) 사회생활과의 제정과 내용 요소

초등학교 사회 교육은 1946년 교수요목이 제정되면서 나타났다. 사회생활은 현재의 사회과에 해당하는 교과이다. 사회생활과의 내용 구성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을 기반으로 하였다.¹¹⁾ 사회생활과는 저학년에서는 아동의 관심이나 흥미를 고려한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식 범위가 확대되었다.¹²⁾ 이러한 구성은 내용의 출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¹³⁾ 이에 따라 구성된 교수요목에서는 학년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다.

〈표 3〉 교수요목기 국민학교 사회생활 과목의 학년별 주제

학년	주제
1	가정과 학교
2	고장 생활
3	여러 곳의 사회 생활
4	우리 나라의 생활
5	다른 나라의 생활
6	우리 나라의 발달

한편 미군정청 편수국에서는 사회생활과와 관련하여 1-2학년의 경우 교과서는 발행하지 않고 교사용 지도서만 발간하며, 3학년 이상은 학년별 교과서를 발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계획대로 교과서가 발행되지는 않았으며, 일선 학교에서도 교재 발행 요구가 계속되어 서울의 문화당과 동지사 등의 출판사에서 ‘참고서’의 이름으로 교재를 발간하였다.¹⁴⁾ 동지사에서 발행된

11) 이는 당시 미군정청 편수국 고문이었던 미군 장교의 고향이 콜로라도로 그가 한국인 담당자들에게 콜로라도주의 관련 자료를 전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홍웅선, 「최초의 사회생활과 교수 요목의 특징」, 『한국교육』 19(1), 1992, 27면).

12) 박남수, 「초기 사회생활과 교수 요목에 영향을 끼친 미국 근대 교육과정의 구조와 특징」, 『사회과교육연구』, 17(1), 2010, 10면.

13)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도 1학년의 가정(우리 집)과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장, 지역, 국가로 범위(scope)를 확장하였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1학년 슬기로운 생활에서 가정을 다루고 3학년 사회부터 고장, 지역, 국가 등으로 다루는 범위가 확장된다.

사회생활 참고서는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1948년 3월 30일 문교부 인정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실제로 인정 절차를 거쳐 교과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1학년의 ‘가정과 학교’라는 주제로 배치되었다. 교수요목에서 다른 내용 요소는 ‘사회생활’의 ‘(一) 우리 집’ 항목에 정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우리 집 (20 시간)

(세목)

1. 우리 집은 우리 동네의 어느 쪽에 있는가?
2. 우리 집은 무엇으로 지었는가?
3. 우리 집 식구는 누구 누구며 몇 사람인가?
4. 우리 집 식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5. 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6. 우리 집 식구들이 어떻게 서로 도와 가는가?
7. 우리 집 식구가 사이 좋게 즐겁게 사는 모양은 어떠한가?
8. 내가 우리 집 식구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9. 내가 식구들에게 하는 인사.

인사의 보기(例)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형님, 학교에 다녀 오겠습니다.

누님, 학교에 다녀 왔습니다.

10. 우리 집에서는 무슨 꽃을 심는가?

위에서 보듯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은 소박한 형태로 1학년의 흥미와 관심 정도 수준에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당시 6-7세 아동에 대해 요구된다고 여겨진 사회과 교육의 내용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제시된 내용 구성이라는 점에서 추후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적인 틀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수요목에 나타난 내용 요소를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후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14) 홍응선, 앞의 논문, 1992, 37~38면 참조.

살펴보고자 한다. 범주별로 ‘주거의 형태’(1, 2), ‘가족의 구성과 구성원의 역할’(3, 4, 5, 6), ‘가족 관련 윤리’(7, 8, 9) 등의 요소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3) 교육과정기별 가족 관련 내용 요소의 변화

교육과정에 반영된 가족 관련 내용 요소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초등학교 1-2학년 가족 관련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변화

교육과정	거주 형태 관련 내용 요소	가족 구성원 관련 내용 요소	가족의 화합과 예의 관련 내용 요소	비고
교수요목	위치, 건축 양식	구성원과 역할	인사	
1차	-	구성원과 역할, 집안 일	인사, 어른에 대한 예절, 손님에 대한 예절	
2차	-	구성원과 역할	부모 은공 보답	
3차	건물 양식, 구조, 관리, 생활	구성원과 역할, 친척, 가족 형태 비교, 혈연 관계, 가족의 협동	-	가족의 형태 비교 등장, 어머니·아버지의 역할 분리
4차	주거의 역할, 다양한 양식, 시설, 도면	구성원과 역할, 친척	가정 내력, 가족 행사	
5차	-	구성원과 역할	어른 공경, 형제 우애, 가정 윤리 변화	
6차	-	구성원과 역할, 친척	양육의 고마움, 가정 행사, 가정 내력과 조상	
7차	건축 양식 비교, 구조 비교, 방의 쓰임새 (아파트 등장)	구성원과 역할	가족 행사	아파트 등장

교육과정	거주 형태 관련 내용 요소	가족 구성원 관련 내용 요소	가족의 화합과 예의 관련 내용 요소	비고
2007 개정	건축 양식 비교, 구조와 쓰임새	구성원과 역할, 친척, 가족의 형태	가족 행사	
2009 개정	모습과 특징	구성원과 역할, 친척, 다양한 가족	-	다문화 가족 등장
2015 개정	-	구성원과 역할, 친척, 다양한 가족	가족 행사	친척 4촌으로 한정

가족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변화는 사회적 현실 및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주 형태와 관련해서는 도시화가 진전되는 시기에 나온 3차 교육과정(1973)에서는 건물의 양식이 내용 요소로 나왔다. 전통적인 주거 형태가 일반적이었던 이전 시기에 비하여 도시화로 인한 주거 형태 변화가 나타난 시기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과 각각의 역할에 대한 내용 요소도 시기적 상황을 반영한다. 역시 3차 교육과정에서는 핵가족의 증가를 반영하여 가족 형태의 비교가 내용 요소로 제시되었다. 반면 같은 교육과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는데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적 상황의 변화일 것이다. 2007 교육과정에서도 가족의 형태가 학습 요소로 제시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가족도 등장하였다.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고 다문화 가족이 확대되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 윤리 내지는 가족 화목과 관련된 내용 요소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따라 친척이 내용 요소로 제시되었다.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 속에서 친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다루는 친척을 4촌으로 한정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상에서 정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삽화를 통해 본 가족담론의 변화

앞 장에서 각 교육과정별 가족 관련 내용 요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서 ‘가족단원’ 삽화를 통해 ‘가족형태’와 ‘가족역할’에 대한 가족담론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¹⁵⁾

1) 가족계획 정책과 ‘표준가족’¹⁶⁾ 담론의 변화

① 가족계획 정책의 변화: 산아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가족형태에 대한 가족담론의 변화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흐름과 연결된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 15) 분석 교과서의 ‘가족단원’은 다음과 같다. 『사회생활과 참고서 가정과 학교』(1학년), 동지사, 1948(1. 우리집). : 『사회생활』 1-2, 1955(4. 우리집). : 『사회』 1-2, 1965(1. 우리집). : 『사회』 1-2, 1978(1. 우리집). : 『바른생활』 1-2, 1982(<즐거운 우리집> 9. 오순도순 재미있게, 10. 우리 아기, 11. 영수의 일기, 12. 집이야기). : 『바른생활』 2-1, 1989(2. 즐거운 우리 집, 4. 우리 조상). : 『바른생활』 2-2, 1989(2. 나의 친척). : 『슬기로운생활』 1-1, 1995(3. 우리집, 1) 생일, 2) 집의 모습, 3) 가족이 하는 일). : 『슬기로운생활』 1-2, 1995(6. 정다운 친척, 1) 설날, 2) 친척, 3) 할아버지 생신날). : 『바른생활』 1-1, 1995(5. 화목한 우리 가족). : 『바른생활』 2-1, 1995(5. 고마우신 부모님). : 『바른생활』 2-2, 1995(4. 나의 가족과 친척). : 『가족』 1, 2013,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1. 우리가족, 2. 우리집). : 『가족』 2, 2013,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1. 친척, 2. 다양한 가족). : 『여름』 1-1, 2017, 한국교원대학교 바슬즐 주제별 교과서 초등 통합 편찬위원회(1. 우리는 가족입니다.). : 『여름』 2-1, 2017, 한국교원대학교 바슬즐 주제별 교과서 초등 통합 편찬위원회(1. 이런 집 저런 집). 삽화는 ① 가족 구성원의 수, ② 가족 구성원의 역할 및 활동, ③ 가족 생활 공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외에도 삽화와 함께 서술된 텍스트 내용과 각 지도서의 학습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 16) 본고에서 ‘표준가족’은 ‘정부가 지향하는 가족 형태’와 ‘가족구성원 수’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자가 사용한 용어이다. 정부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혼인’과 ‘혈연’에 기초하여 가족을 파악해 왔다. ‘혼인’과 ‘혈연’에 근거하여 가족을 분류할 때 쓰이는 개념은 핵가족과 확대가족이다. 핵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미혼 직계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부모와 자녀의 2세대로 한정된다. 확대가족은 자녀가 결혼 후에도 그들의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형태이다. 이러한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개념에 각 시대에 정부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가족구성원 수를 결합하여 ‘표준가족’으로 지칭하였다. 예를 들면 ‘4인 핵가족’, ‘6인 확대가족’ 등이다.

광복과 한국전쟁으로 국가 재건이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가족계획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가족계획은 1960년대 이후 추진되었는데 대체로 1980년대까지는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 정부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의 가장 하부단위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산아제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당시 합계 출산율은 6명이었는데, 정부는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가 되면 자녀를 낳지 않는 운동을 추진하여 출산율을 낮추고자 하였다. 보건소나 가족계획 지도원에서는 무료로 불임시술을 해주었다.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1970년대에도 이어졌다. 그렇지만 남아선호사상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출산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산아제한 정책을 이어나갔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83년에는 출산율이 2.06명으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출산율 감소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로 1980년대에도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등의 표어와 함께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 이어나갔다. 동시에 남아선호사상도 그대로 유지되어 출산율은 감소되었지만 남아를 선택적으로 출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서 1990년에는 여아 대비 남아의 비율이 116.5로 남녀성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출산 정책은 변화하였다.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였고, 1996년에는 인구의 질적 향상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 아이가 국가의 미래라는 구호와 함께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등의 표어를 내걸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렇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출산율은 더욱 떨어졌다. 2005년 1.08명으로 출산율이 떨어졌다. 자녀에게 형제가 중요한 유산이며 자녀들도 동생을 갖고 싶다는 표어가 등장하였다. 또 저출산에 대한 대응으로 2005년에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도 2022년까지 322조원 가량 투입하였다. 그렇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1명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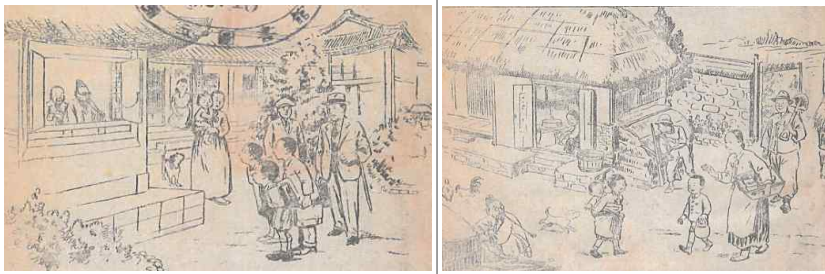
되는 수치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는 국가가 지향하는 ‘표준가족’의 형태가 각 시대별 표어와 함께 내포되어 있다. 1960년대에는 부부와 2-3자녀, 1970년대에는 부부와 2자녀, 1980년대에는 부부와 1-2자녀, 1990년대에는 부부와 2-3자녀를 이상적인 ‘표준가족’으로 추구하였다.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 속에서 부부와 1-3인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표준가족’으로 상정하였고, 이러한 가족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서 보건소, 가족계획 지도원,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표준가족을 소위 ‘정상가족’으로 범주화하여 이를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추구하고 또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정부, 학계의 가족 형태에 대한 담론이 교과서에 응축되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좀 더 살펴해보도록 하고 다음에서는 ‘표준가족’ 담론이 어떻게 삽화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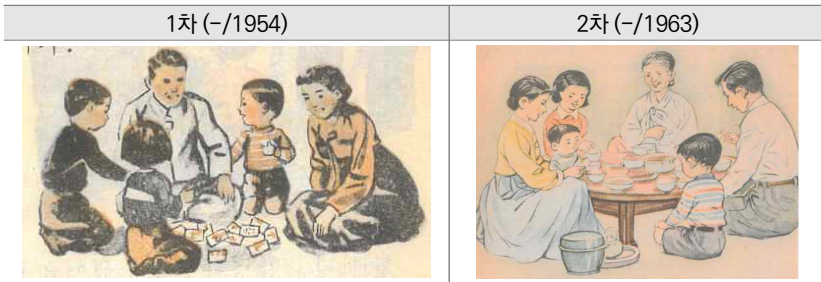
② 삽화에 반영된 ‘표준가족’ 형태의 변화

모든 교육과정의 교과서 ‘가족단원’ 삽화에서는 정부가 가족계획을 통해 지향하는 ‘표준가족모델’의 형태가 주로 그려져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 현실이 반영되었다. 먼저 교수요목기 참고서에 나타나는 표준가족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교수요목기(-/1946) ‘표준가족’의 삽화



위 두 가족의 삽화는 경제적 형편은 다르지만 혼인한 부부와 자녀, 그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확대가족 형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자녀는 모두 3명 이상이며 3대가 같은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고 7-10인으로 구성되었다. 교수요목기 삽화는 표준가족모델을 3대가 함께 거주하는 확대가족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가족 정책이 추진되기 전이었던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가족 현실이 확대가족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자녀수를 당시 평균 출산율인 6명보다 적은 수로 그려 넣어 국가의 자녀출산에 대한 지향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1, 2차 교육과정 시기인 1954-1972년의 교과서에는 부부와 미혼 자녀 3명으로 구성된 핵가족 삽화가 주로 나타난다. 당시 정부에서는 3자녀 낳기 운동을 추진하며 출산율을 줄이고자 하였는데, 부부와 3자녀로 구성된 표준가족모델을 교과서 삽화로 그린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준가족 이외에도 조부 없이 조모만 가족 삽화에 포함된 불완전한 확대가족 형태의 모습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는 당시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3-5세 정도 더 많았던 추이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성들의 사망이라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조모의 세대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조모만 포함된 불완전한 3대 확대가족 삽화가 교과서에 수록되었다고 판단된다.

3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의 시기인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삽화는 부부와 2명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4인 핵가족이 주로 그려져 있다.

3차(-/1973)-7차(1997/2000) '표준가족'의 삽화



1970년대 이후 정부는 2자녀 낳기 정책을 추진하여 1983년에는 출산율이 2명대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부부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 핵가족이 교과서의 '표준가족' 형태로 근 30여 년 동안 주된 삽화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모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조부도 함께 수록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써 조부모, 부부, 그 자녀로 구성된 완전한 형태의 6인 확대가족 모델이 교과서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4인 핵가족, 6인 확대가족의 형태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교과서를 통해 다시 표준가족모델로 견고한 위치를 다질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점차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2000년대에는 1.08명, 2020년대에는 1미만의 출산율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에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4인 핵가족 표준가족모델에 입각하여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정상가족'을 지향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부부와 1인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3인 핵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이에 따라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인 핵가족 삽화가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009 개정 (2011/2013) 이후 '표준가족'



가족 현실을 반영하여 교과서 삽화에서도 3인 핵가족 이미지가 추가된 것이다.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이전 시대에 표준가족으로 상정되었던 6인 확대가족, 4인 핵가족 삽화도 여전히 확인된다. 이는 국가 경제와 국내 노동시장을 중시한 정부가 표준가족모형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가족’의 형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요컨대 각 교육과정 교과서 ‘가족단원’의 삽화에서는 5인 핵가족/불완전한 확대가족 → 4인 핵가족/6인 확대가족 → 4인 핵가족/6인 확대가족/3인 핵가족 등으로 변화된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담론을 반영한 것으로 ‘표준가족’ 담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2) ‘다양한 가족’ 담론의 수용과 확장

① ‘다양한 가족’ 담론의 수용

신자유주의의 심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등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개인은 비연애, 비혼, 비출산 등을 선택하면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꾸리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 테두리 속에서 혈연과 혼인으로 구성되는 ‘표준가족’의 모습 이외에도 ‘다양한 가족’ 현실을 반영한 가족 형태가 2009 개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가족단원’에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표준가족’을 삽화로 제시하였는데, 2009 개정 이후에는 아래 삽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 함께 거주하는 ‘딩크족’, 미혼이나 이혼의 상황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편모가족’이나 ‘편부가족’인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노인부부가족’,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사는 ‘조손가족’ 등의 형태도 삽화로 수록되었다.¹⁷⁾ 이는 결혼제도

17) 본고에서는 ‘표준가족’을 ‘가족구성원 수’+‘정부가 지향하는 가족 형태’의 양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정상가족’은 이 외에도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치판단이 포함된 용어로 사용하였다.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거나, 주거를 달리하거나, 구성원들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호와 부양을 하지 않거나, 양육과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안에서 그 공동의 자녀로 구성된 ‘표준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 구조와 사고방식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허물어져 가면서 그 외의 ‘비정상가족’으로 간주되었던 ‘다양한 가족’ 관계들이 교과서에 수용되면서 가능하였다.

또 2009 개정 교과서에서부터는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 삽화도 나타났다. 이미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지원정책이 운영되는 등 다문화 가족은 현실 가족의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가족 형태가 되어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다.

2009 개정 (2011/2013) ‘다양한 가족’ 삽화



‘비정상가족’이 되며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의 구분은 이준일의 『가족의 탄생』을 참고할 수 있다(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11~36면 참조).

이외에도 ‘정상가족’이 아닌 결핍된 가족 구성원의 아동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것도 기존의 교과서와 다른 가족담론의 변화를 포착하는 지점이 된다. (가)에서 주인공은 가족을 소개할 때 조모, 부, 동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부와 모는 가족 구성원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부부 관계가 손상된 성인들과 아동들’로 구성된 가족은 이전에 소개되지 않은 비표준적 가족 형태이며 학생들에게 소개할 ‘바람직한’ 가족 형태라고 볼 수도 없는 ‘비정상가족’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확대가족을 소개함으로써 현실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곧 표준가족모델에 근거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여러 통계에서는 표준가족모델에 근거한 가족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덩크족은 물론이고 1인가구나 비혼족도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하는 변화를 보여준다¹⁸⁾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는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삽화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었던 요소가 된다. 또 여성학계를 중심으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과도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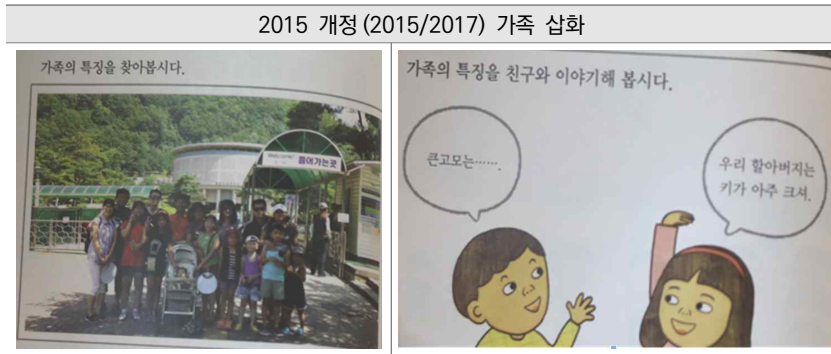
요컨대 2009 개정 교과서 이후 ‘가족단원’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삽화는 가족 현실과 가족담론을 수용하면서 ‘표준’, ‘정상’에서 벗어난 현실에서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다각도로 수록하였다.

② ‘다양한 가족’ 담론의 확장

2015 개정 교과서 ‘가족단원’ 삽화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확장된 담론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첫째,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를 가족으로 호명한 삽화가 추가되었다. 그렇지만 가족의 외연을 혈연관계로만 확장한 것이 아니라 ‘친밀성’과 ‘서사성’을 통해 가족으로 호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래 사진은 ‘가족을 그렸어요’라는 학습 활동에 수록되어 있다. 비슷한 연령대의 성인 남녀 8명과 아동 8명 총 16명의 사진으로 형제자매들과 그 자녀로 구성된 친족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진 아래에는 “가족의 특징을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학습 활동이 있어서 표준가족을 넘어서는

18) (주)마크로밀엠브레인 <가족의 의미 및 가족관 관련 인식 조사 (on-line 조사)> 리서치 보고서, 2021. <https://www.riss.kr/link?id=A108857770>.

대상들을 가족으로 호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그 말풍선에는 “큰 고모는”, “우리 할아버지는”라는 ‘친족’의 호칭을 제시하면서 가족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¹⁹⁾ 이렇게 볼 때 가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들이 조부모로부터 이어지는 4촌 친족까지 혈연적으로 확장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1-2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3인 핵가족의 성원이며,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 자녀라는 점이 고려된 바로 보이며, 가족을 이해하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외연을 넓혀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 현행 학급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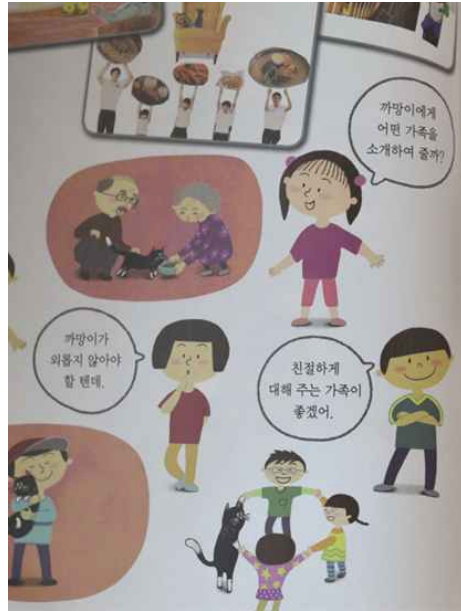
그렇지만 사촌이라는 혈연보다 중시되고 있는 부분이 같은 교과서 ‘가족단원’의 또 다른 부분에서 포착된다. 교과서의 주인공이 “사촌 형과 함께 한 즐거운 물놀이” 사진을 선택하여 가족 이야기를 꾸미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친족인 ‘사촌 형’을 가족으로 제시하면서도 주인공인 내가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친밀성’과 ‘물놀이’라는 경험을 공유한 ‘서사성’은 사촌 형을 가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으로 구성된다. 이는 곧 ‘친밀성’과 ‘서사성’을 강조하는 가족담론이 교과서 가족 삽화에 반영된 것이다.²⁰⁾

19)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친족을 “가족의 가족”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라고 하여 친족을 가족과 구별하기보다는 함께 묶어 설명하려는 방식을 취하였다.

20) 2021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55세 남녀 3,000명 대상으로 한 가족실천과 가족차별 조사에 따르면 가까운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함께

둘째, 중간 경계를 허무는 방식의 가족담론도 교과서 삽화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다.

2015 개정 (2015/2017) ‘다양한 가족’ 관련 삽화



위 삽화는 인간 이외에 동물을 가족으로 용인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서술이 교과서에 본격적으로 제시되거나 설명된 것은 아니다. ‘까망이’라는 고양이가 가족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까망이의 가족을 찾아 주는 과정에서 ‘집에서 사는 짐승(家畜)’의 한 종(種)에 불과했던 고양이는 ‘종’의 경계를 허물고 ‘엄마, 아빠, 누나, 형’과 함께 사는 ‘가족’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까망이’

하는 시간’이 37.0점으로 1위, ‘생물학적 관계’가 32.9점 2위, ‘경제력’이 25점으로 3위였다(추주화·나영정 외,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1면 참조). 서사성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경험을 하나의 요소로 담고 있다(류도향·추주희 외, 『가족커뮤니티인문지표연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32-33면 참조).

는 삽화에서도 가족들과 손을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반려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담론의 대두와 연결된다.²¹⁾

그렇다면 동물을 가족으로 포섭하려는 교과서의 서술이 동물권에 대한 연구 담론의 지형 속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갑자기 이식된 것일까? 물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생적인 변화도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포착된다.

4차 (1981/1982) 삽화



바둑이가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걱정이 되어 저녁도 먹지 못하였다. “바둑아 바둑아” 나는 바둑이를 부르며 어두운 골목을 뛰어다녔다. 바둑이는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 바둑이가 대문 앞에 앉아 있다가 달려들었다. 나는 바둑이를 꼭 안아 주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양이에게 ‘까망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처럼 이미 4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개에게 ‘바둑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부여되었다. 교과서의 주인공은 ‘바둑이’를 잃고 “걱정이 되어서 밥도 못 먹고 찾아다니는” 나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 바둑이는 나와 함께 놀며 내가 사랑하는 ‘애완’ 동물인 것이다. 이는 교수요목기 교육과정에서부터 3차 교육과정까지 ‘동물’이 사람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쥐를 잡아주거나, 달걀을 낳아준다거나 하는 유용한 대상으로서 ‘가축’²²⁾이었던 것과는 다른 큰 변화를 드러낸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과 함께 같은 교과서의 학습활동 내용에는 “집짐승에 대해서 다음을 알아봅시다. (1) 사람의 일을 도와 주는

21) 도나 해러웨이 지음, 황희선 옮김, 『해어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2024년 1월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2027년 금지)되기도 하였다.

22) 가축은 교수요목기 참고도서 단원 가운데 <우리 식구들>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축은 개다. 개는 교과서 삽화 주인공과 함께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물로 등장하며 심지어 교과서 표지에도 아이들과 함께 수록되었다.

동물, (2) 집을 지켜 주는 동물, (3)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동물, (4) 그 밖의 동물” 라고 하여 여전히 인간의 관점에서 유용한 가축으로 동물을 범주화하여 학습시키고 있는 내용도 함께 수록되었다. 즉, 4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동물에 대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가축’과 ‘이름을 부여한 애완 동물’이라는 두 가지 관념이 함께 공존하며 과도기적 모습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정리되었다.

1980년대 4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이러한 교육 내용을 학습하였던 1-2학년 학생들은 현재에는 어느덧 45-51세로 가족을 구성하고 사회에서도 주도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 당시 ‘바둑이’와 ‘나’는 주택이라는 한 거주 공간에서 집 안과 집 밖이라고 하는 분리된 거주 공간에 처해있었지만 당시 그 초등학생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아파트 안의 한 공간에서 ‘바둑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오랫동안 인간에게 유용한 대상이었던 가축은 이제 한 공간에서 함께 기쁨, 슬픔을 공유하며 ‘반려’하는 가족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교과서 속의 가족담론 변화는 단지 외부에서 이식된 담론으로만 변화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교육적 작용, 거주 공간의 변화, 가족 형태 등과 연동되어 그 변화의 단초들이 싹터 왔다.

3) 가족 구성원의 ‘가족돌봄노동’ 변화

본 절에서는 가족의 역할을 ‘생계 부양’, ‘가사노동’, ‘양육’ 등 ‘가족돌봄노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그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²³⁾ 가족 구성원은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이므로 1-2학년을 기준으로 조부, 조모, 부, 모, 언니/누나, 형/오빠 등으로 나누어서 각 구성원의 ‘가족돌봄노동’과 관련한 삽화의 변화상을 살펴보겠다.²⁴⁾

23) 돌봄노동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자기돌봄에 대한 논의까지 그 연구의 폭이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대별 성별 가족 구성원의 모든 역할을 ‘가족돌봄노동’으로 아울러서 그 삽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24) 교과서 속 주인공과 관계에서 동생(남동생, 여동생)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들은 돌봄의 대상이 되므로 동생(남동생, 여동생)에 대한 삽화는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① 아버지의 역할

교수요목기 참고서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생계부양’과 관련된 삽화가 확인된다. 1940~50년대에는 농업, 어업, 광업, 상업, 공업 등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는 모습을 제시하였고 1970년대 이후에는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아버지께서는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가시고, 저녁에 돌아오십니다.”²⁵⁾라는 교과서의 설명도 집 밖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계 부양을 담당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부각한 것이다.

2009 개정 (2011/2013) 이전 아버지의 역할 관련 삽화



아버지의 ‘가사노동’에 대한 삽화는 전 교육과정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교수요목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까지 아버지의 “여러 가지 집안 일”²⁶⁾은 위의 삽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의식주 영역의 가사노동 중에서도 ‘주택 개보수’였다.

25) 『사회』 1-2, 1965, 8면.

26) “아버지께서는 (중략) 집에서도 여러 가지 집안 일을 하십니다.” 『사회』 1-2, 1965, 8면.

그렇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 아버지의 가사노동 범위는 변화한다. 기존 삽화에 없었던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 삽화가 추가되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음식 만들기, 설거지 등이 추가되었다. 주거 생활과 관련해서도 주택 개보수가 아닌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역할이 삽화로 그려졌다.

2009 개정 (2011/2013) 이후 아버지의 역할 삽화



아버지 역할이 기존의 성역할에서 탈피하여 이처럼 다양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 노동 구조 속에서 여성의 교육과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젠더화된 성역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등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의 성과였다.²⁷⁾

이외에도 정부 정책과 제도의 변화 및 인식의 변화가 아버지 가사노동 영역의 변화를 촉발하였다. 여성운동의 성과는 1990년대 정부 정책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199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7) 한국가족과 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이효재의 연구 궤적을 확인해 보아도 1980년대 이후 여성연구가 활성화, 심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문소정, 「이효재 가족연구에 대한 고찰 : 한국가족·여성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역사적 발전」, 『가족과 문화』 16(2), 2004).

2001년에는 여성부가 설립되었으며, 다시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2008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와 법 제정은 양성 평등에 기반한 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촉진하였고,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가사일 분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가사일 분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는 통계청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99년부터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생활시간조사’를 시행하여 기혼자의 성별 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해 왔다. 이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노동이 1999년 하루 평균 33분에서 2019년 64분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 학계의 노력, 2000년 이후 법과 제도의 마련,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실제 아버지 역할의 변화 등 가족담론의 변화가 교과서 삽화에도 반영된 것이다.

또 가족 거주 공간의 변화도 아버지 가사노동 영역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7차 교육과정에서 가족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아파트가 부각되어 설명되었다. 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00년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거주 호수는 1,265,991호였던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수는 5,231,252호로 다세대 주택 대비 아파트 거주 호수가 5배 정도 많았다. 또 2000년 500만 호였던 아파트 호수는 2022년에는 1,100만 호를 넘어서었다. 가족이 거처하는 ‘표준공간’이 바로 아파트가 된 것이다. 주택에서 아파트로 가족 공간이 대진환하면서 주택 개보수를 담당하던 아버지의 가사노동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 및 전문 노동자들이 담당한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2009 개정 (2011/2013) 아버지의 역할 삽화



아버지는 ‘생계부양’, ‘가사노동’ 이외에도 위 삽화와 같이 ‘양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설명되고 있다. 아이의 재롱을 지켜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의 수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양육을 실천하는 역할이 부각된 것이다.

이상 아버지 가족돌봄노동 삽화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가사노동의 영역이 변화되고 양육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 증대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 축소 및 가족 형태의 변화와 관련되는데 어머니, 언니/누나(딸), 할머니 등의 삽화와 연관하여 살펴보겠다.

②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가족돌봄노동 관련 삽화는 교수요목기-1차 교육과정기, 2차-7차 교육 과정기, 2009 개정 이후 시기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2009 개정 이후 시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아버지의 역할 증가로 어머니의 역할이 감소된 모습을 보였다면 2차-7차 교육 과정기에는 언니/누나(딸), 할머니의 역할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역할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생계부양’과 관련한 삽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교과서 ‘가족단원’에서 어머니의 ‘생계부양’과 관련한 모습은 교수요목기-1차 교육과정 교과서 ‘가족단원’ 삽화에서 그 초기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교수요목기(-/1946), 1차(-/1954) 어머니의 역할 삽화



(나)

교수요목기 참고서에서 어머니는 농업, 어업, 광업, 상업 영역에서 활동하고 이외에도 근대 공장, 병원, 사무실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이미지로 그려지

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근대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및 지향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가계의 생존을 위한 어머니의 가계부양 활동을 드러낸다. 특히 (나)는 어머니가 봇짐을 이고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1차 교육과정기 삽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추할 수 있다. 1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시기가 한국전쟁 이후였다는 점은 어머니들이 ‘가계부양을 위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 국가는 한국전쟁기 부상으로 활동 능력을 잃은 아버지들을 대신하여 가계부양에 있어서 여성의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하였다. 모든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어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라는 의미로 1955년 8월에는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였다. 같은 1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어머니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 어머니 가슴에 꽃을 달아 드리자. 어머니 어머니 고맙습니다.”²⁸⁾라고 하여 어머니날을 교과서 내용으로 수록하고 있다. 즉, 1940-1960년대에 어머니의 ‘생계부양’ 활동은 경제지표 상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가계 생존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과서 삽화에서도 그 단면을 그려낸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어머니는 여러 ‘가사노동’ 중에서도 ‘의복’을 짓거나 수선하고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양육에 있어서는 어린 갓난아이를 보살피는 삽화가 주로 나타난다.

교수요목기(-/1946), 1차(-/1954) 어머니의 역할 삽화



28) 『사회 생활』 1-2, 1955, 48면.

그렇다면 아버지와 함께 가족의 생존을 위한 ‘생계부양’을 담당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나머지 ‘가사노동’의 부족분은 누가 메꾸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언니/누나, 할머니 등 또다른 가족 내 여성 구성원들이 주목된다.

③ 언니/누나의 역할

1970년대 이전 교과서에서 ‘가사노동’의 공백을 메꾸어 준 가족 구성원은 주로 언니²⁹⁾/누나로 호명되는 딸들이었다. 언니/누나는 교수요목기와 1차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주로 부엌에서 가족의 식생활을 담당한 가사노동 삽화에 확인된다.

그렇지만 2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부터 이러한 삽화는 생략되었다. 대신 2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누나의 역할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을 도우며, 심부름도 합니다. 내가 공부할 때에는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³⁰⁾라고 하여 집안 청소를 돕거나 동생을 교육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는 여성교육의 확대와 연결된 변화를 드러낸다. 즉 1960년대에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정착됨에 따라 남녀 모두 90% 이상 취학하였다. 또 1966년경 여성의 중학교 취학

29) 언니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동성의 순위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주로 여자 형제 사이에 많이 쓴다.”라고 하였다. 즉 동성의 순위 형제로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이지만 주로 여자 형제 사이에 많이 쓰인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언니’는 현대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자 형제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 의미를 제한하였으며, 뒤에서 제시한 형 역시 주로 남자 형제 사이에 많이 쓰는 용어로 그 의미를 제한하였다. 이렇게 ‘언니’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힌 이유는 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 등장하는 ‘언니’라는 용어가 남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교과서에서 ‘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수요목기와 1차교육과정기 근현대 국어사전(『수정 증보 조선어사전』(문세영, 1940), 『큰사전』(한글학회, 1947-1957))에 따르면 언니는 형과 같으며 형은 동기 중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거나(『수정 증보 조선어사전』) 언니는 형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형은 “동기(同氣)나 또는 같은 항렬(行列)에서 사내나 계집의 같은 편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큰사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1960년대 이전에 ‘언니’라는 용어는 여성 형제들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언니’는 남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므로 오늘날 남자 형제를 의미하는 ‘형’의 집안일을 의미한다. 1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제외하면 이러한 ‘언니’에 대한 용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30) 『사회』 1-2, 1965, 10면.

률은 33%였으며, 1970년 46.5%, 1975년 67%, 1980년 92.6%, 1999년 99.9%였다. 이러한 초중교육 수치의 변화는 언니/누나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드러낸다. 동시에 언니/누나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대상이 되면서도 동시에 가정 내에서 동생들을 교육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던 대상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요목기 (-/1946)	2차 (-/1963)	3차 (-/1973)
		

그렇지만 3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언니/누나도 가정 내 역할이 학업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966년경 19.6%에 불과하였지만 1970년에는 24.1%, 1975년에는 35.8%로 상승하였고, 1980년에 62.2%, 1999년에 99.38%에 이르렀다.³¹⁾ 이처럼 여성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언니/누나의 가족 내 역할도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교육의 주체로 그려지게 된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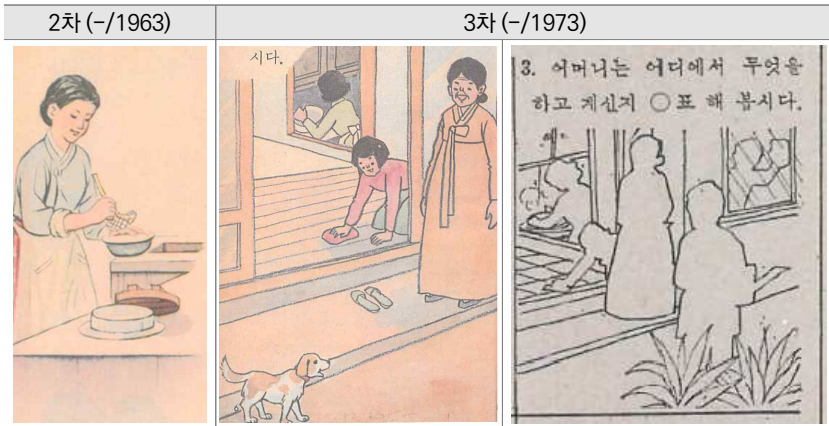
2차 교육과정 교과서까지 언니/누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사노동’과 동생 돌봄이라고 하는 ‘양육’에서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렇지만 3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언니/누나가 교육의 주체가 되면서 ‘가사노동’ 특히 부엌일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공백이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공백은 어떻게 채워졌을까?

언니/누나가 담당하였던 부엌일은 어머니에게 전가되었음이 아래 삽화에

31) 여성교육[女性教育]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32) 4차 교육과정에서 아동의 학습을 돕는 주체는 언니/누나가 아니라 어머니로 변화한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언니/누나의 부엌일 삽화가 없어진 2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어머니의 부엌일 삽화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3차 교육과정 지도서에 서는 부엌일이 어머니의 역할임을 확인하는 학습 활동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위 3차 교육과정의 지도서는 교과서 삽화를 다시 확인하는 학습 활동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확인하는 학습 활동은 없다. 오직 “어머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표 해봅시다.” 라는 학습 활동만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어머니가 부엌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학습하게 되고 어머니 역할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이는 곧 어머니의 역할이 ‘의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도 전담한다는 인식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었다.

④ 할머니의 역할

할머니도 어머니의 가사노동과 양육을 도왔다. 그중에서도 할머니는 젖을 떼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삽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교수요목기 (-/1946)	3차(-/1973)	6차(1992/1995)
		

이외에도 할머니는 간단한 청소나 텃밭을 가꾸고 어머니의 부엌일을 보조하는 역할로 그려진다. 특히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일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는 언니/누나의 가사노동 역할이 축소되면서 할머니가 보조자로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4차(1981/1982)	2009 개정(2011/2013)
	

이후 2009 개정에서 할머니는 집 안의 화초를 가꾸는 역할로 그려진다. 앞서 가족 형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2009 개정 시기에는 ‘노인부부세대’의 가족 형태가 새롭게 삽화로 등장한다. 자녀, 손자들과 거주 공간을 분리하여 따로 사는 노인 부부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삽화에서도 할머니의 양육이나 가사노동보다는 식물 돌봄 활동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할머니가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확대가족 형태에서 손자들의 양육과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으로 묘사하였지만 2009 개정 이후에는 거주공간을 분리하여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여가생활을 삽화로 드러냈다. 동시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에서 할머니의 양육 및 가사노동 삽화의 공백은 아버지의 가사노동과 양육 삽화로 채워졌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⑤ 할아버지, 형/오빠의 역할

할아버지와 형/오빠(아들)의 가족돌봄노동 삽화는 다른 가족구성원들에 비해서 출현 빈도가 낮다.

교수요목기 (-/1946)	3차(-/1973) 이후	2009 개정(2011/ 2013) 이후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삽화는 교수요목기에 봉양을 받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1, 2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3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에서는 화단 가꾸기, 마당 쓸기 등의 가사 활동이 나타난다. 2009 개정 이후에는 6인 확대가족의 식사 자리나 친족들의 모임에서만 등장한다.

언니/누나의 삽화가 3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과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것과 달리 형/오빠의 삽화는 교복을 입은 학생 삽화나 남동생을 돌봐주는 삽화 정도가 확인된다. 형/오빠는 가계를 계승할 장자의 지위로 연결되는 만큼 학교 교육을 잘 받는 것이 그의 주된 역할로 그려진 것이라 생각된다.

조부와 형/오빠의 ‘가족돌봄노동’ 관련 이미지는 교과서 ‘가족단위’에서 중 심 삽화가 아니었다. 이들은 집안에서 ‘가장(家長)’이자 ‘장남(長男)’으로 호 명되며 집안에서 1인에게만 개별적으로 전수되는 별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과서에서 그들의 가족돌봄 역할은 오히려 축소, 생략되어 묘사되었다. 이러한 조부, 형/오빠의 역할에 대한 교과서 내용의 축소와 생략은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게 된다. 가장, 장남의 역할에 대한 미지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권력의 원천이 되거나 특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초창기 교과서 ‘가족단원’에서 축소, 생략된 조부, 형/오빠의 역할에 대한 내용 및 삽화는 이후 교과서에서도 특별한 변화 없이 지속되었고 어찌면 외면되었다. 이들의 역할에 대한 교과서의 생략과 축소가 초기에는 비록 권력과 특권의 발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가족 내에서 그들의 입지 축소, 권한의 약화로도 읽혀진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교수요목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기까지 교육과정의 흐름을 살펴보고, 초등학교 1-2학년 사회과 교과서 및 통합교과서의 ‘가족단원’ 내용을 파악한 후, 가족 형태와 가족돌봄노동과 관련한 담론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가족단원’은 미군정 시기인 1946년 적용된 교수요목의 틀이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 서사가 근대화과 도시화가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서사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형태, 가족 구성원과 역할, 가족 관련 윤리 등의 측면에서 모두 나타났다.

삽화에 나타난 가족 형태는 정부가 가족계획을 통해 지향하는 ‘표준가족모델’의 형태가 주로 그려져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 요건이 고려된 삽화가 보완되었다. 즉, 5인 핵가족/불완전한 확대가족 → 4인 핵가족/6인 확대가족 → 4인 핵가족/6인 확대가족/3인 핵가족 등 가족 형태에 있어서 표준가족모델 담론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가족 현실과 가족담론을 수용하면서 ‘표준’, ‘정상’에서 벗어난 현실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다각도로 수록하였다. 2015 개정 교과서 ‘가족단원’ 삽화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확장된 담론의 내용이 포

함되었다. 가족의 외연을 혈연관계로 확장하면서도 ‘친밀성’과 ‘서사성’이 고려된 가족담론을 포괄한 삽화가 제시되었다. 또 중간 경계를 허무는 방식의 가족담론이 수용된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다.

삽화에 나타난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는 ‘생계 부양’, ‘양육’, ‘가사노동’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가족돌봄노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관점에서 조부, 조모, 부, 모, 언니/누나(딸), 형/오빠(아들)로 가족 구성원을 나누어 가족돌봄노동의 영역과 그 변화를 검토하였다.

아버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부터 가사노동의 영역이 주택개 보수에서 의식주 가사노동으로 변화하였다. 어머니는 2-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었다. 언니, 누나 등 딸들은 교수요목기-1차 교육과정까지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의 담당자로 묘사되었지만 3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교육의 주체로 그려졌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보조하는 가사노동과 양육을 담당하였지만 2009 개정 이후 화초를 기르는 역할로 묘사된다. 할아버지와 형/오빠의 삽화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가족 역할과 관련한 70여 년 동안 삽화의 변화는 큰 틀에서는 남녀성 역할에 따른 기능주의적 가족담론에서 점차 양성평등 담론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변화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초등 1-2학년 사회과 교과서 ‘가족단원’의 내용과 삽화는 가족관련 제도, 연구 성과, 가족현실을 망라한 각 교육과정기의 가족담론이 집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족 유형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변화하였고 가족 역할은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와 연결하여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다른 구성원으로 대체되거나 또는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초등 1-2학년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가족 표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담론을 다루었다. 여기에 내재된 가족 간의 윤리나 가족과 국가의 관계 등의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며, 3-4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담론도 살피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운선, 「제7차 사회·문화교과서의 ‘가족단원’에 대한 비판적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 49(2), 2010, 33~50면.
- 국가 교육 과정 정보 센터 <https://ncic.re.kr/mobile.index2.do>
-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 류도향·추주희 외, 『가족커뮤니티인문지표연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문소정, 「이효재 가족연구에 대한 고찰 : 한국가족·여성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역사적 발전」, 『가족과 문화』 16(2), 2004, 171~206면.
- 박남수, 「초기 사회생활과 교수 요목에 영향을 끼친 미국 근대 교육과정의 구조와 특징」, 『사회과교육연구』, 17(1), 2010, 1~16면.
- 박윤경, 「초등 사회과 가족 단원에 대한 내용 분석 : 가족 다양성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연구』 37(3), 2005, 51~84면.
- 백선영, 「초등 사회과의 ‘다양한 가족’ 담론에 대한 대안 탐색 : 가족 실천의 관점으로」, 『사회과교육』 60(1), 2021, 77~92면.
- 서재천, 「초등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내용의 변천 고찰」, 『초등사회과교육』 17(2), 2005, 3~25면.
- 오지영,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3학년 사회 교과서의 ‘가족’ 묘사 분석 : ‘가족’ 단원과 타 단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교육전문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9.
- 유계숙·최연실·성미에 편역,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도서출판 하우, 2017.
- 이준일, 『가족의 탄생』,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 제이버 구브리움·제임스 홀스타인, 최연실·조은숙·성미에 옮김, 『가족이란 무엇인가? :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가족담론』, 도서출판 하우, 1997.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가족의 의미 및 가족관 관련 인식 조사(on-line 조사)> 리서치보고서, 2021. <https://www.riss.kr/link?id=A108857770>
- 추주희·나영정 외,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가족실천 및 가족 상황 차별 실태조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함종규, 『韓國教育課程變遷史研究』, 교육과학사, 2003.
- 홍웅선, 「최초의 사회생활과 교수 요목의 특징」, 『한국교육』 19(1), 1992, 23~46면.

| Abstract |

Changes in Family Discussion through Elementary School Textbooks

- Focusing on Social Studies Textbooks for 1st and 2nd
Graders and Integrated Textbooks -

Park, Misun · Sin, Hangsu

We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family-related curriculum from the 1946 U.S. Military Government syllabus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By examining illustrations of family-related units for first and second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we confirmed changes in the expressions of family types and family care labor shown in textbook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re was a change in the ‘standard family’ discourse in terms of family type. This was in response to the family planning polic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he family shown in textbooks changed from a nuclear family of 5/incomplete extended family of 6 to a nuclear family of 4/extended family of 6, and a nuclear family of 4/extended family of 6/nuclear family of 3.

Second, in recent textbooks, the discourse of ‘diverse families’ has been accepted and expanded in terms of family types. Starting from the textbooks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various forms of real families that deviate from the ‘standard’ or ‘normal’ were expressed in illustrations, reflecting actual reality and changed family discourse.

Third, with regard to gender roles, it was confirmed that the ‘early functionalist family discourse’ has recently changed into a ‘gender equality discourse’. This change can be found in the expression of illustrations related to the family care work of family members such as grandfather, grandmother, father, mother, older sister, older brother in ‘supporting a living’, ‘housework’, and ‘custodial care’.

Key Words: Family discourse, family type, family role,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subject

| 기획특집 |

게이 남성 관계·돌봄 실천의 조건: 첫 세대 비(이성애)혼 게이커뮤니티의 명암

김대현·이유나*

목 차

1. 들어가며	4. 성적 활력의 문화 속에 소외되는
2. 결혼하지 않은 첫 세대 게이 남성의 사회적 배경 및 조건	존재들과 커뮤니티 내부의 차이
3. 게이커뮤니티의 사회적 관계와 재생산 방식	5. 나가며

■ 국문초록

1990년대 들어 이성애 결혼하지 않은 한국의 첫 세대 게이커뮤니티가 나타났다. 이는 동성애가 ‘변태’가 아니라 자긍심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과, 그것을 가능케 한 이성애 결혼하지 않는 동료 게이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업소 및 단체의 부상 등 문화적 조건의 확립 덕택에 가능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게이 남성은, 이성애 사회로부터 비가시성이 강제된 게이커뮤니티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기 어려운 원가족과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해나갔다. 이로부터 형성된 게이커뮤니티의 분절적 사회성은, 어떤 게이 남성에게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형태로 차용하여 그 속에서 관계와 돌봄을 실천하는 전략으로 전개되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는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게이 업소와 게이인권단체, 게이 취미모임 사이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흐리는 난잡한 실천을 통해 돌봄의 관계망을 한층 의미 있게 만드는 시도로 확장되기도 했다. 한편 게이커뮤니티의 성적 활력은 강제적 이성애 사회로부터 낙인찍

* 김대현(제1저자), 가족구성권연구소 운영위원 / 이유나(공동저자), 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대표

힌 저항이면서, 동시에 게이커뮤니티의 구성원들에게 강제적 성애 문화의 한 계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성적 활력 및 매력 자본과 연계되어, 청년, 비환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성적 활력의 소유자, 업소에서 일정 구매력을 갖춘 유산자 등 게이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그 속에서 관계·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표준을 형성했다. 이는 이성애 결혼하지 않은 첫 세대 게이커뮤니티로서 관계 및 돌봄의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커뮤니티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향후 게이커뮤니티 내의 관계와 돌봄이 위계와 차별 없이 실천될 수 있을 쿼어 가족정치의 과제를 요청하고 있다.

주제어 : 게이, 쿼어, 게이커뮤니티, 돌봄, 강제적 이성애, 강제적 성애, 쿼어 가족정치

1. 들어가며

게이 남성은 시스젠더이자 남성으로서는 사회 속 주류의 입장을 갖지만, 동성애자의 차원에서는 이성애 중심의 사회 구조 가운데 열위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다. 이성애 결혼이 관계와 돌봄의 표준으로 여겨지는 국가와 사회에서,¹⁾ 게이 남성은 이성애중심주의의 “독재” 아래 기존의 이성애 정체성과 경합하고 협상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게이로 정체화하고, 자신의 인간관계와 삶을 꾸려나가게 된다.²⁾ 이렇게 게이 남성 스스로 이성애규범적인 가족 질서의 롤모델을 단념하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관계와 돌봄을 수행하는 것은, 기존의 가족규범에 대해 일정한 변형 및 해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쿼어 가족정치’의 씨앗을 품고 있다.³⁾

이성애 결혼을 단념하고 동성애자로서 관계와 돌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결

1)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 감정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오월의봄, 2023[2004], 297면.

2) 서동진, 「커밍아웃 1 : 세상 속으로 나서는 어떤 남성동성애자의 결단에 관하여 - 남성 동성애자의 정체성과 그 정치화」,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문예마당, 1996, 120면.

3)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봄, 2022, 14~15면.

단은, 그저 주어진 것이거나 개인의 강단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비단 성소수자를 넘어 인간에게 필요한 돌봄에는 개인간의 1:1 돌봄 외에 커뮤니티·친지·이웃으로 구성된 “둘레 세계”, 또 그것을 상회하는 사회의 연대로서 돌봄의 망이 동심원처럼 존재한다.⁴⁾ 특히 이성애규범적 사회를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자기 보호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뚫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느끼는 감각의 내용에 맞게 재정체화하여 그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관계맺는 일은 성소수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된다.⁵⁾ 또 이러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일은, 남성·백인·이성애자를 표준으로 구성된 공적 공간에 대해 성소수자 스스로 권리를 되찾는 운동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⁶⁾

동성애자들이 자신과 유사한 존재를 만나 자신의 성적 지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동성애자로 정체화하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와 돌봄을 꾸려나가는 일에는, 이렇듯 개인의 역량을 넘어 동성애자 당사자 및 지지자로 구성된 관계망과 거기에 결부된 사회문화적 자원이 요구된다. 더불어 그러한 사회문화적 요소와 관계 자원들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자연히 그 모습을 달리한다. 가령 1990년대에 비로소 가시화된 한국의 동성애자들과 그들의 커밍아웃 선언 또한, 이전까지 축적되어오던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관계 및 그들의 사회문화적 역량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게이 남성의 관계와 돌봄을 다룰 때 그들을 둘러싼 게이커뮤니티의 구성과 그것이 갖는 동시대적 맥락, 그리고 그것의 변화상을 함께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서 생긴다.

한국 게이 남성의 삶과 그것을 가시화하거나 비가시화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그간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먼저 서구의 동성애

4) 캐슬린 린치·주디 월시, 「사랑, 돌봄, 연대: 상품화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옮김,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6 [2009], 64, 81면; 김영옥·류은숙, 『돌봄과 인권: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코난북스, 2022, 201~202면.

5) 켄지 요시노, 김현경·한빛나 옮김, 『커버링: 민권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민음사, 2017[2006], 85, 126~127, 269~270면.

6) 너털 퓨워, 김미덕 옮김, 『공간 침입자: 중심을 교란하는 낯선 신체들』, 현실문화, 2017[2004], 105~113면;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오월의봄, 2023[2004], 355~356면.

처벌법에서 연원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인 균형법에 착안하여 그것이 이성애·남성중심적 한국사회와 갖는 관계를 탐구한 연구를 비롯하여,⁷⁾ 한국사회 특유의 가족주의가 강제한 이성애 규범과 관련하여 1980년대 이전 한국의 심리학계와 정신의학계가 동성애를 병리화하는 지식을 재생산하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 발언권을 얻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포착한 연구 등은,⁸⁾ 현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 스스로를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게끔 하고 비가시성을 추동하게 만든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규명에 다름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들어 게이 남성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고, 이성애 규범을 따르지 않는 성소수자의 삶의 형태를 창안해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성소수자 가시화가 어떻게 가능했고 그것이 어떤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동시대에 창립된 성소수자인권운동 단체의 존재에 주목한 연구가 있고,⁹⁾ 다음으로 서울의 종로·이태원 등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게이 대상 업소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¹⁰⁾ 이렇듯 게이 운동단체 및 게이업소를 비롯한 게이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은 오늘날 통용되

7) 정성조·이나영, 「보이지 않는 군인들 : 한국 군대 내 동성애혐오와 성소수자 정체성」, 『문화와 사회』 26(3), 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8) 김대현, 「정신의학자 한동세(韓東世)의 문화정신의학과 여성 및 비규범적 성애·성별 배제의 성격」, 『동방학지』 18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 김대현, 「1960~70년대 한국 정신분석학의 반공·냉전적 재편과 젠더·섹슈얼리티 낙인의 형성 : 정신의학자 백상창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0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 김대현, 「소년비행의 개인적 요인 담론과 반사회성 형성의 지식·제도 : 범죄심리학자 성백선과 장병립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88,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4.

9) 최선옥, 「한국 게이 운동의 담론 분석 : ‘친구사이’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친구사이, 「친구사이와 한국의 게이 인권운동」, 『진보평론』 49, 진보평론 편집부, 2011 ; 배재훈, 「게이 남성 합창단의 문화 정치학」,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2 ; 김대현, 「성소수자인권운동 연대체의 자리찾기」, 『내일을 여는 역사』 79,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 2020.

10) 조성배,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3 ; 김대현(터울), 「1990년대 말 이반업소정보지 『보릿자루』를 통해 본 게이 커뮤니티의 형성 : 기혼이반 논쟁과 섹슈얼리티 검열을 중심으로」, 『퀴어인문잡지 빠라』 3, 노트인비트윈 2016 ; 김대현, 「종로3가 게이 계도의 역사와 게이커뮤니티의 형성」, 『선계이서울 : 지보이스 스토리북 창단 17주년 특별판』, 2019.

는 ‘게이커뮤니티’의 규정에 근접한다.

이 가운데 게이 남성이 자신에게 강제된 이성애 결혼 규범과 어떤 식으로 협상하고, 그것이 게이커뮤니티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가능해지는지에 주목한 연구도 제출되었다. 가령 소위 ‘은둔’이라 불리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주위 사람에게 가급적 밝히지 않는 동성애 수행 남성들이 특정 게이업소와 관계맺는 방식에 주목한 연구를 비롯하여,¹¹⁾ 게이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성애 결혼에 대한 압박이 적었기에 게이로서 정체화하는 데 동년배들보다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60대 게이 남성 대상 구술사 연구,¹²⁾ 나아가 ‘게이 게토’라 불리는 지역이 성매매집결지이기도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남성 동성애 수행의 문화와 정상가족 안에서 성적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 비규범적 여성성과의 연결고리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왔다.¹³⁾

이러한 연구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게이 남성의 삶과 경험을 돌봄과 결부된 퀴어가족정치의 맥락으로 적극적으로 독해하는 시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이 연구에서는 게이 남성의 돌봄 실천과 그것의 퀴어가족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기 위하여, 게이 남성 스스로 이성애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기 시작한 1990년대의 사회문화적 조건과 그것의 변화상을 추적하고, 그것이 게이 남성 개인의 관계·돌봄 수행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게이 남성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확인하고 자신과 비슷한 존재들을 확인하는 공간이자 장으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게이커뮤니티를 주목하고,¹⁴⁾ 그곳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관계와

11) 임동현, 「동성애적 정체성 형성의 퀴어이론적 분석 : 노년 게이 남성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2) 김대현, 「1980~90년대 게이 하위문화와 대안가족의 구성 : 제도적 이성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2(1), 한국구술사학회, 2021.

13) 김대현, 「워커힐의 ‘다바’에게 무대란 어떤 곳이었을까 : 1960~70년대 유흥업과 냉전 시대의 성문화」, 오혜진 기획, 『원본 없는 판타지 :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2020 ; 김대현, 「게이와 페미니즘」, 『문화/과학』 104, 문화과학사, 2020.

14) 2010년대 이후 온라인 게이커뮤니티의 성취와 명암을 세밀히 추적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이 주목된다. 임동현, 「디지털 미디어 시대 게이 하위문화의 상징권력과 문화정치 : 2010년대 이후 한국 게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돌봄이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체감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게이커뮤니티는 그 자체로 논쟁적인 개념이면서 커뮤니티 속 누군가를 배제하고 주변화하는 현상이 그에 수반하기도 하는 만큼, 이러한 현상들이 게이 남성의 관계·돌봄 수행 가운데 어떠한 변곡점을 낳는지도 함께 주목하고자 한다.¹⁵⁾

이 연구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1명의 게이남성을 질적 인터뷰하였다. 각 인터뷰는 2~3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참여자 C의 경우 2회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질문은 주로 원가족·파트너·게이커뮤니티 돌봄 및 게이커뮤니티와 돌봄 일반에 대한 인식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시	출생년도	주요 돌봄대상	직업/소득	인터뷰 당시 가족상황
A	71년생	원가족	직장인/연3천이하	독거
B	70년생	원가족	직장인/무응답	원가족과 동거
C	72년생	커뮤니티	직장인/월400	원가족과 동거
D	63년생	파트너	전업돌봄/기초생활수급	파트너와 동거
E	58년생	파트너	전업돌봄/기초생활수급	독거하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파트너집을 오가기
F	88년생	전 파트너	프리랜서/월350	독거
G	69년생	커뮤니티 원가족	자영업/무응답	형제와 동거
H	84년생	커뮤니티 파트너	직장인/무응답	파트너와 동거
I	68년생	커뮤니티 파트너	프리랜서/무응답	파트너와 동거
J	70년생	커뮤니티	자영업/연간1억	파트너와 동거
K	84년생	커뮤니티	활동가/프리랜서/월200	원가족과 동거

- 15) 가령 1994년 창립되어 스스로를 ‘커뮤니티 운동 단체’라 규정하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규정이 참고된다. 친구사이는 단체의 가치 가운데 하나로 “대안의 공동체”를, 비전 가운데 하나로 “커뮤니티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친구사이”로 규정하였다. 이는 사실로서 존재하는 커뮤니티와, 앞으로 만들어갈 당위로서 기능하는 커뮤니티 양자 모두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김대현(터울), 「게이커뮤니티 운동 약사, 1995~2000」, 『친구사이 소식지』 66,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5.12.30. 한편으로 ‘커뮤니티’를 운동이 타파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사용한 용례도 존재한다. 2002년 5월 25일 개최된 제1회 ‘게이 수치심(gay shame)’ 시상식에서 열거된 ‘커뮤니티’의 예는 다음과 같다. “게이 이름에 먹칠을 한 CEO, HIV 감염인을 퇴거시키는 게이 집주인, 노숙자 쿼어를 구타하는 게이 경찰, 쿼어 청소년 쉼터에 반대하는 게이 카스트로 주민들”. David M. Halperin, “Why Gay Shame Now?”, David M. Halperin & Valerie Traub eds., *Gay Sham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p.41~42.

2. 결혼하지 않은 첫 세대 게이 남성의 사회적 배경 및 조건

1)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시작과 비(이성애)혼 게이 남성의 세대적 등장

1993년 12월 한국인으로 구성된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초동회가 결성되었고, 이듬해인 1994년 2월 7일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1월 27일 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끼리끼리(현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초동회로부터 각각 분리 발족되었다. 1995년 6월 26일에는 위 두 단체를 포함한 4개 단위가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운동 연대체인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동인협)를 결성하였다. 발족 선언문에서 동인협은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존재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한국의 성소수자 혐오에 대해 성소수자 당사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적 성제도”에 부여되어온 “보편성”이 회의됨에 따라 “이성애의 위기가 보수화”된 결과라 평가하였다.¹⁶⁾ 이렇듯 1990년대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억압을 제도적 이성애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짓기를 시도하였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이러한 선언은 단순히 운동적 관점과 과제의 성립을 넘어, 그 운동이 지향하는 성소수자 사회의 재구성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안팎의 시선 속에 오직 계토화된 연애와 섹스만으로 규정되는 ‘동성연애자’에서, 동성애 성적 지향 및 이를 근거로 한 섹슈얼리티를 기반으로 삶의 양식을 새로 창안하는 존재로서 ‘동성애자’를 제창한 운동의 흐름과 연결되었다. 이는 게이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¹⁷⁾ 즉 제도적 이성애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새롭게 위치짓고, 그를 통해 이성애자 남성의 전형적인 성적·사회적 삶의 양식에 빗대어 스스로를 어떻게 달리 규정지를 것인가의 문제가 거기에 내포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게이인권운동 및 게이커뮤니티 형성의

16)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발족 선언문」, 1995.6.26., 김대현, 「성소수자인권운동 연대체의 자리찾기」, 『내일을 여는 역사』 79,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 2020, 165~167면에서 재인용.

17)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친구사이와 한국의 게이 인권운동」, 『진보평론』 49, 진보평론 편집부, 2011, 63면.

차원을 넘어, 스스로를 게이로 정체화하는 일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나아가 게이가 실천하는 관계·돌봄이 귀여한 것으로 식별되기 위한 조건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랬을 때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경험하였던 제도적·강제적 이성애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성애 결혼에 대한 압박이었다.¹⁸⁾ 그렇기에 당대 한국 사회의 혐오를 관통하여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재정의한 성소수자 정체성의 내용 가운데에는, 이성애 결혼에 대한 단념과 절연, 그를 통한 성소수자의 자긍심과 관계·돌봄 기술의 발명이 포함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와 더불어 그들과 교류하는 게이 남성들 대부분은 이성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20~30대 때 게이로 정체화하여 2024년을 기점으로 5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참여자 G는 자신을 포함한 동년배 게이 남성을 일컬어 “결혼하지 않은 첫 세대”라 불렀다. 참여자 C는 자기 세대에 이르러 게이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과 결혼하는 일이 나에게는 “너무 큰 자기 희생”이고, 상대방 여성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기에 그러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의 형태는 이성애 결혼의 각본을 따르기를 원하는 원가족의 압력과 경합하는 관계였다.

물론 “벽장을 없애는 건 결코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언급처럼,¹⁹⁾ 이러한 변화는 개개인의 결단으로만 추동된 것이 아니었고, 과연 어떤 사회문화적 조건이 1990년대에 이르러 그러한 결단을 비로소 가능하게끔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오랫동안 동성애를 비롯한 비규범적 젠더·섹슈얼리티 실천은 사회적으로 불온한 존재, 혹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나 하는 일로 간주되던 바 있다.²⁰⁾ 참여자 E는 자신의 동성애 성적 지향이

18) 이성애 결혼을 “안할 수 없는” 한국의 사회적 풍토는 한국에 동성애가 드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편견의 근거로 오랜 기간 활용되었다. 김대현, 「정신의학자 한동세(韓東世)의 문화정신의학과 여성 및 비규범적 성애·성별 배제의 성격」, 『동방학지』 18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3장 3절 참조.

19) 전해은, 「벽장의 인식론」, 『귀여 이론 산책하기』, 여이연, 2021, 326면.

20) 김대현, 「일본의 우생학에서 미국의 우생학으로 : 해방 이후~1950년대 한국의 소년범죄 담론」, 『역사문제연구』 49, 역사문제연구소, 2022, 329면.

할아버지에게 알려졌을 때, 과거 “머슴”이나 하던 짓을 한다며 자신을 “무시하고 혼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혐오를 극복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그 혐오의 방식과 다른 형태로 성소수자를 재정의할 수 있는 역량이었고, 그것의 중심에 있었던 것 중의 하나는 “너는 변태가 아니야라는 호명”(참여자 C)이었다. 또 그 호명이 삶의 실천으로 자리잡는 데에는, 나와 더불어 이성애 결혼을 하지 않고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주변 친구들” 및 “동갑내기들”(참여자 B), 그리고 그들과 “실질적으로 얹히”면서 만들어지는 “관계망”과 “문화적인 영향”(참여자 C)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즉 게이들이 이성애 결혼을 단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권운동 및 대도시에서 형성된 게이 문화권을 통해 만난, 나와 더불어 이성애 결혼하지 않는 동료 게이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1990년대 들어 새롭게 구성된 게이커뮤니티의 관계망이,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거기에 속한 게이들이 이성애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역량을 제공한 셈이다.

물론 기존 연구를 통해 잘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이성애 결혼을 단념한 한국의 게이 남성들은 존재했다. 그러나 참여자 E에 따르면, 이성애 결혼을 하지 않은 게이 남성 지인들 중 적지 않은 수는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으로 떠났고, 그중에는 한국에서 동성 파트너를 만난 후에 떠나거나 외국에 “그냥 간”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일본으로 떠난 참여자 E의 친구들 중 5명은 이후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정체화해 성확정수술을 마쳤다. 이는 1990년대 이전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 결혼하지 않은 게이 및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몹시 희귀한 언급이다. 동시에 이러한 희소성을 바탕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적은, 역설적으로 1990년대 전후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에 기반한 파트너 관계를 수행하고 삶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웅변해 주고 있다.

많이 나가고 외국으로도 많이 나갔어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한국에서 외국인 남자 만나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혼자 나가서 만난,) 여기서 나가고 만나서 나간 애도 있지만 그냥 간 애도 있어요. 유럽, 네덜란드도 제일 처음에 갔던 애가 우리 친구예요. [...]

(그런 방식으로 나가실 생각도 해보셨었어요?) [...] 외국[유럽]은 그것도 어느 정도 좋아해야지 그쪽으로 가죠. [...] 저 같은 경우에는 동양 사람을 좋아하니까. (지금 한 몇십 년 동안 일본에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 개들은 전부 다 저기 ‘카트’한 애들, (트랜스젠더,) 개들이 왔는데 전부 다 여자죠. (참여자 E)

따라서 그 이전 시기는 물론이고 1990년대에도 동성애 성적 지향을 지닌 채 이성애 결혼을 한 소위 ‘기혼 게이’의 사례는 많았다. 참여자 J에 따르면 그들은 대체로 “티가 안 나는” 채 “일반 커뮤니티에 편입돼” 살았는데, 그들의 삶은 자신의 성적체성을 “표방하고 사”는 첫 세대 게이의 삶과는 전반적으로 달랐다. 특히 “드러나지 않은 음지”에서 동성애를 욕망하거나 수행하는 기혼자의 사례는 레즈비언보다 게이의 경우가 더 많았는데,²¹⁾ 참여자 A에 따르면 그렇기에 1990년대의 게이들은 더욱이 스스로를 “1세대”라 감각하였다. 이렇듯 게이 남성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따르지 않는 형태의 삶에 도전한다는 뜻과 일정 부분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²²⁾ 이성애 결혼과 절연하고 자신의 성적 지향에 따른 삶을 결심한다는 것은, 곧 기존의 주류적 남성성 각본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삶의 조건과 양식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했다.

나아가 그 상상과 실천은 비이성애혼에서 출발하여 일정 부분 비혼의 삶과도 접맥하고 있었다. 물론 동성혼 및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의 법적 보장이 없는 상황 속에 그 비혼은 외부로부터 강제된 것이었지만, 그들이 게이 남성으로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수행한 비(이성애)혼은 이성애자 남성의 자발적·비자발적 비혼 및 그에 따른 안도감·박탈감 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²³⁾ 그것은 제도의 시선을 무릅쓰고 자신의 성적 지향에 좀더 부합하는 형

21) 여기에는 제도화된 이성애 결혼의 틀 안에서 여성보다 남성측이 얻을 수 있는 사회 자본이 더 컸기에 그로부터 절연할 것을 결심하기 더 어려운 사정이 존재했다. 기혼 게이들의 복합적인 입장과 위치에 대해서는 김대현, 「1980~90년대 게이 하위문화와 대안가족의 구성: 제도적 이성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2(1), 한국구술사학회, 2021, 61~63면 참조.

22) R.W.코넬,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05[1995], 100면.

23) 이른바 ‘비자발적 독신(Involuntary Celibate)’을 내세운 인셀(Incel) 남성이 수행해온

태로 관계와 돌봄을 수행하려는 지향에 힘입은 움직임이었다. 즉 이성애 혼인이 아닌 형태의 삶을 실천하는 일은 성소수자 고유의 관계·돌봄을 재구성하는 과제와 더불어, 세상이 말하는 혼인 바깥의 삶을 창안하는 과제와 무관할 수 없었다.

참여자 C는 그가 다니는 회사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커밍아웃한 뒤, 회사 내 비혼 여성들로부터 “혼자 사는 기술”에 대한 영감을 받는 기회가 많아졌고, 나이가 들수록 게이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비혼 독신”이라는 점이 스스로를 더 크게 규정지을 때가 많다고 언급했다. 물론 비혼 게이와 비혼 여성의 입장이 온전히 같을 수는 없고, 비혼 여성들이 수행하는 상호 돌봄 및 자기 돌봄에 비해 게이의 “혼자 사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뒤진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적어도 이성애 결혼하여 자식을 둔 경우 자신과 “관심사가 아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에, 비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깊은 공감대를 갖게 된다고 참여자 C는 술회했다.

나이 들수록 성 정체성에 대한 규정보다는 비혼 독신이라는, 싱글이라는 규정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공감대들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참여자 C)

2) 비(이성애)혼이기에 발생한 원가족과 게이커뮤니티의 양가적 관계

1990년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부상과 더불어, 게이 남성으로 사는 결단을 가능케 한 또다른 사회적 조건이 있었다. 바로 도심 속 특정 지역에 형성되어 온 게이업소들의 존재였다. 게이커뮤니티란 게이인권운동단체를 넘어서 그 이전부터 존재해온 게이업소들, 기타 게이 남성들의 모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용된다.²⁴⁾ 앞에서 본 게이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이곳 게이업소들에서도, 1990년대를 기점으로 업소 및 특정 지역 내에서 한정된 형태로나마 서

온·오프라인상의 성차별·여성혐오 관련 폭력의 패턴에 대해서는 로라 베이츠, 황성원 옮김, 『인셀 테러 : 온라인 여성혐오는 어떻게 현실의 폭력이 되었나』, 위즈덤하우스, 2023[2020] 참조.

24) 김대현(터울), 「게이커뮤니티 운동 약사, 1995~2000」, 『친구사이 소식지』 66,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5.12.30. 참조.

로를 확인하고, 게이의 정체성과 입장과 욕구를 숨기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격적인” 만남과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노력이 진행되었다.²⁵⁾

서울의 경우 종로에서는 70년대부터, 이태원에서는 90년대부터 게이 남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업소들이 속속 생기기 시작했다. 참여자 H는 종로·이태원의 “이쪽” 커뮤니티를 “친정”같다고 표현했는데, 게이커뮤니티에 두루 쓰이는 이 말은 곧 이성애자 남성과 구분되는 게이 남성의 입장과 그들이 수행하는 여성성의 증좌를 드러낸다. 과거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종로·이태원 게이/퀴어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스로를 성매매여성 및 유흥업소 종업원 여성에 빗대어 표현하는 관습이다. 이는 그곳에 있던 게이 남성 혹은 트랜스젠더 여성 또한, 성매매여성과 더불어 이성애 정상가족 규범을 위반한다는 의미에서의 비규범적 여성성을 수행한 당사자임을 뜻한다.²⁶⁾

한편 게이업소를 비롯한 게이커뮤니티는, 대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원가족에게 커밍아웃한 사람이 극히 적었던 당대 상황을 고려할 때 주로 일반 사회, 혹은 원가족과 분리된 공간으로 상상되었다. 그것이 분리된 공간으로 상정된 만큼, 극심한 사회적 낙인을 뚫고 그곳에 도달한 게이 남성들은 모종의 해방감을 느꼈다. 참여자 G는 게이 남성과의 인간관계를 향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그들과 성적 실천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의 장에 노출되는 것, 그러한 가능성의 장 안에서 서로를 확인하는 경험만으로도 일종의 돌봄을 체험하였다고 술회했다.

[게이들끼리 만날 수 있다는]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거랑, 내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내 선택의 문제야. 말을 할 수 있어. 이 사람한테 대시할 수 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자유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가능성이 박탈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잘하고 못

25) 김대현(서울), 「1990년대 말 이반업소정보지 『보릿자루』를 통해 본 게이커뮤니티의 형성 : 기혼이반 논쟁과 섹슈얼리티 검열을 중심으로」, 『퀴어인문잡지 뼈라』 3, 노트인 비트윈 2016 참조.

26) 김대현, 「게이와 페미니즘」, 『문화/과학』 104, 문화과학사, 2020 참조.

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수많은 게이들이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종로에 나오고 이태원에 가고, 그다음에 어플을 돌리는 거죠. (참여자 G)

이러한 정동에 대해, 참여자 I는 스스로를 돌이켜 “제 위를 보고 배운 것이 없”으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고 평가했다. 물론 게이업소와 커뮤니티에도 짧게나마 그 나름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바깥 사회와 이곳 사이에 놓인 장벽의 두께가 더 크게 감각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참여자 E는,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와서 기존의 사회 질서에 편입될 수는 없을 것 같다고도 언급하였다. 이렇듯 특정 장소에 고인 유대감과 해방감은, 곧 게이 남성의 관계와 돌봄이 유달리 그곳에 집중되게끔 만든 바깥 사회로부터의 고립 및 낙인과 서로 분리될 수 없었다.

어쨌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제 위의 세대를 보고 이렇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였잖아, 어쨌든 간에. (참여자 I)

(조카와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은 게 있으니,) 그런 거는 [친형 댁에]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한 게 있는데. 삼촌 어디 아프면 전화하라고 하는데, 개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가 않아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짐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 여지껏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이제 다 죽을 때 돼가지고 와서 [연락]한다는 게 내가 용납을 못하잖아요. 본인 자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 여지껏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저기 집에 들어간다는 게 힘들잖아요. (참여자 E)

더욱이 게이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일에 이성애자 여성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요구될 때, 그 결단의 내용은 자연히 게이 남성과 원가족과의 관계, 나아가 게이커뮤니티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대체로 원가족을 통하여 게이 남성에게 부과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게이 남성들은 원가족과 다양한 형태의 협상 전략을 취했고, 그것은 게이 남성이 게이커뮤니티와 관계맺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중 가장 손쉬운 전략은 원가족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리지 않고 최대한 숨기는 것이었다. 참여자 B와 참여자 C의 경우, 게이인권운동단체에서 오랜 기간 인권운동을 수행했음에도 원가족에게는 게이임을 커밍아웃하지 않았다. 참여자 D는 게이 파트너와 연애하면서 종로 게이 업소에서 “꼬마 신랑”으로 알려졌음에도, 자신과 파트너의 원가족들은 그들을 연인 관계가 아닌 “형동생” 관계로 알고 있었다. 참여자 H의 경우 파트너의 부모님이 소유한 건물의 한 층에 전세로 파트너와 함께 동거하고 있음에도, 파트너의 부모님은 그들을 “친구로만” 인지하였다.

게이 남성들이 원가족에게 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는 이유는, 한번 그것이 알려질 경우 여러 파국적인 일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자 G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 중 1997년 경 방송을 통해 원가족에게 게이임이 아우팅되었고, “가장 믿었던 아들이 호모 자식”이라는 것을 안 어머니는 큰 충격에 빠졌다. 참여자 G는 당시의 일이 “잊고 싶은” 기억이며, 자신도 물론 힘들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어디 하소연할 데 없었을 “부모님도 진짜 힘들었을 것”이라 회고했다. 참여자 E 또한 원치 않는 계기로 원가족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이 아우팅되었고, 이에 아버지는 그를 “감금”하여 작은 형이 있는 제주도로 보냈다. 참여자 E는 그 시절을 “귀양 산 것”이라 회고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원가족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참여자 F는 2010년대에 원가족에게 게이임을 커밍아웃하고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알렸는데, 이후 참여자 F의 부모님은 그와 그의 파트너에게 식사를 사주는 등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이 경험을 가리켜 그는 원가족으로부터 “처음으로 관계를 인정받”은 느낌이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원가족에 대한 커밍아웃의 결과가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는 현실과 거기에 얽힌 사회적 조건은, 대체로 게이 남성 스스로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은 고스란히 게이 남성이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는 자연히 원가족에 대한 커밍아웃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연결되는 사례가 참여자 B의 경우다. 참여자 B는 원가족과 대단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양친과 오랜 기간 한 집에서 지냈

지만, 자신의 성적 지향을 원가족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았다. 이에 원가족 구성원들은 참여자 B에게 이성애 결혼을 전제로 한 소개팅과 맞선을 수십년 간 줄기차게 권했다. 원가족과의 감정적 유대를 깊이 지닌 그조차, 집으로부터 큰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으로 그 때의 경험을 꼽았다.

제가 가장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그거였어요. [...] 소개팅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러니까 절반을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주위에서는 나를 늘 결혼을 꼭 시키고 싶고, 꼭 시키고 싶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고, [...] 정말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네. 진짜, 보니까. (참여자 B)

이성애 결혼에 대한 압박 외에, 게이 남성에게는 원가족과의 관계 속에 ‘아들’로서 기대되는 다른 사회적 역할에 대한 협상도 뒤따랐다. 원가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문제 때문에 많은 게이 남성들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데, 참여자 C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지 않은 채 홀어머니와 오랜 기간 한집에 산 경우다. 그는 “가족의 압력으로 부터 결혼하는 것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원가족으로부터 분리”할 적당한 이유와 명분을 찾지 못해 “나에 대한 애착”이 강한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이에 대해 그는 관계·돌봄 실천 과정에서 인식되는 어머니의 존재가 통상적인 모자시간을 넘어 때로는 “같이 사는 파트너”, 때로는 “돌보는 것 같은 만족감”을 주는 “자식”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게이 남성으로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원가족에게 쉽게 알릴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은, 원가족과의 관계를 넘어 자신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이커뮤니티와의 관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여자 C는 “엄마와 사는 것과 게이로 사는 게 대립”하는 현실 속에서, 전자를 위해 “게이 라이프”를 “캐주얼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방식으로 한정하고, 고정된 “게이 파트너를 선택하지 않”는 식으로 살았다. 즉 어머니가 그의 “라이프 파트너”이기 때문에 “다른 파트너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참여자 B 또한 원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탓에, 동성 파트너와의 동거는 자신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원가족에게 커밍아웃하지 않고도 원가족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

는 게이 남성이 그러한 조건을 통해 게이커뮤니티와 관계맺는 양상의 결은 서로 다양할 수 있다. 가령 앞에서 본 참여자 B는 가부장적이지 않은 아버지와 더불어 돈독한 가정 환경을 경험한 경우다. 그는 원가족으로부터 다른 관계로 대체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애정을 수급받기에, 커뮤니티에 대해 어떤 감정적 지원을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무언가 줄 수 있고 지원하고 싶은 대상으로 그곳을 인식하였다. 또한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고 자평할 만큼 원가족 구성원 사이에 정서적 결속이 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참여자 I의 경우,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스스로 “나쁜 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그것이 “특별한 점이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성적 지향에 따른 사회적 낙인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과 역량의 배경은, 참여자 I의 게이커뮤니티 및 인권단체에서의 활동에서도 일정 부분 유지되고 발휘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원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결과 게이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자 G의 경우 부친에 의한 가정폭력, 가족의 빈곤으로 인한 참여자의 일방적인 경제적 부양, 양친에 대한 병수발, 장애를 지닌 가족 구성원의 존재 등으로 인해 20~30대를 “피폐”하게 보냈다고 술회했고, 끊임없는 경제적 부양에도 집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데 대해 무척 괴로워했다. 그러한 “사막”과도 같은 원가족과의 상황 속에서, 게이커뮤니티는 그에게 일종의 “오아시스”같은 즐거움을 주는 장소로 각인되었다.

말하자면 약간 오아시스 같은 거죠. [...]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 따로 유리된 공간에서 손님들하고의 깊은 대화, 인간적인 교류,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 손님들과 내가 함께 즐거운 것도 오아시스. 가족은 항상 사막 같았지만. (참여자 G)

3. 게이커뮤니티의 사회적 관계와 재생산 방식

1) 인권단체와 취미모임과 게이업소 사이의 난잡한 경계

게이커뮤니티 안에 느슨히 묶여있는 게이인권단체, 게이업소, 게이 취미모임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하는 곳이지만, 한편으로 저 셋의

범주는 게이 남성의 퀴어한 수행을 매개로 서로 흐려지고 중첩되기도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그러한 경계 흐림의 의미와 실재를 잘 드러내는 게이업소 두 곳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03년 종로에 게이바를 연 참여자 J는 게이인권운동단체에서 굼직하게 활동한 사람이다. 먼저 1990년대 초창기 게이인권운동단체는 게이업소와 몇 가지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었는데, 참여자 G는 그것을 “섹스가 아닌 인간적인 만남”, 즉 게이바에서 만나는 관계에서 나눌 수 없는 힘든 개인사와 내밀한 집안 이야기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꼽았다. 당시 게이바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 네임” 형태의 가명을 쓰고는 했는데, 게이인권운동단체에서는 서로 본명을 내건 채로 대화하고 사귄 수 있는 점이 달랐다.

이 가운데 참여자 J가 게이바를 열게 된 경위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단체에서 게이 남성 관련 상담에 줄곧 응하다 단체 방문조차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좀더 문턱이 낮은 게이 남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는 취지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당대 게이업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밝은 분위기의 업장을 기획하고, 손님과 업주 모두가 게이바임을 드러내기 기피하던 시절 성소수자 대상 업소임을 드러내는 무지개 깃발을 입구에 내걸었으며, 2004년에는 1층 자리로 게이바를 이전했다. 지금은 비슷한 위치의 게이업소들이 많아졌지만, 행인들이 내부를 볼 수 있는 1층 자리에 게이바를 연 것은 당시로서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참여자 J는 현재의 게이 남성들의 경우 게이바 외 다른 일반 가게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과거에 비해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회고했다.

참여자 J가 연 게이바는 2004년 개업 이래 근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상가임대차 법제에 따른 상업문화 관행은 짧은 기간에 업장을 띄운 뒤, 임대한 상가의 권리금을 올려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그곳에서의 권리금 차익을 회수하고 빠지는 형태로 돈을 버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²⁷⁾ 그런데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영업하는 것은 그러한

27) 허자연·정연주·정창무,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사업자 변화에 관한 연구: 경리단길 사례」, 『서울도시연구』 16(2), 서울연구원, 2015, 31면; 황영숙·정쾌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임차인 이동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58, 한국주거환경학회, 2022, 188면.

권리금 차익을 포기한다는 뜻과 같고, 참여자 J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게가 잘 되면 비싼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약간 미련”하게 한 자리에서 오래 영업하는 이유로, 그는 이 곳을 “특수한 공간”이자 한국의 게이바로서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기를 바라서라고 말했다. 참여자 J의 언급에 따르면 실제로 외국에 나갔다 몇 년 만에 돌아온 손님들이 바를 찾아와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게이바를 통해 관계맺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1년에 두세번 긴급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사실상 참여자 J가 과거 인권운동단체에서 수행했던 상담 활동과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는 참여자 J의 게이업소 영업과 인권운동의 영역이 일정 부분 서로 겹쳐있음을 드러내주는 증거다.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가게가 잘 되면 비싼 권리금을 받고 팔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게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련해요.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약간 특수한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한국에도 서울에도 이렇게 좀 상징적인 공간이 꼭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게 또 이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고. (참여자 J)

두 번째 사례는 참여자 G가 2011년 연 게이바의 경우다. 참여자 G 또한 게이인권운동단체에서 활동하였고, 그 후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지쳐 일상의 낙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게이 남성들끼리의 살사 모임에 취미삼아 가입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삶의 큰 보람을 느꼈고, 이 때의 경험을 일컬어 그는 나와 “같은 복음을 누리는” 기분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리하여 이왕이면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게이바 영업을 시작했고, 여럿이서 춤을 출 수 있는 “카테일 바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임차했으며, 춤 연습에 필요한 여러 기자재들을 업장에 설치했다.

게이바를 연 후 참여자 G는 그곳에서 자신이 속한 취미모임의 행사는 물론이고, 노래와 춤에 능한 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문화 행사들을 오랜

기간 기획·진행했다. 그중 대부분의 행사는 “돈을 버는” 성격의 행사가 아니고, 여러 실무가 따라붙기에 매번 적지 않은 공력이 들었지만, 그는 그 행사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게이커뮤니티에 “일조”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같은 기조로 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여자 G의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그것을 보러 찾아오는 게이 남성의 감정은 ‘남자를 만나 섹스하고 싶다’는 “원초적인 단계를 벗어난 상위 단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했다. 동성과 섹스하고 싶은 욕망과 그것의 실천이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것이 더 넓고 다양한 범주의 인간관계와 사회 관계망 안에 놓일수록, 그 욕망과 실천과 그를 둘러싼 삶의 조건과 양식은 한층 다채롭고 풍요로운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게이업소 및 취미모임의 존재와 활동이 단순한 흥미나 경제적 이윤 추구로만 정리되기 어려운 모종의 ‘퀴어 즐거움’과 맞닿는 증거가 된다.²⁸⁾

이를 요약하면 첫 번째 사례는 게이인권운동의 확장, 두 번째는 게이 취미모임의 확장으로서 각각의 게이업소가 기획된 경우다. 이렇듯 게이 남성의 취미활동과 게이업소 출입과 인권운동 사이에는 모종의 난잡한 교집합이 형성되었다.²⁹⁾ 그로부터 창출되는 사회적인 것의 의미는, 그곳을 경험한 게이 남성 당사자에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것이었다.

28) 이러한 점은 책 헬버스탐이 퀴어/LGBT 힙합 그룹 딥 디콜렉티브(Deep Dickollective, 2000~2008년 활동)와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싱어송라이터 페론(Ferron Foisy, 1952~)의 활동에 대해 분석한 점과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는 퀴어 하위문화를 자본주의 ‘짐승’의 뱃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 삶과 시간성으로 의미화했다. Jack Halberstam, *In a Queer Time and Place: Transgender Bodies, Subcultural Lives*,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p.187. 또한 사라 아메드는 ‘퀴어 즐거움’이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상품으로 순환되는 속에서도, 이때까지 가로막혀온 “다른 몸에게 자신을 여는 즐거움”이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라 아메드, 시우 율김,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오월의봄, 2023[2004], 353~356면.

29) 이때의 난잡함/문란함(promiscuous)은 친족에 국한되지 않은 채 소수자들이 창안해내는 관계·돌봄의 구체적인 실천을 그들의 입장에서 전유하고 재의미화한 결과를 가리킨다. 더글러스 크립프, 김수연 율김,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의 문란한 사랑을 계속하는 법」(1987), 『애도와 투쟁: 에이즈와 퀴어 정치학에 관한 에세이들』, 현실문화, 2021[2002], 96면;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봄, 2022, 125~126면.

문화 행사를 즐기러 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사실 그건 원초적인 단계를 벗어난 상위 단계의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남자 만나고 싶다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응, 그거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런 문화 행사할 때 마지막 멘트로 그걸 꼭 쳐요. [...]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남자 만나고 싶은 거 참고서 여기 오시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다, (참여자 G)

끝으로 이러한 취미모임의 흐름은 2010년대 이후 SNS의 보급으로 인해 양적인 확장을 맞게 되었고, 그 계기 가운데 하나가 페이스북의 유행이었다. 2004년 출시된 SNS인 페이스북은 2000년대 말부터 국내 유저가 늘기 시작했고, 여기에 게이 남성들이 참여하면서 게이와 페이스북을 합성한 ‘게이스북’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 게이스북은 일반 페이스북 계정과는 달리 게이들이 주로 활동명이나 예명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흡사 과거 게이업소의 ‘바 네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또한 게시물을 친구 공개로 제한하여 이성애자들을 걸러내고 게이들끼리 온라인 공간을 향유하면서 그들끼리 사진과 영상, 글들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했다.³⁰⁾

참여자 H는 이 게이스북을 통해 게이 남성 간의 인맥을 늘리고 게이커뮤니티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하게 된 경우다. 게이스북은 소위 “이쪽” 취미모임의 양적·질적 성장에 큰 역할을 했는데, ‘폐친(페이스북 친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 모임을 결성해 노래 공연이나 춤 공연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게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라오면, 참여자 H는 “판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각”을 나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과, 내가 아는 게이 남성 친구가 “고생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 보러 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공연을 보러 가게 되었다. 또한 게이스북을 주요 홍보채널로 활용하는 취미모임들은 대개 타 모임의 단원들끼리도 서로 친하여, 한 모임의 공연에 다른 모임의 단원들이 스태프로 “품앗이”하는 일이 관행처럼 자리잡기도 하였다. 스스로 밝히기를 참여자 H는 “평소에 노래나 춤공연을 안 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연만큼은

30) 임동현, 「디지털 미디어 시대 게이 하위문화의 상징권력과 문화정치 : 2010년대 이후 한국 게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89면.

꼬박꼬박 보러가는 이유에 대해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모종의 “소속감”을 들었다.

일단 보통 그런 팀에 소속돼 있는 친구들이, 다른 팀이 공연한다고 그러면 거의 다 스템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품앗이 해주는 부분도 있고, [...] 스템으로 참가를 했을 때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 보고, 끝나고 났을 때 애들 고생한 걸 축하해 주면서 뒤풀이할 때 그 소속감이 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참여자 H)

나아가 이러한 게이스북 연결망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의제에 접근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의제에 접근하고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는 방식이 이전까지는 인권운동단체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다면, 참여자 H는 기존의 인권운동단체를 통한 경로가 아니라 게이스북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퀴어문화축제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2014년 서울 신촌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가 혐오세력들의 방해로 야간에 진행되었던 것을 인상깊게 기억했는데,³¹⁾ 퍼레이드에 참가한 자신의 “친구”가 “퍼레이드의 최전방”에서 “반대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이듬해 축제 때 피켓을 만들고 행진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아가 그곳에서 게이 아닌 다른 정체성의 성소수자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 커뮤니티 전반에 대한 교양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³²⁾

2) 게이커뮤니티의 분절적 사회성과 게이 남성의 관계·돌봄 협상 전략

한편 이러한 게이커뮤니티의 사회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끈질기게

31)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처음 만나는 퀴어문화축제의 역사』, 2024, 36~39면.

32) 게이스북은 2020년대로 접어들면서 인스타그램 등에 게이커뮤니티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스타그램 플랫폼의 특성과 결부된 게이커뮤니티 관계망을 분석한 연구로는 임동현, 「디지털 미디어 시대 게이 하위문화의 상징권력과 문화정치: 2010년대 이후 한국 게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90~101면이 참조된다.

복류하는 것은, 다름아닌 이성애중심주의 사회로부터 강제된 비가시성의 측면이다. 가령 앞서 언급한 취미모임들의 구성원 중 대부분 공개적인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참여자 G는 이 모임들을 통해 빛나던 재능들이 결국 “일반 사회”와의 “연계”가 되지 않고, “이쪽”에서 아무리 실력이 좋고 “스타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도 그 재능이 결국 “이쪽” 안에만 머물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커밍아웃하지 않은 게이 남성들의 경우, 소위 ‘일반’, 즉 이성애자들에게 성적 지향이 알려지는 아우팅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까닭에 참여자 H는, 게이스북 계정을 지닌 누군가가 게이 남성이 아닌 이성애자를 친구로 맺은 경우, 그 사람을 “마녀사냥하듯이 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술회했다.

이런 상황은 게이커뮤니티의 구성이 대외적 비가시성을 전제로 몇몇 분절적인 친분과 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을 드러낸다. 종로·이태원 등 게이업소를 통해 금기시된 성애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그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공적 공간을 점유하는 감각에서 비롯된 쿼어 즐거움은, 역설적으로 그 점유의 형태가 외부에 온전히 드러나서는 안된다는 분절적인 성격을 띠는 까닭에 일정한 취약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 H는, 게이스북의 친구 시스템이 전제하고 있는 몇몇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유명”하고 “인맥 많은 사람들”을 구심점으로 한 커뮤니티 구성의 취약성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부분은 참여자 H에게 어떤 식으로 “시스템화”해볼 도리가 없는 현실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절적 사회성을 단순히 억압의 결과로 의미화하기보다, 그런 종류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하는 실천들도 한편으로 존재하였다. 이는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사회적 관계와 돌봄을 협상해나가는 게이 남성의 전략과도 관계된다. 참여자 C는 한 사람에 정착해 오래 유지되는 연애 관계보다, 사람의 배경이나 생각을 별로 따지지 않을 수 있는 캐주얼한 섹스 관계를 중심에 두고 게이커뮤니티의 삶을 구성하였고, 그러한 삶의 양식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를 “좀더 본질적인 의미의 게이”에 속해있다고 감각하였다. 또한 참여자 K의 경우 이러한 방식의 섹스 관계는 자신에게 “해외여행”과 비슷한 경험이라고 언급했는데, 즉 두 참여자 모두 그것을 통상적인 일상

에서 벗어나 그것과 분리된 형태의 성적 실천으로 의미화하였다.

이렇듯 게이커뮤니티의 단속적·분절적 사회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게이커뮤니티의 구성원에게 피치 못해 내몰린 채 집어든 옵션이 아니라 게이 남성 스스로 그 속에서 그 나름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삶의 형태로 의미화되기도 하였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기존의 장기지속적 인간관계·돌봄 위주의 각본과는 다른 형태의 관계·돌봄의 각본이 개입되게 된다. 가령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소개된 스마트폰을 통한 게이 매칭앱은,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SNS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이전에 유지되어온 게이커뮤니티의 분절적 사회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³³⁾ 중요한 것은 그런 성적 활력을 매개로 단속적으로 이어지는 관계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예를 들어 참여자 K는 하룻밤 섹스를 위한 상대를 만날 때 사전에 소통을 많이 하고, 하룻밤 섹스일지라도 그 시공간 안에서 상대방과 내가 충분히 배려받는다느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더불어 그것은 성적 쾌락 가운데 어떤 행위와 대우가 서로를 즐겁게 하는지를 경험하는 일종의 “훈련”으로 작용했다. 또한 섹스를 위한 만남 가운데에서도 함께 먹을 간식이나 입욕 용품을 챙기는 등 “미세한 돌봄”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실천들은 분절적 사회성에 대한 혼한 인식, 즉 섹스만을 위한 만남 가운데 유의미한 돌봄이 발생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선입견을 뛰어넘는 내용을 지닌다. 참여자 K에 따르면, 그러한 관계는 “썸도 아니고 연애도 아닌”, “우정”도 아닌데 “섹파”라고 하기에는 한편으로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명명하기 힘든 “이상한 관계”로 그에게 자리매김되었다.

물론 단속적·분절적 사회성을 바탕으로 실천되는 관계와 돌봄은, 흔히 1:1의 장기지속적인 관계와 그 사이에서 수행되는 돌봄보다 어딘가 열등하거나 의미가 적다는 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참여자 K 또한 게이커뮤니티에서 연애 중인 파트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크게 다르고,

33) 위치 추적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 기술의 보급과 그를 통해 형성된 개인적 삶과 인간관계의 포스트휴먼적 전회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Anne M. Harris, “Posthuman Families, Queerly”, Anne M. Harris & Stacy Holman Jones & Sandra L. Faulkner & Eloise D. Brook, *Queering Families, Schooling Publics*, Routledge, 2018, pp.81~83.

이에 따라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과 삶에 대한 궁금증도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슬회했다. 이는 게이커뮤니티 역시 주로 성애에 매개된 장기지속적 파트너 관계 안에서만 돌봄이 수행된다고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에 참여자 K는 자신이 맺어온 “이상한 관계”에 대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굳이 선을 긋지 않”고 그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게이커뮤니티의 분절적 사회성과 캐주얼한 섹스 실천에서 엄연히 발견되고 수행되는 관계 및 돌봄은 좀처럼 관계와 돌봄으로 명명되거나 그 내용에 값하는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두고 참여자 K는 “이름 없는 관계”, “서사 없는 에피소드”라는 말로 정리하였다.

이처럼 주어진 사회적 조건과 그에 따라 형성된 관계 각본 속에서, 게이 남성 각자가 자신의 조건과 협상하는 전략은 다양할 수 있다. 나아가 당장 이름과 서사가 따라붙기 어려운 조건이라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분절적 사회성의 조건을 경우에 따라서는 게이 남성 스스로 자기 삶의 양식으로 차용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형태의 관계와 돌봄을 수행하는 것 또한 그 전략의 일환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미 확장된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돌봄의 관계망에 주목하고, 거기에 작동하는 관계 속 위계와 차별을 비판하는 일은 퀴어 가족정치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³⁴⁾ 사회의 시선과 게이 남성들 스스로의 머뭇거림 속에서도, 그러한 형태로 수행되는 돌봄 또한 어엿한 돌봄이고, 여러 난관들 속에서도 그것은 참여자 K에게 웬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은” 삶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었다.

번개나, 번쩍이든 뭐든, 그런 관계들은 에피소드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서사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해야 될까, 그 에피소드만 있는 경향성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지금 서사 없음에 대한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 건지. 그래서 뭔가 이야기의 흐름을 잡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만 남겨두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웬지. (참여자 K)

34)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봄, 2022, 14~15면.

4. 성적 활력의 문화 속에 소외되는 존재들과 커뮤니티 내부의 차이

1) 강제적 성애 문화와 특정 성애 각본에 대한 고착

비(이성애)혼을 결심한 첫 세대 게이커뮤니티의 성취는, 한편으로 첫 세대이기 때문에 노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와 서로 짝지어 있다. 그 성취와 한계가 교차하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이커뮤니티의 성적 활력에 관련된 문화다. 이성애 사회로부터 금기시된 남성 동성애의 성적 실천을 이 공간에서만 큼은 상대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실천하고자 하는 성적 활력은 단연 게이커뮤니티 구성에 핵심이 되는 동력 중 하나다. “문제는 동성애 욕망이 아니라 아니라 동성애 공포”라는 말처럼,³⁵⁾ 도시의 공간 중 어느 한 곳에 모여 그곳에 고인 성적 활력을 좇는 현상은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특성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일반 사회의 동성애 혐오가 그렇게 조장한 결과에 가깝다.

따라서 이성애 사회의 낙인을 뚫고 자신이 정체화한 성적 지향의 내용대로 연애와 섹스를 구사하려는 욕망은, 게이로 정체화한 남성에게 게이로서 삶을 영위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시작점으로 기능한다. 그것을 비로소 환대 속에 안전하게 펼쳐보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첫 세대 게이커뮤니티가 거둔 성취의 이름에 값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성애자로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인생에는 그러한 성적 욕구 외에도, 그것으로는 모두 해결될 수 없는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삶의 과제들이 존재한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은 곧 첫 세대 게이커뮤니티의 한계와 연결되고, 여기서부터 게이커뮤니티의 상업활동과 취미활동, 인권운동의 층위는 다시금 날카롭게 구별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첫 세대 게이커뮤니티의 성취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기존 게이업소 인프라는, 주로 음주로 대표되는 유흥문화, 밤문화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다보니 밤늦게 술먹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게이 남성은 기존의 “이쪽” 상업문화로부터 자연히 배제되기 쉽다. 참여자 B와 참여자 C는 모두 종로에서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술 마시기를 즐기지 않는 경우도, 참여자 C의 경우 비슷

35) 기 오깁깁, 윤수중 옮김, 『동성애 욕망』, 중원문화, 2013[1972], 71면.

한 까닭으로 음주 없이도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이태원 클럽을 좀더 선호했다. 이에 참여자 J는 북카페, LGBT 센터 등 낮에 운영하는 게이 관련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일례로 최근 종로에 열린 “이쪽” 보드게임 방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음주와 밤문화 중심의 게이업소가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의 가능성과 더불어 거기에 가로놓인 분명한 한계를 동시에 말해준다.

또한 이러한 밤문화 위주의 게이업소들에 사람들이 일정한 애착을 느낀다 할지라도, 참여자 C가 언급한 대로 그곳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과 성적 끌림에 따른 매칭에 힘입은 “시장의 구조”가 우선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따라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한편으로 존재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게이업소 내에 인종 차별 등 여타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방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내국인 게이 위주로 구성된 성적 활력과 그를 기반으로 한 상업적 이윤 추구가 그 공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게이커뮤니티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변하면 좋겠지만, 그걸 어떤 시장의 힘을 넘어서는 압력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 예전에 [게이클럽] OO에서 ‘동남아시아 사람 출입 금지’ 이런 거 있을 때, 어떤 친구는 나 절대 OO에 안 갈 거야, 막 그랬는데, 저는 이걸 뭐야, 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려는 이유가 있고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를 먼저 인정해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이 시장의 구조 안에서 내가 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게이업소에 드나드는 행위와 의미가] 이상적일 수 없다는 걸 이미 생각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참여자 C)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특정 종류의 성적 실천을 표준으로 놓고, 나머지 삶의 지분들을 배제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가리켜 “강제적 성애(compulsory sexuality)”라 부른다. 페미니스트 이론가이자 저술가인 애드리언 리치(Adrienne Rich)의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 개념을 원

용한 이 용어는 본디 무성애자 커뮤니티 및 운동에서 출발한 것이다.³⁶⁾ 이 용어에 따르면, 게이커뮤니티의 성적 활력은 일차적으로 강제적 이성애로부터 벗어난 저항이기는 하지만, 결국 게이커뮤니티에 존재할 무성애자를 비롯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제적 성애’, 혹은 유성애중심주의로 가닿을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³⁷⁾

물론 앞에서 보았듯 이러한 게이커뮤니티에 힘겹게 진입하는 게이 남성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기반으로 하는 ‘성적 시민권(sexual citizenship)’ 역시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획득하는 여정”에 가깝고, 따라서 성적 시민권처럼 무성적 시민권(asexual citizenship) 또한 거기로 향하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³⁸⁾ 그러나 게이커뮤니티의 사회적 관계·돌봄이 어떤 특정한 성애의 각본에 고착되어 여타의 관계·돌봄 실천을 억압하는 형태로 구성된다면, 그것에 대한 성찰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특정 성애의 각본에 게이커뮤니티의 관계 기술이 고착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게이커뮤니티 내의 어떤 그룹에서 만났거나 한번 섹스를 통해 얼굴을 안 사람을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 서로 “모른 척”하는 것이 예의로 강제되는 상황이다. 참여자 K의 따르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눈치가 필요”한 일이 된다. 그것이 필요한 까닭은 이러한데, 상대방이 게이커뮤니티의 분절적 사회성을 적극적으로 내면화한 결과 ‘이쪽’ 인맥 내에 아는 이들이 적게끔 보이고 싶거나, 한번 만났거나 섹스했던 사람들을 모른 채하는 편이 스스로 다른 연애나 섹스 수행과 관련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여길 경우, 그 사람은 두 번째 본 자신과 인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36) 에이드리언 리치, 이주혜 옮김,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앤 스니토, 크리스틴 스탠셀, 샤론 톰슨의 편지에 보내는 답신, 1981.11.)」,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바다출판사, 2020[2018].

37) 이와 관련해 논바이너리/젠더퀴어 당사자인 ‘정숙조신’은 게이커뮤니티의 과잉 성애화 문화에 대한 자각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행자 ‘정숙조신’님 인터뷰 : 2. 논바이너리와 게이와의 관계, 그리고 커뮤니티 운동」, 『친구사이 소식지』 85, 2017.8.

38) Peter Hart-Brinson, M. L. Tlachac, Emily Lepien, “Contradictions in Experiences of Compulsory Sexuality and Pathways to Asexual Citizenship”, *Sexuality & Culture* vol. 28, no.1, New York: Springer, 2024, pp.209~211.

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한 게이커뮤니티의 과잉 성애화 문화와 서로 무관하지 않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만난] ‘번섹남’에게 정을 쏟는 태도를 취했을 때, 그게 나한테 준비가 됐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그것이 거부됐을 때]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간을 보죠. 일단 간 보잖아요,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애를 알았어. 원래 알던 애야. 그랬을 때 애 눈치를 한번 보죠. (웃음)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눈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좀 어느 정도 허용의 제스처를 취한다 이러면, 그런 사이였어, 이러면서 이제 또 술먹고, 친하게 지내고 (참여자 K)

2) 질병, 계급, 외모와 나이듦에서 오는 게이커뮤니티 내의 위계

게이커뮤니티의 성애 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낙인이 바로 성매개감염병인 HIV/AIDS와 관련된 게이커뮤니티 내부의 인식이다. 이성애 사회로부터 일정하게 분리된 채 게이 남성들끼리의 성적 긴장감과 활력이 커뮤니티의 주요한 동력이 되는 조건은, 반대로 그러한 성적 활력에 일견 방해가 되는 성매개감염병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보다 한층 짙은 게이커뮤니티 내의 HIV/AIDS 관련 배제와 낙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³⁹⁾ HIV 감염인인 참여자 D는, 감염 이후 종로·이태원의 게이업소를 비롯한 “바깥 세상”에 아예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스스로 “안 아플 때” 종로에 가서 놀았던 것이 삶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일 만큼 그 공간에 애착이 있었지만, 감염인이 된 지금은 그곳에서 비감염인과 동등한 양태의 성적 활력을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사람 자체가 싫”어졌노라고 술회했다.

저는 그거 [HIV 감염]걸리고서부터, 바깥 세상[과 내외]을 안했어요.

39)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공동 기획단,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2017, 42~46면 ; 서보경, 『휘말린 날들 :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 반비, 2023, 178~181면.

[...] (아까 아무 단체도 안 만나고 종로도 안 가시고 다른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렇게 지내세요? 왜 사람을 잘 안 만난다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기 가는 건 자꾸 죄의식도 들고, (죄의식이요? 왜요?) 그냥 그렇죠 뭐, 누구 만나서, 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어찌다가 좋은 사람 진짜, (그럴 수 있죠,) 좋은 사람을, 오리지널[HIV 비감염인을 가리키는 은어]을 만나면 또 술김에 그럴 수 있으니 안 나가고 [...]

나도 이제는 사람들하고 답을 쌓은 지가 20년이 돼가지고, 그런 거 잘 몰라요. 안 나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숨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어디 가서. [...] 그냥 사람 자체가, 저는 이제 사람 자체가 싫어요. [...]

(좀 좋은 기억들도 있으시죠? 많죠?) 좋은 기억 많죠, 솔직히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많으니까 살겠지. 좋은 기억은 얼마하고도 있고, 또 이 형[파트너]하고 놀러 간 기억도 많고, 아무튼. (지금 떠올리면 제일 좋았던 기억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누구랑요? (형이랑,) 형이랑? 그냥 몰라 이제, 종로 나가는 것, 안 아플 때니까 종로 나가서 논 것, 아니면 이제 바닷가 가서 한번 놀러간 것, 제주도 가서 놀러 간 것, (참여자 D)

게이커뮤니티 내 경제적 조건 및 계급간의 차이도 존재한다. 참여자 E는 게이 남성 지인들 중 “잘 사는” 사람들과는 이제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고 언급했다. 또한 게이바를 운영하는 참여자 G와 참여자 J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게이 남성들은 주로 종로·이태원의 게이업소가 아니라 따로 호텔이나 레지던스를 빌리거나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식으로 끼리끼리 노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40대 이상의 게이들은 자신의 계급적 기반이 커뮤니티 활동에 중요한 지분으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K가 만난 40대 이상의 게이들 중에는, 혼자 살거나 특별한 “이쪽” 동료·친구를 갖지 못한 채 ‘번쩍’으로만 사람을 만나고, 그 이상의 게이커뮤니티 인맥을 만드는 걸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에 비해 게이커뮤니티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커리어나 인간관계, 혹은 자기 소유의 업소나 공간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는 결국 상위 계급이 아닌 중·노년 게이에 대한 게이커뮤니티 내의 롤 모델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그는 평가

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준수한 외모와 젊음,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기에 매개된 특정 성애의 각본으로 구성된 게이커뮤니티의 한계와 연결되고 있다.⁴⁰⁾ 참여자 C는 나이가 들고 자신의 “외모적인 매력이 떨어짐에 따라 이 태원을 비롯한 한국의 게이업소로부터 스스로 “분리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공포”이자 “힘든 일”이었으며, 그런 까닭에 자신의 외모를 “덜 배척”할 것 같은 외국의 게이업소를 자주 찾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참여자 E도 종로의 게이업소를 자주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 그곳의 종업원들이 “우릴 쳐다보지도 않”는 경험을 한 업소들은 발길을 끊게 되었고, 지금은 종로에서 “개들 쳐다보는 것도 지겹”다고 술회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 I는 현재의 게이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스스로 나이들었을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현재의 상황과 “팔팔”한 젊음을 향유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나이들었을 때 필요한 돌봄과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 실제로 나이들기 전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참여자 K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회피”하는 중이며,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갑갑해온다고 토로한 것도 이러한 게이커뮤니티의 한계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게이커뮤니티의 현실들은 곧,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 상정된 관계·돌봄 수행자의 ‘표준’, 즉 청년, 비(非)환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성적 활력의 소유자, 업소에서 일정 구매력을 갖춘 유산자(有産者) 등의 전형이 게이커뮤니티 내에 작동한다는 증거다. 동시에 그것은 그 표준에 다다른거나 다 다르지 못할 많은 게이 남성들이 장차 반드시 경험하거나 수행하게 될 돌봄과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지분들 중 상당수가, 현재의 게이커뮤니티 안에서는 별반 고려되고 사유되지 못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첫 세대 비(이성애)혼 게이 남성 및 게이커뮤니티가 이제껏 거둔 여러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여, 혹은 그 이면에 드러난 과제가 무엇인지를 겨누

40) 게이커뮤니티의 매력 자본 유통과 상징권력에 대한 행위자의 비판에 대해서는 임동현, 「디지털 미디어 시대 게이 하위문화의 상징권력과 문화정치 : 2010년대 이후 한국 게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148~149면 참조.

고 있음은 물론, 첫 세대 게이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자기 돌봄과 상호 돌봄 가운데 과연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젊고 팔팔하고, 활동을 잘할 수 있고 움직이는 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현 상황을 즐기고 싶은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그 나이 돼야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이전 세대들은 그런 고민 전혀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 이놈의 게이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다고, [...]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해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참가자 I)

5. 나가며

1990년대 들어 이성애 결혼하지 않은 첫 세대 게이, 즉 비(이성애)혼을 결심하는 게이커뮤니티의 구성원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동성애가 ‘변태’가 아니라 자긍심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과, 그것을 가능케 한 이성애 결혼하지 않는 동료 게이들과 그들이 모이는 업소 및 단체의 부상 등 문화적 조건의 확립 덕택에 가능했다. 이에 따라 게이 남성들은 주류적 남성성 각본이 아닌 새로운 각본, 새로운 삶의 형태를 창안하는 과제에 직면하여 그 나름의 관계·돌봄 실천을 전개하였다.

1990년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게이업소와 1990년대에 새로 생긴 게이인권 운동단체를 왕래했던 게이들은 자신의 게이문화 경험에 대해 기존 사회질서와는 다른 무엇, 비교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수행으로 의미화하였다. 이 가운데 이성애 사회 및 원가족으로부터 게이 정체성의 비가시화가 강제되는 상황 속에서, 게이 남성의 (이성애)결혼하지 않음은 자연히 원가족 및 게이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저마다 색다르게 규정했다. 원가족에게 게이 정체성을 수용하고 파트너 관계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성적 지향이 알려지면 원가족에 의한 강압과 폭력을 경험하기 쉬웠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원가족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겼고, 설령 원가족과 감정적으로 긴

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라도 원가족에게 이성애 결혼을 강제당한 경우 게이 남성은 심적 고통에 시달렸다.

한편 원가족과의 관계가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게이커뮤니티 내의 관계 전략도 변모하였다. 원가족과 유대가 깊어 그들을 삶의 파트너로 인지할 경우 게이커뮤니티 구성원과는 주로 캐주얼한 관계만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원가족에게서 얻은 애정과 돌봄의 에너지를 게이커뮤니티의 활동에 투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원가족과의 관계가 억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경우, 게이커뮤니티가 도리어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여 그곳에 감정적으로 더욱 강하게 결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이성애)혼을 수행하는 첫 세대 게이 남성이 존재할 수 있던 사회적 배경 및 조건에는 게이업소와 인권단체, 취미모임의 존재와 그들 사이의 경계 흐림이 있었다. 인권단체의 외연 확장을 겨누어 게이바를 열고 손님에게 문턱을 낮춘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혹은 인권단체가 아니더라도 게이 취미모임을 통해 자력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확장해 게이바를 열어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경우는, 인권단체와 취미모임과 게이업소 사이의 경계를 난잡하게 흐리는 실천에 가까웠다. 그러한 실천은 2010년대 들어 SNS의 보급과 게이스북의 부상을 통해 그 저변이 확장되었다.

또한 이성애 사회로부터 반쯤 격리된 게이커뮤니티와 거기에서 오는 게이커뮤니티의 분절적 사회성은 이성애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구조적 제약의 일부였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자기 삶의 형태로 차용하여 관계·돌봄을 구성해 나가는 게이 남성의 사례도 존재했다. 그러한 실천들의 예는 이태원 클럽이나 게이 사우나, 혹은 2000년대 말부터 상용화된 게이 매칭 앱을 통한 캐주얼한 만남 및 섹스였다. 이렇듯 1:1 파트너의 장기지속적 관계가 아닌 형태의 관계는, 그 속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게이 남성에게 이름없는 관계, 서사 없는 에피소드처럼 분명한 형태의 각본으로 의미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했지만, 그 속에서도 그 나름의 관계 및 돌봄 실천은 수행되었다.

끝으로 게이커뮤니티의 성적 활력은 강제적 이성애 사회로부터 낙인찍힌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했지만, 한편으로는 커뮤니티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강제적 성애 문화의 한계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매개

감염병인 HIV/AIDS 관련 게이커뮤니티 내부의 낙인이었다. 또 강제적 성애 문화와 연결되어 질병, 계급, 외모와 나이듦에서 오는 게이커뮤니티 내의 위계도 뒤따랐다. 커뮤니티 내 계급의 분화도 엿보여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게이바 대신 따로 해외여행을 가는 풍토가 자리잡았고, 40대 이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게이들은 게이커뮤니티의 인맥을 포기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적 활력 및 매력 자본을 매개로 구성된 게이커뮤니티 문화의 특성, 그로부터 형성된 청년, 비환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성적 활력의 소유자, 업소에서 일정 구매력을 갖춘 유산자 등, 게이커뮤니티 내에서 관계·돌봄을 주고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에 대한 표준적 전형과 관계되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게이 남성들을 배제함은 물론, 그 표준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을 대부분의 게이 남성이 겪게 될 돌봄의 수행과 여타의 과제와 관련된 고민들이 현재의 게이커뮤니티에서는 전반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환기하였다. 이는 첫 세대 비(이성애)혼 게이 남성과 게이커뮤니티가 이성애자 남성과 구분되는 그들 스스로의 관계·돌봄을 실천하고 그 뜻을 재정의해온 성취와 더불어, 그의 여집합, 혹은 그의 이면에 묻은 커뮤니티 내의 한계를 사유함으로써 그 관계와 돌봄을 위계와 차별 없이 실천해나가는, 보다 열린 형태의 퀴어가족정치로 확장할 과제를 요청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기 오경jem, 윤수중 옮김, 『동성애 욕망』, 중원문화, 2013[1972], 71면.
- 김대현, 「소년비행의 개인적 요인 담론과 반사회성 형성의 지식·제도 : 범죄심리학자 성백선과 장병림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88,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4.
- _____, 「1960~70년대 한국 정신분석학의 반공·냉전적 재편과 젠더·섹슈얼리티 낙인의 형성 : 정신의학자 백상창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0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 _____, 「1980~90년대 게이 하위문화와 대안가족의 구성 : 제도적 이성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2(1), 한국구술사학회, 2021, 61~63면.
- _____, 「게이와 페미니즘」, 『문화/과학』 104, 문화과학사, 2020.
- _____, 「성소수자인권운동 연대체의 자리찾기」, 『내일을 여는 역사』 79, 내일을여는 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 2020, 165~167면.
- _____, 「일본의 우생학에서 미국의 우생학으로 : 해방 이후~1950년대 한국의 소년 범죄 담론」, 『역사문제연구』 49, 역사문제연구소, 2022.
- _____, 「정신의학자 한동세(韓東世)의 문화정신의학과 여성 및 비규범적 성애·성별 배제의 성격」, 『동방학지』 18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 _____, 「종로3가 게이 계토의 역사와 게이커뮤니티의 형성」, 『선계이서울 : 지보이스 스토리북 창단 17주년 특별판』, 2019.
- _____, 『세상과 은둔 사이 : 벽장 안팎에서 쓴 글들』, 오월의봄, 2021.
- 김대현(터울), 「1990년대 말 이반엽소정보지 『보릿자루』를 통해 본 게이커뮤니티의 형성 : 기혼이반 논쟁과 섹슈얼리티 검열을 중심으로」, 『퀴어인문잡지 뼈라』 3, 노트인비트윈, 2016.
-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봄, 2022, 14~15면, 125~126면.
- 김영옥·류은숙,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코난북스, 2022, 201~202면.
- 너털 류위, 김미덕 옮김, 『공간 침입자 : 중심을 교란하는 낯선 신체들』, 현실문화, 2017[2004], 105~113면.
- 더글러스 크림프, 김수연 옮김, 『애도와 투쟁 : 에이즈와 퀴어 정치학에 관한 에세이들』, 현실문화, 2021[2002], 96면.
- 로라 베이츠, 황성원 옮김, 『인셀 테라 : 온라인 여성혐오는 어떻게 현실의 폭력이 되

- 었나』, 위즈덤하우스, 2023[2020].
- 배재훈, 「게이 남성 합창단의 문화 정치학」,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2.
- 『보릿자루』, 보릿자루 편집부.
- 사라 아메드, 시우 율김,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오월의 봄, 2023[2004], 353~356면.
- 서동진,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문예마당, 1996, 120면.
- 서보경, 『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 반비, 2023, 178~181면.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처음 만나는 퀴어문화축제의 역사』, 2024, 36~39면.
- 수잔 스트라이커, 제이·루인 율김, 『트랜스젠더의 역사: 현대 미국 트랜스젠더 운동의 이론, 역사, 정치』, 이매진, 2016.
- 에이드리언 리치, 이주혜 율김,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바다출판사, 2020 [2018].
- 오혜진 기획, 『원본 없는 판타지: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2020.
- 임동현, 「동성애적 정체성 형성의 퀴어이론적 분석: 노년 게이 남성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임동현, 「디지털 미디어 시대 게이 하위문화의 상징권력과 문화정치: 2010년대 이후 한국 게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89면.
- 전혜은, 『퀴어 이론 산책하기』, 여이연, 2021, 326면.
- 정성조·이나영, 「보이지 않는 군인들: 한국 군대 내 동성애혐오와 성소수자 정체성」, 『문화와 사회』 26(3), 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 조성배,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3.
- 최선욱, 「한국 게이 운동의 담론 분석: ‘친구사이’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친구사이 소식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율김,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6[2009], 64면, 81면.
- 켄지 요시노, 김현경·한빛나 율김, 『커버링: 민권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

- 는 폭력』, 민음사, 2017[2006], 126~127면, 269~270면.
-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공동 기획단,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2017, 42~46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친구사이’와 한국의 게이 인권운동」, 『진보평론』 49, 진보평론 편집부, 2011, 63면.
- 허자연·정연주·정창무,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사업자 변화에 관한 연구: 경리단길 사례」, 『서울도시연구』 16(2), 서울연구원, 2015.
- 황영숙·정패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임차인 이동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58, 한국주거환경학회, 2022, 188면.
- Anne M. Harris, “Posthuman Families, Queerly”, Anne M. Harris & Stacy Holman Jones & Sandra L. Faulkner & Eloise D. Brook, *Queering Families, Schooling Publics*, Routledge, 2018, pp.81~83.
- David M. Halperin & Valerie Traub eds., *Gay Sham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p.41~42.
- Jack Halberstam, *In a Queer Time and Place: Transgender Bodies, Subcultural Lives*,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p.187.
- Peter Hart-Brinson, M. L. Tlachac, Emily Lepien, “Contradictions in Experiences of Compulsory Sexuality and Pathways to Asexual Citizenship”, *Sexuality & Culture* vol.28, no.1, New York: Springer, 2024, pp.209~211.
- R.W.코넬,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05[1995], 100면.

| Abstract |

Preconditions for Gay Men's Relationship and Caregiving Practices: The Light and Shadow of the First Generation (Heterosexual) Unmarried Gay Community

Kim, Daehyun · Lee, Youna

The 1990s saw the emergence of the first generation of gay communities outside of heterosexual marriage in Korea.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creation of socio-cultural conditions, including a shift in the idea that homosexuality could be a source of pride rather than a “perversion,” and the emergence of fellow gay men outside of heterosexual marriage and the organizations that made it possible. Based on these conditions, gay men have negotiated different ways of relating to the gay community, where invisibility is enforced by heterosexual society, and to their families of origin, where their sexual orientation is often difficult to disclose. The segmented sociality of the gay community has evolved for some gay men into a strategy of adopting it as a way of life and practicing relationships and care within it, while for others it has expanded into an attempt to make their care networks more meaningful through promiscuous practices that actively blur the boundaries between gay entertainment businesses, gay rights organizations, and gay hobby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sexual vigor of the gay community was both a resistance to the stigmatization of coercive heterosexual society and a limitation of compulsory sexuality imposed on members of the gay community. This, coupled with sexual vigor and erotic capital, shaped the norms of who could be a member of the gay community and who could engage in relationships and care within it, including young men, non-patients, sexually virile people with good looks, and affluent people with some purchasing power in gay bars or clubs. These are preconditions that show both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relationships

and care as a first generation gay community outside of heterosexual marriage, but also call for the task of queer family politics so that relationships and care within the gay community can be practiced without hierarchy and discrimin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gay, queer, gay community, caregiving, compulsory heterosexuality, compulsory sexuality, queer family politics

| 기획특집 |

퀴어생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천으로서의 돌봄*

— 게이 남성을 중심으로 —

김순남·나영정**

목 차

1. 들어가며	4. 이성애규범적인 남성성, 돌봄관계망과
2.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불화하기
3. 퀴어친족만들기 장으로서의	5. 퀴어/가족실천의 여러 양상들
돌봄실천과 유대	6. 나오며

■ 국문초록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사회와 불화하는 존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되기, 관계맺기, 존재하기를 가시화했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문란하고’, ‘근본없는’ 존재들로 규정되는 게이남성의 경험을 통해 가족제도, 질병, 빈곤, 나이들의 여러 조건과 교차하면서 수행되는 퀴어친족만들기와 돌봄 실천의 양상에 천착하고자 하였다. 게이남성의 돌봄 실천과 이를 통해 생성된 퀴어한 유대를 연구하기 위해서 부모와 파트너, 친구가 질병 등으로 단기, 장기적 돌봄이 필요할 때 이를 수행한 게이남성 11명의 경험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맺게 되는 원가족이 있듯이 게이 남성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5586) 본 연구는 가족구성권연구소에서 진행한 <다양한 몸/관계의 돌봄 드러내기: 퀴어남성을 중심으로> 연구에 기반해서, 작성, 수정한 연구임을 밝힌다. 매우 유익한 심사를 진행해준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김순남(제1저자), 성공회대학교 젠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나영정(공동저자), 가족구성권연구소 운영위원

역시 마찬가지이며 원가족은 게이 남성의 정체성과 성적 실천을 둘러싼 내적, 외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쉽게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진다. 참여자들 중에서 원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이유는 남자로서, 아들로서 기대받은 책임감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한 헤게모니한 남성성으로부터 미끄러지는 게이로서의 '죄책감', '미안함'의 정서가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시스헤테로비혼남성이 가지는 자발적 비혼 선택으로 인해 가지는 죄책감이나 비자발적 비혼 상황에 놓임으로써 가지는 능력없음 혹은 억울함과는 다른 정서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

둘째, 참여자 중에서 파트너의 간병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경우에는 HIV/에이즈와 암투병이 이유였으며, 원가족으로부터의 간병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였다. 주 돌봄 전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해 돌봄의 어려움을 소통할 수 없는 고립이 주는 힘겨움을 보여준다. 모두 다 “세끼를 차리면 하루가 간다”라고 언급하면서 돌봄 노동의 어려움을 강조하지만, 파트너를 돌보는 이 ‘선택’을 ‘되돌아보는 삶’에 대한 ‘급진적인 수용하기’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 돌봄을 되돌려주는 시간으로 맥락화하고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우정적인 유대에 기반을 둔 상호적인 돌봄이나, 게이 사우나나 원나잇을 통해서 우연히 수행되는 ‘문란한 돌봄’ 등을 통해서 원가족 돌봄, 파트너 돌봄뿐만 아니라 ‘퀴어한 사회적 돌봄’의 장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자원, 외모, 나이, HIV/에이즈 질병에 따라서 게이들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면서 돌봄과 친밀성의 지도가 지속적이지 않고 분절적인 ‘퀴어사회’를 보여준다.

주제어 : 퀴어, 퀴어친족 만들기, 남성성, 돌봄, 게이, 퀴어가족정치, 가족을 구성할 권리

1.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돌봄에 관한 논의가 공적인 의제로, 보편적인 의제로 등장했다. 또한 기존 가족에게만 삶과 죽음에 걸친 ‘의존’을 당연시하는 이성애규범적인 가족 중심의 시민 모델을 넘어서 다양한

관계망에 기반을 둔 돌봄과 상호의존에 대한 논의들이 확대되어 왔다(김순남·김현경·나영정·이유나, 2023). 다양한 몸/관계의 돌봄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는 시점에서, 게이남성들이 실천하는 돌봄 논의는 성적으로 문란한 존재로만 여전히 이야기되는 게이 남성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비규범적인 퀴어 친밀성, 가족, 사회적인 유대에 대한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론가들은 현재 시민들이 가족변화 속에서 경험하는 위기를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로 규정한다. 사회적 재생산은 인구재생산 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고, 의식주, 돌봄, 휴식 등 삶을 이어주는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물질 토대이다(김현미, 2020). 사회적 재생산이 더 이상 기존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퀴어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을까.

사회적, 경제적인 추세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돌봄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코헨과 머레이(Cohen and Murray, 2007)는 (1) 여성 노동력 증가, (2) 자녀 수 감소, (3) 가족 구성원의 이동성 증가로 인해 대가족이 더 이상 서로 가까이 살지 않는 이유와 연결 지어 분석한다. 또한 전통적인 돌봄 패턴과 다른 네 번째 추세로 노인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녀, 생물학적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적 보호에 의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돌봄 패턴의 변화는 나라마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불평등한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젠더화된 돌봄이나 주변화된 돌봄에 기대어 온 사회적 재생산의 변화를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정당한 가치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 영역에는 힘없고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정치적 참여가 배제된, 취약한 권력 자원을 가진 여성들이 주로 돌봄을 담당해 왔다. 많은 경우에 돌봄이 ‘여성적인’ 가치이며, 여성들의 ‘역할’로 사회화 되면서 ‘돌봄 공백’이 메워져 왔다는 것 그리고 돌봄이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배치되어 왔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은 돌봄을 시민권으로서 논의하는 흐름을 만든다. 또한, 돌봄이 젠더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계적으로 수행되어온 것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퀴어, 장애, 페미니즘에 대한 교차적인 연결점을 통해

서 더 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돌봄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로 상정되지 않는 퀴어, 장애인, 이주자, 청소년 등이 어떻게 ‘시민으로서’ 돌보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그 흐름은 탈시설운동, 재생산정의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운동 그리고 기존 가족중심사회를 넘어서 개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 운동¹⁾ 등 여러갈래의 정치적인 의제들이 돌봄 논의와 교차되면서 사회적인 변화를 추동해내고 있다.

이렇듯,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사회와 불화하는 존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되기, 관계 맺기, 존재하기를 가시화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돌봄’, ‘난잡한 관계성으로서의 돌봄’, ‘퀴어한 정동의 장으로서의 돌봄’의 장에 천착하면서 퀴어친족만들기로서의 실천과 연결되는 ‘퀴어한’, ‘난잡한’ 생존의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와 파트너, 친구가 질병 등으로 단기, 장기적 돌봄이 필요할 때 이를 수행한 게이남성 11명의 경험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돌봄’을 포착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게이이자, 아들로서의 지위, 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의 지위 속에서 작동하는 게이남성들의 관계성 수행에 천착하면서 퀴어가족/친족실천이 마치 원가족과의 실천과 분리된 것으로 사고하는 논의들에 개입하고자 한다. 기존에 원가족 돌봄수행과 가족/친족 실천 논의가 비퀴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퀴어의 경우에도 커밍아웃 유무와 무관하게 원가족과의 돌봄/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퀴어여성만이 아니라 게이남성들의 경우에도 원가족을 둘러싼 경제/돌봄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실천이 기존에 규범적인 남성성의 모델과 어떤 지점에서 차이를 갖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난잡한 관계성으로서의 돌봄’을 포착하기 위해서 게이남성의 돌봄실천의 양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배제와 낙인의 조건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유대로서의 돌봄, 친족만들기로서의 돌봄, 생존을 가능

1) 가족구성권 담론과 운동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https://familyequalityrights.org> 참고하기

하게 하는 돌봄의 장으로서의 ‘문란한 연결’과 ‘취약한 상호의존세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퀴어들은 파트너, 친구, 커뮤니티 돌봄실천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시민으로서의 사회적인 자격과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 퀴어들에게 커뮤니티 돌봄과 관계에 대한 요구와 실천들은 퀴어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일 가능성이 높다. 퀴어로서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실천되는 돌봄의 의미들은 퀴어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퀴어한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정동적인 연결과 연대로서의 돌봄실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차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퀴어한 정동의 장으로서의 돌봄’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수자로서의 위치, 사회적으로 부정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 그리고 HIV/에이즈에 대한 낙인 그리고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퀴어로서의 배제의 차별의 경험 속에서 가시화되는 퀴어한 정동의 장을 의미화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이 관계를 수행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간병부터, 일상적인 연애편계, 친구돌봄, 커뮤니티 연결 등 다양한 방식의 관계적 돌봄에 놓여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돌봄 시간에 대한 ‘뒤쳐짐’의 정서, 사회적으로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되로 없는 상황’에 대한 급진적인 수용들, 우연적인 연결과 성적친밀성을 둘러싼 정동들은 새로운 친밀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퀴어들이 혐오와 배제 속에서 강제되는 고립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위치성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1명의 게이남성과 질적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2-3시간 가량으로 진행하였고, 참여자 중 한 사람은 두 번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질문의 주요한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소수자의 위치를 통해서 보여지는 관계성과 의미들 2) 커뮤니티 돌봄 3) 게이 남성성과 돌봄 4) 원가족과의 돌봄실천 5) 퀴어친족의 의미와 돌봄들 5) 돌봄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 관계성 등이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인터뷰 당시 아래와 같다.

표시	출생년도	주요 돌봄대상	직업/소득	인터뷰 당시 가족상황
A	71년생	원가족	직장인/연3천이하	독거
B	70년생	원가족	직장인/무응답	원가족과 동거
C	72년생	원가족	직장인/월400	원가족과 동거
D	63년생	파트너	전업돌봄/기초생활수급	파트너와 동거
E	58년생	파트너	전업돌봄/기초생활수급	독거하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파트너집을 오가기
F	88년생	전 파트너	프리랜서/월350	독거
G	69년생	커뮤니티 원가족	자영업/무응답	형제와 동거
H	84년생	커뮤니티 파트너	직장인/무응답	파트너와 동거
I	68년생	커뮤니티 파트너	프리랜서/무응답	파트너와 동거
J	70년생	커뮤니티	자영업/연1억	파트너와 동거
K	84년생	커뮤니티	활동가/프리랜서/월200	원가족과 동거

본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부모와 파트너, 친구, 캐주얼한 섹스파트너 등이 질병 등으로 단기, 장기적 돌봄이 필요할 때 이를 수행한 게이남성 11인의 경험을 인터뷰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중에서 30대가 한 명이고, 모두 다 40대 이상의 게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원가족 뿐만 아니라 커플 관계, 친구, 커뮤니티 안에서 돌봄의 의제와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깊은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쿼어, 돌봄, 나이듦, 계급, 질병을 둘러싼 다양한 쿼어친밀성 정치의 장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적인 관계 망만이 아니라 게이들의 첫 세대라고 호명이 가능한 40대 이후의 게이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한 이유는 이성애규범적인 생애모델과 다른 방식의 가능성을 집단적으로 모색해 온 첫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들은 한국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소수자인권연대 등의 단체들, 게이클럽과 술집 등의 업소 등을 통해서 다른 방식의 삶을 전수하고 서로 돌봄을 실천하면서 쿼어문화가 이어지는 토대를 함께 모색해왔기 때문에, 이들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관계성, 돌봄, 지속성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들과 만난다. 또한, 게이들의 경우에 HIV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낙인뿐만 아니라 질병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등의 모임 등을 통해서 HIV질병을 둘러싼 파트너 돌봄, 커뮤니티 돌봄 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한 참여자들을 만났다.

무엇보다, 게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세대가 이어지고, 새로운 문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러한 삶이 지속될 수 있는 문화적, 계급적인 자원과 교차될 수밖에 없고, 원가족 상황에 따른 경제적인 돌봄에 대한 요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참여자들 중에서 최대한 가족상황 차이나, 계급적인 차이들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퀴어로서의 삶은 퀴어라는, 게이라는 정체성으로만 구성되는 것만이 아니라 빈곤, 질병, 나이, 커뮤니티와의 관계, 원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갈래의 다중적인 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본 연구의 참여대상이 게이남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돌봄, 관계성, 생존, 나이들, 정주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규범적인 돌봄의 의미를 넘어서 퀴어하고, 근본없는 방식으로 돌봄, 관계성, 생존, 나이들, 친족/가족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퀴어친족만들기 장으로서의 돌봄실천과 유대

돌봄이 관계를 연결하는 물질 토대이자 생존의 세계라면, 퀴어한 친밀성의 장으로서의 돌봄은 기존 사회가 상상해 온 돌봄, 연결,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지, 그러한 변화속에서 어떤 다른 관계성이 출현하고, 돌봄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인정이 부재한 퀴어로서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존 가족중심의 관계를 넘는 돌봄과 유대가 필요하며, 그러한 관계들이 퀴어의 삶과 분리되어 온 역사는 없다. 전희경(2020)은 가족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사회적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회가 야기하는 취약함과 고립을 문제제기 하면서, 효가 아니라 시민연대와 시민적인 돌봄이 가능한 사회를 강조한다. 조기현(2022) 또한 아버지를 돌보는 이유가 효자라

서가 아니라 약한 시민을 돌보는 것이 시민적인 책무라고 언급하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시민적인 돌봄을 통해서 생성되는 시민들의 연대와 연결은 이미 앞서서 가족 밖에서 생존해 온 퀴어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돌봄을 통해서 유지되어 온 퀴어친족만들기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사회적으로 퀴어들은, 특히 게이남성들은 정동적 관계적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친밀성과 무관한, 사회적인 돌봄과 무관한 성적인 존재로만 환원되거나,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생애를 구성하는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캐슬린 린치와 주디 월시(2016)는 ‘돌봄이 없는 관계는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돌봄 논의에 주목하는 것은 인간이 관계적, 정동적 존재로서의 삶 속에서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타인의 노동에 의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시한 사회질서에 대한 항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며, 다른 방식의 삶의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캐슬린 린치·주디 월시, 2016: 65).

또한, 정동적 관계적 존재로서의 상호적인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의지’만이 아니라 시민적인 유대와 사회적인 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인 조건들을 살피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삶을 삶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계성의 주요한 요인들은 사랑노동, 돌봄노동, 연대노동이 사회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캐슬린 린치·주디 월시, 2016). 이러한 논의는 두 당사자 간에 돌봄실천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친지, 이웃 등 두 사람이 고립되지 않도록 순환하는 돌봄망이 가능한 ‘연대’와 복지제도 등에 주목하는 연구와 유사하다(김영옥·류은숙, 2022: 201~202).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가 게이남성들의 원가족 돌봄, 파트너 돌봄만이 아니라 왜 커뮤니티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돌봄’ 관계망에 천착하는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무엇보다, 퀴어친밀성의 장으로서의 돌봄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 새롭게 출현하는 돌봄만이 아니라 기존 가족을 넘는 친밀성과 돌봄이 지속적으로 퀴어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다. 기존 이성애 결혼중심의 가족 너머에서 출현하는 퀴어친족관계망은 사회적으로 ‘선택한 가족’으로 불려왔다. “선택된 가족”은 퀴어 및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에서 생물학적 또는 법적유대가 아닌 선택에 의해 구성된 가족 그룹

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선택된 가족은 미국의 친족 패러다임 내에서 확정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생물학적 법적 분류를 전복, 거부 또는 무시하는 대안적인 가족을 의미한다. 사회과학 담론에서 “선택된 가족”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인류학자 웨스턴의 “우리가 선택한 가족: 레즈비언, 게이, 친족” 개념으로 부터다. 웨스턴(Weston, 1991)은 가족을 “제도라기보다는 사회에 스며드는 권력의 관계에 연루된 논쟁의 개념”으로 취급하면서 미국의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에게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적한다. 선택한 가족에 대한 Weston의 경험적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의 HIV/AIDS 위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Weston, 1991: 3).

이렇듯, ‘선택한 가족’이라는 의미는 기존에 이성애 규범적인 가족모델에서 여러 갈래의 난잡한 돌봄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이성애 가족관계안에서의 돌봄과 다르게 퀴어들은 사회적인 차별로 인해서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특히 HIV질환으로 인해 주변의 차별의 시선들을 경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불인정으로 인해서 LGBT 노인들은 선택한 가족을 통해서 의지할 가능성이 짙다. 또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낮고 독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 안에서의 상호 보살핌의 의미가 이성애관계망보다 중요한 유대의 장일 수밖에 없다(Cohen·Murray, 2007).

한국사회에서도 기존 가족중심의 가족/친족모델과 다른 방식의 퀴어한 연결과 유대, 돌봄에 대한 논의들이 공론화 되고 있다. 김순남(2022)은 퀴어가 족정치의 관점으로 사회적으로 퀴어들은 본인들이 맺고 있는 가족/친족에 대한 사회적인 안정망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관계의 문법을 발명하고, 여러 갈래의 ‘난잡한 친밀성’과 돌봄망을 통한 퀴어한 생존의 방식을 모색했음을 언급한다(김순남, 2022). 또한, 가족구성권연구소는 한국사회에서 공적 복지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퀴어들은 함께 정주하고, 거주할 수 있는 ‘무지개 집’이라는 주거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소속, 돌봄, 관계망의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분석했다(김현경·나영정·정현희 외, 2023). 이렇듯, 함께 삶의 대안을 모색하는 흐름 속에서도,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은 사회적으로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서보경(2021)은 HIV감염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일상적 질병 경험의 아니라 삶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깝게

당겨지는 궤적을 ‘삶·죽음’이라는 개념으로 의미화하면서, 이를 통해 신체의 생물학적 지속과 사회적 죽음의 기이한 결합을 강제하는 권력의 작동을 포착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상호성에 기반을 둔 친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감지하고, 돌봄의 실천이 생명 정치의 장에 일으키는 균열에 주목”했다(서보경, 2021: 222).

이렇듯, 기존 가족질서 밖에서 생성되는 퀴어친족만들기의 과정은 질병, 낙인, 커뮤니티의 연결과 돌봄망을 통해서 생존해 온 퀴어의 역사와 분리되지 않는다. 동시에, 퀴어들은 원가족과의 ‘가족실천’과 쉽게 분리되지 않으면서 여러 갈래의 강제적인 혹은 자율적인 돌봄실천의 장을 통해서 삶을 이어간다. 퀴어들은 원가족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레첵과 보슬리 스미스(Reczek·Bosley-Smith, 2022)는 “퀴어들이 부모-성인 자녀 관계에서 이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일까요?”라는 질문을 통해서 ‘강제적 이성애주의’ 뿐만 아니라 혈연가족과 분리되기 어려운 ‘강제적 친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퀴어들이 맺고 있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강제적인 친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원가족과 불화하는 퀴어들이 여전히 원가족을 떠나지 못하는 현실을 분석하면서, 법적으로 독립한 어른이 된 후에도, 부모의 중요성은 계속됨을 분석한다. 특히, 삶과 죽음에 걸쳐서 생존을 가족에게 일임하는 ‘사회인프라 가족주의’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장경섭, 2023) 퀴어들은 원가족 안에서 폭력의 상황에서도 탈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 부모를 돌봐야하는 생존의 책임에 놓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짙을 수밖에 없다. 개인의 선택이든, 사회적인 조건이든 성소수자들은 원가족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게이남성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예외가 아닐 것이다.

4. 이성애규범적인 남성성, 돌봄관계망과 불화하기

그러면, 게이 남성성과 돌봄은 규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왔을까?

기존에 헤게모닉한 남성성 모델은 ‘여성화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남성성의 위기나, 남성의 삶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니얼 헨런(Niall Hanlon)은 남성들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돌봄이라고 규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별거한 경우에 직면하는 ‘돌봄 공백’을 싱글맘과 연대의 가능성으로 사유하기 보다는 페미니즘으로 인해서라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니얼 헨런, 2017: 293). 또한, 위의 니얼 헨런의 연구에서 남성들에게 돌봄이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남성은 돌봄을 떠맡더라도 덜 잃는 반면, 위태롭게 남성성을 움켜쥐고 있는 남성은 더 큰 위협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니얼 헨런, 2017: 294). 위의 결과는 남성성과 돌봄에서 모든 남성이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지위나 인종화된 조건에 따라서 균일하지 않은 돌봄 수행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남성성과 돌봄이 맺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은 게이 남성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의미들이 규범적인 남성성, 돌봄의 의미와 어떤 지점에서 다른 정동을 드러내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돌보는 남성성’ 개념을 통해서 남성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의미를 포착하고자 하는 주요한 흐름들이 존재한다(안숙영, 2017; 문현아, 2021). 문현아는 ‘돌보는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부모돌봄, 자녀 돌봄을 수행하는 남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족돌봄에서 ‘여성적’인 가치로 간주되어 온 사랑, 정서적인 교류, 보살핌을 터득하는 남성들의 돌봄 노동을 ‘돌보는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가족 안에서의 ‘부모돌봄’, ‘가족돌봄’의 의미들을 통해서 남성들의 삶에서 돌봄이 어떻게 연결되고,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위의 논의들이 결혼 관계 안에서의 남성의 돌봄에 주목했다면, 지은숙(2014)은 부모를 돌보는 일본의 비혼남성의 사례를 통해서 여전히 헤게모니한 남성성이 공고하며 그 속에서 비혼 남성의 돌봄이 주변화되고 있지만, 돌보는 남성성은 가족변동의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의 논의들은 돌봄과 무관한 존재로 간주되는 남성들의 삶에서의 돌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하게 천착하고 있지만, 게이들이 맺고 있는 돌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헤게모니한 남성성과 다른 위치에

놓여진 게이들이 돌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질문은 구성되는 남성성의 조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일 수 밖에 없다. 김경태(2018)는 트랜스젠더, 불법 채류 중인 이민자, 중년 유부남과 가난한 소년과의 사랑에 대한 여러 퀴어영화를 분석하면서 섹슈얼리티 중심으로의 삶이 아니라 돌봄 행위를 통한 관계성 실천을 ‘퀴어한 친밀성의 장’의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명명하고 있다. 관계를 정치화하는 삶의 양식과 돌봄이 결합되는 논의는 김건형이 최근의 게이영화의 주요한 흐름을 분석하는 것에서도 보여진다. 김건형은 게이로맨스의 서사적 구조가 ‘성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로맨스가 아니라 돌봄을 통한 상호의존의 친밀성의 장이 로맨스의 구조로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기존에 근대적, 독립적인 남성중심의 생애모델에 개입하면서 ‘비이성애적-남성젠더 되기’의 과정으로 분석한다(김건형, 2022).

무엇보다, ‘낙인화된’ 관계를 가로지르면서 일상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노동’이 만들어내는 퀴어친밀성은 게이들이 맺고 있는 일시적인 만남, 성적인 친밀성이 돌봄과 무관하지 않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 이것은 게이남성들이 도시공간에서 맺는 낯선 성적 관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재생산에 주목하는 논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안드루키(Andrucki, 2021)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역사적으로 퀴어공동체가 자리해왔고, 점차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팽배한 도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레크리에이션 섹스와 에로틱한 돌봄 제공 사이의 경계에서 작동하는 비모노가미적 만남이 퀴어적 형태의 사회적 재생산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나영정은 ‘쾌락을 돌보는 친밀성의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문란한 섹스 자체는 수치도 자궁심도 아니지만 문란하다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될 때 문란함은 정치적인 의미를 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한다(2022: 152). 돌봄을 정치화한다는 것은 젠더화된, 인종화된 방식으로 돌봄을 강제하는 권력의 층위뿐만 아니라 캐주얼 섹스는 오로지 쾌락만이 있고 돌봄과 친밀성과 무관하다고 보는 태도에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돌봄의 자리로부터 쉽게 추방시키는 권력에 개입하는 것을 요청함을 의미한다(나영정, 2022). 특히, 게이들의 돌봄에 관한 논의는 성적인 것, 문란하다는 것, 수치스럽다는 것을 재정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관계만이 삶에서 중요한 관계로 사유하는 관계의 위계를 해체하는 것과는 연결된다. 더글러스 크림프(2021)는 1980년대 에이즈 위기의 시기에 생성된 퀴어 커뮤니티의 집단적인 돌봄망을 통해서 게이들이 돌봄과 무관하다는 태도에 개입해 왔고, ‘문란함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라는 대항담론을 통해서 성적인 낙인과 수치심으로 연결되는 돌봄의 유대를 정치화했다.

5. 퀴어/가족실천의 여러 양상들

게이 남성이 경험하는 돌봄은 가부장제에 의해 구조화된 불평등한 돌봄과 그로부터 탈피한 형태의 돌봄 양자 모두와 관계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게이 당사자 간의 파트너 관계뿐 아니라 게이 당사자와 원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돌봄을 정치화 하는 것은 돌봄에 부착된 여러 정동들-취약함, 나약함, 의존, 문란함, 여성적인 가치-을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아메드(Ahmed)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동일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낯설고, 이질적인 감정들이 퀴어한 정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아메드, 2023). 돌봄 수행과 퀴어한 정동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돌봄이 개인의 삶의 조건과 무관하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 퀴어, 나이, 사회적인 자원등 사회적인 조건 속에 놓여진 개인들의 돌봄 실천의 장이기 때문에, 돌봄을 통해서 가시화되는 정동들은 사회적인 불평등, 혐오, 취약한 유대, 퀴어한 생존의 방식들을 드러낸다. 게이들이 원가족돌봄, 파트너 돌봄, 퀴어한 사회적 돌봄을 수행하면서 보여주는 다양한 정동들은 돌봄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1) 원가족 돌봄

게이남성은 성적 파트너와의 관계로만 그 실체를 갖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호명된다. 하지만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맺게 되는 원가족의 존재가 있듯이 게이남성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 원가족은 게이남성의 정체성과 성적 실천을 둘러싼 내적, 외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쉽게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진다. 특히 부모세대의 노년기 돌봄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비공식적 돌봄에 많은 부분이 기대어 있고, 설혹 자녀세대가 물리적, 감정적으로 독립을 한 상태라도 부모세대의 노년기 돌봄에 대한 요청은 강력하게 당사자들을 가족으로 다시 끌어당긴다.

① 죄책감, 미안함으로 재구성되는 ‘남성성’

게이들이 수행하는 원가족 돌봄을 통해서 가시화되는 정동은 아들로서의 위치, ‘실패한 남성성’에 대한 가족 안에서의 역할, 성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의 돌봄의 의미 뿐만 아니라 원가족과의 애착관계 안에서의 ‘정서적인’ 돌봄의 의미와 연결된다. 간병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긴장도 아니고, 갈등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돌봄을 지속해온 것에 대해 G는 이를 한국 사회에서 남자로서, 아들로써 기대 받아온 것에 따른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제 나이 정도 되는 게이들은 다 부모님, 어머님 모시거나 아버님 모시거나, 진짜 많아요. 남자 게이들은 항상 남자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요. 그 책임감이. 그래서 제 주변에 제 또래는 다, 모시는 사람 진짜 많아요. (참여자 G)

싱글 남성의 부모 돌봄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비혼 남성이 주돌봄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남성이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남성성을 훼손할 것 같지만 오히려 돌봄을 계기로 집안의 기둥 노릇하면서 가부장적 남성성을 재구성하고 강화하기도 한다고 서술한다(조명아·김주현, 2021). 하지만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제대로 된 남성의 역할이다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게이남성의 돌봄 실천은 가부장적 남성성을 재구성하는 경로에서 자꾸만 미끄러진다. G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변조 되지 않은 TV 인터뷰로 인해 가족들에게 아우팅이 되었고, 집에서 “게이라는 이유로 큰 소리도 못내고”, “하는만큼 대우를 못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삶을 쏟아붓는’ 돌봄은 G의 가족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거나 보상받지 못했다. ‘장남’으로서 가족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아 일가 친척 중 유일

하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되었고 실제로 기대에 부응하여 계속해서 가족을 책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이’라는 사실은 가족이 G에게 부여했던 남성성의 기대를 배신하는 요인이 되었다.

참여자 A는 4명의 형제자매 중 어머니와 동거하며 돌보는 큰 누나 다음으로 돌봄을 다양하게 조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참여자 A는 큰 누나, 어머니와 한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10년 전 치매(인지장애)가 심화되면서 큰 누나가 어머니를 전담하고 자신은 집에서 나와 비동거 상태에서 어머니 돌봄을 하기 시작했다. A는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때에 병원에 큰 누나와 함께 동행하고, 어머니와 큰 누나가 기초대상 수급이나 사회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전담하고 있다. 참여자 A는 경제적인 이유로 제품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폰하고, 컴퓨터하고, 태블릿을 3개 정도는 돌려보면서 가격을 체크하고 물건을 구입한다고 한다. 이렇듯, 참여자 A가 수행하는 돌봄이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A가 자신의 삶을 돌보는 삶으로 잘 의미화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자라오면서 어머니로부터 ‘남자’, ‘아들’로서 받은 대우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한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누나보다 약간 차별적으로 잘해 주셨거든요. 돈을 많이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바나나는 꼭 주고, 누나들 50만을 때 전 100원 받고 그래서 바로 위에 셋째 누나하고 저하고 나이는 두 살 차이 나는데, 너무 티나게 엄마가 해주시니까 그런 건 좀 되게 미안했죠. (참여자 A)

지금보다 여성으로 사는 게 힘든 시기에 살아오면서 “똑같은 돈을 모았어도 2배는 더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A는 누나들과 자신이 어머니의 돌봄에 돈을 쓰는 것에 의미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여성형제들에 비해 아들로써 자신이 받은 것이 많은 것에 대해 미안함은 A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참여자 C 역시도 “일종의 채무로 여동생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라고 말하며 여동생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자신에게 더 잘하고 기대하는 어머니에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이렇듯, 가족들이 참여자들에게 부여하

는 ‘남성성’, 가부장적 가족질서 속의 ‘아들’에 대한 기대는 참여자들의 내부에서 오롯이 성취되지 않고 굴절된다.

② ‘게이 자식이 효도한다’와 결혼하지 않은 죄책감

가족을 책임지는 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남성성의 수행은 무엇일까. 참여자들은 ‘결혼’이라고 이야기한다.

옛날 종로 속담인데, 게이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종로 속담에 게이 자식이 효도한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출가하면 남인 거라. 기껏해야 돈을 보태죠. 좀 능력 있으면 돈을 보태는 정도고, 요즘은 더 하죠. 있는 부모도 안 모시는 판이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게이들이 원래, 저 때만 해도 게이들이 약간 결혼 안 하는 것, 결혼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결혼 안 하면 약간 원죄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약간, 옛날 게이인 거죠, 제가 이거라도 해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계속 참고 견디게 돼요. (참여자 G)

게이라는 것은 커밍아웃 여부를 떠나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는 최적의 돌봄 자원이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보다 우선해서 돌볼 가족, 양육할 자식이 없기 때문에(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게이남성은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 설혹 파트너가 있거나 동거하는 친구가 있거나 함께 살지 않아도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도 이성애법률혼과 출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족 이외에 함께 살거나 친밀함을 나누고 돌보는 여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 써도 되는 관계로 위계적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것,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성취로 해석되는 결혼과 출산을 원가족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은 죄책감으로 다가온다. 참여자 C가 한 번도 독립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쪽 어머니와 함께 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내가 왜 그렇게 같이 살았냐면 외아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 안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출세를 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거를 내가 못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못해드린 것에 대한 내 죄책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하면 리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리워드를 내가 핵심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안함 부담감 그러니까 짜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살았던 게 있어요. (참여자 C)

조명아와 김주현(2021)은 남성 돌봄자의 경우 돌봄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이나 의사소통 등의 상호작용이 소극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여성 돌봄자의 특성과 대조적이라고 분석하였으나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쓰는 것’을 돌봄으로 정의하고 실천했다.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는 참여자 B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혼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 약속을 만들지 않으면서 어머니의 ‘걱정을 줄이기’를 돌봄으로 의미화 하고 있다. 원가족과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매우 밀착된 삶을 사는 B는 자신의 일정이 투명하게 가족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명함 속에 가족을 걱정시킬만한 내용을 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카들이 핸드폰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성소수자 만남 어플도 깔지 않고, “누구를 만나서 뭘 한다고 얘기를 못하니까” 게이로서의 삶을 설명해야 하는 일정은 만들지 않는다.

리즈 오도넬(Liz O'Donnell, 2022)은 <일하는 딸>에서 부모님을 간병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돌봄에 대해 서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봄’, ‘간병’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식사 준비, 옷을 입고 목욕하는 것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돈 관리, 교통편 제공, 쇼핑까지 돌봄의 영역이 다양하다고 이야기한다. 참여자들이 전하는 원가족을 둘러싼 가족실천 양상을 통해서도 미시적인 돌봄 실천의 다양한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게이들이 수행하는 원가족과의 관계성은 시스헤테로 비혼 남성이 가지는 자발적 비혼 선택으로 인해서 가지는 죄책감이나 비자발적 비혼 상황에 놓임으로써 가지는 능력 없음 혹은 억울함과는 다른 정서를 보여준다. 게이들이 보여주는 ‘죄책감’, ‘자녀없음’에 대한 미안함들은 아들에 대한 기대와 결혼을 안하는 비(이성애)혼으로서의 위치성이 중첩되는 정서이며, 부모의 기대에 맞는 ‘보상’이 불가능한 조건과 맞물리는 아들, 게이, 퀴어로서의 조건

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죄책감은 결혼이 선택가능한 생애조건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인 정동이 아니라 게이로서 정체화 해온 시간 속에서 누적된, 집합적인, 연결적인 정동이며, 이성애규범적인 가족, 관계, 생애와 불화하는 퀴어성과 공존하는 정동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죄책감은 개별적인 관계 안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회가 강제하는 비(이성애)혼과 다른 삶의 양식을 만들고, 다른 삶이 가능함을 함께 모색해 온 퀴어생존의 생태계와 분리되지 않는 퀴어한 정동을 의미한다.

2) 파트너 돌봄: 퇴로없는 상황에 대한 급진적인 수용

게이남성들은 연인관계에서 언제 돌봄을 하고 받는다고 느낄까. 게이남성들이 파트너 사이에서 주고받는 돌봄은 어떤 양상을 보이며 당사자들은 어떻게 의미화할까. 당연하게도 파트너 관계를 맺는 방식과 동거유무, 기간, 질병과 장애, 나이에 따라 다른 의미와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게이남성이 수행하는 전반적인 돌봄과 마찬가지로 게이남성 파트너 사이에 일어나는 돌봄의 행위 또한 사회적으로 매우 비가시화되어 있다.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도 동거하는 동성커플은 많이 있지만 우리처럼 누가 또 이렇게 전적인 돌봄을 하고 있을까 묻기도 했다.

이번 장에서는 일정기간 혹은 장기간 동거하면서 에이즈 관련 기저질환을 앓거나 또 다른 질병이 생겼거나 암 투병을 하는 파트너에게 간병과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인터뷰 참여자의 경험을 주요하게 다룬다. 물론, 동거하면서 일시적으로 돌봄을 주고 받았던 경험을 가진 참여자, 동거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동반자로서 중요한 돌봄을 주고받는 참여자의 경험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14년 된 G의 애인은 G가 게이바를 운영해나가면서 겪는 기쁨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며, 원가족과의 중요한 경조사의 자리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한다. 파트너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H와 I는 매일 매일 일상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일터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다리를 다쳐서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삶의 위기로 다가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 실천을 수행하고 살아가지만, 장기간 아픈 파트너를 위해서 돌봄 중심으로 일상을 조직하고

살았던 세 명의 게이남성들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퀴어, 질병, 사회적인 편견, 빈곤 등의 의제 속에서 살아내는 퀴어생존의 조건에 천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세 명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어떻게 질병이 있는 파트너의 주된 돌봄자가 되고,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역할을 매일 매일 해나갈 수 있을까. 세 명의 주된 돌봄책임자인 파트너들은 HIV/에이즈라는 질병을 이유로 원가족으로부터 애초에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거나, 질병을 이유로 단절되었다. 에이즈 확진과 함께 찾아온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빈곤 등으로 원가족으로부터 인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혹은 커밍아웃 이후 불편해진 관계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등의 이유로 원가족에게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 그냥 (암)진단 받은 게 너무 그냥 충격이었고 우리 가족에 대입해봤을 때 누군가 데려가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돌보면 너무 병이 더 악화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가 저를 선택했어요. ○○이도 원가족과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진단 받기 얼마 전에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안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가족이 ○○이를 베어내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참여자 F)

F는 자신이 전혀 돌봄자로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위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돌볼 수 있을 거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파트너가 자신을 선택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나간다. F는 파트너가 “자신을 나에게 던졌다”라고 표현한다. 그 이후로 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둘만 있었던 적이 있었나? 그리고 감정이 너무 진한 거예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이는 어땠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너무 약간 사랑하는 느낌이었어요.”라고 했다. 아직 30대 초반인 참여자F는 30대 초반이었고, 암투병을 하는 파트너도 2살이 많은 나이였다. 진단을 받기 직전 두 사람 모두 그동안 디자이너로서 쌓아온 경력이 인정을 받아 좀더 도

약을 하는 시점이었고, 큰 계약을 성사시켜서 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말기암 진단으로 급격하게 일을 축소하고 치료에 전념하는 생활로 바꾸어야 했다. ‘젊은 환자’와 ‘젊은 간병인’이 된다는 것은 청년층에게 기대되는 정상성과 생산성을 지향하는 삶의 속도를 바꾸고, 그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환자에게도, 그를 돌보는 젊은 간병인에게도 질병을 받아들이고, 주 돌봄자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가장 큰 무게를 지니는 것이 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2022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의 비율은 약 36.7%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그 비율은 46.8%로 더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

특히 PL의 경우에는 돌봄의 어려움등을 주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더해지지만 현재의 상황을 견뎌내는 가장 중요한 힘은 이 상황을 ‘선택’이 아니라 파트너 돌봄을 필연적인 운명으로 수용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 D는 편마비 상황에 있는 파트너와 함께 에이즈환자를 위한 쉼터에서 생활을 하다가 D가 다쳐서 수술을 하는 동안에도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돌보았다. 하지만 퇴원 이후에 파트너를 돌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파트너는 에이즈 환자를 받아주는 좋지 않은 환경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D가 몸을 회복하고 요양병원에 방문하려고 하자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문이 쉽지 않고, 연락조차 쉽지 않았으며, 요양병원 내에서 전혀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고 인권활동가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빼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병원측의 거부로 실패하고, 파트너의 친형을 설득해서 겨우 퇴원을 시켰다. 가족이 포기하고, 병원이 반대한 돌봄을 ‘쟁취’한 D는 그 이후부터 5-6년간 동거하며 전적인 돌봄의 책임자로 생활하고 있다. 참여자 D는 PL로 살아가는 파트너가 요양시설에 있을 때, 그곳에서의 구출을 포기하지 않았고, 돌본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형을 제가 포기했으면 [시설에]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있고 내가 안 지켜주면 불쌍하죠. 그냥 내가 악한 마음을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나쁜 놈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너란 사람은(본인의 이름을 호명함) 천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냥 너는 이 독한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놈이다. 니 본성대로 움직여라. (그렇게 안 하셨으면 후회하셨겠어요?) 모르죠. 더 편하게 살았겠죠. 당연히 더 편하게 살았죠. (약간 후회하세요?) 후회는 안 해요. 그건 뭐 후회는 안 해요. 내가 선택한 게 있는데 후회는 안 해요. 절대 후회는 안 해요. 그냥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괜찮아 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잘한 거야. 네가 사랑해서 네가 좋아서 한 건데 뭘 그거는 결론은 똑같아요. 후회는 안 해요. (참여자 D)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있고 내가 안 지켜주면 불쌍”해서, “절대 후회는 안해요” 라는 이야기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라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당신이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어찌면 다른 선택지가 가능한 사회일 때 그 물음의 진정한 의미가 가능하며, 고립된, ‘버려지는’ 장소에서 삶을 마감하게 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이럴 때, ‘급진적으로 수용하기’는 단순히 체념이나 무력감이 아니라 기필코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의지이며, 앞으로 삶이 어떻게 이어질지 ‘애써’ 질문하지 않으면서 ‘현재에 머무는’ 삶의 전략을 의미한다. 아래의 참여자 E 또한 본인과 파트너 모두 HIV감염인이며, 일상의 모든 돌봄을 담당하고 있지만 힘들지 않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내 주어진 삶이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걱정은 아직까지 뭐 그런 걱정은 없어요. 그냥 파트너하고 그냥 편안하게 항상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사람보고 항상 웃으면서 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서로 웃으면서 살아야지 찡그리면서 뭐 하러 살아요. 화내고 살면 화병 생겨(왜 그렇게 웃으면서 사셨어요?) [원래는 안 그랬고] 아프고 나서부터. 화병 생기는 것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합병증도 그렇고. 골치 아픈 짓은 다 버려!!(참여자 강조). (참여자 E)

위의 참여자는 인터뷰 내내 크게 웃으면서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걱정은 안해요’, ‘어쩔 수 없지 뭐’, ‘내 주어진 삶’이라는 이야기들은 다른 사회적인 안정망이 없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의

미하지만 퇴로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파트너 돌봄을 전적으로 수행한 참여자들은 “나를 우리 엄마처럼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참여자D)은 파트너밖에 없었다고 전하거나, 참여자 E 또한 일본에서 미등록 체류자였던 본인을 HIV확진 이후에 자신을 지극히 돌보았던 전 파트너에게서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의미로 현재의 돌봄의 의미를 맥락화 하고 있었다. ‘급진적으로 존재하기’ 책에서 피에프즈나-사마라시나(Piepzna-Samarasinha)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서로의 삶을 구하는 방식과 분리되지 않는 장애정의를 강조하면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참한 현장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찾고, 구출하는 모든 곳은 장애정의를 작동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레아 락시미 피에프즈나-사마라시나, 2023). ‘급진적으로 수용하기’는 주어진 방식대로 살게 하는 사회에 불온하게 개입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으며, 서로를 연결하고, 돌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아낸 퀴어하고, 근본 없는 계보들이 만든 오염된 삶과 관계를 보여준다.

3) ‘퀴어한 사회적’ 돌봄

게이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돌봄 관계망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퀴어로서의 삶을 승인하는 타자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장을 구축하는 토대이며, 퀴어로서 사회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퀴어한 사회적인 돌봄’으로 명명할 수 있다. 게이로서의 삶 자체가 동일한 정체성으로 묶여질 수 없고,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자원, 직업, 나이, 외모자원, 성적인 만남 등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봄을 통해서 연결되는 ‘퀴어한 사회적인 돌봄’의 세계 또한 하나이지 않은 여러 갈래로 만나고, 흩어지는 유동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분절적인 ‘퀴어사회’를 반영한다. 참여자들은 우정적인 유대에 기반을 둔 상호적인 돌봄이나, 게이 사우나나 원나잇을 통해서 우연히 수행되는 ‘문란한 돌봄’ 등을 통해서 원가족 돌봄, 파트너 돌봄뿐만 아니라 ‘퀴어한 사회적 돌봄’의 장을 실천하고 있다.

① 우정적인 유대를 통한 사회적인 돌봄

친구관계망 안에서의 돌봄 실천은 일상적인 유대를 만들어가는 의미부터

실질적으로 곤궁에 처했을 때 기꺼이 의지할 수 있는 영역까지 다양하게 이야기 되고 있다.

(그 친구는) 제가 만약에 엄청 어려워졌어. 그러면 나는 기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뭐든지 그냥 내가 되게 어려워졌을 때 나 힘들어 네가 책임져줘.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친구는. (참여자 I)

서로에게 ‘나를 책임져’라는 이야기가 가능한 관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위의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친구는 초창기에 친구사이를 함께 만든 ‘동지적 관계’이자, 긴 시간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서로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목격자’의 위치를 갖는 존재이며, 혈연이나, 파트너 관계를 넘어서 수행되는 상호의존의 퀴어친족관계이기도 하다. 이렇듯, 자신이 아픈 순간, 힘든 순간에 기꺼이 자신을 고통을 내어줄 수 있는 책임의 윤리는 본인 또한 커뮤니티에서 아픈 후배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냥 저도 그렇고 제 파트너도 그렇고 약간 옛날에 이제 그 친구가 아플 때도 그렇지만 재가 뭐 일을 못하게 됐다. 이러면 그냥 우리가 먹여 살려야지 뭐.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I)

“먹여 살려야지 뭐 어떻게 해”라는 의미는 우정적인 유대의 의미를 넘어서 생존의 생태계를 구축해 온 관계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아프고 취약한 순간이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생존할 수 있는 상호적인 돌봄의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특별한’ 이야기들은 이 세계가 무수한 보이지 않는 돌봄을 통해서 어떻게 유지되는지, 어떤 관계들이 이 사회를 살만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참여자 C는 취업이 안되는 주변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사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 상대가 “일종의 여기 동네에 가난한 퀴어를 돌보는” 것으로 의미화했다 라고 전하면서, “저를 중심으로 이제 퀴어커뮤니티”가 생기는 실천에 돌봄이 연결되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무엇보다, 파트너를 돌보는 주 돌봄책임자인 참여자들은 주변에 지인이나, 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인 KNP+가 조력하는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참여자 D는 감염인 지원 기관에서 재가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먹거리를 보내주어서 도움을 받고 있고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이동지원을 함께 해 주어서 감염인을 위한 치과 진료에 다닐 수 있었다. 참여자 F는 암투병 이후에 사망한 파트너가 인권활동을 오래했고,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 온 활동으로 인해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친구들이 ‘폭발적’으로 연락을 해 왔고 집에 찾아와서 함께 했다고 한다. 또한, 정서적인 지원과 조력을 넘어서 파트너의 친구가 30명의 주변의 창작자들을 모아서 구독자에게 메일로 글을 보내는 일을 6개월 정도나 진행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암 말기에 시골 양양으로 옮기려고 계획할 때 파트너의 대학 후배들이 900만원을 모아서 보냈다. 이러한 주변 친구들의 조력이 아픈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돕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돌봄을 전담하는 자신이 설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돌봄 교대를 했다면 어땠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주변에서도 돌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다고 한다. 참여자 A 또한, 자신이 2년 전에 응급실에 갔을 때 원가족의 도움이 아니라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결혼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첫 세대로서 결혼관계나 원가족이 아니라 친구들이 함께 한 슬픈 자리, 아픈 순간의 힘은 오래도록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결혼하지 않는 첫 세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경조사를 맞이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동의 순간이 있어요. 이것도 게이 돌봄을 받은 거죠.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빨리, 게이 패밀리 중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관을 6명이 들거든요. 그날 게이 5명과 일반 친구 1명이 관을 들어줬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너무나 무고마운 멋진 추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조사에는 꼭 가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게이들이 쪽 앉아서 있고, 또 이렇게 장지까지 따라가고 이런 장면들이 아직도 감동적이고,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요. (참여자 G)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이 나이듦, 빈곤, 혼자살기의 불안 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기의 양식을 찾아가는 실천들 또한 여러갈래로 시도되고 있다. 참여자 I가 활동하고 있는 친구사이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40-50대가 주축인 ‘언니의 분장실’을 만든 이유 또한, 함께 나이 들어가는 유대의 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부의 참여자들이 게이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과 자신은 무관하며, 돌봄은 아픈 사람들의 것이며 자신의 경험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토로하는 것은 시공간에서 달라지는 삶의 조건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뮤니티의 돌봄을 수행해온 앞선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우정적인 연대의 실천들은 퀴어의 삶의 계보이자 자원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규범적인 삶을 퀴어링하는 ‘퀴어한 사회적 돌봄’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② 취약감을 연결하는 돌봄, 취약함을 확인하는 돌봄의 시간들

이진희(2023)는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의 글에서, 사회적으로 초대받지 못하는 존재들, 의존적이고 취약한 존재로만 규정하는 불구의 몸들에게 돌봄의 정치는 흠들리는, 불완전한, 실패의 역사이며 완벽한 세팅에 저항하는 불화의 과정이라고 언급한다. 퀴어들에게 관계의 시간을 쌓아가고, 머물고, 소속될 곳을 만들어가는 여정 또한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흩어질 수 있는 모욕으로 연결되는 돌봄이며, 취약함과 분리되지 않는 상호의존적인 돌봄의 장임을 보여준다. 생애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정동적인 돌봄은 사회적으로 퀴어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몰리거나, 낙인화되는 존재로 규정될 때 그 취약한 세계를 상호적으로 감각하는 조건과 만난다. 코로나 19상황에서 이태원이 혐오의 장소로 변하고, 사회적으로 낙인화될 때 그 장소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모욕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상호적으로 감각하는 연결성 또한 전염되는 정동의 조건을 드러낸다.

좀 멧혔어요.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누군가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누군가 걸리고 누군가가 또 넘버링을 부여받고. 막 이런 과정을 보는 게, 와 이게 현실인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좀 그랬었죠. [...] 그 당시, 이거는 코로나

의 문제가 아니라 아우팅의 문제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욕을 했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죠. 그냥 내 사람들이 욕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분명 그 안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참여자 H)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이토록 취약하다 라는 느낌은 반복되는 언론의 혐오적인 발언들, 아웃팅에 가까운 발언들을 마주하면서 직접적으로 체감된다. 이렇듯, 게이들의 삶에서 돌봄의 의미들은 사회적인 재난과 호모포비아 등과 맞물려서 작동할 수 밖에 없다. 퀴어 혐오자들이 성소수자들을 사회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적인 존재로 낙인화하지만, 지인이 아닐지라도 “내 사람들이 욕 먹고”있는 것 같은 감정들을 퀴어들이 갖는 것은 나의 삶과 너의 삶이 분리되기 어려운, 유동적인 바이러스적인 주체로의 연결의 정동을 또한 드러낸다(임옥희·김미연·김은하, 2022).

한우리는 코로나 19 재난 시기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 발로 지목된 게이들에 주목하면서 게이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한국사회의 선형적인 발전과 진보를 방해하고 개인의 책임을 방기하는 대상으로 구성되는 생명정치의 장과 연결됨과 동시에 성적친밀성이 집단적인 돌봄과 연대의 장을 생성하는 대항적인 의미로 작동하는 정치적인 조건을 분석하였다(한우리, 2021: 49).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돌봄일지라도 게이들이 만나는 장소들은 호모포비아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대항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점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말 게이바가 문을 닫는 것은 단순히 ‘사라진’ 북적거리는 풍경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 사랑한 곳”들이 사라지는 삶의 장소성의 상실을 의미하며, 단순히 유흥의 공간만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정되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돌봄의 부재의 가능성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김대현, 2021: 125). 삶의 장소성이 게이바와도 연결되는 맥락은 퀴어에게 커뮤니티 돌봄이 왜 이 사회에서 소속감을 갖는 것과 만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저는] 돌봄이라는 단어 자체를 되게 넓게 보고 있는 거라. 정말 넓은 의미에서는 게이 커뮤니티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 뉴비가 왔을 때, 이

사람에게 술집 하나를 알려주는 것도 돌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가족이 아플 때 간호해 주는 것도 돌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거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 소속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참여자 H)

‘커뮤니티 만들기로서의 돌봄’의 의미는 게이바를 운영하는 참여자 J가 2004년 개업할 때부터 가게 앞에 ‘무지개 깃발’을 걸고 영업을 시작한 이유와 만난다. 2004년 당시만 해도 일반사람들 뿐만 아니라 게이들 또한 그 가게 앞에 걸려있는 무지개 깃발로 인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에, 무지개 깃발을 걸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무지개 깃발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나, 게이바로 1년에 두 세 번은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절하지 않은 것은 성소수자 인권 활동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커뮤니티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고 전한다. 게이바를 운영하는 다른 참여자 G또한 게이바를 통해서 세대 간의 힘겨움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퀴어 사회적 돌봄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삶의 장소로서의 돌봄의 의미들은 사회문화적인 조건과 교차될 수밖에 없다. 아래의 참여자는 파트너와 같은 곳에서 오래 살수록 정주성을 감각하기보다는 이전과 다른 ‘불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제가 30대 40대에 집에 살 때 (주변)사람들은 말은 안 하겠지만 (남자)저 둘이 산다는 걸 의식을 했을 거거든요. 다가구주택에 살 때도 주인이 또 3층인가 살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분명히 저 두 사람이 계속 오래 같이 사는데 남자만 살아. 그러면 분명히 의심을 하죠. [...] 제가 그 반찬을 살 때마다 저는 그때는 봄 되면 마늘 장아찌도 담는다고 막 마늘을 막 세 박스 50개짜리 묶음 3개를 사가지고 집에도 안 가요. 그 쓰레기 나오니까 [시장] 거기서 다 까서 그 아줌마랑 있는 데서 까서 집에 가서 마늘 장아찌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다 의식을 했겠죠. 근데 저는 뭐 의식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었으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노쇠가 되면서 정신도 노쇠가 될 텐데 (주변의 시선에 대해)그런 의식을 내가 스스로 안 할까라는 생각

이 드는 거죠. (참여자 I)

돌봄이 사적인 세계가 아니라 공적인 시공간과 접속하고, 관계 맺는 장일 때, 위의 이야기는 한 곳에서 시간을 쌓고, 돌봄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시성’이 시민으로서의 돌봄의 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듦, 귀어에 대한 낙인 속에서 가시화 될수록 취약해지는 현실을 또한 보여준다. 주디스 버틀러(J. Butler)는 취약성을 주관적 기질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것과 삶이 연루되는 방식이라고 규정한다(주디스 버틀러, 2021). 이렇듯, 개인의 속성으로서의 삶의 취약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삶과 분리되지 않는 ‘취약한’ 돌봄과 유대의 장에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돌봄 관계망과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체계에 급진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제기한다.

③ 성적친밀성을 통해서 연결되는 ‘우연적/문란한 사회적인 돌봄’

모든 게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익명의 상대(들)와 원나잇 스탠드를 하는 것은 그동안 게이남성이 섹슈얼리티를 추구하는 주요한 문화로 자리잡았고, 도시가 형성되는 시점과 역사를 함께 해왔다. 낯선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게이바, 클럽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공원과 화장실과 같은 공중 공간이나 모텔과 집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캐주얼한 섹스가 이루어져왔다(유성원, 2020; Andrucki, 2022). 이러한 게이 섹슈얼리티 문화와 돌봄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다. 참여자 K는 일회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공간 속에서도 돌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상대방과 함께 감각하고자 애쓰고, 그것이 삶의 가능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캐주얼한 섹스를 하기 위해서 어플로 약속을 잡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나를 어떻게 어필하고 싶은지 사진이나 메시지를 적는 것부터 매우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담을 쌓아가면서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정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와 각본을 습득하고 수행한다. 또한 내가 만나고 싶은 이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내가 받은 쪽지를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또 다른 메신저로 옮겨가기까지 대화를 지속하고,

약속을 정하고, 그날 혹은 다른 날 섹스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하기까지 무수한 단계들이 존재한다. 그 사이에서 식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상한 취향을 가졌거나 대화의 기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만남의 시도는 중단된다. 그 과정에서 예고 없이 차단을 하거나, 양해 없이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참여자 K는 대부분의 게이 가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좌절하면서도 자신의 매력자원이 부족한 탓을 하며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필하려고 한다. 만남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다정하게 원나잇 생태계를 꾸려가는 것을 인권활동가가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돌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정말 이 바닥 애들이 참 매너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애네들이 나를 차단하거나 뭐 어쩌거나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뭐가 배려하는 관계인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저의 또 인권활동가로서의 사명감 아닌 사명감은, 좋은 선례를 남겨주자. (웃음) 야 네가 어떤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지는 좀 알아놔라. 알아놓고 해라, 그런 거죠. (몸소 보여주는 거군요.) 상당히 의식적으로 해요. (참여자 K)

돌봄이 삶의 활력과 삶의 욕망과도 연결될 때, 게이들에게 돌봄은 지속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통용가능하고, 순환되는 서사들은 지속적인 돌봄이나 친밀성을 중심으로 사유한다. 사회 속에서의 서사의 부재가 퀴어커뮤니티 안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서사의 부재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참여자 K는 익명성/지속성의 이분법이나, 지속성을 통해서 상상되는 친밀성 서사로부터 미끄러지는 경험적인 서사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참여자 K는 원나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성들을 “서사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에피소드가 나열되는 관계”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와 만남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일어나고 정동과 문화규범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서사가 생산된다. 이런 흔하지만 동시에 주변화된 경험들이 에피소드로 나열되고 휘발되어버리지 않도록, 이러한 캐주얼한 섹스와 섹슈얼리티 문화가 은폐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인권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소위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도화를 통해서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누락되기 쉬운 ‘이름 없는 관계’, ‘이름 없는 돌봄’, ‘이름 없는 실천’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고, 제도화된 관계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해내며 서로를 보충한다.

이제 최근에 관계를 정리했다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 2020년도에, 한 5월달 쯤에 이태원에서 데이트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이태원에서 그게 이제 터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야. 어디 어깨가 부러졌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간호사가 갑자기 전화를 한 거지, 나한테. 그래서 애는 이제 혼자 사는 앤데 나를 찾더래요. 회의 마치고 병원에 가서 “넌 내가 보호자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 밤을 같이 보내줬던 그런 거 있고. (참여자 K)

위의 참여자가 섹스파트너에게 인권활동가 명함을 주는 행위는 커밍아웃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성소수자로서 무슨 일이 생길 때 너를 돕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찰나의 약속, ‘찰나적 친밀성’을 건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이들에게 돌봄의 장은 이태원이나 사우나 또한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가능한 ‘우연한 친밀성’을 생성하는 장소로서 의미화되고 있다.

저는 이태원에 다녔던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다니고 사우나에 다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쪽을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외모적인 매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하는 것이 동시에 겹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나한테는 되게 큰 공포였고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참여자 C)

위의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게이문화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조건에서 나이, 외모 자원이 중요한 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커뮤니티 또한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 모이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이 사라지면 커뮤니티의 역할이 축소되곤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참여자들이 외모나 섹스파트너와 무관하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으로 친구사이나 인권단체를 강조하는 것과 연결된다. 퀴어에게 상호적인 관계성이 삶에서 의미가 클수록 내가 맺어온 세계와 분리되는 공포가 클 수밖에 없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기 어려운 조건들은 이성애규범적인 사회 속에서 감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퀴어 내부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문화 자원에 따라서 게이돌봄지도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외모, 나이, 자원, 질병에 따른 ‘동성애규범성’이 퀴어 커뮤니티 ‘안’과 ‘밖’에서 상호적으로 작동하면서, 다층적으로 퀴어 생존의 생태계를 구축함을 보여준다.

6. 나오며

근대의 추상적인 남성중심의 개인 모델이 아니라 게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 돌봄, 연결에 주목하는 것은 돌봄을 통해서 삶이 이어지고, 관계가 구성되는 돌봄망을 가시화하는 것이며, 사회적인 위치성에 따라서, 기존에 규범적인 돌봄, 남성성과 불화하면서 생성되는 돌봄의 의미들에 천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게이 남성들이 수행하는 원가족, 파트너 돌봄, 커뮤니티, 친구 등을 포함한 ‘퀴어한 사회적 돌봄’ 속에서 가시화 되는 생존의 세계와 퀴어한 친족만들기로서의 돌봄 관계망에 주목하였다. 또한, 게이 남성의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퀴어생태계에 주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편견, 질병, 외모, 나이, 자원등과 교차되는 삶의 조건 속에서 보여지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퀴어한 정동의 지점들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자신으로 살고, 서로 돌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생태계를 모색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운동이 전면화 되는 시점에서, 동성결혼, 생활동반자법 등 제도화를 통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 논의 뿐만 아니라, 게이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퀴어친족만들기의 양상을 통해서 법적인 제도화의 논의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나지 않는 ‘퀴어한’, ‘문란한’ 돌봄의 난잡한 세계에 천착하였다. 또한, 돌봄에 대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퀴어가족정치의 관점으로 ‘퀴어한’, ‘문란한’ 돌봄을 가시화 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서 퀴어들은 규범적으로 따라야 할 모델의 부재 속에서, 규범으로부터 ‘실패된 자리’에서 생성되는 우연적인 연결과 우연한 친밀성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무엇보다, 퀴어친족만들기 장으로서의 돌봄 실천은 소위 ‘정상사회’와 분절적인 이원화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관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원가족, 파트너돌봄 뿐만 아니라 ‘퀴어한 사회적 돌봄’의 장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자신의 노후를 ‘자식 없이’ 상상해보는 첫 세대로서 참여자들은 모델 없는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현재 맺고 있는 관계, 경제적 상황, 감염인으로서의 위치 등 다양한 조건을 생각하며 돌봄과 관계 맺는 ‘나/우리’의 미래를 상상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 머물 것인가, 누구랑 함께 머물 수 있을까라는 ‘그 미래’는 퀴어 내부에서도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자원에 따라서 ‘미래 없음’과 ‘당도할 미래’를 다르게 감각하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미래는 퀴어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성애규범적인 중산층 중심의 가족모델과 시민모델을 집단적으로 정치화 하는 것을 요청한다. 또한, 삶의 불안정성의 차이들은 퀴어 내부에서도 동질적인 정체성 정치가 아니라 퀴어 안과 밖에서 작동하는 규범성과 자원의 차이를 전면적인 퀴어가족정치의 장으로 의제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족 안에서나 사회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간주되지 않은 시민들은 돌봄 실천이나, 친밀한 관계만들기의 장 안에서도 미끄러지고, 보이지 않는 위치로 규정된다. 원가족과 어떤 관계망에 놓여져 있고, 어떤 불화와 갈등을 경험하는지, 또한 어떤 돌봄과 관계성을 실천하는 주체인지에 대해 공적인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삶의 자리가 부재한 시민들의 공동의 토대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퀴어/여성들이 경험하는 관계의 정치의 장으로서의 돌봄 논의와 더불어, ‘생산적이지 않은 존재로’ 간주되면서 사회적으로 삶의 자리가 부재한 ‘뒹이 없는’ 존재들이 경험하는 관계, 돌봄, 연결의 정치의 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건형, 「한국 게이 로맨스 장르의 서사구조」, 『대중서사연구』 28(3), 2022, 95~137면.
- 김경태, 「동시대 퀴어영화와 돌봄의 정치 :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 <시인의 사랑>, <이스턴 보이즈>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14(2), 2018, 261~288면.
- 김대현, 『세상과 은둔 사이: 벽장 안팎에서 쓴 글들』, 오월의봄, 2021.
-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봄, 2022.
- 김순남·김현경·나영정·이유나, 「가족질서 밖 소수자의 장례와 애도를 위한 사례 보고서 : 퀴어한 삶과 죽음을 둘러싼 관계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권연구소, 2023.
- 김영옥·류은숙, 『돌봄과 인권』, 코난북스, 2022.
- 김현경·나영정·정현희 외, 『여기는 무지개집입니다(가족구성권연구소 기획)』, 오월의봄, 2022.
- 김현미,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젠더와 문화』 13(2), 2020, 41~77면.
- 나영정, 「행복이 들어갑니다: 쾌락과 돌봄을 다시 발명하기」, 『문학동네』 2022 겨울호, 2022, 140~156면.
- 니얼 헨리, “돌봄을 수행하는 남성성: 탐색적 분석”, 269~295면,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역)), 한울 아카데미, 2016.
- 더글러스 크립스, 『애도와 투쟁(김수연 역)』, 현실문화, 2021.
- 레아 락시미 피에프즈나-사마라시냐, “아직도 야생의 꿈, 세상의 끝에서 장애 정의를 꿈꾸다”, 373~374면, 『급진적으로 존재하기(앨리스 왕 엮음)』, 가망서사, 2023.
- 리즈 오도넬, 『일하는 딸(이상원역)』, 심플라이프, 2022.
- 문현아,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 모색: 남성의 가족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3), 2021, 33~63면.
-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2023.
- 사라 아메드, 『감정의 문화정치(시우 역)』, 오월의봄, 2023.
- 서보경, 「가운뎃점으로 삶과 죽음이 뭉쳐질 때: HIV감염의 만성질환화 삶·죽음의 퀴어성」, 『경제와 사회』, 129호, 2021, 218~257면.
- 안숙영, 「젠더와 돌봄: 남성의 돌봄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2), 2017,

107~136면.

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나무연필, 2018.

유성원, 『토요일 외로움 없는 삼십대 모임』, 난다, 2020.

이진희,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 『문화과학 가을』 115호 2023, 107~131면.

임옥희·김미연·김은하, 『실격의 페다고지 : 감염병 시대, 실패에 대한 다른 상상』,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22.

장경섭,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박홍경 역)』, 문학사상, 2023.

전희경,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받기”, 29~80면, 『새벽 세시의 몸들에게(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기획)』, 봄날의 책, 2020.

조기현, 『새파란 돌봄』, 이매진, 2022.

조명아·김주현, 「싱글 아들의 노부모 돌봄 경험과 돌봄 의식」, 『가족과 문화』, 33(1), 2021, 1~36면.

주디스 버틀러, 「취약성과 저항을 재사유하기(백소하, 허성원역)」 『문화과학 2021』, 2021.

지은숙, 「부모를 돌보는 비혼 남성의 남성성 : 일본의 젠더 질서와 가족 돌봄의 역학」, 『한국여성학』, 30(4), 2014, 77~117면.

캐슬린 린치·주디 월시, “사랑, 돌봄, 연대 : 상품화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6489면, 『정·동적 평등 :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역)』, 한울아카데미, 2016.

한우리, 「섹슈얼리티를 통해 팬더믹의 규범성과 집합적 돌봄을 상상하기」, 『한국언론정보학보』, 110호, 2021, 49~79면.

Andrucki, MJ., “Queering social reproduction: Sex, care and activism in San Francisco”, *Urban Studies*, Vol.58(7), 2022, 1364~1379.

Cohen, HL. and Murray, Y., “Chapter 14. Older Lesbian and Gay Caregiver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4: 1~2, 2007, 275~298,

Reczek, R. and Bosley-Smith, E., *Families we keep: LGBT people and their enduring bonds with parents*, NYU Press, 2022.

Weston, K., *Families we choose: Lesbians, gays, kinship*.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 Abstract |

Caring as a Practice that builds Relationships of Interdependence of Queer Survival

Kim, Sunnam · Na, Tari Youngjung

This study aims to explore queer kinship and caregiving practices as they intersect with the family system, illness, poverty, and the conditions of aging through interviews with gay men who are often characterized as ‘messy’ and ‘rootless’. To study gay men’s caregiving practices and the queer bonds created through them, I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f 11 gay men who provided short- and long-term care for their parents, partners, and friends when they were ill.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First, just as everyone has a birth family, so do gay men, and these relationships are inseparable, despite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surrounding gay men’s identities and sexual practices. The reasons for performing kinship care among the participants reveal that the responsibilities expected of them as men and sons, as well as feelings of ‘guilt’ and ‘remorse’ as gay men slipping away from hegemonic masculinity through marriage, are at play.

Second, for those participants who were solely responsible for their partner’s care, the reason was HIV/AIDS and cancer, and there was no support for caregiving from the original family. Despite being the primary caregiver, the isolation of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the difficulties of caregiving due to social stigmatization shows the power of isolation. While they all highlighted the difficulty of care work by stating that “making three meals makes the day,” they radically embraced this “choice” to care for their partner and contextualized it as a time to give back the love and care they had received.

Third, participants are practicing not only kinship care and partner care, but also queer social care through reciprocal care based on friendship ties, or casual care performed through gay saunas and one-night stands. In addition, the map

of care and intimacy is not continuous, but fragmented, as who can be socialized within the gay community varies according to economic resources, physical appearance, age resources, and HIV/AIDS disease.

Key Words: Queer, queer kinship building, masculinity, caregiving, gay, queer family politics, the right to found Family

| 기획특집 |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의 출현 배경과 의미—

최대희**

목 차

1. 머리말	3.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고전적 사례
2.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의 배경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역사적 뿌리와 이념을 분석하면서, 일종의 자기 조직화(self-organizing)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1930년대 미국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울 알린스키(Saul D. Alinsky, 1909~1972)가 개발한 일종의 주민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그가 성장한 유대인 공동체의 자기조직화 전통에 주목하면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대한 알린스키의 접근법은 자선단체 형태의 사회복지적 접근법과는 결을 달리하는 다른 형태의 사회운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알린스키는 자선단체 활동을 ‘복지 식민주의’라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당시 일반적이었던 ‘배려와 긍정’ 중심의 사회사업적 실천과 뚜렷하게 차별화했다.

알린스키가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에서 자신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에는 루이스라는 노동운동 지도자와의 만남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이 결정적이었다.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작업은 그로부터 학습한 ‘조직들의 조직’ 원칙을 커뮤니티라는 재생산 현장으로 옮기려는 시도였다. 알린스키는 노동운동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노동운동의 이념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노동운동이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결정의 원칙을 모든 오거나이징 활동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았다. 본 연구는 알린스키가 성장한 시카고의 유대인 공동체의 전통 그리고 노동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주제어 : 사울 알린스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자기조직화, 복지 식민주의, 조직들의 조직

1. 머리말

본 연구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역사적 뿌리와 이념을 분석하면서, 일종의 자기 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애당초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1930년대 미국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울 알린스키(Saul D. Alinsky, 1909-1972)가 개발한 일종의 주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알린스키는 1930년대 후반부터 그의 생애가 끝나는 1972년까지 미국에서는 ‘대중선동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이다. 『플레이보이』지는 1972년 알린스키와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알린스키야말로 토마스 페인, 헨리 조지와 더불어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비사회주의 좌파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¹⁾ 미국의 주간지 『타임』에 실린 한 기고문은 미국 민주주의가 알린스키의 아이디어로 인해 근본적 변화를 겪었다는 주장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²⁾ 그는 196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반

1) Norden, Eric, “Empowering people, not elites; interview with Saul Alinsky”, *Playboy* 19 no.3(1972). https://www.vintageplayboymags.co.uk/Interviews/Alinsky_Saul.htm

2) “Rebell trifft ‘Playboy’: Interview mit Saul Alinsky”, in: Meier, T., Penta, L. and Richter, A. (eds.), *Community Organizing. Eine Einführung*, Weinheim: Beltz Juventa, 2022, p.12.

전운동과 탈권위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미국을 넘어 독일을 위시한 유럽에서도 유명세를 탔다.³⁾ 한국에서도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개념은 주로 도시빈민운동과 관련하여 소개된 바 있다. 1940년대 알린스키와 함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수행한 허버트 화이트(Herbert White) 목사가 1968년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를 기반으로 서울 청계천 빈민촌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2년간 15명에 가까운 젊은 활동가들을 교육했는데, 이들은 도시산업선교회와 연대하여 1970년대 한국사회의 빈민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을 추동했다.⁴⁾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젊은 시절 수년 동안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활동했다. 그가 1980년대 중반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을 조직화 하고, 그들을 지역 정치 과정에 참여시키는 일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꽤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직접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그들과 모임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시 행정부와 협상을 전개했다. 그는 나중에 이 시기를 자신의 정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기간으로 거론한 바 있다.⁵⁾ 2008년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오바마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3) Mohrlök, Marion et al.: Let's Organize - Gemeinwesenarbeit und Community Organization im Vergleich; München; AG SPAK, 1993, p.39.

4)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는 1980년 훈련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을 이어갔다. 이후 1996년 전국도시빈민협의회가 해체되면서 설립된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이 이러한 전통에 입각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재식,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알린스키」, 사울 D. 알린스키, 박순상·박지우 옮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아르케, 2016, 14면 참조하라. 이 협의회는 그간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교육용 교재를 마련하였다.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주민운동의 힘 : 조직화 CO방법론』, 함께가는길, 2012. 이 협의회의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https://conet.or.kr/index.php>를 참조하라. 위에 언급된 사회운동과 연계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대한 소개와는 별도로, 사회복지학에서 몇몇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장세훈, 「지역사회 조직화 유형에 따른 주민 조직화 전략의 분화」, 『경제와사회』 제134호, 2022. 김정원,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는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동향과 전망』 112호, 2021. 이러한 논문 및 저서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통상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번역된다.

5) Huber, Stefan, *Community Organizing in Deutschland: Eine „neue“ Möglichkeit zur Vitalisierung Lokaler Demokratie?*, Universitätsverlag Potsdam, 2010, pp.35~36.

(Hillary Clinton) 역시 그녀의 정치적 활동의 초기단계에서 커뮤니티 오거나 이징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 그녀는 미국 시민권운동이 본격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1969년 웨슬리(Wellesley) 대학에서 ‘알린스키 모델’에 관한 논문(“*There Is Only the Fight... ‘: An Analysis of the Alinsky Model.*”)을 저술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후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이 그녀를 알린스키 추종자라고 맹비난하는 근거가 되었다.

사울 알린스키는 1909년 벨라루스 출신의 유대인 이민자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시카고 최악의 빈민가 중 한 곳에서 성장하였는데, 그곳은 일종의 게토로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알린스키는 1926년 장학금의 도움으로 시카고 대학교 고고학과로 진학할 수 있었다. 그는 고고학이란 학문에 매료되었다. 그에게 유물들은 단순한 돌이나 점토조각이 아니었다. 고고학은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그를 “과거로 데려가서 오래된 잉카제국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인간 제물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자신이 고고학이란 학문을 통해 배운 공감 능력을 “좋은 오거나이저”라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⁶⁾ 반면 대학 재학 중 알린스키는 사회학 강의를 많이 들었으나, 그 학문에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30년 그는 고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공황 이후의 상황에서 미래의 진로가 불확실했다. 그러던 중 그는 시카고대학으로부터 범죄학 연구를 위한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사회학과로 진학하여 조직범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1933년 학교를 떠났는데, 비행 청소년을 수용하는 시카고의 줄리엣(Joliet) 교도소에서 범죄학자로 일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이탈리아 청소년들로 구성된 젊은 갱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계기였다. 그들은 당시 시카고 자동차 절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⁷⁾ 그러나 알린스키는 3년 만에 그 일을 그만 두었는데, 그것은 수감자들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한 교도소에서의 활동이

6) Sanders, Marion K., *The Professional Radical : Conversations With Saul Alinsky*, Harper & Row Publishers, 1971, p.14.

7) *ibid.*, p.22.

사후 대응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범죄의 증상보다는 범죄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애초에 비행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민 지역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1936년부터 클리퍼드 쇼(Clifford Shaw)가 설립한 청소년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미 이 시기 알린스키가 빈민 지역의 생활환경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는 지역 주민들 자체라는 신념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조직화된 공동 행동만이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신념은 결국 쇼와 결별하고 만들고, 그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독자적인 커뮤니티 조직을 구축하는 활동에 직접 나서도록 만든 주요한 동력이었기 때문이다.⁸⁾

미국은 19세기 후반 이래 대규모 이민 물결에 힘입어 농업 국가에서 산업화 국가로 옮겨가고 있었다. 20세기 초까지 대략 2천만 명의 이민자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 시기 건너온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뉴욕과 시카고를 위시한 동부 및 중서부 도시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일자리는 비교적 쉽게 구했지만, 더럽고 비좁은 주거지에서 생활했다. 이민자들의 노동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대부분 비숙련 노동자들로 임금은 매우 낮았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라는 알린스키 구상이 펼쳐지는 거대한 실험실로서 시카고는 당시 미국의 두 번째 큰 도시였고, 바로 이러한 사회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위치해 있었다. 시카고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자 다양한 민족 집단과 문화가 어우러진 일종의 '용광로'였다. 부자들의 사치스런 생활과 이민자들의 극심한 빈곤 상황은 점점 더 대조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민자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착취는 곧 지배 계급과의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다. 당시 거의 조직화되지 않았던 미국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이민자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했다. 이민자들과의 연대는 형성되지 않았다.⁹⁾ 시

8) Fischer Ute und Stock Lothar, "Community Organizing : Das Konzept von Saul Alinsky und mögliche Formen der Umsetzung im Rahmen eines Stadtteilmanagements", in: Patrick Oehler, Sandra Janett, Jutta Guhl, Carlo Fabian, Bruno Michon (eds.), *Marginalisierung, Stadt und Soziale Arbeit : Soziale Arbeit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Quartierbevölkerung und professionellem Selbstverständnis*,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GmbH, 2023, p.64.

9) Szyuka, Peter, *Community Organizing. Ein Weg zu mehr Beteiligung*, Berlin: Friedrich-

카고의 이러한 상황은 자기조직화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라는 알린스키의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었다.

알린스키는 1938년 시카고의 백 오브 더 야드(Back of the Yards) 지역에서 자신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을 최초로 실험할 주민협의회(Back-of-the-Yards-Neighborhood-Council)를 구축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그가 보인 활동과 성공은 그가 미국 전역에서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게 만든 계기였다. 이 지역은 거대한 도살장 바로 뒤에 위치해 있었으며, 여러 국적의 이민자들이 매우 열악한 주거 및 노동 조건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곳은 엠프튼 싱클레어(Upton Sinclair)의 작품 『정글(The Jungle)』에 등장하는 미국 최악의 빈민가 중 하나이다.¹⁰⁾ 대부분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지역의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의 독자적인 커뮤니티 구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당시 유명한 노조지도자였던 존 L. 루이스(John Llewellyn Lewis)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로부터 ‘광범위한 조직화(Broad-based Organizing)’ 모델, 즉 ‘조직들의 조직화(Organizing of Organizations)’를 학습했다. 그는 이 모델을 통해 이 지역의 총 127개의 협회와 조직을 통합하여 백 오브 더 야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성공했다.¹¹⁾ 알린스키는 이 협의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가톨릭교회를 설득하였고, 노조가 조직한 육가공 산업에 대한 파업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결국 회사는 파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생활조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때 사용된 보이콧, 파업, 시청 앞 농성과 같은 대중을 동원하는 전술과 전략은 나중에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이민노동자 운동, 학생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40년 알린스키는 산업지역재단(Industrial Area Foundation, IAF)을 설립하여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위한 전국적인 교육 센터이자 본부로 삼았다.¹²⁾

본 연구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접근법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사울 알린스키의 활동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뿌리와 이념을 살펴보고자

Ebert-Stiftung, 2011, p.7.

10) Huber, Stefan, p.33.

11) Szyuka, Peter, p.13.

12) Huber, Stefan, p.34.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에서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의 출현 배경으로 대공황 이후의 시카고의 시대적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고전적 사례로 간주되는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대한 그의 구상은 당시 빈민가에서 지배적 운동이었던 정착운동과 나아가 다른 자선단체의 지원 프로그램과 확연히 차별화된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알린스키가 성장한 시카고의 유대인 공동체의 전통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의 배경

1) 시카고 유대인 공동체의 슈테틀 전통과 자선단체에 대한 알린스키의 태도

알린스키는 러시아 출신 유대인 이민자의 자녀로 시카고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장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시카고 Maxwell Street의 유대인 공동체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으로 유명했다. 이곳에서의 일상생활은 자기조직화와 상호부조의 슈테틀 전통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는데, 그 기원은 유대인의 오랜 정착지였던 동유럽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슈테틀((shtetl, 이디시어: שטעטל)은 동유럽 유대인 언어인 이디시어로 도시를 의미하는 Shtetl에서 파생한 단어로 작은 규모의 도시를 의미했다.¹³⁾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중·동유럽에 산재해 있던 유대인들은 이 슈테틀에서 모여 살았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으로는 모두 이디시어를 사용한다는 점 외에 강력한 자치와 자가 조직을 지목할 수 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교육, 복지, 사법, 종교적 실천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공동 책임을 졌는데, 이러한 자기조직(Self-Organization)의 전통은 유대인들이 생활상의 난관 또는 차별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질서와 연대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3) Kuzmany, Börries, "Das Shtetl. Geschichte und Wahrnehmungen eines urbanen Phänomens". in: Institute für jüdische Geschichte Österreichs (eds.), 'Ostjuden'. Geschichte und Mythos, St. Pölten, 2011, pp.16~17.

또한 유대인은 히틀러의 파시즘 체제 하에서 국가에 의해 유도된 학살과 박해를 겪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국에 의지하지 않고 우선 자신의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을 더욱 강화했다. 그들의 사회적인 관계는 일련의 관습과 종교적 규정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었고, 가족들은 상호 연결된 조직들을 통해 민족공동체와 결합되어 있었다.¹⁴⁾ 알린스키는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마지막 세대에 속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이런 환경은 이미 거의 사라져 버린 상태였다. 시카고 유대인들은 ‘슈테틀에서 교외로’ 이주하고 있었다. 알린스키가 슈테틀 전통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장하면서 특유한 자기조직화를 경험했다는 점은 향후 그로 하여금 동시대에 발전하고 있던 자선단체 형태의 주민 복지운동으로부터 거리를 취하게 만든 하나의 배경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산업의 발달과 이민자의 증가로 시카고에는 대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자 민간 자선단체들이 조직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여성들이 설립을 주도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에는 당시 사회에서 풍미하던 사회다윈주의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었다.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1877년에는 미국 최초의 자선단체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가 창설되었다. 여기에 고용된 정규 직원들의 주된 임무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선단체들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었는데, 활동가들은 이러한 논리에 어울리게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과 도덕적 실패에서 찾았다. 당연히 외부의 영향이나 구조는 주민의 빈곤 책임으로부터 빗겨나 있었다.¹⁵⁾

당시 주로 중상류층 출신으로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주도한 또 다른 형태의 주민 운동인 정착운동도 자선단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이민자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9세기 후반

14) Bretherton, Luke, “Der Ursprung des Community Organizing : Eine Geistesgeschichte”, in: Meier, T., Penta, L. and Richter, A. (eds.): *Community Organizing. Eine Einführung*, Weinheim: Beltz Juventa, 2022, pp.30~32.

15) Mohrlök, Marion et al., p.23.

부터 이른바 정착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도시 곳곳에 정착촌을 지어 주민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했는데, 활동가들은 이곳 정착촌에 스포츠 프로그램, 유치원 취업지원 그리고 법률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¹⁶⁾ 결국 자선 단체와 정착운동이 노정한 이러한 태도는 사회와 교계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사회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며, 구조적인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빈곤 구호 영역에서도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터 나왔다. 바로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라 부르는 사회 운동의 향후 노선을 결정짓는 초석이 마련되었다.¹⁷⁾

알린스키는 제인 아담스(Jane Addams)와 더불어 이러한 방향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초기 형태에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아담스는 1889년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정착촌인 헐 하우스(Hull House)를 건립한 인물로 당대의 다른 정착운동을 주도한 엘리트들과는 달리, 빈곤의 구조적 책임을 중시했다. 그녀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강화하는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알린스키와 인식을 같이 했다. 빈곤은 개인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구조적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대한 그녀의 접근법은 알린스키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녀가 주도한 정착 운동으로부터 형성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사회적 부조를 위한 주민 조직 스타일이 엘리트주의적 방식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정착촌에서는 활동가들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탐다운 방식의 이니셔티브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었다. 그것은 계급간의 격차를 강화하고 공동체 안에 존재하던 기존의 리더십과 민족 결사체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노정했다. 알린스키는 바로 이런 경향을 비판하면서, 정착촌 활동가들이 지역 안에 존재하고 있던 교회 및 기타 민족적 결사체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데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16) Bretherton, Luke, p.33.

17) Mohrlök, Marion et al., p.23.

결국 정착운동은 제한된 결실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였다.¹⁸⁾

앞서 지적했듯이, 알린스키는 슈테를 전통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라났다. 그곳은 종교적으로 조직된, 일종의 지역적 공동 자조가 존재하는 환경이었다. 그의 이러한 성장배경은 그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담스를 위시한 다른 정착촌 지도자들과 다른 접근을 하도록 이끌었다. 요컨대 그는 한편으로 아담스와 더불어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몫이 더 크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렇지만 그는 성공적인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지역 안에 존재하는 공동 자조 단체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녀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알린스키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 변화의 유일한 원동력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사회 상층 출신의 엘리트 활동가가 아니라, 함께 행동하는 조직화된 공동체의 주민이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그가 아담스가 “그녀가 운영하는 헐 하우스 거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행동을 하고 있다”¹⁹⁾는 비난을 제기한 이유였다. 알린스키에게 있어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핵심 사안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권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선 단체는 지옥에나 가라.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자신의 힘뿐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를 조직화 하는 것이 훨씬 낫다”²⁰⁾라는 알린스키의 당부는 그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 지향하는 바를 잘 드러낸다. 알린스키는 아담스와의 이런 차별성을 통해 자선단체 또는 정착운동 지원이라는 형태와는 다른,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독자적인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대한 단초를 놓았다.

2) 빈곤과 범죄 그리고 범죄의 구조적 원인

알린스키는 박사 학위 논문 준비의 일환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장기적 연구를 기획한 바 있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마피아 리더 중 한 명인 알 카포네

18) Bretherton, Luke, p.34.

19) Fischer Ute und Stock Lothar, p.65.

20) Schutz, A. and Sandy, M. G., “Saul Alinsky: The “Father” of Community Organizing”, in: *Collective Action for Social Change*,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11, p.93.

(Al Capone)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수학하고 있던 시카고 사회학과의 다른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구대상인 지역에 직접 거주하면서 길거리를 관찰하고 그곳에서 갱단들과 인터뷰를 수행하는 등 오늘날 도시민족지학이라 불리는 연구방법론을 익혔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는 1936년부터 청소년연구소에서 쇼와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탈리아 십대 갱단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알린스키는 쇼와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많은 부분 서로 일치했다. 쇼와 알린스키는 범죄는 빈곤과 연관된 문제라고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청소년연구소에서 비행 청소년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쇼는 빈곤한 지역의 청소년 범죄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일종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빈곤 지역의 청소년 범죄는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는 커뮤니티가 자치적이지 않고 외부 기관에 의해 불완전하게 통제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구성원들이 자기 욕망을 거리낌 없이 분출하는 것의 결과라는 것이다. 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비행 청소년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젊은이들은 성인과 공동체로부터 확보하지 못하는 인정 욕구를 범죄 행위를 통해 같은 나이 또래의 동료들로부터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쇼의 결론은 알린스키가 쇼와 함께 일하면서 진행한 이탈리아 십대 갱단에 대한 평가와 일치한다. 알린스키의 관찰에 따르면, 시카고 이탈리아 공동체가 자기조직화 되었을 때, 십대 갱단의 범죄는 줄어들었고, 그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제공되었다. 알린스키는 범죄조직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조직화 되어 있을 경우에만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통찰을 획득했다.²²⁾

요컨대 알린스키와 쇼는 빈곤과 범죄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일치를 보았다. 그렇지만 알린스키와 쇼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알린스키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대한 쇼의 접근

21) Bretherton, Luke, p.38.

22) *ibid.*, p.39.

방식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느꼈다. 특히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쇼의 접근방식이 구조적 역할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범죄의 원인에 대한 쇼의 해석은 지역사회 차원에만 머물렀고, 그리하여 커뮤니티 외부에 존재하는, 범죄의 경제적 원인은 무시되었다. 따라서 알린스키가 보기에 기업과 산업계는 범죄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에도 비껴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알린스키가 쇼와 함께 한 자신의 시간을 부정적으로 회고하는 이유이다.

“결국 나는 줄리엣을 그만두고,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기관 중 하나인 청소년연구소에 취직했다. 이 연구소는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고, 쥐들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저 발가락만 물어 뜯고 있는 공동주택에 사는 모든 아이들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 연구소가 발견한 해결책은 캠핑 여행과 그들이 ‘인격 형성’이라 부른 뭐 개 같은 짓거리였다.”²³⁾

알린스키는 보기에, 쇼가 주도한 청소년연구소에서는 공동체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우월적인 가치”였다. 알린스키는 청소년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청소년연구소와는 다른 방향에서 찾았다. 그는 청소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더 이상 청소년의 내면적 “인격 형성”에서 찾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범죄의 구조적 요인, 즉 청소년이 처해 있는 외부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제시했을 때, 그가 청소년연구소로부터 들은 답변은 “그만 과격하게 굴어라”는 것이었다.²⁴⁾ 청소년연구소의 조직을 우선시하는 관점은 권력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빈민가에 지배적인 현상인 저렴한 노동력, 열악한 주거 상태, 사회적 혼란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연구소의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알린스키는 노동자의 빈곤한 생활 상황과 사회적 혼란을 ‘자연스러운’ 또는 불가피한 진화 과정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빈곤의 책임이 ‘가진 자들’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가진 자들 개개인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을

23) Norden, Eric, https://www.vintageplayboymags.co.uk/Interviews/Alinsky_Saul.htm

24) Sanders, Marion K., p.25.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²⁵⁾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범죄조직에 대한 알린스키의 연구는 그의 오거나이징 작업을 위한 또 다른 의미 있는 통찰을 선사했다. 그는 범죄조직 연구를 통해,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관계의 엄청난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개인 간의 신뢰와 관계 구축의 의미를 강조했다.²⁶⁾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서 관찰되는 신뢰와 강고한 인간관계는, 폭력을 통한 위협과 더불어,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범죄조직에서 이러한 신뢰 관계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범죄조직이 필연적으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고 투명한 절차를 회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알린스키는 비단 갱단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공동체 생활에는, 그것이 시민적이든 종교적이든, 사람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조직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달리 말해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의 규율과 충실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약속이 깨지면, 장기적인 상호 관계의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갱단에 적용되는 폭력의 사용을 대중의 압력이라는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대체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이후 한 인터뷰에서 폭력적 수단을 제외하면, “카포네 갱단은 시카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대한, 준-공공기관(quasi-public utility)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의미를 부여했다.²⁷⁾ 알린스키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달리 말해 국가의 자원이나 돈의 권력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의 힘이 그들을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쇼와 사이가 틀어진 다음, 알린스키는 백 오브 더 야드 주민협의회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1940년 산업지역재단(IAF) 설립을 주도하였다. 알린스키는 쇼의 접근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그와 결별한 후 노동 운동으로 눈을 돌렸다. 그것은 그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방향이 정치적 조직화로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한 방향 전환의 의미는 사회의 해체 현

25) Bretherton, Luke, p.40.

26) Sanders, Marion K., p.6.

27) Sanders, Marion K., p.21

상을 초래하는 경제적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함이었다.

2.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고전적 사례

1)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에서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알린스키가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탄 것은 대공황이 끝나가는 무렵 시카고의 백오브더 야드 지역에서 주민협의회(BYNC)를 조직했을 때였다. 1938년 알린스키는 쇼의 요청으로 시카고의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으로 가서 이 지역의 주민협의회 조직을 주도했다. ‘도축장 뒤편’에 위치한 이 이민자 지역은 육류 포장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외된 지역이었다. 극심한 빈곤과 경제적 불안이 존재했다. 범죄와 청소년 갱단이 이곳의 특징이었다. 알린스키는 처음 이 지역으로 파견되었을 당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범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알린스키가 명명한 것처럼,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공동체를 위한 봉사 활동, 여가 활동 그리고 시골로의 여행 등이 조직되었다. 알린스키는 이런 방식으로는 청소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그는 는 쇼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갔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는 않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그들의 부모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무엇보다 비행 청소년들의 근본적 문제는 빈곤, 부족한 급여, 열악한 주거 환경, 사회 기반 시설의 결핍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청소년들의 부모와 가톨릭교회 신도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부모이자 신도였으며 노동자였던 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육류 포장 산업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목표로 파업을 조직했다. 이 노동쟁의의 상대는 당시 미국 전역에 소고기 통조림을 공급하던 대형 육류 포장 회사들이었다.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았고 통조림이 육류를 보존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시카고로 철도로 운송되어 온 소들이 여기에서 도축,

도살, 포장되었다. 도축장 이면의 끔찍한 위생 및 사회적 조건은 이미 업튼 싱클레어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 비판 소설 '정글'의 소재가 되었다.²⁸⁾

그러나 알린스키가 처음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극구 만류했다. 이 지역에서 오거나이징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더욱 단호한 마음을 먹었다.²⁹⁾ 알린스키의 목표는 이 지역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사회세력에 건설적인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주민이 스스로 이러한 권력을 창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의 태도를 제시한 바 있다. 처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오거나이저는 '관찰자'로 임해야 한다. 오거나이저는 우선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불만과 입장을 듣고 배워야 한다. 그 다음 오거나이저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해결해야 할 사안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 기존의 기관이나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³⁰⁾ 알린스키는 처음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관찰자적인 태도를 통해 이 지역이 95%가 가톨릭신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중부 및 동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던 만큼, 노동 조건 외에도 가톨릭은 이 지역을 통합하는 요소였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노동조합과 더불어 가톨릭교회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그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 상위 단위로서 백 오브 더 야드 주민협의회(BYNC)를 조직할 수 있었다. 이때 가톨릭교회와 노동조합에 각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는데, 그것은 이 조직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지역적 네트워크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여

28) Szyuka, Peter, pp.11~12.

29) Norden, Eric, https://www.vintageplayboymags.co.uk/Interviews/Alinsky_Saul.htm

30) Rebell trifft 'Playboy', p.17.

러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비민족적 신도공동체를 장려하면서, 이들의 생활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관심사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 미국의 가톨릭교회는 소수자 교회로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 했다는 사실도 부가적으로 이러한 발전에 기여했다.³¹⁾

알린스키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주민단체인 백 오브 더 야드 주민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과 시카고 육류 포장 회사들 간의 분쟁에서, 임박한 파업을 앞두고 가톨릭교회와 노동조합이 상징적으로 힘을 합치도록 하는 데 마침내 성공했다. 육류 포장 업계는 처음에는 가톨릭교회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때로는 범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 시민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가톨릭교회 사이의 연합이 결성되자 육류 포장 업계는 굴복했다. 임금이 인상되었으며 파업은 철회되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과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의 기반 시설은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고용주와의 갈등은 성공적인 협상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시당국에 사회 기반 시설에서 필수적인 개선을 자신 있게 요구했다. 지역 상인들은 커뮤니티에서 임금이 오르면 그들의 이윤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를, 억압받은 세입자들은 건물주에 맞서 어떤 식으로 맞받아 싸울 수 있는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는 백 오브 더 야드에서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통해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무기력을 정당화하는 관성을 허물어뜨렸다.³²⁾ 이것은 전 세계 사회운동가와 사회사업가들의 관심을 끈 최초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사례였다. 최초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성공적으로 이끈 조직으로서 백 오브 더 야드 주민협의회에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자기조직화 전략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협의회의 창립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 운영 방향이 표현되어 있다.

“(2) 지역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전통적인 조직들과 대조시킴으로써, 그 조직들에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거나 특권적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3) 지역 프

31) Szyuka, Peter, p.11.

32) Rebell trifft ‘Playboy’, p.18.

로젝트는 핵심 인력의 교육 및 활용에 큰 가치를 둔다. 그럼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에서 모집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주로 의존하는 일반적인 관행과 대조시킨다. (4) 해당 지역 프로젝트는 새로운 기구들을 창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지역 기구들을, 무엇보다 전통적인 공동체들의 도덕과 감정이 체화되어 있는 교회나 각종 단체 및 협회와 같은 자연적인 사회집단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5) 지역 프로젝트에서 제시되는 제안들은 일차적으로 건설적인 공동체 기획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어린이의 안녕과 전체 공동체의 사회적 및 물리적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과제의 측면에서, 이웃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³³⁾

창립선언문은 자기조직화 정신과 더불어, 자립적 자금 조달의 정신을 조직의 운영 원칙으로 적시하고 있다. 백 오브 더 야드 주민협의회는 사실상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일 수 있는 포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 협의회는 필요한 활동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징수했다.

1) 노동조합 오거나이징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으로

1929년 대공황 이후 불어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미국 역사상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했다. 이로써 노동조합은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특히 석탄,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던 시카고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매우 인상적이었다.³⁴⁾ 알린스키가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전개할 무렵, 시카고의 석탄 및 철강 산업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오거나이징이 이루어졌다. 산업조직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CIO)는 미국의 노동조합 환경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당시까지만 해도 노동조합은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통적인 노동조합들로 나뉘어 있었다. 산업화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

33) Bretherton, Luke, p.39.

34) Szyuka, Peter, pp.9~10.

켰다. 공장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일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직업군은 각각의 조직들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포괄적인 상위 조직으로 산업조직회의가만 들어지자, 노동조합은 비로소 산업계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³⁵⁾

알린스키가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에서 수행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작업은 본질적으로 산업조직회의라는, 개별 노동조합의 상위조직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된 오거나이징 작업을 생산 현장에서 재생산 현장으로 옮기려는 시도였다. 알린스키는 산업조직회의를 주도한 노조지도자 존 램윈 루이스를 노조활동을 통해 만났고, 그로부터 노동조합의 오거나이징 기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의 역할이 노동조합 운동 밖에 있다고 느꼈고, 노동조합 오거나이저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변신하고자 했다.

“내가 시도하고 싶었던 것은 산업조직회의에서 배운 오거나이징 기법을 최악의 빈민가와 계토에 적용하여, 이 나라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 이전까지 특정 공장이나 산업만이 조직되어 있었다면, 이 분야는 내가 나의 힘으로 조직하고 싶었던 분야였다.”³⁶⁾

그가 실천적으로 오거나이징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노동조합의 중심 활동무대였던 공장 또는 기업이 아니라, 그때까지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지역사회, 다시 말해 커뮤니티였다. 이때 그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부여한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즉 주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화 하고 그를 통해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목표는 그들이 현실적인 힘을 가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자신들의 생활 조건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알린스키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서 활용되던 ‘조직들의 조직(Organisierung der Organisationen)’ 원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³⁷⁾ 이는 여러 지역과 산업으로 나뉘어 있던 개별 노동조합을 산업조직회

35) Huber, Stefan, p.32.

36) Norden, Eric, https://www.vintageplayboymags.co.uk/Interviews/Alinsky_Saul.htm

37) Huber, Stefan, p.32.

의가 통합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경험에 착안한 것이다. 알린스키는 시카고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에서 여러 구역으로, 여러 사회단체들로, 여러 민족교회들로 그리고 또 다른 민족공동체들로 나뉘어 있던 조직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했다. 그렇게 탄생된 조직이 바로 시카고의 백 오브 더 야드 지역 주민협의회(BYNC)였다.³⁸⁾

알린스키는 이 시기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을 다듬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가 ‘복지 식민주의(welfare colonialism)’를 실천하는 가부장적 제도라고 비난했던 자선단체의 활동과 분명한 선을 긋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알린스키는 이러한 식민주의는 무엇보다 “특정 대상 집단이 자기가 놓여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 할 때, 외부 집단이 그 집단에게 그에 대한 조치를 하달한다는 점”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았다.³⁹⁾ 그는 오거나이징 활동은 비참한 도시구역에 사회적 혜택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알린스키에 따르면, 오거나이징은 “사람들의 생활 및 노동 환경에 존재하는 집단적 사회적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독립적 접근방식”이어야 마땅했다.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외부나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직접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개발되어야 했다. 알린스키는 그 후 여러 곳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전개하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절대로 대신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⁴⁰⁾ 앞서 머리글에서 지적했듯이, 19세기 후반 이래 미국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직면한 미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선단체들이 형성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교육받은 중산층과 상류층 출신의 사회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자선 활동에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권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그가 아담스 주도의 정착 운동을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38) Szyuka, Peter, pp.11~12.

39) Huber, Stefan, p.29.

40) Pyles, Loretta, *Progressive community organizing: transformative practice in a globalizing world*, New York : Routledge, 2021, pp.23~24.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알린스키에 의해 시작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프로그램은 자선단체 위주의 사회복지 사업의 외곽에서 형성된, 주민들의 자기조직화에 기반 한 또 다른 형태의 사회개혁 노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알린스키가 사회복지 노선이 추구하는, 위기에 처한 또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필수품이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고귀한 행위가 아니라고 폄하했다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다 자세히 다루어져야 하지만, 알린스키의 노선이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이 권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를 위해 ‘커뮤니티 오거나이징’라 불리는, 주민들 속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메시지는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그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프로그램을 다른 종류의 사회운동과 구별하게 만드는 핵심 사안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알린스키는 보통의 사람들의 ‘자기 통치 (self-governance)’ 능력을 열정적으로 믿었던 ‘이상주의자’였음이 틀림없다.⁴¹⁾ 물론 알린스키와 사회복지 노선 모두 미국 사회 시스템의 급진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린스키의 접근법이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권력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알린스키가 대중의 압력을 통한 권력 쟁취를 자신이 꿈꾼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의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⁴²⁾ 그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중을 노예로 만드는 자선이 아니라, 대중의 직접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사람들은 자선 행위로 기회나 자유, 평등, 존엄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제도권으로부터 빼앗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 화해는 단 한 가지만을 의미한다. 한 쪽이 충분한 힘을 얻었을 때, 다른

41) Miller, Mike, Preface: “Why Is Alinsky Important Today?”, in: Aaron Schutz Mike Miller (eds.), *People Power: The Community Organizing Tradition of Saul Alinsky*, Vanderbilt University Press, 2015, p.xiv.

42) *ibid.* p.xv.

쪽이 그것과 화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 필요한 이유이다. 먼저 양보를 강요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 구조에 필요한 압력을 가하는 데 너무 소심하다면 차라리 경기장을 떠나는 것이 낫다.”⁴³⁾

알린스키는 “권력은 요구 없이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노예해방론자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의 신념을 자주 입에 올렸다.⁴⁴⁾ 다시 말해 소외된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기득권층은 권력과 그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알린스키는 동의를 표했다. 그는 기득권층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시 말해 소외된 주민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대중의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요구를 공론화 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기 위해서 독창적인 전략과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했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주민들과 함께 상황과 권력을 분석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통해 육성되어야 했다.

3) 노동조합에 대한 알린스키의 태도

앞서 서술했듯이, 알린스키가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에서 자신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에는 루이스라는 노동운동 지도자와의 만남이 결정적이었다. 알린스키는 산업지역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난 공산주의적 오거나이저들로부터 전투적이고 대결적인 전술을 많이 배웠다. 특히 그의 향후의 오거나이징 활동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 및 조직의 결성 방법은 모두 노동운동가들로부터 배웠다.⁴⁵⁾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알린스키가 그들의 이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가 시장과 국가의 요구보다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자기조직적인 커뮤니티 구축을 선호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43) Rebell trifft 'Playboy', p.22.

44) Pyles, Loretta, p.24.

45) Bretherton, Luke, pp.41~42.

다. 물론 알린스키는 비정부적으로 활동하는 민주주의적 좌파에 크게 공감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동운동의 이념 또는 사회주의적 사상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한 이유는, 그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노동운동의 이념에서 무조건적인 정치적 충성을 요구하면서, 자기 통치를 허용하지 않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존하지 않는 일종의 노예화의 한 형태를 보았기 때문이다.⁴⁶⁾ 알린스키에게 있어, 모든 오거나이징 활동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의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우리의 관심 대상인 커뮤니티가 먼저 우리에게 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커뮤니티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목표와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오거나이저의 임무는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커뮤니티에게 자신의 희망이나 태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 목적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지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다 빨아들이고, 그런 다음 우리를 버리고 그들 스스로 일을 진행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우리가 떠나자마자 상황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⁴⁷⁾

알린스키는 나중에 이러한 이유로 오거나이저 개개인이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3년으로 제한한 바 있다. 알린스키가 추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각 개인의 다양한 충성심이 고려되는 자유로운 사회였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가 국가나 시장의 요구에 종속되지 않고, 보다 복잡한 상황에 대해 여지가 주어지는 사회였다. 알린스키가 표현한 바 있듯이,

“민주주의는 개별 인간의 가치와 개인의 다양한 충성심을 가장 완벽하게 인정하고 고려하는 정부 시스템이자 경제적 및 사회적 조직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평범한 개인이 이를테면 자신의 교회, 노동조합, 협회, 사회

46) ibid. p.44.

47) Norden, Eric, https://www.vintageplayboymags.co.uk/Interviews/Alinsky_Saul.htm

집단, 민족적 출신 집단, 스포츠 단체, 정당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수많은 것들에 대한 다양한 충성심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정부 시스템이다.”⁴⁸⁾

알린스키는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존중을 오거나이저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지목한 바 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이 백 오브 더 야드에서 경험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으로 간주했다.

“만약 당신이 잘난 척 하거나 거만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방은 즉각 그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커뮤니티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잠자고 먹고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수행해야 할 유일무이한 일이다. 그것이 커뮤니티가 당신에 대해 품고 있는 희망이다. 왜냐하면 어떤 독창적인 전술이나 기민한 전략이라도,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지 못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이것은 훌륭한 오거나이저라면 예외 없이 학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이다.”⁴⁹⁾

물론 이러한 알린스키의 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 원리를 커뮤니티로 적용시킨 백 오브 더 야드에서의 경험에만 기반 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알린스키의 개인에 대한 존중,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중시는 이미 유대인 공동체에서의 그의 성장 배경을 논의할 때 강조된 바 있다. 또한 알린스키는 백 오브 더 야드에서 활동하기 직전 자신이 수행한 범죄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사회적 관계의 힘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앞장에서 서술한 바 있듯이, 그는 비단 범죄조직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공동체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계급적 이익의 관점 또는 정치적 기준 보다,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 하는 그의 인식은 그의 향후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알린스키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도구화 한

48) Sanders, Marion K., p.85.

49) Norden, Eric, https://www.vintageplayboymags.co.uk/Interviews/Alinsky_Saul.htm

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그의 불신은 정치적 도구화 혐의 외에도 노동조합 방식의 오거나이징 작업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알린스키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자와 노동운동가 모두 일반인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것을 경제적 복지의 필요성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을 노정하고 있었다. 알린스키의 분석은 노동운동가들과는 달리 계급에 기초해 있지 않았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이익이 부유한 이들의 이익과 그 자체로 모순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그의 관심사는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확인해 내고, 그것을 공정성을 토대로 추구하는 것이었다.⁵⁰⁾ 이것이 바로 그가 조직화된 노동계에 의해 추구되는 분파적 이익집단 정치를 비판한 이유이다. 그는 같은 논리에 따라 종교집단에 의해 추구되는 분파적 정치와 블랙 파워 운동(Black-Power-Bewegung)⁵¹⁾도 비판했는데, 이들은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와 같은 공통의 목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체성 집단(identity group) 정치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알린스키가 발전시킨 것은 일종의 커뮤니티 정치(community policy)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이익집단 정치라고 비판한 정체성 정치를 거부하고,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구현하려 했다.⁵²⁾ 알린스키가 꿈꾼 공동체적 삶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가 그러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다 상세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1930년대에 사울 알린스키가 정식화하고 그 이후 많은 사람들

50) Bretherton, Luke, p.46.

51) 블랙파워 운동은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나타난 전투적인 사회운동으로 미국 사회의 제도화된 인종 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에 도전하고 근본적으로 뒤엎기 위해 노력했다. 이 운동과 관련된 주요 인물로는 말콤 엑스(Malcom X), 안젤라 데이비스(Angela Davis), 휴이 뉴튼(Huey P. Newton) 등이 있다. 이 운동은 미국사회의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종평등과 해방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52) Bretherton, Luke, p.46.

이 발전시킨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역사적 뿌리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그가 성장한 유대인 공동체의 자기조직화 전통에 주목하면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대한 알린스키의 접근법은 자선단체 형식의 사회복지적 접근법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운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알린스키는 자선단체 활동을 '복지 식민주의'라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배려와 긍정 중심의 사회사업적 실천과 뚜렷하게 차별화했다. 그는 이후 민간이 조직한 자선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가 조직한 사회사업 역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일부로 간주했다. 알린스키는 일생에 걸쳐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세운 주민단체의 회원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⁵³⁾ 그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아이디어를 지원하면서도, 가능한 한 뒤에서 뒤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었다. 그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어떤 의존성의 발생도 최대한 경계하고자 했다.

1930년대 후반의 시카고는 알린스키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사고를 구현하는 무대였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1946년 "급진주의자를 위한 기상나팔(Reveille for Radicals)"을 저술하여 소수자와 혁명가로 하여금 자신의 방법론과 전략을 매우 실용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그는 자신의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수백 명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를 교육했다. 그는 사망 직전인 1971년 이러한 자신의 전략과 방법론을 담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Rules for Radicals: a practical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을 저술했다.⁵⁴⁾ 이러한 저서

53) Meyer, Dominique, "Hilfe zur Selbsthilfe - Alinskys takische Regeln zur Konfliktbewältigung", in: *Saul Alinsky - Auf den Spuren seines Community Organizing*, Sozial Radikal, Sonderausgabe vom August 2008. p.13.

54) 알린스키의 두 저작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다. 사울 D. 알린스키, 정인영 옮김, 『래디컬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 생각의힘, 2016. 사울 D. 알린스키, 박순성·박지우 옮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아르

들에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에 대한 알린스키 접근법의 고유한 특징들이 담겨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은 권력에 불만을 제기하고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 모두 그가 1930년대 후반 시카고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을 처음 전개했을 때 이미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다. 이미 그 당시 그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득권층 중심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을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미 이 시기 그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리더십 개발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권력에 맞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물론 사울 알린스키가 미국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화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인물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던 오거나이징을 커뮤니티 차원으로 이전시키고, 그 개념을 정초한 최초의 인물이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알린스키의 손을 거치면서 하나의 일관된 활동 분야가 되었고, 뚜렷한 역할을 지닌 ‘커뮤니티 오거나이저’가 탄생했다.

1960년대에 알린스키는 미국에서 매우 유명해졌다. 그는 미국 여러 도시에 10개 이상의 시민단체를 설립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활동을 이어받아 더 많은 조직을 설립했다. 알린스키는 노동조합, 시카고 가톨릭대교구, 마셜 필드 백화점 그룹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들을 위한 교육 기관인 산업지역재단(IAF)을 설립하는데 성공했다. 알린스키는 결국 가장 유능한 오거나이저 중 한 명인 에드워드 T. 챔버스(Edward T. Chambers)에게 산업지역재단을 넘겼고, 챔버스는 이것을 미국 내 50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된 중요한 네트워크로 발전시켰으며,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수많은 인맥을 구축했다.⁵⁵⁾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오늘날 미국에서 사회적 약자 집단이 집단 권력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다.

케, 2016.

55) Penta, Leo and Meier, Tobias, “Saul Alinskys Erbe : Die Industrial Areas Foundation als weltweites Netzwerk”, in: Meier, T., Penta, L. and Richter, A. (eds.): *Community Organizing. Eine Einführung*, Weinheim: Beltz Juventa, 2022, p.27.

■ 참고문헌

- 김정원,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는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동향과 전망』 112호, 2021.
- 알린스키, 서울 D., 박순성·박지우 옮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아르케, 2016.
- _____, 정인영 옮김, 『래디컬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 생각의힘, 2016.
- 오재식,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알린스키」, 서울 D. 알린스키, 박순성·박지우 옮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아르케, 2016, 14면.
- 장세훈, 「지역사회 조직화 유형에 따른 주민 조직화 전략의 분화」, 『경제와사회』 제134호, 2022.
-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주민운동의 힘 : 조직화 CO 방법론』, 함께가는길, 2012.
- Bretherton, Luke, “Der Ursprung des Community Organizing : Eine Geistesgeschichte”, in: Meier, T., Penta, L. and Richter, A. (eds.): *Community Organizing. Eine Einführung*, Weinheim: Beltz Juventa, 2022, pp.30~32.
- Fischer Ute und Stock Lothar, “Community Organizing : Das Konzept von Saul Alinsky und mögliche Formen der Umsetzung im Rahmen eines Stadtteilmanagements”, in: Patrick Oehler, Sandra Janett, Jutta Guhl, Carlo Fabian, Bruno Michon (eds.), *Marginalisierung, Stadt und Soziale Arbeit : Soziale Arbeit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Quartierbevölkerung und professionellem Selbstverständnis*,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GmbH, 2023, p.64.
- Huber, Stefan, *Community Organizing in Deutschland : Eine „neue“ Möglichkeit zur Vitalisierung Lokaler Demokratie?*, Universitätsverlag Potsdam, 2010, pp.35~36.
- Kuzmany, Börries, “Das Schtetl. Geschichte und Wahrnehmungen eines urbanen Phänomens”, in: Institute für. jüdische Geschichte Österreichs (eds.), ‘Ostjuden’. *Geschichte und Mythos*, St. Pölten, 2011, pp.16~17.
- Meyer, Dominique, “Hilfe zur Selbsthilfe - Alinskys taktische Regeln zur Konfliktbewältigung”, in: *Saul Alinsky - Auf den Spuren seines Community Organizing*, Sozial Radikal, Sonderausgabe vom August 2008, p.13.
- Miller, Mike, Preface: “Why Is Alinsky Important Today?”, in : Aaron Schutz Mike Miller (eds.), *People Power: The Community Organizing Tradition of Saul*

- Alinsky*, Vanderbilt University Press, 2015, p.xiv.
- Mohrlok, Marion et al.: *Let's Organize - Gemeinwesenarbeit und Community Organization im Vergleich*, München; AG SPAK, 1993, p.39.
- Norden, Eric, "Empowering people, not elites; interview with Saul Alinsky", *Playboy* 19 no.3(1972). https://www.vintageplayboymags.co.uk/Interviews/Alinsky_Saul.htm
- Penta, Leo and Meier, Tobias, "Saul Alinskys Erbe : Die Industrial Areas Foundation als weltweites Netzwerk", in: Meier, T., Penta, L. and Richter, A. (eds.): *Community Organizing. Eine Einführung*, Weinheim: Beltz Juventa, 2022, p.27.
- "Rebell trifft 'Playboy' : Interview mit Saul Alinsky", in: Meier, T., Penta, L. and Richter, A. (eds.): *Community Organizing. Eine Einführung*, Weinheim: Beltz Juventa, 2022, p.12.
- Sanders, Marion K., *The Professional Radical : Conversations With Saul Alinsky*, Harper & Row Publishers, 1971, p.6, p.14, p.21, p.25, p.85.
- Schutz, A. and Sandy, M. G., "Saul Alinsky: The 'Father' of Community Organizing", in: *Collective Action for Social Change*,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11, p.93.
- Szynka, Peter, *Community Organizing. Ein Weg zu mehr Beteiligung*, Berlin: Friedrich-Ebert-Stiftung, 2011, p.7, pp.9~10, pp.11~12, p.13.

| Abstract |

The “Community Organizing” as a Strategy for Self-Organizing

-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Alinsky’s Idea on Community Organizing -

Choi, Daehe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organizing” as a strategy of self-organizing, by analyzing the historical roots and ideas of the community organizing. Saul D. Alinsky (1909-1972) developed the community organizing as a resident education program in the 1930s in USA, for the purpose of activat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and solving the problem of the community based on it. Above all, focusing on the Jewish tradition of self-organizing, in which he was embedded, this study emphasizes Alinsky’s approach to the community organizing is a different type of social movement from the welfare approach of the charity organization. Evaluating the activity of charity organization as the “welfare colonialism,” Alinsky clearly differentiated his own community organizing activity from the usual “consideration and positiveness (fürsorglich-affirmativen)” oriented practice of social work.

Alinsky succeeded in applying his idea of community organizing to the back-of-the-yard area, mainly thanks to encountering with Lewis, a labor leader. Alinsky’s work on community organizing was a try to apply to the reproduction site the principle of “Organization of Organizations,” which he learned from the labor leader. Alinsky learned a lot from the labor leader, but he did not accept the ideology of labor movement. He warned of the danger of political instrumentalisation of residents by the labor movement, while he picked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all of the organizing activities. This study emphasizes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organizing as a self-organizing strategy, by analyzing the tradition of the Jewish community in Chicago, where Alinsky was grown up, and its relationship with labor movement.

Key Words: Saul D. Alinsky, community organizing, self-organizing, welfare colonialism, organization of organizations

| 기획특집 |

초개인화시대,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양성방안 연구*

류도향**

목 차

1. 들어가며	4. 양성과정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2.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의 개념과 역량	5. 나가며 : 미래 지향적 인문커뮤니티
3. 양성과정의 이론적 토대와 설계 원리	정책과 국가전략 수립 필요성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개인화시대의 커뮤니티 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아젠다로 ‘인문 커뮤니티’(Humanity-Community)를 제안하며, 나아가 미시적 생활세계에서 인문커뮤니티의 감성과 문화를 디자인하고 공동주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Competency Coach for Humanity-Community> 양성 방안의 개괄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인문커뮤니티는 필요충족이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기능주의적 접근 이전에,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기본 가치로 삼는 사람 중심 커뮤니티를 뜻한다. 여기서 사람(人, 인)은 개별자의 확실한 테두리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돌보는 상호관계성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관계, 서로가 서로의 구성요소가 되는 모든 관계의 차원을 아우르는 열린 커뮤니티의 비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는 나노화된 개인들의 잠재된 공동체 욕망을 촉발하고 열린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조력하며, 나아가 개개인이 인문학적 지식과 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전문가이다. 이 전문가의 양성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적 유대와 연결 관계를 새롭게 감각하고 상상하고 서사화할 수 있는 문화자원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문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역량은 ‘주체’, ‘관계’, ‘시공간’의 3차원 원리와 ‘인식’, ‘공감’, ‘실천’의 3개 범주 하에 ‘자기발견’, ‘자기배려’, ‘자율과 창조’, ‘타자존중’, ‘타자돌봄’, ‘소통과 갈등전환’, ‘상호의존성 인식’, ‘역사와 장소만들기’, ‘네트워크적 연대’로 요약될 수 있다.

주제어 : 인문커뮤니티, 커뮤니티 교육,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 인문커뮤니티 역량지도사

1. 들어가며

글로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 4차산업혁명, 문화적 다양화, 인구변화와 고령화 등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초개인화시대(Hyper-Individual Era)가 도래하고 있다. 초개인화시대가 학문적으로 정착된 개념은 아니지만, 최근 극단적으로 강조되는 개인주의와 가족 및 공동체 해체 흐름을 비판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용어로 부상하였다.¹⁾ 초개인화는 공동체 결속이 약화되면서 나

1) 초개인화는 20세기 이후 급격히 심화된 공동체 해체와 외로움 현상을 문제화하는 일종의 수사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류문명의 극단적 발전 과정으로서 불확실성의 시대적 징후로 설명되기도 한다.(Michael Bonner, “The Problem of Hyper-Individualism”, City Journal 2023, Aug, 04, <https://www.city-journal.org/article/the-problem-of-hyper-individualism>; Ananda Majumdar, “Hyper Individualism is the Process of Hyper Culture: A Sign of Uncertainty”, 2021,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52668385_HYPER_INDIVIDUALISM_IS_THE_PROCESS_OF_HYPER_CULTURE_A_SIGN_OF_UNCERTAINTY 참조). 최근 한국에서는 핵가족의 시대에 이어 핵개인의 시대를 캐치프레이즈화한 컨텐츠가 부상하기도 하였다.(송길영,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교보문고, 2023) 또 다른 한편 마케팅과 디지털 비즈니스 산업 분야(전자 상거래, 헬스케어, 금융 등)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선호, 행동,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로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또는 초맞춤화(Hyper-Customization) 등

노화된 개인들이 각자의 자율성, 자기표현,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현상을 특징 짓는다. 이는 무연고, 외로움, 고독사, 인간소외, 세대 단절, 공공성 침식, 인구절벽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²⁾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혈연가족 중심으로 공동체적 연대의 기반을 형성했다. 특히 근대화 및 산업화 시기에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개인 생존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었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와 난제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자원공급처가 되었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 중산층 핵가족 모델을 지탱했던 사회구조적·정치경제적 조건이 변화하면서, 한국사회는 전세계에서 유례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1인가구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절벽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서,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결혼했든 하지 않았든, 어떤 지역과 집단에 소속되어 있든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가족에서 개인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개인들이 저마다 다른 필요와 욕망에 따라 좋은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시민 교육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초개인화 시대에 인간적인 연결과 돌봄, 평등과 환대의 가치에 기반한 ‘인문커뮤니티’(Humanity-Community)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인문커뮤니티는 필요충족이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기능주의적 접근 이전에,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목적 자체 또는 기본 가치로 삼는 사람 중심 커뮤니티를 뜻한다. 여기서 사람

의 신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2) 사회학자 퍼트남(Robert Putnam)은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사회가 깨진 유리조각처럼 쪼개진 개인들의 원자화로 파편화되었다고 분석한다. 책의 제목처럼 혼자서 볼링을 하게 된 미국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레이건과 부시 집권기에 팽배한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시간과 돈의 압박은 클럽이나 시민 사회 참여를 급격히 감소시켰고, 미국 사회에서 무연고, 자살은 크게 증가했다. 퍼트남은 인간 행복의 관건은 경제성장이나 물질적 복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소생에 있으며, 이를 위해 크고 작은 사회적 연계를 다시 맺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퍼트남, 정승현 옮김, 『나홀로 볼링 : 볼링 언론 -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페이퍼로드, 2016 참조.

(人, 인)은 개별자의 확실한 테두리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돌보는 상호관계성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관계, 서로가 서로의 구성요소가 되는 모든 관계의 차원을 아우르는 열린 커뮤니티의 비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³⁾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Competency Coach of Humanity-Community>는 미시적 생활세계에서 인문커뮤니티의 감성과 문화를 디자인하고 공동체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문가이다.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는 나노화된 개인들의 잠재된 공동체 욕망을 촉발하고 열린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조력하며, 나아가 개개인이 인문학적 지식과 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지식과 실천기법을 가르친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적 유대와 연결 관계를 새롭게 감각하고 상상하고 서사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자원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개인화시대에 인문커뮤니티 아젠다가 갖는 의미를 짚어보면서,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개념과 역량에 대해 살펴본다.(2절.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의 개념과 역량). 그런 다음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양성 과정의 이론적 토대와 설계 원리를 검토하고(3절. 양성과정의 이론적 토대와 설계 원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양성 체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스케치하고자 한다(4절. 양성과정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2.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의 개념과 역량

전통적으로 공동체는 특정 지리적 위치에 함께 거주하는 동질적 특성의 사람들이나 단단하게 결속된 이념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집단으로 이해되었다.⁴⁾ 하지만 최근에는 장소, 경험, 관심사 등 어떤 공통된 내용을 공유하는

3) 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옮김, 『비폭력의 힘: 윤리학·정치학 잇기』, 문학동네, 2023, 22면, 30면 참조

4) 이 논문에서 ‘공동체’와 ‘커뮤니티’는 다른 의미맥락을 갖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사용되고 있다. 독일어권 이론 전통에서 ‘공동체’(Gemeinschaft)는 ‘사회’(Gesellschaft)와 대비

느슨한 연결 및 관계망으로 커뮤니티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혈연, 지연, 학연 등 공동체의 불변하는 토대보다는, ① 함께 속해 있다는 감정, ② 공유된 관심, ③ 상호적으로 인정된 가치, ④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구별 짓기, ⑤ 공통의 상호행위와 시공간에 대한 접근처럼 유동적이고 단기적인 속성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관건이 된다.⁵⁾ 사회적 가족, 공동주택커뮤니티(Co-housing Communities), 취향·취미공동체, 커먼즈, 공유경제 커뮤니티(Sharing Economy Communities), 마이크로네이션, 초국가 커뮤니티,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 생태공동체 등 최근 등장하는 대안커뮤니티의 용어들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공동체 틀(가족, 민족, 국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관계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욕구함을 방증한다.

문제는 근대적 공동체 이후 사회적 관계망을 재구축하고 커뮤니티를 소생하는 시도가 주민들의 자발적 힘에 의해 아래로부터 천천히 자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공과 독립은 개인이 달성해야 할 지상과제로 간주되며, 연대와 결속의 사회문화적 기반은 점점 더 고갈되고 있다. 기술 및 자본이 주도하는 획일적, 균질적 관계망 속에서 단절과 소외가 심화하고 질적인 소통과 갈등중재의 능력 또한 크게 저하되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와 지자체는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공동체 회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주민을 서비스 수혜자로 대상화하는 행정지원은 오히려 주민 자치를 저해하고 공동체 감수성마저 파괴할 수 있다.⁶⁾ 지역사회의 관계생태계를 먼저 조망하지 않는 채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조직된 마을과 도시

되는 개념으로, 사회보다 더 자연적이고 본질적으로 집단적 속성으로 규정되어왔다. 이때 공동체는 근대적 개인주의 사회에서 상실된 전통적 유대관계와 낭만적 유토피아의 속성을 환기시킨다. 반면 ‘커뮤니티’는 미국과 프랑스어권 이론에서 사회와 대립하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되며 지역적·지구적이라는 대비적 개념구분에서 지역적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용어로 인식된다. 이 논문에서 쓰는 인문커뮤니티는 미국과 프랑스어권 이론에서 쓰이는 커뮤니티의 의미, 즉 지역적이고 장소작근적인 공동체와 이웃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르트무트 로자와, 광노완·한상원 옮김, 『공동체의 이론들』, 라움, 2019, 44~45면 참조.

5) 하르트무트 로자 외, 『공동체의 이론들』, 59면 참조

6) 권단 외,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 마을만들기 사업에 던지는 질문』, 삶창, 2015, 59면 참조

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사물화시키는 죽은 공간을 만들 공산이 크다.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인문커뮤니티 아젠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문커뮤니티는 자본과 권력의 외부적 힘이 아니라, 무엇보다 관계 중심 문화를 추구하며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돌보는 과정 자체를 목표로 삼는다. 관계를 쌓다 보면 시간과 경험이 축적되고, 그 속에서 사회관계들을 연결하는 흐름과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분기점과 동력이 형성된다. 관계는 우리의 타자성을 발견하게 하고 자기를 더 크게 확장하게 함으로써 상호의존성의 연결망을 재인식하게 해 준다. 물론 모든 관계가 개인에게 이득이 되거나 긍정적인 감정만을 선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관계를 통해 우리는 권태와 외로움 대신에 생동하는 삶의 감각과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⁷⁾

인문커뮤니티는 필요충족이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기능주의적 접근 이전에, 사람에 대한 존중과 환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차별과 배제 없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며, 각자의 의지로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감정과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에서만 진정한 연대의 가능성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를 정착해가면서 인문커뮤니티는 각각의 장소와 맥락에 맞는 특이한 관계성을 창조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감성과 언어, 문화와 의례를 창출할 수 있다.

결혼, 출산, 양육, 부양의 고정된 생애주기 흐름에 따라 개인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소속되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가족도 개인의 선택이 되었고,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하나의 정답이 없는 열린 물음이 되었다. 이제는 개인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친밀한 관계 및 커뮤니티에 대한 미래적 역량교육이 도입될 시점이다.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는 인문학적 지식과 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과 환대에 기초한 인문학적 소통을 통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며, 가족·학교·마을·도시 등 커뮤니티 관련 단체 및 공

7) 힐러리 코덤, 박경현·이태인 옮김, 『래디컬 헬프 : 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 착한책가게, 2022, 257면 참조.

간에서 커뮤니티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사람 중심 인문커뮤니티의 개념과 문화를 고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⁸⁾ 영미권에서 일반화된 커뮤니티 교육에서 강조하는 커뮤니티 역량은 다음과 같다.

〈표 1〉〈커뮤니티 건강과 발전 센터〉커뮤니티 툴박스 16개 핵심 역량⁹⁾

1. 연합 및 협력관계 구축과 유지
2. 커뮤니티의 필요 및 자원 평가
3. 문제 및 목표 분석
4. 변화의 프레임워크 또는 모델 개발
5. 전략 및 실행 계획 개발
6. 리더십 구축
7. 문화적 역량 강화
8. 개입 방안 마련
9. 참여 및 회원 증가
10. 변화 촉구 활동
11. 정책 개발에 영향력 행사
12.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활동 평가
13. 커뮤니티 인식과 참여 촉진
14.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15. 경제 발전 강화
16. 사업 또는 활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

- 8) 이와 관련된 선도적 사례로 영국은 2021년 9월부터 인간관계와 성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개정 교육과정 도입한 이래,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인간관계교육(relationships education)이, 중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인간관계·성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이, 초중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건강교육(health education)이 각각 의무화되었다. 영국 정부가 2018년 1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를 만든 것처럼 관계와 커뮤니티 회복을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 참조(<https://edpolicy.kedi.re.kr/ft/boardView.do?strCurMenuId=10092&nTbBoardArticleSeq=832066>).
- 9) 예를 들어 미국 캔사스 대학의 <커뮤니티 건강과 발전 센터the Center for Community Health and Development>는 전세계에 온라인 공공서비스 커뮤니티 툴박스(Community Tool Box)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커뮤니티의 핵심 역량을 다음과 같이 16개로 꼽고 있다.<커뮤니티 건강과 발전 센터the Center for Community Health and Development> 홈페이지(<https://ctb.ku.edu/en/table-of-contents/assessment/assessing-community-needs-and-resources/describe-the-community/main>) 참조

위의 역량 체계는 지자체나 기관 등의 거시적 정책 실현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개개인보다는 지역사회 단위의 자원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자칫 개인의 필요와 삶의 특수한 맥락을 겹도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 필자는 나노화된 개인들의 욕망과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커뮤니티 역량 개념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1〉 인문커뮤니티 역량 개념도

위의 개념도는 ‘주체’, ‘관계’, ‘시공간’의 3차원으로 원리적 고찰의 영역을 다층화하고, ‘인식’, ‘공감’, ‘실천’의 3개 범주로 개인 역량의 작동메커니즘을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설정된 것이다. 나아가 나, 우리, 세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문학적 핵심 역량을 ‘자기발견’, ‘자기배려’, ‘자율과 창조’, ‘타자존중’, ‘타자돌봄’, ‘소통과 갈등전환’, ‘상호의존성 인식’, ‘역사와 장소만들기’, ‘네트워크적 연대’로 선정하였다. 위 개념도는 커뮤니티역량교육 사례조사 및 실증적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관련 교육 모델을 구체화하는 지도가 될 수 있다.

3. 양성과정의 이론적 토대와 설계 원리

위에서 살펴본 먼저 인문커뮤니티역량 개념도를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가 요구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이론들, 즉 1)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맞선 역량접근법, 2) 근대적 주체 이후 정동적·관계적 주체화 이론, 3) 모든 생명가치의 급진적 평등에 기초한 비폭력 윤리학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1)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맞선 역량접근법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이 접근법은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평가한다. 요약하자면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주로 효용과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역량 접근법은 개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될 수 있는 상태, 즉 ‘역량(capabilities)’에 중점을 둔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며, 주로 효용(utility)과 행복(pleasure)의 극대화를 중시한다. 이는 개별 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간과할 수 있으며,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반면 역량접근법은 단순한 효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될 수 있는 상태, 즉 삶의 다양한 기능과 역량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역량접근법은 인간존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10대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⁰⁾

1. 생명Life
2. 신체건강bodily health
3. 신체보전bodily integrity

10) 마사 누스바움, 한상연 옮김, 『역량의 창조 : 인간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돌베개, 2017, 168면 이하 참조.

4. 감각, 상상, 사고sense, imagination, and thought
5. 감정emotions
6.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7. 관계affiliation
8. 인간 외의 종other species
9. 놀이play
10. 환경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관계 중심의 ‘급진적 원조’(Radical Help)를 주장하는 사회활동가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은 위의 역량접근법을 토대로 커뮤니티 복지를 제안하고 있다.¹¹⁾ 힐러리 코탐은 20세기 복지를 대량생산과 위계적인 규칙들, 명령과 통제의 시대인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 규정하고, 마치 표준화된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상품을 찍어내듯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복지서비스가 더 이상 21세기 사회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¹²⁾ 지구온난화, 대량 이주,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만연,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과 같은 총체적이고 장기지속적인 사회문제들은, 전통적인 복지정책, 즉 위기관리 대상과 복지 수급자격을 확대하거나 서비스를 민영조직에 위탁하여 시장화하는 방식으로서는 결코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지역사회,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변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급진적 원조’라고 칭한다. 급진적 원조는 개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번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번성함의 중심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맞닿음”, “연결”, “단순하고 쉽게 협력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본다.¹³⁾ 20세기 복지가 수혜자의 필요를 관리 감독한다면, 21세기 급

11) 대한민국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영국에서 1990년 제정되고 1993년 발효된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을 모델로 삼았던 점에서, 영국의 복지 담론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또한 1980년대 영국 28개 지역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진환자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모델을 마련했던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12) 힐러리 코탐, 『래디컬 헬프: 돌봄과 복지 제도의 근본적 전환』, 52~55면 참조.

13) 힐러리 코탐, 『래디컬 헬프: 돌봄과 복지 제도의 근본적 전환』, 37면.

진적 원조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¹⁴⁾ 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나 합리적 거래의 문화를 전제로 복지를 논한다면, 후자는 존중과 행복의 관계 중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지 환경을 새롭게 조성한다. 왜냐하면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이야말로 복지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녀는 함께 작업하는 팀원들과 함께 디자인 과정을 거쳐 다양한 커뮤니티 실험을 고안해냈다. 예를 들어 극도의 빈곤과 단절에 시달리는 엘라의 가족을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가족 스스로 직접 낙관을 해결할 수 있는 ‘라이프’(life) 실험을 감행했다. 이 실험은 가족들이 주도권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¹⁵⁾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경찰관 등 각기 배경이 다른 여덟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한 팀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과 신뢰를 쌓을 때까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3개월에 걸쳐 아주 천천히 조금씩 가족들은 팀에 마음을 열었고, 정서적인 지지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팀과 가족 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가족의 미래를 세우는 것으로 작업이 전환되었다.¹⁶⁾

중요한 것은 계획을 짜는 과정이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가족들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목적의식과 그리 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된다.¹⁷⁾

다음으로 가족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 시작되었다. 엘라는 사무직의 꿈을 키우고 싶어했고, 이를 위해 컴퓨터 활용기술, 면접 능력을 가르쳤다. 코텀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 꼭 필요한 역량을 노동과 학습, 건강과 활력, 지역

14) 코텀은 좋은 삶을 위한 역량을 ① 탐구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능력으로서 ‘학습’, ② 내적, 신체적 활력이 있는 ‘건강’, ③ 지역사회와 지구의 구성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공동체’, ④ 친밀한 사람들과 긴밀하게 서로 돕는 ‘관계’를 꼽았다. 힐러리 코텀, 『래디컬 헬프 : 돌봄과 복지 제도의 근본적 전환』, 266면.

15) 힐러리 코텀, 『래디컬 헬프 : 돌봄과 복지 제도의 근본적 전환』, 93면.

16) 힐러리 코텀, 『래디컬 헬프 : 돌봄과 복지 제도의 근본적 전환』, 99면.

17) 힐러리 코텀, 『래디컬 헬프 : 돌봄과 복지 제도의 근본적 전환』, 99면.

사회에 소속되는 것, 그리고 가족 내부에서나 그 이상에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으로 강조했다.¹⁸⁾ 이 네 가지 역량을 기본틀로 공유하면서 팀원들은 그에 적합한 실천도구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변화 불가라고 평가되었던 가족은 일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했고, 나아가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우리는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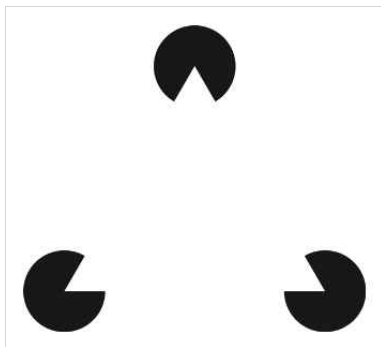
2) 근대적 주체 이후 정동적·관계적 주체화 이론

인문커뮤니티는 근대적 체제에서 보편화된 개인주의를 지양하는 이론틀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로 간주된 근대적 주체는 개인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나아가 커뮤니티의 내재적 힘과 동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동이론에서 관계적 주체화 이론은 인문커뮤니티를 이론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정동이론은 정체성에 대한 관계의 우위를 주장하며, 초개체적 상호포함(transindividual mutual inclusion)을 강조한다. 주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주체화 과정은 정동, 신체적 경험, 사회적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커뮤니티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정동이론에서 관계성은 카니자 삼각형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이탈리아의 심리학자인 카니자(Gaetano Kanizsa)가 개발한 것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집게발처럼 생긴 세 개의 팩맨(Pacman)의 가운데에서 마치 흰 삼각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환상(착시)을 의미한다.

18) 힐러리 코트, 『래디컬 헬프 : 돌봄과 복지 제도의 근본적 전환』, 100면.



△ 커뮤니티 관계성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카니자 삼각형¹⁹⁾

삼각형은 연결해주는 선이 없다는 점에서 가상적이다. 하지만 실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실재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힘을 갖는 현존을 뜻한다.²⁰⁾ 이 현존을 하나의 효과라고 한다면, 인문커뮤니티는 바로 이런 비가시적 효과에 비유할 수 있다. 고정된 본질이나 토대가 없이 서로의 차이, 충돌, 마주침, 어울림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상의 효과가 살아있는 커뮤니티의 실재인 것이다. 삼각형의 발생은 매번 새롭게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 사건으로서 출현한다. 개별 요소들의 순환 속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서 삼각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3) 모든 생명가치의 급진적 평등에 기초한 비폭력 윤리학

버틀러는 그녀의 저서 『비폭력의 힘』에서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급진적 평등을 경유하는 비폭력 윤리학을 주장한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생태계 전체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등은 생명체 간의 위계나 우위를 부정하며,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폭력 윤리학은 모든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에서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19)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21, 267면.

20)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정치』, 같은 곳.

방법을 추구하는 윤리적 접근을 의미하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과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상호의존적이며 각자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은 ‘이미 구성된 집단적 주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삶의 과정들에 종속되어 있는 유기체로서 ‘상호의존의 복수적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불안정하고 상처받기 쉬운 유기체적 삶의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상호의존을 증진하는 수행성은 우리가 힘들지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근본 이유가 된다. 즉 개인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상호연대와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비폭력적인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적 명분을 따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문커뮤니티는 “완전히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세계에 열려 있는 개방성의 기능”²¹⁾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통을 이겨내고 움직이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 속에서 자아는 타인의 영향 아래 자신을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하며, 뿐만 아니라 우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반응하는 노고를 견뎌야 한다. 이런 위험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 이익이나 안위를 지키려는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타자와 상호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조건에 대한 성찰적 자각과 그로부터 비롯된 함께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이로부터 모든 생명체의 평등을 인정하는 자세와 태도가 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돌봄이 실천될 수 있다. 인문커뮤니티는 다른 생명체와 환경에 대해 책임에 기반해야 하며, 그들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공존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21)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창비, 2020, 215면.

4. 양성과정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양성은 한편으로 생활세계에 밀착해서 시민들의 관계성으로부터 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체-커뮤니티 등의 협력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젠다의 진정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다.²²⁾ 세부 교육 분야와 목표 및 세부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분야	목표와 세부 내용
인문커뮤니티 디자인	커뮤니티의 구조와 기능을 사람들 간의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진 하도록 디자인함 •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방법 • 협력적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공동체 감성과 의식 형성 전략 • 인문네트워크 형성과 자원의 활용
인문서사와 치유	다양한 개인 서사와 커뮤니티 픽션을 통해 정서적 치유와 자기 이해를 촉진함 • 서사 치료와 이야기 치료의 기법 • 개인 및 공동체의 이야기 수집 및 분석 방법 • 서사를 통한 정서적 치유와 자아 발견 • 서사를 활용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2) 국내에서 주목할만한 선도적인 사례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2021년 설립한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이다.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커뮤니티·관계·소통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전국 최초 전문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여성·가족·마을·도시재생·평화와 생태운동 등 지역사회 문제를 창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미래 공동체를 선도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일반대학원이다. 이미 시도된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의 실험적 도전과 인프라를 참고하여 우리는 인문커뮤니티역량교육 체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2024년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민간자격제도(1, 2급)를 도입하였다. 이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하여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어 등록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인문학 적 지식과 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과 환대에 기초한 인문학적 소통을 통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며, 가족·학교·마을·도시 등 커뮤니티 관련 단체 및 공간에서 커뮤니티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사람 중심 인문커뮤니티의 개념과 문화를 고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교육분야	목표와 세부 내용
인문소통과 갈등중재	존중과 현대의 소통 기술과 갈등 중재 능력을 개발하여 관계역량을 키우고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함. • 비폭력 대화 및 적극적 경청 기술 • 갈등 분석 및 해결 전략 • 문화 간 소통과 이해 증진 방법 • 협력적 문제 해결 기법
인문자원 큐레이팅	인문학적 자원과 자료를 수집, 조직, 전시하여 커뮤니티 지식과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 • 인문학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법 • 인문큐레이팅의 기초와 기법 • 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 디지털 큐레이팅과 온라인 자료 관리
인문돌봄과 생태적 삶	돌봄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생태적 삶을 지향함 • 상호의존성과 돌봄의 원리 • 인문돌봄의 방법 • 생태학적 원리와 지속 가능한 삶 • 기후위기와 지구환경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인문커뮤니티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경우 놀이와 창의적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접근하며, 여성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과 필요를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접근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차별과 편견 없는 환경 조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교육분야	대상	세부프로그램
인문커뮤니티 디자인	아동	놀이 기반 커뮤니티 활동 디자인, 관계 중심 공간활동
	청소년	청소년 주도 커뮤니티 프로젝트, 청소년 공간 디자인
	여성	여성 커뮤니티 디자인 및 활용, 젠더감수성 코칭 활동
	장애인	접근 가능한 공간 디자인, 장애-비장애 커뮤니티 구축

교육분야	대상	세부프로그램
인문서사와 치유	아동	이야기 치료를 통한 자기 표현 및 관계성 교육
	청소년	커뮤니티 정체성 이야기 치료, 집단 서사 활동
	여성	여성 서사 공유를 통한 치유와 연대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장애인의 상처와 소외, 이야기 치료
인문소통과 갈등중재	아동	놀이와 예술을 통한 비폭력 대화 교육
	청소년	포레 간 갈등중재 기법,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 교육
	여성	가족 내 갈등중재 기술, 여성 연대와 소통 전략
	장애인	장애인-비장애인 간 소통 기술과 의사소통 방법
인문자원 큐레이팅	아동	이야기 수집과 전시를 통한 커뮤니티 큐레이팅 활동
	청소년	청소년 문화와 커뮤니티 디지털 큐레이팅 활동
	여성	여성 역사와 문화 자원 큐레이팅, 여성 작가 전시
	장애인	장애인 인권과 문화 큐레이팅 활동, 장애예술 전시 기획
인문돌봄과 생태적 삶	아동	우정과 돌봄 활동, 생태적 생활 습관 교육
	청소년	청소년 돌봄 프로젝트 기획, 생태적 삶의 실천 방법 교육
	여성	돌봄민주주의 교육, 생태적 상호돌봄 프로그램
	장애인	장애인 상호돌봄 교육, 장애와 생태적 삶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운영은 지역사회와 학교, 여성 단체, 장애인 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세미나, 모임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 인문자산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 미래 지향적 인문커뮤니티 정책과 국가전략 수립 필요성

미래 지향적 인문커뮤니티 정책과 국가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회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 존중, 창의성과 혁신 촉진, 윤리적 리더십 강화,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 그리고 미래 세대 준비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접근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인문커뮤니티를 진흥하는 정책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공동체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 인문학적 가치와 교육을 통해 사람들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인문커뮤니티 정책은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힘입어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갈등과 혐오의 대립이 커지는 흐름이다. 인문커뮤니티는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 나아가 기후 변화, 팬데믹, 인구 고령화 등 생태환경 변화에 인문커뮤니티적 접근은 시민 삶의 질을 고양하고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단 외,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 마을만들기 사업에 던지는 질문』, 삶창, 2015, 59면.
-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 참조(<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092&nTbBoardArticleSeq=832066>)
- 로버트 퍼트남, 정승현 옮김, 『나홀로 볼링 : 볼링 언론 -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페이퍼로드, 2016.
- 마사 누스바움, 한상연 옮김, 『역량의 창조 : 인간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돌베개, 2017, 168면 이하.
- 민무숙·김이선·이춘아·이소영,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 박윤애·박현규·서미화·한국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진흥센터, 2009.
-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21, 267면.
-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창비, 2020, 215면.
- 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옮김, 『비폭력의 힘 : 윤리학-정치학 잇기』, 문학동네, 2023, 30면.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매,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I : 청소년활동 분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 <커뮤니티 건강과 발전 센터the Center for Community Health and Development> 홈페이지(<https://ctb.ku.edu/en/table-of-contents/assessment/assessing-community-needs-and-resources/describe-the-community/main>) 참조.
- 하르트무트 로자 외, 광노완 한상원 옮김, 『공동체의 이론들』, 라움, 2019, 44~45면, 59면.
- 힐러리 코탐, 박경현·이태인 옮김, 『래디컬 헬프 : 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 착한책가게, 2022, 37면, 52~55면, 93면, 99면, 100면, 257면, 266면.
- Michael Bonner, "The Problem of Hyper-Individualism", City Journal 2023, Aug, 04, <https://www.city-journal.org/article/the-problem-of-hyper-individualism>;
- Ananda Majumdar, "Hyper Individualism is the Process of Hyper Culture:

A Sign of Uncertainty”, 2021,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52668385_HYPER_INDIVIDUALISM_IS_THE_PROCESS_OF_HYPER_CULTURE_A_SIGN_OF_UNCERTAINTY 참조

| Abstract |

A Study on Training Methods for Competency Coaches of Humanity-Community in the Hyper-Individual Era

Ryu, Dohyang

This study proposes the ‘Humanity-Community’ as an agenda that can lead community discourse in the hyper-personalization era. Furthermore, it advocates for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Competency Coach of Humanity-Community> to design the sensibility and culture of humanity-communities in microscopic lifeworlds and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collective subjects. The humanity-community refers to a people-centered community that prioritiz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an end in themselves or as fundamental values, rather than focusing on functionalist approaches aimed at meeting needs or solving problems. Here, ‘human’ (人, in) does not denote individuals with distinct boundaries but rather refers to beings defined by mutual relationships of reliance and care. Thus, centering on humans should be understood as a vision of an open community that encompasses all dimensions of relationships, where each is a constituent of the other.

A Competency Coach of Humanity-Community must stimulate and connect the diverse communal needs and desires for relationships latent in the lifeworld. They must also foster communities democratically through humanistic communication based on empathy and hospitality, while developing the ability to resolve various community issues by leveraging humanistic knowledge and values. Ultimately, this endeavor involves recognizing our vulnerabilities and interdependencies as common conditions of life and developing cultural resources that enable us to re-sensitize, re-imagine, and narrate better social bonds and connec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humanity-community agenda in the

hyper-personalization era (Section 2), explains the necessity of humanity-community competency education, review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such education (Section 3), and summarizes simila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Section 4).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will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a system for training Competency Coaches of Humanity-Community in Korea (Section 5).

Key Words: Humanities Community, Community Education, Community Expert Training, Humanities Community Competence Instructor

<진정사효선쌍미>의 서사 분석과 효선 재해석

정천구*

목 차

1. 머리말	4. 어머니의 생천(生天)과 선
2. <진정사효선쌍미>의 서사 분석	5. 맺음말
3. 진정의 입정(入定)과 효선	

■ 국문초록

<진정사효선쌍미>는 『삼국유사』에서 「효선」 편에 실려 있으며, 제목에서도 ‘효선쌍미’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진정사효선쌍미>가 「효선」 편 전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됨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서사적 맥락 속에서 인물들의 행위를 분석해 효와 선이 여러 의미를 가지며 효선쌍미의 의미도 효와 선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밝힌다.

서사는 진정의 마음이나 행동의 변화에 따라 두 차례 전환되므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 첫째 서사는 어머니의 보시를 통해 진정의 효를 보여준다. 둘째 서사에서는 출가를 미루겠다는 진정과 당장 출가해서 문도(聞道, 불도를 배우)해야 한다는 어머니가 옥신각신한다. 셋째 서사에서는 출가한 진정의 입정(入定, 선정에 들), 의상과 그 제자들의 『화엄경』 강설, 어머니의 생천(生天, 하늘에 다시 태어남) 등이 차례로 서술된다.

진정의 효와 선은 첫째 서사와 셋째 서사에 잘 드러나 있다. 첫째 서사에서 진정은 어머니의 뜻을 살피는 효를 다했고, 셋째 서사에서는 출가해서 선정에 드는 경지에 이르렀다. 출가 전에는 효를, 출가 뒤에는 선을 각각 온전하게 실천했다는 것, 이것이 ‘효선쌍미’의 첫 번째 의미다. 그리고 진정이 출가해서 불도를 수행한 일은 선이면서 곧 효다. 진정이 입정이라는 득도(得道, 불도를

*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일은 선의 과보이면서 효의 완성이다. 이것이 ‘효선쌍미’의 두 번째 의미다.

그런데 진정의 어머니는 아들보다 먼저 선을 실천한 여인이다. 첫째 서사에서는 무주상보시를 보여주더니, 둘째 서사에서는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 자식에 대한 애착도 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셋째 서사에서 의상과 그 문도들이 90일 동안 『화엄경』 강설을 한 것도 어머니가 화엄교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서사의 이면에서는 어머니의 자력 수행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그 생전은 자신의 선업으로 얻은 과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진정의 효와 그 어머니의 선이 함께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이 효선쌍미의 세 번째 의미가 된다.

주제어 : 효, 선, 문도, 득도, 입정, 생전

1. 머리말

<진정사효선쌍미(眞定師孝善雙美)>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효선(孝善)」편의 첫머리에 배치되어 있다.¹⁾ 이야기의 제목에서 ‘효선쌍미’라고 했으므로 효와 선이 기본적으로 다른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효는 유교의 덕목이고 선은 불교의 선업(善業)이나 선행(善行)이라고 하는 통념에 따라 이해하고 말 수는 없다. 더구나 진정과 그 어머니가 보여준 행적과 성취는 「효선」편의 다른 주인공들과 다르다. 이는 <진정사효선쌍미>에 나타난 효와 선의 성격, 나아가 효선의 의미가 다른 이야기들과 다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기존 연구에서 <진정사효선쌍미>를 집중적으로 다룬 경우로는 김두진과 김복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두진은 효선쌍미를 의상계 화엄종의 실천 신앙으로 보았으며, 진정의 효행은 이 신앙으로 출가와 효도의 상반된 윤리를 조절한 것이라고 했다.²⁾ 이는 불교적 효가 성립된다고 본 견해여서 주목할

1) 「효선」편에는 다섯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진정사효선쌍미>에 이어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 <향득사지(向得舍知)>, <손순매아(孫順埋兒)>, <빈녀양모(貧女養母)> 등이 차례로 이어진다.

만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효선쌍미 신앙은 이야기 자체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진정이 자력으로 성취한 입정(入定)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김복순은 <진정사효선쌍미>가 신라인들의 효선 의식과 그 실천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왜 고려후기의 일연이 진정의 효선을 중시했는가를 유학자인 김부식의 인식과 비교해서 고찰했다.³⁾ 이 연구는 효선을 유교의 효와 불교의 수행인 선으로 보고 효선쌍미는 진정이 이 둘을 다 잘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효와 선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정한 효도는 수행을 통한 자기완성인 선을 이루어 부모를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불교의 효를 말한 것이어서 전제와 어긋난다.

위의 두 연구 외에는 「효선」편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면서 진정의 효와 선에 대해 짚막하게 언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황패강은 불교의 측면에서 보면 진정의 효가 진정하고도 고차적인 효라고 했고,⁴⁾ 엄선용 또한 효를 행하는 것과 선업을 쌓는 것이 같으면서 진정의 효가 고차원적인 효라고 했으며,⁵⁾ 신선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불교적 신행이 합일되는 이상적인 불교적 효를 진정이 보여주었다고 했다.⁶⁾ 이 연구들은 불교에도 효가 있으며 이 효는 유교적 효보다 차원이 높다고 본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정천구는 중국의 『인천보감(人天寶鑑)』, 일본의 『샤세키슈(沙石集)』 등과 비교하면서 「효선」편이 효의 의미를 확장해 세간의 효와 출세간의 선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⁷⁾

이렇게 <진정사효선쌍미>의 효와 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진정이 실천한 효와 선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김두진,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효선쌍미’ 신앙」, 『한국학논총』 15, 1993.

3) 김복순, 「『삼국유사』 ‘진정사 효선쌍미’조와 일연과 김부식의 효 인식」, 『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논문집』 30, 2009.

4) 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156면.

5) 엄선용, 「『삼국유사』 「효선」편 분석 연구」, 『한자한문교육』 21집, 2008.

6) 신선혜, 「『삼국유사』 효선편의 내용과 특징」, 『역사학연구』 88집, 2022.

7) 정천구, 「『三國遺事』와 『沙石集』의 효에 대한 인식 비교」, 『영남학』 14호, 2008.

더구나 진정의 효와 선이 하나로 어우러져 이루어낸 입정(入定)과 그의 어머니가 생천(生天)한 일은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진정사효선쌍미>의 서사 자체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중세 동아시아에서 유교와 불교는 오래도록 효의 문제로 갑론을박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진정사효선쌍미>는 효와 선을 한꺼번에 다룬 논쟁적인 작품이다. 그렇지만 논쟁적인 주제를 논리적으로 따지며 풀어가는 철학적인 논설이 아니라 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넉넉히 드러내는 문학 작품이다. 따라서 효와 선의 성격, 효선쌍미에 담긴 의미 등을 서사적 맥락 속에서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풀어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진정사효선쌍미>의 전체 서사를 주요 사건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 차례로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서사가 표면에서는 진정의 효와 선을 보여주면서 그 이면에서는 진정의 어머니가 주체적으로 선을 실천한 여인이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 양면성은 서사의 후반에 일어나는 진정의 입정(入定)과 어머니의 생천(生天)이 인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입정과 생천이 서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와 불교적 의미를 아울러 살핌으로써 진정의 효와 선, 어머니의 선이 각각 어떤 성격을 띠며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논의한다. 그 결과, 효선쌍미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도 드러날 것이다.

2. <진정사효선쌍미>의 서사 분석

<진정사효선쌍미>의 전체 서사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 주인공인 진정(眞定)의 심리나 행동의 변화로 말미암아 서사적 흐름이 급변한 데 따른 구분이다. 그런데 진정의 어머니도 효에 대해 남다른 인식을 지니고 선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의 행위뿐 아니라 어머니의 행위도 자세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첫 번째 서사 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정 법사는 신라 사람이다. 속인이었을 때 군대에 적을 두었는데, 집이 가난해 장가를 들지 못했다. 군역을 치르는 여가에 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서 홀어머니를 봉양했다. 집안의 살림이라고는 다리 부러진 솔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어떤 중이 문 앞에서 절을 짓는 데에 쓸 쇠붙이를 보시하라고 청하자 어머니가 그 솔을 주었다. 얼마 뒤에 진정이 밖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는 아들의 뜻이 어떨지 몰라 걱정했다. 그러나 진정은 기쁜 낯빛을 띠며 말했다.

“불사를 위해 보시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솔이 없다면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질그릇 동이로 솔을 삼아 음식을 익혀 어머니를 봉양했다.⁸⁾

주인공인 진정을 소개하면서 시작되는데,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신라 사람이라고만 했다. 가계나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군역을 치르면서 품을 팔았다고 했으니, 하층의 백성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름조차 없다. ‘진정’은 법명이며, 세 번째 서사 단락에 나오듯이 의상 법사에게 귀의하면서 받은 이름이다.

진정은 장가를 들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으나 품을 팔면서 홀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자였다. 그의 효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는 어머니가 하나뿐인 솔을 보시했다고 말하며 걱정했을 때 보여준 반응에서 잘 드러난다. 진정은 기쁜 낯빛으로 “불사를 위해 보시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보시한 일을 덩달아 기뻐한 것이다. 그리고는 머뭇거림 없이 질그릇 동이로 음식을 익혀 어머니를 봉양했다. 진정이 어머니의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의 효를 하고 있으며 그 효가 불교의 선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서사 단락에서 진정이 의상 법사의 소식을 듣고 출가할 뜻을 지닌 것도 이렇게 재가자로서 선을 실천하고 있었던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서사 ①의 표면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면에서는 어

8) 『三國遺事』 권5, <眞定師孝善雙美>. “法師眞定, 羅人也. 白衣時, 隸名卒伍, 而家貧不娶. 部役之餘, 傭作受粟以養孀母. 家中計産, 唯折脚一鐺而已. 一日有僧到門, 求化營寺鐵物, 母以鐺施之. 旣而定從外歸, 母告之故, 且虞子意何如爾. 定喜現於色曰: ‘施於佛事, 何幸如之! 雖無鐺又何患!’ 乃以瓦盆爲釜, 熟食而養之.”

머니의 선이 표현되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생을 잘 알면서도 소중한 살림살이인 솔을 보시했다. 이러한 보시는 진정의 효를 부각시키며 그 성격을 드러내는 구실을 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신심(信心)이나 불심(佛心)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하나 남은 솔을 선뜻 보시한 일에 대해 자신의 처지나 자식의 고생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불법을 맹신해서 저지른 행위라며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 스스로 걱정했다는 점, 진정이 불사를 위한 보시라며 덩달아 기뻐했던 점 등에서 맹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첫 번째 서사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진정의 효가 불교적 선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진정이 활동한 시기에는 유교 윤리로서 효가 신라 사회에 널리 퍼졌거나 민중의 삶에도 배어들었던 때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하면,⁹⁾ 유교적 효라기보다는 불교적 효에 가깝다.¹⁰⁾ 그렇다고 불교적 효를 실천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직 이르다. 뒤의 서사를 통해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어머니가 자신의 판단으로 남다른 보시를 할 만큼 주체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여인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이어지는 서사 단락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제 두 번째 서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신라에서 유가의 윤리가 사회적으로 기능한 시기가 중대부터라는 점, 유교의 주요 경전인 『효경(孝經)』이 682년 설립된 국학(國學)에서 필수 과목이 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하, 「신라 중대의 유학수용과 지배윤리」, 『한국고대사연구』 40, 2005 참조 그리고 김두진은 유학자들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효선쌍미’ 신앙이 나타났다고(김두진 앞의 논문)고 보았는데, 이는 서사적 맥락과는 거리가 먼 견해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지적하면 이렇다. 첫째는 <진정사효선쌍미>의 서사에 유교적 효나 유학자들의 비판과 결부시킬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서사의 흐름과 귀결에서 드러난 진정과 어머니의 선업 모두 타력 신앙이 아니라 자력 수행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점이다. 요컨대, ‘효선쌍미’ 신앙은 서사적 맥락과 별개로 논의된 것이라는 말이다.

10) ‘유교적 효’와 ‘불교적 효’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이 이야기에 ‘유교적 효’라 할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효선』편의 이야기들에서 두 가지 효가 한꺼번에 표현된 경우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효선』편의 이야기들 전부를 다루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의상 법사가 태백산에서 설법을 해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리워하며 따를 뜻을 품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효도를 다한 뒤에는 의상 법사께 가서 머리를 깎고 불도를 배우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불법은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너무도 빠르는데, 효도를 다한 뒤라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네가 얼른 가서 내가 죽기 전에 도를 들었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것만 하겠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서둘러 가는 것이 좋겠다!”

진정이 말했다.

“어머님 늘그막에 오직 제가 곁에 있을 뿐인데, 어머님을 버려두고 어찌 차마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아서라! 나 때문에 네가 출가를 못한다면, 나는 곧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산 나물 풍성한 음식으로 봉양한들, 어찌 효도가 되겠느냐? 나는 남의 집 문간에서 옷과 음식을 비리질하더라도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다. 꼭 나에게 효도를 하려거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진정은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는 곧바로 일어나 쌀자루를 탈탈 털었고, 쌀은 일곱 되쯤 있었다. 그날 바로 밥을 다 짓고는 또 말했다.

“네가 밥을 지어 먹으면서 가면 더딜까 걱정이다. 내 눈앞에서 한 되씩 먹고 나머지 여섯 되는 싸가지고 얼른 떠나거라, 얼른 떠나!”

진정은 눈물을 삼키면서 굳이 사양하며 말했다.

“어머니를 버리고 출가하는 것도 사람의 자식으로서 차마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며칠 먹을 미음거리까지 다 싸가지고 간다면, 하늘과 땅이 저를 뭐라 하겠습니까?”

세 번 사양했으나, 어머니는 세 번 부추겼다.¹¹⁾

11) 『三國遺事』 권5, <眞定師孝善雙美>. “嘗在行伍間, 聞人說義湘法師在太伯山說法利人, 卽有嚮慕之志. 告於母曰: ‘畢孝之後, 當投於湘法師, 落髮學道矣.’ 母曰: ‘佛法難遇, 人生大速, 乃曰畢孝, 不亦晚乎? 曷若趁予不死, 以聞道聞. 慎勿因循, 速斯可矣!’ 定曰: ‘萱堂晚景, 唯我在側, 弃而出家, 豈敢忍乎?’ 母曰: ‘噫! 爲我防出家, 令我墮泥黎也. 雖生養以三牢七鼎, 豈可爲孝? 予其衣食於人之門, 亦可守其天年. 必欲孝我, 莫作爾言.’ 定沈思久之. 母卽起, 罄倒囊儲, 有米七升. 卽日畢炊, 且曰: ‘恐汝因熟食經營而行慢也. 宜在子目下, 噉其一, 囊其六, 速行速行!’ 定飲泣固辭曰: ‘弃母出家, 其亦人所難忍也.

위의 서사는 진정이 의상 법사를 따르려는 뜻을 품은 데서 시작된다. ①에서 보았듯이 진정은 효성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런데 의상에 관한 소문만 듣고서 출가할 뜻을 냈을 뿐 아니라 그 뜻을 어머니에게 털어놓기까지 했다. 이는 ①에서 슬며시 드러났던 그의 불심 또는 신심이 결코 어머니에 못지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정은 효도를 다한 뒤에, 즉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출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어머니가 당장 출가해야 한다면 논박해 서로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어머니가 당장 출가하라고 다그치는데도 진정이 효도를 다한 뒤에 출가하겠다고 버틴 것은 그의 지극한 효심을 생각하면 아주 당연해 보인다. 더구나 그가 출가하면 늙은 홀어머니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너무도 뻔했다. 그의 어머니조차 “남의 집 문간에서 옷과 음식을 비력질하더라도”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홀어머니를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은 진정에게 이기적인 행위이며 불효나 다름이 없었을 터이다. 출가해서 불도를 닦는 선은 자기 완성을 위한 자리행(自利行)이고 또 이타행(利他行)을 위한 바탕이지만, 진정에게는 효행과 충돌하는 이기적인 행위로 여겨진 것이다.

출가를 효와 배치되는 것으로 여긴 진정에게 그의 어머니는 세 가지로 논박했다. 첫째는, 불법은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너무도 빠르므로 얼른 출가해서 문도(聞道), 곧 불도를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효이며 이 효는 속가에서 봉양하는 효보다 더 낫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불도 수행이라는 불교적 선의 실천이 곧 효라는 논리가 깔려 있는데, 달리 말하면 자리행이 곧 이타행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아들이 출가하지 못하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아들이 스스로 출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어머니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태이므로 어머니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말인데, 이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¹²⁾는 연기법(緣起法)에 따라 편 논리다. 셋째는 입과 몸을 봉양하는 양구체(養口體)가 아니라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라야 온전한 효가 된다는 것이었다.¹³⁾

況其杯漿數日之資，盡裹而行，天地其謂我何？’ 三辭，三勸之。”

12) 『雜阿含經』 권10. “此有故彼有，此生故彼生.”

13) 맹자는 아버지를 섬기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입과 몸만 봉양하는 ‘양구체(養口體)’와 아버지의 뜻을 봉양하는 ‘양지(養志)’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양지’가 바람직한 효라

이는 어머니의 뜻이 아들의 출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진정이 이미 실천하고 있던 양지의 효를 새삼 상기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는 논박이다.

어머니의 반박은 이렇게 단호하면서도 조리가 있었다. 그 뜻도 중요하지만, 출가를 미루는 아들에게 ‘즉각’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①에서 설핏 드러났던 어머니의 신심 또는 불심이 결코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들이 불도를 닦았으면 하는 바람을 오래 전부터 지니고 있었고 아들에 대한 애착도 진즉에 떨어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은 행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어머니는 자신의 험박성 발언에 진정이 깊은 생각에 잠기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곧장 일어나서 쌀자루를 탈탈 털어 쌀 일곱 되를 다 밥을 지었다. 그리고는 “내 눈앞에서 한 되를 먹고 나머지는 싸가지고 얼른 떠나거라!”라고 말했다. 이런 과단성은 돌발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오래도록 쌓은 선업의 결과로 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서사 ②는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무엇보다도 보조적 인물인 어머니가 서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로 말미암아 ①에서 진정의 효에 가려져 있던 어머니의 선이 ②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났다. ①에서 하나뿐인 솔을 보시한 어머니의 행위가 무자각적인 맹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뒷받침된 신심 또는 각성한 불심에서 나온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이었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정은 “의상 법사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이타행에 이끌려 발심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출가 뒤의 선이 자리행이면서 이타행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 어머니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①과 ②의 서사를 아울러 살펴보면, <진정사효선쌍미>의 서사에서는 주동 인물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할 수 있다. 서사의 표면에서는 진정이, 서사의 이면에서는 어머니가 주동 인물이 되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대등하게 서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정과 어머니를 모두 주동 인물로 볼 수 있다면, 세 번째 서사 단락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고 했다.(『孟子』, 「離婁上」) 그러나 진정의 어머니가 이런 유교적 인식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교적 효 인식은 <빈녀양모(貧女養母)>가 잘 보여준다.

③ 진정은 그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 길을 떠나 밤낮 걸었다. 사흘 만에 태백산에 이르러 의상에게 귀의해 머리 깎고 제자가 되었으니, 법명을 진정이라 했다.

거기에 머문 지 3년 만에 어머니의 부고가 이르렀다. 진정은 가부좌를 하고 선정에 들어 이레가 지나서야 일어났다. 설명하는 이가 말했다. “그 리움과 슬픔이 몸을 상하게 할 지경에 이르러 거의 견딜 수 없었으므로 선정의 물로써 씻으려 한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선정에 들어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관찰한 것이다”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이는 곧 여실한 이치로써 명복을 빈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정은 선정에서 나온 뒤에 이 일을 의상에게 알렸다. 의상은 문도들을 거느리고 소백산의 추동에 가서 풀을 엮어 오두막을 짓고 무리 3천 명을 모아 90일 동안 『화엄대전』을 강설했다. 문인인 지통이 강설을 따라서 그 요지를 뽑아 두 권의 책을 만들고 『추동기』라 했는데, 세상에 유통되었다. 강설이 끝나자, 그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이미 하늘에 태어났다.”¹⁴⁾

이 서사 단락도 진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서두에 표현되어 있듯이 진정은 어머니의 뜻을 어기지 못하고 떠밀려서 출가해 의상의 제자가 되었다. 법명을 받은 뒤에 어떠한 수행을 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입정(入定)한 사실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서사 ②에서 어머니는 출가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아들이 불도를 들었다는 소식을 죽기 전에 듣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 바람은 당연히 출가한 진정의 효심을 자극했을 것이다. 진정은 홀로 남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떨 어내지 못한 채로 출가한 처지였기에 더욱더 수행에 매진했을 터이다. 그 결과가 ③에서 선정(禪定)에 드는 입정(入定)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고를 들은 진정은 선정에 들었다가 이레가 지나서 일어났다. 서사에서는 진정이

14) 『三國遺事』 권5, <眞定師孝善雙美>. “定重違其志, 進途宵征. 三日達于太伯山, 投湘公, 剃染爲弟子, 名曰眞定. 居三年, 母之訃音至. 定跣趺入定, 七日乃起. 說者曰: ‘追傷哀毀之至, 殆不能堪, 故以定水滌之爾.’ 或曰: ‘以定觀察母之所生處也.’ 或曰: ‘斯乃如實理薦冥福也.’ 既出定以後, 事告於湘. 湘率門徒歸于小伯山之錐洞, 結草爲廬, 會徒三千, 約九十日, 講華嚴大典. 門人智通隨講, 撮其樞要, 成兩卷, 名錐洞記, 流通於世. 講畢, 其母現於夢曰: ‘我已生天矣.’”

선정에 든 까닭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입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불교에서 입정은 수행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경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진정의 입정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어머니의 생천(生天)이다. 생천은 “하늘에 태어난다”는 뜻으로, 불교의 기본 교리에서는 열 가지 선업(善業)을 잘 실천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¹⁵⁾ ③에서는 어머니가 생천을 알리기 전에 진정이 선정에 든 일, 이어 의상이 문도들을 거느리고 『화엄경』을 강설한 일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이 두 가지 일을 바탕으로 생천을 해석해 왔다. ③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서사 ①과 ②에서 보여준 어머니의 선을 아울러 고려할 때, 다시 말해 서사적 맥락에서 볼 때,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③에는 진정의 효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진정의 입정을 통해 넉넉 드러나 있다. 그리고 입정은 선, 곧 불교적 선업의 결과다. 이는 입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해석이 뒤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또 아들보다 먼저 오래도록 선업을 실천한 어머니라면, 그 생천을 진정의 선정이나 『화엄경』 강설 따위로 말미암은 왕생으로 보아야 할 지, 어머니 자신이 닦은 선업의 과보로 보아야 할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진정의 입정과 어머니의 생천을 서사적 맥락 속에서 철학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이를 통해 효와 선, 효선쌍미 등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3. 진정의 입정(入定)과 효선

대개의 이야기에서 그러하듯이 <진정사효선쌍미>에서도 진정의 모든 행위는 서사의 후반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수렴된다. 선정에 드는 입정(入

15) 십선업(十善業)이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열 가지 선업인데, 결과를 짓기 때문에 십선업도(十善業道)라고도 한다. 『화엄경』의 일부인 『십지경(十地經)』에서는 신업(身業)으로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을, 구업(口業)으로는 불망어(不妄語), 불기어(不綺語), 불악구(不惡口), 불양설(不兩舌)을, 의업(意業)으로는 불간탐(不慳貪), 불진에(不瞋恚), 불사견(不邪見) 등이 있다고 한다.

定)이 그런 사건이다. 입정은 진정이 실천한 선, 곧 불도 수행의 결과다. 서사에서 진정이 명확하게 보여준 이 선이 ‘효선쌍미’의 선이다. 다만, 어떤 성격의 선인지, 어떤 수준의 선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그의 입정, 정확하게는 그가 든 선정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진정(眞定)의 범명도 “참된 선정”을 의미하니, 선정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¹⁶⁾

서사 ③은 진정이 집을 떠나 곧장 태백산으로 가는 데서 시작된다. 곧이어 거기에 머문 지 3년 만에 어머니의 부고가 이르렀고, 부고를 들은 진정은 이내 가부좌를 하고 선정에 들었다가 이레가 지나서 일어났다고 한다. 입정은 정신을 집중하고 통일해서 번뇌를 없애는 무아의 경지에 들었다는 뜻이다. 진정이 왜 입정을 했는지 ③에서 설명한 것을 먼저 보자.

설명하는 이가 말했다. “그리움과 슬픔이 몸을 상하게 할 지경에 이르러 거의 견딜 수 없었으므로 선정의 물로써 씻으려 한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선정에 들어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관찰한 것이다”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이는 곧 여실한 이치로써 명복을 빈 것이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설명에서는 진정이 그리움과 슬픔을 이기기 어려워 선정으로 가라 앉았다고 한다. 속가에 있을 때부터 효심이 지극했던 진정이므로 출가한 뒤에는 오히려 그 효심이 더욱 깊어졌으리라 여겨서 이렇게 설명한 듯하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다시 태어나는 곳이 어딘지를 관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런 궁금증을 가지리라 여기고서 한 설명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비는 일이야 예사 일이므로 이렇게 설명했으리라 짐작된다.

위의 세 가지 설명은 모두 진정의 효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뒤의 두 설명은 선정의 공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나,¹⁷⁾ 첫

16) 이대형, 「『삼국유사』에 나타난 모성의 형상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2007, 95~96면에서도 진정의 선정에 주목했으나, 자세하게 고찰하지는 않았다.

17) 『대지도론(大智度論)』과 『선법요해(禪法要解)』 등 선정을 자세하게 서술한 문헌들을 보면, 선정이 신통력을 갖게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선정으로 일으키는 이적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는 『고승전(高僧傳)』, 『속고승전(續高僧傳)』, 『송고승전(宋高僧傳)』 등의 ‘습선(習禪)’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째 설명은 선정의 공덕과 관련이 없을 뿐더러 그 본질에서도 벗어난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더구나 첫 번째 설명은 진정의 입정과 직접 관련되므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나머지 두 가지 설명은 어머니의 생천(生天)과 관련이 있어 뒤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첫 번째 설명은 어머니의 부고를 들은 진정이 깊은 그리움과 슬픔에 젖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나온 설명이다. 서사 ②에서 보았듯이 진정은 본래 홀어머니를 두고는 차마 출가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이런 설명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나 심리 상태에서 과연 선정에 들 수 있을까? 진정은 부고를 듣고서도 가부좌를 하고 선정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아래의 글을 보라.

날카로운 근기를 지닌 이가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면 늦어도 7일이 지나면 마음이 선정을 얻어 머물 수 있고, 중간 정도의 근기를 지닌 이라면 21일이 지나야 선정을 얻을 수 있으며, 근기가 무딘 이라면 오래도록 정진해야 선정을 얻을 수 있다.¹⁸⁾

『선법요해(禪法要解)』에 나오는 위의 글에서는 근기에 따라 선정에 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다르다고 하면서 상근기(上根機)가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해도 7일이 지나서 선정을 얻는다고 했다. 서사 ③에서는 진정이 부고를 듣고 며칠이 지나 선정에 들었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적어도 7일이나 걸린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진정은 근기가 뛰어난 데다 남다른 정진을 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해석은 진정이 선정에 든 지 이레가 지나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묻는다. “만약 모든 보살이 미묘한 삼매에 들어가면, 누가 그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답한다. “수행하는 이가 처음 삼매에 들어갈 때 스스로 기한을 정하는데, 그런 뒤에 선정에 들어가서 때가 되면 그 마음이 자재

18) 『禪法要解』 권상: “若利根者, 一心精勤, 遠至七日, 心得定住; 中根者, 乃至三七; 鈍根者, 久久乃得.” 『선법요해』(2권)는 용수 보살의 논서로 알려져 있으며, 구마라집의 한 역본이 고려대장경에 포함되어 있다.

로워서 삼매에서 일어나게 된다.”¹⁹⁾

여기서 삼매는 곧 선정을 이른다. 삼매에 들어가는 이는 스스로 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며, 자신이 정한 때가 되면 그 마음이 자재로워서 삼매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 진정 또한 스스로 선정에 들고 이레가 지난 뒤에 스스로 선정에서 일어났다. 이는 진정이 선정에 들고 깨어나는 일을 자재하게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사실 『선법요해』에서는 “한마음으로 믿고 좋아하며 부지런히 정진해서 마음을 잡도리해야 차츰차츰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²⁰⁾고 했다. 다시 말해, 마음이 허공과 같이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 천상의 욕락(欲樂)으로도 마음을 물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선정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²¹⁾ 그렇다면, 첫 번째 설명처럼 그리움이나 슬픔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컸다면, 선정에 드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진정처럼 효심이 지극한 이라면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을 때 그리움과 슬픔이 일어났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곧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선정에 들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그가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그의 선정은 어떤 수준이었을까? 불교에서는 사선팔정(四禪八定)을 말한다. 색계(色界)의 네 선정과 무색계(無色界)의 네 선정을 이르는 말이다. 진정은 출가해서 수행한 지 3년 정도 되었으므로 색계의 선정에 들었을 공산이 크다.²²⁾ 색계의 네 선정은 초선(初禪), 제이선(第二禪), 제삼선(第三禪), 제사선(第四禪)을 가리킨다. 초선은 욕계를 떠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선정[離生喜樂]이고, 제이선은 선정의 힘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낳는 선정[定生喜樂]이며, 제삼선은 마음은 편안하고 몸도 즐거움을 느끼는 선정[身心受樂]이

19) 『大智度論』 권99. “問曰：‘若諸菩薩入微妙三昧中，誰能令起？’ 答曰：‘行者初入時自作限齊，然後入定，時至，其心自在從三昧起。’”

20) 『禪法要解』 권상. “一心信樂，精勤攝心，轉入深定.”

21) 『禪法要解』 권상. “我心如虛空，一切無所著，正使天欲來，不能染我心.”

22) 무색계의 네 선정을 사무색정(四無色定)이라 하는데,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이 그것이다. 비상비비상처정이 선정 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멸진정(滅盡定)에 이르고 이를 넘어서면 붓다가 말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

고, 제사선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사라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고요하고 청정한 선정[捨念淸淨]이다.²³⁾

진정의 선정은 색계의 네 선정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외물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평온과 청정을 유지하는 제사선으로 여겨진다. 『선법요해』에 따르면, 제이선에 들어도 애정, 교만, 사건, 의심 등의 번뇌가 마음을 덮어 선정에 든 마음을 무너뜨린다고 하며,²⁴⁾ 제삼선에 들어도 마음이 차츰 미약해지거나 크게 일어나거나 미혹되어 답답해 하는 세 가지 허물이 있다고 한다.²⁵⁾ 진정은 이레가 지나서 일어났고 고요와 평정을 유지한 듯하니, 제삼선의 허물조차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진정이 든 선정이 초선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대단할 터인데, 제사선이라면 참으로 대단하다. 이는 ②에서 어머니가 바라던 바, 곧 불도를 듣는 문도(聞道)에서 훨씬 나아가 불도를 성취하는 득도(得道)에 이른 셈이다. 어머니의 바람을 넘어서는 선을 실천했고, 속가에서 실천했던 효행을 훨씬 넘어서는 효, 이른바 대효(大孝)를 해냈다.²⁶⁾ 여기서 입정은 대효가 되니, 선이 곧 효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효선쌍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진정의 ‘효선쌍미’는 그의 효와 선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서사의 표면에 드러난 그대로 출가의 여부에 따라 효와 선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다. 서사 ①은 진정이 출가하기 전에 실천한 효를 보여주었고, 서사 ③은 출가한 뒤에 실행한 선을 보여주었다. 처지에 따라 나뉘는 이 효와 선을 모두 훌륭하게 실천했다는 것이 효선쌍미의 첫 번째 의미다.

둘째는 서사 ③에 함축된 의미로써 효와 선을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어버

23) 『雜阿含經』 권4. “學離欲，惡不善法，有覺有觀，離生喜樂，具足初禪。… 離有覺有觀，內淨一心，無覺無觀，定生喜樂，具足第二禪。… 離喜捨心，住正念正智，身心受樂，聖說及捨，具足第三禪。… 離苦息樂，憂喜先斷，不苦不樂，捨淨念一心，具足第四禪。”(T02, 97a)

24) 『禪法要解』 권상. “二禪定有煩惱覆心，所謂愛慢邪見疑等，壞破定心.”

25) 『禪法要解』 권상. “三禪中有三過，一者心轉細沒，二者心大發動，三者心生迷悶.”

26) 맹자는 “대효는 죽을 때까지 어버이를 사모하는 것이다. 나이 스네에도 어버이를 사모하는 것을 나는 위대한 순에게서 보았다”(大孝終身慕父母。五十而慕者，予於大舜見之矣.)라고 말했다.(『孟子』「萬章 上」)

이를 곁에서 봉양해야만 효라고 한다면, ③에는 효가 없다. 그러나 서사 ②에서 진정의 어머니가 “내가 죽기 전에 도를 들었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것” 이야말로 효라고 말했기 때문에 ③의 선은 곧 효로서 성립된다. 이는 효와 선이 돌이면서 하나임을 가리킨다. 더구나 진정이 선업으로 이룬 입정은 어머니가 바란 것 이상이었다. 이렇게 돌이면서 하나인 효와 선을 훌륭하게 실천해 성취했다는 것이 효선쌍미의 두 번째 의미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불교의 불이(不二) 논리가 현실에서 구현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4. 어머니의 생천(生天)과 선

<진정사효선쌍미>는 의상 법사와 그 문도들이 『화엄경』 강설을 끝내자, 진정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나는 이미 하늘에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끝난다. 어머니의 생천(生天)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야기가 그 제목처럼 진정의 효와 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면, 어머니의 생천은 아들인 진정 덕분에 가능했으리라 추론할 만하다. 사실 진정의 효와 선정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생천한 것이라고 보는 연구들이 적지 않다.²⁷⁾ 한편, 서사의 흐름을 중시해 『화엄경』 강설 법회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생천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⁸⁾ 이 모두 어머니의 생천을 타력(他力)에 의한 과보로 본 것이다.

그런데 서사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어머니는 주체적으로 선을 실천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사 ①에서는 아들인 진정보다 먼저 선을 실천하고 있었음이, ②에서는 어머니의 지혜와 행동이 범상치 않은 수준에 이르렀음이 잘 드러나 있다. ③에서도 의상이 문도들을 거느리고 『화엄경』을 ‘강설’했다. 강설을 듣는 행위는 자력으로 경전을 해석하고 이해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생천은 자력(自力)으로 얻은 과보일

27) 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156면; 엄선용, 앞의 논문, 461면; 신태수, 「『삼국유사』 <효선>편의 효윤리와 이념 지향」, 『한민족어문학』 68집, 2014, 189면; 이강엽, 「『삼국유사』 「효선」편의 어머니상을 통해서 본 효의 의미」, 『우리말글』 63, 2014, 240면.

28) 이기백, 「신라 불교에서의 효관념 - 『삼국유사』 효선편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2집, 1983, 32면; 김복순, 앞의 논문, 48면.

가능성이 높다.

자력으로 생천했을 공산이 크다는 것은 진정의 입정에 대한 두 설명이 뒷받침해 주기도 한다. 입정에 대한 두 번째 설명에서는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관찰한 것”이라 했는데, 만약 진정의 입정으로 어머니가 생천한 것이라면 이 설명대로 진정은 입정 상태에서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날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을 보라. 어머니가 진정의 꿈에 나타나 “나는 이미 하늘에 태어났다”고 알려준다. 진정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세 번째 설명에서는 입정이 “여실한 이치로써 명복을 빈 것”이라 했다. 생천을 빌었다는 뜻으로 명복을 빌었다고 말했을 수도 있으나, ‘여실한 이치로써’ 빈 것이라 했으므로 그렇게 볼 수 없다. 여실한 이치는 남이 들려줄 수 있고 알려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오로지 자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어머니에게 스스로 생천할 힘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생천(生天)을 가능하게 하는 선업의 조건은 무엇인가? 어머니의 선은 그 조건에 부합하는가?

불교에서 생천(生天)은 죽은 뒤에 육도(六道) 가운데 하나인 천도(天道)에 태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제석천(帝釋天)이 다스리는 천궁, 곧 도리천(忉利天)에 태어나는 것이다. 도리천은 붓다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태어난 곳이며, 신라의 선덕여왕이 자신을 묻어 달라고 한 곳이기도 하다.²⁹⁾ 이런 사실만으로도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지도론』에 나오는 다음의 문답을 보라.

묻는다. “선법에도 세 가지 과보가 있다. 낮은 것은 사람이고, 중간 것은 하늘이며, 가장 위는 열반이다.”

답한다. “여기서는 열반을 말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중생이 과보로서 머무는 곳만 분별해야 할 것이니, 열반의 과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삼십칠품으로, 열반에 이르게 한다. 둘째는 후세의 즐거움을 내게 한다. 이제 여기서는 몸을 받는 선법만 말하고, 열반에 이르는 선법은 말하지 않는다. 세간의 선에는 세 가지가

29) 선덕여왕이 신하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도리천에 장사지내라고 당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 「기이(紀異)」편의 <선덕왕지기삼사(善德王知幾三事)>에 나온다.

있다. 상등의 인연으로는 천도의 과보가 있고, 중등의 인연으로는 인도의 과보가 있으며, 하등의 인연으로는 아수라의 과보가 있다.”³⁰⁾

선법에 세 가지 과보가 있다면서 중간 것이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라 했다. 가장 위의 과보인 열반은 출가자의 수행법인 삼십칠품(三十七品)을 닦아야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³¹⁾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는 재가자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과보에 해당한다. 세간의 선에서 상등의 인연으로 받는 과보가 천도라 한 것도 같은 말이다. 이로써 보면, 하늘에 태어난 진정의 어머니는 재가자로서 최상의 과보를 받은 셈이다.

그러면 진정의 어머니가 실천한 선은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을 만한 것이었는가? 『정법염처경(正法念處經)』에 나오는 제석천의 계송이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계율을 지키고 선정과 삼매를 익혀
마음으로 행업을 닦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의 지혜는 순금과 같을지니
반드시 천상의 궁전에 나게 되리라.

.....

애욕의 대상에 미혹되지 않으며
애욕의 인연에 휘둘리지 않아서
두려운 삼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리라.³²⁾

계송은 꽤 긴 편인데, 천상에 태어나는 데 요구되는 조건들이 다양하게 열

30) 『大智度論』 권30. “問曰：‘善法亦有三果。下者爲人，中者爲天，上者涅槃。’答曰：‘是中不應說涅槃。但應分別衆生果報住處。涅槃非報故。善法有二種。一者，三十七品能至涅槃；二者，能生後世樂。今但說受身善法，不說至涅槃善法。世間善有三品。上分因緣故，天道果報；中分因緣故，人道果報；下分因緣故，阿修羅道果報。’”

31) 삼십칠품 또는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은 『아함경』에서 붓다가 언급한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을 가리킨다.

32) 『正法念處經』 권19. “持戒習禪及三昧，若人有能心修行，是人智慧如真金，必得往生諸天宮。… 若有不爲欲境惑，不隨愛欲之因緣，得脫三惡道怖畏，如是之人生天上。”

거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논의에 적합한 대목만 인용했다. 위에서 먼저 거론된 선법은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삼매를 익히는 일이다. 이는 곧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실천으로 ‘순금 같은 지혜’를 얻어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했다. 진정의 어머니가 육바라밀을 닦았는가? 서사 ①에서 보여준 선은 확실히 보시바라밀이다.

진정의 어머니는 유일한 살림인 술을 불사를 위해 보시했다. 이 보시는 어떤 수준의 보시일까? <진정사효선쌍미>에 이어 나오는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에서 대성이 보시한 일과 견주어 보면 더 명확해진다. 가난했던 대성은 부유한 집에서 품팔이를 하며 약간의 밭을 얻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 밭을 절에 보시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대성은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얻는다”는 고승 점개(漸開)의 말을 듣고서 보시를 한 것이다.³³⁾ 요컨대, 대성은 만 배나 되는 이익을 바라는 마음에서 보시를 했다. 이런 보시를 ‘유주상보시(有住相布施)’라 한다. 이와 달리 진정의 어머니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한 것이 아니었다. 『금강경(金剛經)』에서 붓다가 수보리에게 “(보살은) 머무는 곳이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³⁴⁾고 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보시, 곧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행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구체적인 복을 바라서 하는 유주상보시는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일종의 투자다. 대성의 경우처럼 대개의 불자들이 이런 보시를 하는데, 통념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에서 그런 보시는 아상(我相)에 머문 보시여서 참된 보시가 아니다. 참된 보시는 무주상보시이며, 이런 보시의 복덕은 생각으로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한다.³⁵⁾ 복덕이 이토록 크다는 것은 아무나 쉽사리 할 수 있는 보시가

33) <대성효이세부모>를 보면, 대성이 점개의 말을 듣고 와서 어머니에게 말한 내용은 이러하다. “제가 문간에 온 스님이 외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얻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생의 선업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곤궁합니다. 이제 또 보시하지 않으면, 내세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품팔이로 받은 밭을 법회에 보시해서 훗날의 과보를 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予聽門僧誦偈, 云施一得萬倍. 念我定無宿善, 今茲困匱矣. 今又不施, 來世益艱. 施我傭田於法會, 以圖後報何如?)

34) 『金剛經』. “應無所住, 行於布施.”

35) 『金剛經』에서 붓다는, “수보리아, 그러면 동서남북과 그 사이 사방, 그리고 위아래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須菩提! 南西北方, 四維, 上下虛空, 可思量不?)고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이런 보시는 마음이 외물에 집착하지 않고 청정해야 할 수 있다.³⁶⁾

진정의 어머니가 솔을 보시한 일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서사 ②를 떠올려 보라. 진정이 출가를 주저할 때, 그의 어머니는 처음에 이치로써 아들을 설득했다. 그래도 아들이 고집을 부리며 머뭇거리자 협박성 발언으로 다그쳤다. 마침내 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일어나 쌀자루를 탈탈 털어 밥을 지었다. 아들의 감정과 심리, 행위를 잘 살펴서 알맞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다. 이야말로 지혜롭다고 할 만하지 않은가?

위에서 제석천은 애육의 대상에 미혹되지 않고 애육의 인연에 휘둘리지 말아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진정의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나 진배없다. 자식의 출가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서두르라고 재촉했으니, 무주상보시로 보여준 것처럼 자식에게 아무런 애착이나 집착이 없었다는 뜻이다. 본래 애착이 없던 여인일 수도 있으나, 선을 닦으면서 미혹되지 않고 혈연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서사 ①에서 보여준 보시, 서사 ②에서 드러난 지혜와 무집착은 진정의 어머니가 평범한 수준의 신심이나 불심을 지닌 여인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³⁷⁾ 가령, 중국 조동종(曹洞宗)의 개조인 동산양개(洞山良价, 807~869)의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아들은 어미를 땡개칠 뜻이 있으나 이 어미는 아들을 버릴 마음이 없다”는 답장을 보냈다.³⁸⁾ 심지어 스승

말한 뒤에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뭇이 없는 보시로 얻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須菩提! 菩薩無住相布施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고 말했다.

36) 대주해해(大珠慧海)의 『돈오입도요문론(頓悟入道要門論)』에 다음 구절이 나온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은 곧 불심이니, 해탈심이라고도 하고 보리심이라고도 하고 무생심이라고도 한다.”(不住一切處心者, 即是佛心, 亦名解脫心, 亦名菩提心, 亦名無生心.)

37) 최정선,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 10호, 2005, 3~4면에서는 진정의 어머니가 지혜와 결단으로 아들을 일깨웠다고 하면서도 아들의 효행으로 극락왕생했다고 해 그 지혜와 결단의 의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38) 『新編 緇門警訓』, <洞山良价和尚辭親書>. “子有拋母之意, 娘無捨子之心.”(『신편 치문경훈』, 해인승가대학 편, 해인사출판부, 1990, 113면) 동산양개는 출가 수행을 통해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 했으나, 그의 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자의 인연을

이 효를 요구하며 제자의 구법행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³⁹⁾ 그렇게 볼 때, 진정의 어머니는 재가자로서 불교의 선법을 철저히 실천한 여인, 하늘에 태어날 과보를 자력으로 얻을 만큼 선업을 쌓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전의 의미와 그 조건에서 볼 때, 진정의 어머니를 단순히 아들의 효행 또는 효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하다. 서사적 맥락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사 ②를 보라. 그 어디에서도 아들의 선을 자신의 복덕으로 여기는 낚새조차 없다. 이는 어머니의 선을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서 효선쌍미의 세 번째 의미가 도출된다. 어떤 형태로든 진정이 보여준 그 지극한 효와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력으로 생전한 어머니의 선, 이 둘이 모두 아름답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모가 효의 대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 자식의 효는 부모의 선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뜻도 담겨 있다.⁴⁰⁾

5. 맺음말

<진정사효선쌍미>는 제목에서 “효와 선이 둘 다 아름답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야기도 짧아서 그 주제가 선명해 보인다. 그러나 서사의 단락을 구분해 각 단락마다 주요 사건과 인물들의 행위를 분석하고 서사적 맥락 속에서 철학적이고 논쟁적인 주제인 효와 선, 그리고 효선쌍미의 의미를 해석했을

끈질기게 내세웠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천구, 앞의 논문, 353~358면 참조.

39) 일본의 선승 도겐(道元, 1200~1253)의 법어집인 『정법안장수문기(正法眼藏隨聞記)』에 흥미로운 일화가 실려 있다. 도겐의 스승인 묘젠(明全, 1184~1225)이 불법을 구하러 송나라에 가려고 할 때, 늙고 병든 스승이 자신의 임종을 지켜달라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난감해진 묘젠은 사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의논했는데, 대부분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도리라며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난 갈등, 곧 효와 출가의 대립에 대해서는 김호성, 「효, 출가, 그리고 재가의 딜레마」, 『불교학연구』 30호, 2011, 506~512면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 묘젠의 스승과 진정의 어머니를 견주어 보라.

40) 원영상은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에 표현되어 있는 효사상을 두루 살피면서 불교의 효는 자식과 부모의 수평 관계를 중시하며 서로 이롭게 하는 이타행의 성격을 띤다(원영상, 「불교의 효사상에 관한 고찰」, 『한국선학』 23호, 2009, 554~568면)고 했는데, 그런 불교의 효가 <진정사효선쌍미>에서도 구현된 셈이다.

때, 주제는 단일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았다. 이는 <진정사효선쌍미>가 주제를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작품임을 말해준다.

<진정사효선쌍미>의 서사는 주인공인 진정이 이끌고 가지만, 그의 어머니 또한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고 서사를 주동해 나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서사의 의미망도 표면에서 이면에 걸쳐 중층적으로 형성되었다. 또 서사의 흐름에서 진정의 출가가 변곡점이 되면서 두 인물의 심리와 사유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진정이 의미망을 엮어 나갔지만, 그의 어머니 또한 이면에서 또 다른 의미망을 짜고 있었다.

진정의 효와 선은 속가에서 홀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출가해서 불도를 닦고 입정(入定)하는 과정에서 두 층위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의미로서, 첫째 서사에서 보여준 속가의 효와 셋째 서사에서 보여준 출가 뒤의 선이다. 이때 효와 선은 출가를 기점으로 나뉘는 것일 뿐, 반드시 유교의 효와 불교의 선을 각각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어쨌든 진정은 속가에 있을 때는 효를 다했고, 출가해서는 입정에 이를 정도로 선을 다했다. 이렇게 속가의 효와 출가의 선을 처지에 맞게 잘 해냈다는 것이 효선쌍미의 첫 번째 의미다.

출가한 뒤에 진정은 속가에 있을 때와 다른 길을 갔다. 그러나 출가는 그의 어머니가 바라던 바였으므로 출가 뒤의 선은 곧 효이기도 했다. 진정은 속가에 있을 때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선업을 닦아 입정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 입정은 선의 과보이면서 효의 완성이다. 이렇게 효이면서 선이고 선이면서 효인 효선을 한꺼번에 훌륭하게 실천했다는 것이 효선쌍미의 두 번째 의미다.

서사의 표면에 진정의 효선이 드러나 있다면, 그 이면에는 어머니의 선이 있다. 서사는 초반에 어머니의 무주상보시를 보여주더니, 중반에는 무집착과 빼어난 지혜를 보여주었다. 어머니 스스로 세간의 선, 재가자의 선을 뛰어나게 실천했으며, 그 과보로 하늘에 태어났다. 타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력으로 생천한 것이다. 이리하여 어머니의 선은 아들의 효와 나란히 일컬어질 수 있었으니, 이것이 효선쌍미의 세 번째 의미다.

효선쌍미의 세 가지 의미에서 <진정사효선쌍미>의 숨은 논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 논리는 이러하다. 첫째, 속가의 효와 출가의 선은 대등하다. 둘째,

출가자에게 선은 곧 효이며 효는 곧 선이다. 셋째, 재가자의 선과 출가자의 선은 대등하다. 넷째, 효는 부모와 자식의 쌍방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이러한 논리가 「효선」편의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일부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 『金剛經』, 고려대장경 05-0979
 『大智度論』, 고려대장경 14-0493
 『頓悟入道要門論』, 근속장경, X63-1223
 『禪法要解』, 고려대장경 30-0284
 『新編 緇門警訓』, 해인사출판부, 1990
 『雜阿含經』, 대정신수대장경 02-0099
 『正法念處經』, 고려대장경 20-0001
 장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IV』, 이회문화사, 2003.
 김두진,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효선쌍미’ 신앙」, 『한국학논총』 15, 1993, 1~26면.
 김복순, 「『삼국유사』 ‘진정사 효선쌍미’조와 일연과 김부식의 효 인식」, 『신라문화제학
 술발표회논문집』 30, 2009, 37~60면.
 김영하, 「신라 중대의 유학수용과 지배윤리」, 『한국고대사연구』 40, 2005, 137~179면.
 김호성, 「효, 출가, 그리고 재가의 딜레마」, 『불교학연구』 30호, 2011, 499~535면.
 신선휘, 「『삼국유사』 효선편의 내용과 특징」, 『역사학연구』 88집, 2022, 105~136면.
 신태수, 「『삼국유사』 <효선> 편 의 효윤리와 이념 지향」, 『한민족어문학』 68집, 2014,
 185-212면.
 엄선용, 「『삼국유사』 「효선」 편 분석 연구」, 『한자한문교육 21집』, 2008, 449~481면.
 원영상, 「불교의 효사상에 관한 고찰」, 『한국선학』 23호, 2009, 553~590면.
 이강엽, 「『삼국유사』 「효선」 편 의 어머니상을 통해서 본 효의 의미」, 『우리말글』 63,
 2014, 225~254면.
 이기백, 「신라 불교에서의 효관념 - 『삼국유사』 효선편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2집,
 1983, 29~40면.
 이대형, 「『삼국유사』에 나타난 모성의 형상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2007,
 81~111면.
 정친구, 「『三國遺事』와 『沙石集』의 효에 대한 인식 비교」, 『영남학』 14호, 2008, 349
 ~380면.
 최정선,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 10호,
 2005, 1~16면.
 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 Abstract |

The Analysis of Narrative and Reinterpretation of Filial Piety and Good Deed in “Jinjeongsa Hyoseon Ssangmi”

Jung, Chunkoo

<Jinjeongsa Hyoseon Ssangmi(眞定師孝善雙美)> is included in the “Hyoseon (孝善, filial piety and good deed)” section of *Samguk Yusa*(三國遺事), and the title also suggests ‘Hyoseon Ssangmi(孝善雙美)’. This means that <Jinjeongsa Hyoseon Ssangmi> serves as a clue to understanding the character of the entire Hyoseon section. In this article, by analyzing the actions of the characters in the narrative context, it is revealed that filial piety and good deed have multiple meanings, and that the meaning of filial piety and good deed change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lial piety and good deed.

The narrative switches twice depending on changes in the person’s mind or behavior, so it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agraphs. The first narrative shows Jinjeong’s filial piety through his mother’s almsgiving. In the second narrative, there is an argument between Jinjeong who wants to delay becoming a monk and his mother who urges him to become a monk immediately and hear Buddha dharma. In the third narrative, Jinjeong’s entrance into samadhi after becoming a monk, Uisang and his disciples’ lecture on the *Avatamsaka Sutra*, and his mother’s rebirth in heaven are sequentially described.

Jinjeong’s filial piety and good deed are well revealed in the first and third narratives. In the first narrative, Jinjeong fulfilled his filial piety by observing his mother’s will, and in the third narrative, he became a monk and reached the state of entering samadhi. This is the first meaning of ‘Hyoseon Ssangmi’: practicing filial piety before becoming a monk and practicing good deeds after becoming a monk. And the act of becoming a monk and practicing Buddhism is both good

deed and filial piety. Reaching the state of enlightenment called entering samadhi is the result of good deed and the completion of filial piety. This is the second meaning of 'Hyoseon Ssangmi'.

Jinjeong's mother is a woman who practiced good deeds long before her son's practice. In the first narrative, she showed that she gave alms without even thinking about giving, and in the second narrative, she showed that not only was she equipped with wisdom, but she also broke her attachment to her son. Furthermore, in the third narrative, the fact that Uisang and his disciples gave lectures on the *Avatamsaka Sutra* for 90 days shows that the mother had reached a certain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Avatamsaka doctrine. Since the mother's self-discipline is emphasized behind the narrativ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her rebirth in heaven as a result of her own good deeds. Thus, the third meaning of Hyoseon Ssangmi is that Jinjeong's filial piety and his mother's good deeds shine beautifully together.

Key Words: filial piety, good deed, hearing Buddha dharma, achieving enlightenment, entering samadhi, being reborn in heaven

〈부여노정기〉에 나타난 연안 이씨의 다층적 공간 인식과 여행 인식

김동연*

목 차

1. 머리말
2. 다층적 공간 인식에 따른 여행
인식의 변화
3.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부여노정기>의 작가 연안 이씨가 작품 내의 공간들을 다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여정을 다양하게 인식하였음을 구명함으로써 작가의식의 실체에 근접하고자 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연안 이씨는 아들의 지방관 부임 당시 내행으로 동반했다. 공적인 목적에 따라 이동하게 된 것이다. 지방관 부임 행차는 정해진 여로가 있었기에 일정이 촉박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연안 이씨는 두 번에 걸쳐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한다. 그리고 그 일정은 모두 결혼으로 인해 단절된 자신의 옛 유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공적 여행과 사적 여행에 관한 서술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안 이씨의 공간 인식이 다층적이었기에 여행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즉, 과거 여성들의 공간 인식은 사대부 남성들과 달리 특정한 관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단일한 방식에 의해 구조화되지 않았다.

규방이라는 공간은 여성의 주된 생활 공간이기에 각종 사회적 제약과 구속이 가해지는 곳이다. 동시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공간이

* 경북대학교 강사

기도 하다. 그래서 규방은 양가성을 가진다. 자신의 생활 공간이 지닌 양가성을 인식한 여성들이 다른 공간을 다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울러 당대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유교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수행자가 갖는 문화패권의 실현태로서의 규방’이라는 공간적 의미도 함께 살펴 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자신을 구속하는 공간과 이데올로기가 자신에게 사회적 지위와 문화패권을 가져다주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는 작가의 인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주제어 : <부여노정기>, 내방가사, 여성기행가사, 여행, 장소성, 문화패권, 문화권력, 규방가사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부여노정기>에 나타난 연안 이씨의 다층적 여행 인식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성리학적 질서가 공고해져 가던 19세기 사족 층 여성의 자기존재 및 세계에 대한 인식과 층위를 구명하는 것에 있다.

<부여노정기>는 1970년대에 작품이 개괄¹⁾된 이후, 19세기에 지어진 ‘여성’의 ‘기행가사’라는 점에서 젠더적 인식²⁾과 여행의 성격³⁾을 주목받아왔다. 특히 젠더적 인식에 주목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전하는 20세기 이전 여성기행가사 작품의 수가 많지 않으며, <부여노정기>가

1) 권영철, 「<扶餘路程記> 研究」, 『국문학연구』 4, 효성여대, 1973.

2)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김수경, 「<부여노정기> - 최초의 기행소재 규방가사」,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_____, 「“여행”에 대한 여성적 글쓰기 방식의 탐색: 여성 기행가사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권정은, 「여성기행가사의 관유(觀遊) 체험: <부여노정기>와 <금형일기>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권오윤, 「19세기 여성기행가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3) 백순철, 「조선후기 여성기행가사의 여행 형태와 현실인식」, 『고전과 해석』 5,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8.

여성기행가사로서는 초기작이기 때문이었다. 젠더적 인식에 주목한 많은 연구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인식과 창작 방식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졌다. 다만, 젠더적 인식에 주목한 연구들은 백순철(200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행의 형태나 여정의 성격, 현실인식 등의 문제는 종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감”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백순철은 그의 연구에서 여행의 목적과 성격, 노정(路程)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여성문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부여노정기>와 <금행일기>, <이부인기행가사> 등을 묶어서 살펴보았다. 이는 19세기 여성기행가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각 작품의 개별적 특성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전될 여지가 있다. <금행일기>의 경우에는 다른 두 작품에 비해 개별 연구가 많이 진행된 편이나, 본고에서 주목한 <부여노정기>는 나머지 두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그 이유를 선행 연구의 성과를 종합하면 <부여노정기>가 그 제목과는 별개로 기행가사임에도 여정에 대한 서술이 두드러지지 않고 가문의식에 기반한 서술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부여노정기>의 서술 양상을 연안 이씨의 자기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본다. 가문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자기인식이 아니라 성공한 어머니로서의 자기 존재를 피력하였다는 뜻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작품의 내용과 전체적 구조를 분석하면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여행지뿐만 아니라 출발지인 하회 또한 나름의 공간 인식이 투영되는 장소로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작품의 처음과 끝에 가문의식이 투영된 서술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회는 자신이 시집과 생활하던 시택이 존재하는 공간이고, 부여는 아들이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가문의 이름을 드높인 공간이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은 유사한 구조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점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를 정치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백순철, 2008, 103면.

<부여노정기>에 등장하는 주요 장소들은 연안 이씨의 생활 공간이거나 여정 가운데 방문한 지점들이다. 그런데 이 공간들을 바라보는 연안 이씨의 인식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애 전반기의 고생이 이루어진 공간은 지역 내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존재하는 공간이며, 단절되었던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된 경로는 아들이 지방관으로 부임하기 위한 공적 목적에 따라 정해진 여로(旅路)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지점에 대한 공간 인식에 충위를 마련하고 그로 인해 여행 인식이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19세기는 물론 조선 시대 내내 유교 이데올로기는 헤게모니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 특히 『소학』을 유교 사회 건설의 기치로 삼음으로써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 존재이자 가문의 영위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되어갔다. 태임과 태사로 대표되는 여성 성인의 존재는 남성의 시각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여성이 규정지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억압받는 계층이 해당 시스템에 복종하거나 긍정함으로써 헤게모니에 반하는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말해준다. 또 나아가 자신을 제약하는 요소에 순응함으로써 문화패권의 권위를 지향했다는 사실도 의미한다.⁵⁾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에서 이러한 인식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여노정기>에 담긴 연안 이씨의 인식 충위와 그에 따른 문학적 특징을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장소성에 양가성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공간 인식에 다층성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내방가사에 나타나는 장소성과 작가의 공간 인식을 이해할 때 사대부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도학(道學)적 세계인식을 바탕으로 집경(集景)된 공간에 부여된 장소성은 공간 의미를 형성한 가치체계의 전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불변하기 마련이다. 즉 사대부의 공간 인식과 장소성은 관념적 이상향을 현실에 투영

5) 이러한 내용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통해서도 명징하게 설명되지만, 그러한 이론적 구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조선 시대 열녀의 형성 또는 소혜왕후의 『내훈』 답론의 수용 양상 등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되는 사실이다. 아울러 내방가사에서도 수많은 계녀가에 성리학적 규범과 여성의 도리를 여성의 목소리로 구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이다.

한 것이기에 주체의 인식이 명확하다. 반면, 동시대 여성의 공간 인식과 장소성은 이러한 구조로 이해할 수 없다. 기혼 여성에게 가정은 온갖 규범으로 점철되어있는 공간이자, 자기희생이 요구되는 곳이었으며, 수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노동의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결혼 이전에 형성했던 인간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가족과의 유대가 형성된 곳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의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공간이며, 부부의 애정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특히 규방은 여성이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준수하고,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경우, 그 공로를 가문과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받아 문화패권에 의해 일정한 지위와 명예가 획득되는 곳이기도 했다. 즉, 공간을 인식할 때 매개되는 표지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므로 남성과 여성의 공간 인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볼 수가 없다. 따라서 <부여노정기>에 투영된 연안 이씨의 인식과 여정에 나타난 공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공간 인식이 다층적이라는 점과 그 인식에 유교 이데올로기에 의한 문화패권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여노정기>에 서술된 여정에 대한 장면 묘사와 감정 표현을 바탕으로 연안 이씨가 여행하면서 인식했던 층위와 그 의미의 총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인식은 유교 이데올로기로 인해 규방에 매여 있던 여성으로서의 인식과 그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자식 건사를 잘 해낸 여성으로서의 인식을 포괄한다. 그리고 그 의미는 만년에 가문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진 여성의 사회적 자아가 어떠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아를 획득한 주체의 자기인식 양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것이다.

2. 다층적 공간 인식에 따른 여행 인식의 변화

주체가 인식하는 대상에 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함의하는 다양한 의미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주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된다. 연안 이씨의 생애를 <부여노정기>를 이해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

팔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안 이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은 이제 막 종가에서 분가하여 가세가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문을 부흥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아 고군분투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여성에 대한 억압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살아간 여성이 자기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결국 실존의 영역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조선 후기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피투된 현사실의 실패는 『소학』을 기치로 하여 성역할의 구분이 차별로 이어지고, 나아가 남성 중심의 시각과 질서 속에서 여성을 도구화하던 곳이었다. 연안 이씨가 결혼 직후 마주하게 된 세계는 그러했다. 하지만 연안 이씨는 낯설고 엄혹한 환경에 내던져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비록 시집살이를 자신을 힘들게 하였던 일대 사건이라고 인식하기는 했지만, 품부 받은 역할과 의무를 당연시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며느리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자녀 교육에 공을 들인 결과 아들과 조카가 동시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후 아들은 초계문신이 되어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로써 연안 이씨는 여성을 억압했던 조선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성공한 여성의 표상으로 당당히 자리하게 되는 모순적 존재가 된다.

이처럼 시대 그리고 하회라는 공간은 연안 이씨의 삶을 힘겹게 만든 곳인 동시에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당대 성공한 여성의 표상으로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비록 그 성공 여부에는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은 비단 연안 이씨만의 생애적 특성이 아니다. 연안 이씨를 위시한 조선 시대의 여성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에 적극적 항거자를 자처하며 부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았다. 비록 친영제(親迎制)가 정착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18세기 이후 남귀여가혼의 풍습이 거의 사라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낯선 공간에 내던져진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부녀자의 도리를 익히고 며느리, 부인, 엄마로서의 존재지위를 공인받아온 과거 여성들은 시댁 가문과 긍정적 상호관계를 가져가고자 했다. 이처럼 부정적 현실과 마주하게 된 순간부터 그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던 모순적 상황이 규방이라는 공간을 여성들이 다층적으로 인식하게 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연안 이씨의 경우 친정아버지 그리고 시아버지와 주고받은 인간이 66건이 있으며, 특히 넷째 며느리임에도 시아버지가 경직(京職)을 맡았을 당시 1년 동안 29건의 인간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하게 소통하였다. 그리고 이때 시아버지는 연안 이씨에게 업무의 어려움과 객회를 토로하였는데, 이는 연안 이씨가 고단한 관직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이자 심리적 의지처가 되기도 했음을 의미한다.⁶⁾ 그 외에도 친정아버지와 주고받은 인간들을 볼 때 연안 이씨는 양가의 애정 속에서 결혼 생활을 보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안 이씨가 조선 사회의 유교 이데올로기에 의한 남녀차별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사회 구조적 억압 속에서 종적으로 매개되는 인간관계가 애정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이 공간을 다층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다. 시택과 규방이라는 공간을 인식할 때 매개되는 대상에 따라 사뭇 다른 인식을 보일 계기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장소라는 것은 주체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는 공간에 대한 특수한 이해에 기반한 개념이다. 인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데올로기의 영향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인식주체가 자신의 공간을 인식하는 양상은 당대의 여성에 대한 규범적 이해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동일 공간을 인식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는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규방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여성의 공간 인식이 다층적인 다른 이유는 규방이라는 개념이 정의되는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여성의 생활 공간은 성별에 따라, 그리고 물리적인 담장에 따라 대체로 안채 부근으로 규정된다. 이때 안과 밖이라는 개념은 경계를 기반으로 인식되는 공간적 개념이지만 인식주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다. 조선 후기 여성의 삶과 내방가사에서 안이라는 장소는 결국 바깥을 점유한 집단이 상대적으로 인식한 관념의 공간이다. 그리고 안으로 규

6) 정경재, 「<풍산 류씨 류사춘가 연간>의 기초적 고찰 - 류운 연간과 이지역 연간을 중심으로 -」, 『구결연구』 52, 구결학회, 2024, 177~183면 참조.

정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식 주체에게 안이라는 공간은 자신에게 개방되지 않은 미지의 공간에 상대되는 관념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현실적 제약의 범위로 한정된 지대(地帶)로 존재한다. 그래서 규방은 일견 폐쇄적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여성과 접촉 대상의 관계에 따라 개방과 폐쇄가 가변적이다. 공간의 성격이 관계 중심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 시대 여성들은 자신의 공간을 다층적으로 인식하여 가변적인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에 익숙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 인식과 <부여노정기>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안 이씨가 공간을 인식하는 양태에 따라 여행 인식이 결정되고, 그것이 서술상의 특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연안 이씨 일행의 행차가 마련되는 과정과 출발 직전의 상황은 실제 여정의 시간적 범위를 놓고 볼 때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상의 특징은 가문의식의 발현⁷⁾ 또는 여성적 글쓰기의 결과⁸⁾ 등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는 내방가사에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이 여성기행가사에도 나타남을 말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지적이다. 실제 <부여노정기>는 연안 이씨가 안채에서 류이좌가 부여 현령에 제수되었음을 알리는 전교(傳敎)를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느려지게 나는고야 갑인연 방소린듯
 을모년 감시린듯 홍문관 직중아해
 평서를 올리거늘 소수를 엇끗드려
 방함을 췌여보니 충청도 부강태수
 말망에 몽점흐니 어화 성은이야
 가지록 감축흐다 작년에 안악영감
 일문에 감우러니 오늘날 이희보는

7) 김수경, 2008, 72면.; 박경주, 「화전가와 여성기행가사의 놀이와 여행 체험에 나타난 여성 의식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2017, 134~147면 참조.

8) 김수경은 가족 중심의 서술, 문학적 표현에 대한 욕구, 정감과 체험의 솔직한 표현을 여성기행가사 글쓰기의 특징이라 보았다.(김수경, 2008, 54~71면 참조); 백순철은 여성기행가사 작가들의 여행 체험 서술이나 재현에서 자기현시적 의미가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백순철, 2008, 109면)

괴더욱 망외로다 수왈 소읍이나
네게는 고향이라 착홀사 우리주자
일마다 괴특하다 정공둥 어대내며

연안 이씨는 전교를 듣던 자신의 상황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류이좌가 부여 현감에 제수된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의 과거 급제부터 연이은 승진 과정을 모두 담아낸다. 물론 이는 이 여정의 성격을 밝히고, 가문의식의 발현과 관련된다. 다만 아들의 과거 급제와 영전을 소상하게 열거하는 것은 그러한 아들을 길러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다. 즉 당대 여성의 최고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아들의 생산과 그 아들의 입신양명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내방가사 향유 집단에게 통용되는 문화패권의 일면을 과시한 것이다. 이것이 자기현시적인 서술이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남성적 서술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절은 삼월이라 친척은 만당흐며
시우난 낙낙흐여 이화도 향기롭다
풍백을 의논흐며 성은이 중첩흐여
이역을 피홀소냐 청하 초길일에
영양으로 발행흐니 친척이 히열흐다
고봉이 하례흐니 범갓흔 허다하죵
조수갓치 미러드려 보운총 조흔말게
쌍교를 놓히시러 청풍은 선배되고
명월을 후배삼아 추종이 십리로다
좌우에 권마성은 위풍이 볼만흐다
당시에 듯던소리 반갑기 그지업다

성은이 거듭되니 이 임무를 피하겠냐는 말은 류이좌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이다. 부여 현감이라는 임무를 제수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여노정기>에 나타난 연안 이씨의 어조를 살펴보면 아들의 부여 현감 임명을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 이를 아들의 일을 곧 자신의 일로 여기는 자정(慈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아들 생산과 자식 교육이라는 과업을 품부

받았던 조선 시대 여성의 삶에서 배태된 인식이다. 즉, <부여노정기>의 전반부에는 아들의 성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기쁜 마음과 가문의 번영에 흡족한 안주인의 마음이 표면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면에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수행자로서 뚜렷한 성취를 이루어 해계모니에 의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자기 존재를 현시하는 노년의 여성이 자리하고 있다.

여성 가사에 나타나는 가문의식에 대해 박애경은 ‘사족 여성의 정체성은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며, 사족 출신에게 가문이란 남녀 공히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인 동시에 배타적 우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배경이고, 남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펴고 실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여성에게 가문이란 공사의 영역을 망라하는 장이었기에 스스로를 철저히 가문의 일원으로 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마련⁹⁾’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회에서 이루어진 여행의 출발은 연안 이씨가 유교 사회에서 획득한 문화패권과 그에 따른 사회적 위상이 공표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아들의 부임 행차의 규모가 성대한 만큼 연안 이씨의 자긍심은 고취되었다. 영남 출신 과거 급제자가 많지 않았던 시기 임금의 총애를 받아 승진을 거듭하는 아들의 공적 행렬에서 대우받는 자신의 모습은 꿈에 그리던 모습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자기현시적인 서술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부여노정기>의 전반부에 길게 서술된 행렬에 관한 묘사는 단순히 가문의식의 발현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문화패권에 동조한 자기 존재의 위상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여노정기>에 나타난 연안 이씨의 여행 인식의 일부다.

<부여노정기>에 나타난 연안 이씨의 여행 인식은 단선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여정에 대한 서술이 소략하고 그 방식 또한 단순 열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는 내방가사와 그 창작 주체에 대한 전제가 남성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이자 문학적 소양을 쌓지 못한 존재로 상정되는 탓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방가사 속 여행에 대한 기록이 사대부 남성의 여행 기록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을 여성의 한계로 이해하는 것은 남성 문학관과 공간 인식을 평

9) 박애경, 「장편가사 <이정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2003. 435면.

가의 잣대로 삼은 결과다. 조선 시대 남녀의 삶이 달랐던 만큼 성별에 따른 문학적 특징을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인식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연안 이씨의 경우 문학적 소양이 부족하지 않았다.

연안 이씨는 당대 사대부 남성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학식을 지니고 있었다. 어린 자식을 키울 때 경전의 내용과 시문을 직접 낭송하여 가르치고, 위인들의 명언과 선행담을 아이들이 잘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류이좌가 과거에 급제하여 직을 제수받을 때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경계의 말을 직접 전하며 청렴하고, 삼가고, 온후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궁핍한 이를 구휼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 류이좌와 함께 시국을 논하기도 했다.¹⁰⁾ 앞서 살펴본 연간의 내용에서도 시아버지 류운이 며느리와 관직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쌍벽가>에서 연안 이씨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한 구절을 통해 친정에서 받은 교육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팔분쓰던 고운손의 칙봉칙미 흥려니와
녹십사괘 노외시며 방한간이 아롱곳가

연안 이씨는 <쌍벽가>에서 시집오기 전 분 바르던 고운 손으로는 나물을 뜯고, 『주역』을 익혀 64괘를 외다가 단칸방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으며 받아들였다고 신혼 시절을 회고한다. 여기서 『주역』 64괘를 외었다고 한 것과 <쌍벽가>에 나타난 다양한 전고들을 종합해볼 때 연안 이씨는 실제로 학식이 풍부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¹⁾ 그렇다면 한문학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연안 이씨가 사대부 남성의 기행가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여행을 서술한 것은 문학적 소양 외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장정수는 기행가사에 나타나는 작가의 인식에 대해 “기행 경험을 창작의 동인으로 삼고 있는 기행가사는, 작가가 발견한 새로운 세상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¹²⁾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연안 이씨가 여행에서 새롭

10) 김수현, 「연안 이씨의 삶과 <쌍벽가>」, 『한국고전연구』 32, 2016, 206~209면.

11) 김수현, 2016, 205~207면.

12) 장정수, 「金剛山 紀行歌辭의 展開 樣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면.

게 경험하는 대상은 무엇이며 그 경험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들의 부임 행차라는 공적인 목적에 의해 경로가 조직되었기에 연안 이씨 일행의 노정은 당시의 도로망에 기반하여 여행하기 좋은 경로로 구성되었다. 다만 어디까지나 공적인 목적에 기반하였기에 여행 일정에 여유가 없었다.¹³⁾ 그럼에도 <부여노정기>에는 연안 이씨가 두 차례 개인적으로 일정을 소화하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연안 이씨에게 그 두 차례의 개인 일정이 이번을 기회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예천싸 오천내를 발아래 구버보니
용궁읍을 얼른지내 우두원 숙소하고
삼산을 잠깐드러 옛벗님 차자보고

위의 인용문은 연안 이씨의 개인 일정 중 첫 번째 것이다. 친구의 시택이 연안 이씨의 시택과 하루 거리에 있었음에도 둘은 오랜만에 만났다.¹⁴⁾ 주지하 다시피 <부여노정기>는 류이좌의 지방관 부임을 위한 행차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이유들로 인해 출발 이전의 서술이 확대되어 있다. 하지만 사적 여행에 나타난 연안 이씨의 인식과 서술은 가문의식이나 자기현시성과 무관하다. 그렇다고 공적 여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여정이 나타나는 내방가사에서 작가가 중시하는 두 가지 요소는 바깥출입과 동류와의 만남이다. 이 두 가지는 여성으로 태어남에 따라 수반되는 삶의 고통을 절감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그리고 남녀를 차별하는 인식이 구체화 되는 지점이다. 기실 이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13) 백순철, 2008, 111~114면 참조

14) 부여노정기의 출전은 ①『규방가사 I: 가사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②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 11권 572면, 아세아문화사, 1998.', ③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이 있다. ①과 ②에는 삼산에서 친구를 만나는 서술이 나타나는데 ③은 해당 내용이 없다. 그런데 ③에서는 우두원에 숙소를 정한 뒤 바로 "수향(殊鄉)을 (乘船) 흘 제 어옹(漁翁)이 즐기느 듯"이라고 되어 있어 의미가 불분명하고 앞 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일부 구절이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①과 ②의 내용을 따른다.

바깥출입을 제한받는 것이다. 그로 인해 여자유행(女子有行)에 따라 유대가 단절되어 운수지회(雲樹之懷)를 품게 된다. 그래서 내방가사에서는 대체로 규문 바깥을 나서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여정의 시작은 대개 만남과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는 동시대에 지어진 <이부인기행가사>와 <금행일기>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비록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20세기에 지어진 내방가사 중 유람가와 화전가 등에서도 ‘놀이’의 장이 자신의 거소(居所) 바깥에 형성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정이 형성되고 이 과정 전체를 유람으로 인식¹⁵⁾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규중가도의 지속 및 강화 양상을 고려하면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여성이 바깥출입을 대하는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노정가>에서 연안 이씨는 출발부터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의 여정을 여행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분명 여타의 내방가사 작가들이 자신이 실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도 바깥출입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여행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른 지점이다.

연안 이씨의 사적 여행은 흔히 않은 바깥세상 구경을 기회로 규중에 머무르며 말로만 들어왔던 사적이나 경관을 탐승(探勝)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두 결혼으로 단절된 유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연안 이씨의 말대로 ‘압길이 탄탄하니’ 여유가 없는 공식 일정이었음에도 친구, 동생과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연안 이씨가 바깥출입보다 친지와와의 만남에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송은 울울하고 록죽은 의의흔디
차정에 채운이요 마제에 향풍이라
쥬렴을 잠간들고 원근을 첨망하니
사십년 막헌홍금 이제야 티이거다

연안 이씨는 친구와 헤어진 이후부터 주변 경관에 대한 감흥을 드러낸다. 물론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관에 대한 서술은 소략하고 여행

15) 김동연 「<산슈가>의 작가 고증 및 전승 양상과 문학적 특징」, 『어문학』 158, 2022, 275~276면.

자의 흥취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짧게나마 정경묘사와 자신의 감상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서술 양상의 변화로 이해한다면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연안 이씨는 종가에서 막 분가하여 가세가 충분치 않은 가문을 건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동생을 삼십 년 만에 만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행(遠行)의 기회를 자주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류이좌는 친정인 한양에서 낳았¹⁶⁾지만 당대 대부분 여성이 그러했듯 하회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일신의 자유를 누릴 기회가 딱히 없었던 듯하다.¹⁷⁾ 학식을 갖추어 시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정치를 논할 수 있었던 연안 이씨라도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에게 부여되는 부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십 년 동안 막힌 흥금을 털어내게 된 계기를 규문 바깥출입에서 찾는 것은 자연스럽다.¹⁸⁾ 이는 내방가사 일반의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어지는 작품의 전개 양상을 토대로 짐작하건대 연안 이씨의 경우에는 바깥출입보다 다른 것에 더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연안 이씨가 행차의 면면을 묘사한 이후 달리 여정을 서술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여정이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사십 년 동안 막혀 있던 흥금이 해소된 이후야 정경묘사와 개인적 감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안 이씨가 흥금을 해소한 것은 개인 일정을 통해 옛 벗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십 년의 흥회(胸懷)는 단절된 자신의 옛 인간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것은 곧 여성의 사회적 자아를 부계 중심으로 고착시킨 유교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누구의 부인,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존재로서는 기존 유대

16) 김수경, 2002, 100면.

17) 연안 이씨의 친정아버지인 이지역이 보낸 언간을 보면 류이좌의 안부를 묻고, 새로이 출생한 외손자들의 이름을 지어 보낸 내용 등이 있다. 이 언간들을 통해 하회에 들어간 이후 근친의 기회를 상당 기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정경재, 2024, 200~204면 참조.)

18)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한기는 이 구절을 “여성의 현실에서 벗어난다는 내면의 발산으로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중략… 독백변모형은 여성 현실의 벗어남이라는 발산의 정감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정한기, 『기행가사의 진술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80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후 시대와의 관계가 마련됨에 따라 이 부분이 일부 보완될 수는 있겠으나 전적으로 대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시대에서의 인간관계는 친정에서의 수평적 관계와는 달리 수직적 질서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쌓여온 흥금은 유교 사회에서 인정하는 성공한 여성이 되는 것으로는 해소될 수 없었다. 그 해계모니 또한 자신을 구속한 수직적 질서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안 이씨의 흥금은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 일시에 해소될 수 있었다.

아들의 과거 급제와 출세가도, 가문의 번영, 사회적 인정은 분명 연안 이씨의 존재지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게 인식되어진 자신은 실존적 자아로서의 정체감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적 이동은 바깥출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행이 될 수 없었다. 여행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단절된 사적 유대의 회복이 필수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연안 이씨의 공간 인식이 다층적이었던 이유도 확인 가능하다. 연안 이씨가 성공한 여성의 표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유대 관계를 단절시키고 각종 제약과 억압이 가해진 공간과 체제 속에서이다. 그래서 규방은 억압의 공간인 동시에 성공의 공간이었다. 그 결과 연안 이씨는 다른 내방가사의 작가들과 달리 일시적 일탈 행위를 통해 자기존재를 확인하거나 흥금을 털어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회에서 부여로의 이동이 자신을 억압하는 유교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여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낸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여노정기>에 여정 중의 경관 묘사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을 여성적 글쓰기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 연안 이씨의 여행 인식이 19세기 여성의 삶에 자리한 모순에서 비롯된 다층적 공간 인식에 기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막혀 있던 흥금이 트인 이후로는 여정에 관한 서술이 등장한다. 상주, 보은, 옥천으로 이어지는 지점들을 소략하게나마 언급된다. 그러한 이동길은 부여로 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삼십 년 만에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도 했다.

옥천을 다시보니 반석이 더욱조혜
 삼십년 썩난동생 옥성과 만나보니
 도로예 고초호여 청수호 그얼굴이
 반백이 다되엿네 손잡고 체루하니
 회포도 엄억하다 압길이 탄탄하니
 옛말삼 다홍손가 창연지심 그지없다

동생과의 만남 이전까지 연안 이씨는 자신의 심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아들과 가문에 대한 자부심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생을 만나는 대목에서는 세월의 무상함, 단절되었던 시간에 대한 회한, 동기간의 정,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비록 서술의 분량이 길지는 않지만, 압축적으로 연안 이씨가 품은 회한의 정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생을 만난 연안 이씨는 성공한 여성으로 자리매김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아들의 출세를 뿌듯해하지 않는다. 분명 언니의 성공에 대한 동생의 치사가 있었을 것이나 그런 내용은 전혀 서술되지 않았다. 삼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서로 마주한 자매는 초로에 접어든 상대의 모습에 먹먹할 따름이다. 여기에는 조선 사회가 요구하는 덕목을 훌륭하게 수행한 성공한 표상으로서의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다른 가문에 시집감으로써 친동생조차 삼십 년 동안이나 만날 수 없었을 정도로 구속된 삶을 감내해야 했던 노인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두 차례의 사적 여행은 모두 연안 이씨를 성공한 여성으로 위치시킨 유교 이데올로기에 의해 단절된 유대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이었다. 그래서 연안 이씨는 친구를 만난 이후 자신의 여정을 사적 여행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서두에서 류이좌가 현령에 제수되는 과정과 그 행차의 위엄을 길게 서술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후의 여정에서는 부여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들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연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상의 특징은 단순히 가문의식이나 여성적 글쓰기의 한계가 아니라 당시 여성의 모순적 삶에 의한 당연한 결과임을 말해준다. 태암·태사의 본을 받아 자식을 훌륭하게 건사한 성공한 어머니라는 자신의 존재지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안 이씨의 여정에 대한 인식은 공적 임무를 위한 길에서 유대 회복의 길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삼십 년이라는 긴 세월 만에 동생과 회포를 풀 이후에는 여행길로 다시 인식이 바뀐다. 이후 부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문화관광의 특징 일부가 포착되기도 한다. 백순철은 명승지를 여행하는 연안 이씨의 태도를 ‘기왕의 평가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빠뜨리지 않고 방문했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여정의 구성과 경물의 선택이 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동의 편의성과 접근성, 그리고 대중성에 의해 결정된 결과¹⁹⁾라고 하였다. 지적한 바와 같이 연안 이씨의 여행 인식은 경물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 따라 장소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당대 여행문화의 일반적 양상과는 이질적인 관광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고란사 청풍전은 본다시 알거니와
조령재 청풍경을 안자서 보리로다
노성현 은진미륵 이제야 친히보고
선경을 얼핏보아 부아로 도라드니

19세기의 기행문화는 이미 관광의 성격이 농후했다. 금강산 기행가사가 활발하게 창작되고, 옛 선현의 도학적 공간은 명승지가 되어 답사의 공간에서 유람의 공간으로 변화해나갔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에 이르러 관광산업이 형성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렇다면 단지 문학창작의 관습이나 표현 양식에서 선현과 자신을 매개함으로써 장소성을 공유하는 것 만이 형이상학적인 기행 방식이고 문화적 소양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대부 남성으로 태어난 이상 유학자로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이었고, 그러한 삶 속에서 명유(名儒)의 문화공간에서 도학적 아취(雅趣)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여성은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지 못한 채, 규방 안에 머물며 여공과 여사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은 존재였다. 따라서 여성에게 사대부 남성과 동일한 공간인식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

19) 백순철, 2008, 114면.

히려 도학이라는 학문적·사상적 배경과 무관하게 유명한 장소를 마주했을 때 정해진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그 공간을 여행자의 감성에 따라 인식하였다는 점에서는 현대적 관점에서 여행 인식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집경된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맥락은 남성의 맥락일 뿐이다. 여성에게는 그 공간이 가문과 관련된 것이라면 가문의 공간이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름난 공간이면 명승지일 따름이다. 그렇기에 특정 공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여행 인식을 표출할 때 가문의식이나 관광으로써의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식의 양상이다. 공간을 형상화할 관념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문학적 관습에 준거한 특정 양식을 구사하기를 바란다면 당대 여성의 의식 수준과 그 문학적 성취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이어질 수 없다.

부여에 도착해서 나타나는 명승지 탐방과 관아에 들어간 이후의 서술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공통되게 지적한 것이 부여 관아에 들어간 이후 여정과 상관없는 가족에 관한 서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편의 회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견 서사적 진행의 맥락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류이좌의 출세가 가문의 번영과 관련된 것이며 그것은 연안 이씨 자신의 존재지위를 고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 속에서 나타난 서술이다.

류이좌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여 현령이라는 공적 임무를 위한 이동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그 목적이 완수됨에 따라 이후의 서사가 등장할 여지가 없다. 즉, 여정의 공적 목적을 기준으로 <부여노정기>를 바라보면 유학대감의 회갑은 여행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지만 연안 이씨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여에 도착한 것은 종착지가 아니다. 아들의 출세가 이어지는 중간 지점이었으며 그로 인한 가문 번영의 시발점이었다. 즉 부여 관아는 아들의 공무 수행 장소이기도 하였지만 사대부가 부녀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나가야 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남편의 회갑과 가문의식을 발현하는 서술이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인급창 포복일다 원정월 조흔날에
사향지심 더흐더니 승정원 옥당소리

슈찬유지 올니나냐 어와 성은이야
가지가지 망극하다.

위는 <부여노정기>의 결말 부분이다. 음력 1월에 고향을 그리고 있는데 홍문관의 벼슬아치가 유지를 가져와 류이좌가 수찬에 제수되었으니 상경할 것을 알리는 것으로 작품이 끝난다. <부여노정기>가 시작될 때에 안채에서 교지를 듣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임금의 명을 받는 것으로 결말지어 수미상관의 기법을 보인다. 마침 한양이 그림더니 아들이 홍문관 수찬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여러모로 성은이 망극하다고 하였다. 아들의 환로(宦路)가 곧 친정으로 이어지니 더욱 기뻐 “가지가지 망극하다”고 한 것이 그러한 의미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여노정기>에는 연안 이씨의 공간 인식이 다층적임에 따라 여행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는 작품이다. 규방이 지닌 양가성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위상이 고취되었던 연안 이씨는 단순히 자신을 둘러싼 각종 제약과 억압에서 멀어짐으로써 실존의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가문과의 연결고리가 약화됨에 따라 현재 자신이 확보한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사회적 성취로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결손부 즉 지배 이데올로기 내에서의 사회적 성취가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 자신의 결손을 수복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절된 유대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한편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존재지위는 가문과 유교 이데올로기에 준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안 이씨는 <부여노정기>의 시작과 끝을 류이좌가 벼슬을 제수 받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가문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태암 태사와 같은 성공한 여성의 표상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상실했던 유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사적 여행에 대한 인식은 소략하게 나타났던 것이며, 아들의 공무 수행길은 목적이 아니라 계기였으며, 그 중심에는 자신의 존재가 기능하는 가문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3. 결론

<부여노정기>에 대한 기왕의 연구 성과는 젠더적 특성과 문학적 특징, 그리고 여행의 성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되어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집적 수준에 힘입어 절대적 양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19세기 여성기행가사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지고, 그 가운데 <부여노정기>와 연안 이씨에 대한 이해가 진일보할 수 있었다. 다만 이상의 논의들은 대체로 특징적 면모를 젠더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귀결시키거나, 시대적 배경 또는 여행의 기능적 차원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의미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십여 년 이상이 지난 지금 새로운 방법론들이 등장하고 또 시대 인식의 경향이 달라진 만큼 <부여노정기>와 연안 이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리하여 남성 중심의 측면에서 탈피하여 연안 이씨의 인식 층위를 이해하고, 그러한 인식의 양상에 따라 작품의 창작 방식 및 서술상의 특징이 매개되는 과정을 추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고에서는 여행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접함으로써 나타나는 인식의 양상이 비일상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되는 형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상 공간에 대한 주체의 인식 층위가 비일상의 공간을 대하는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경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서술의 확대가 곧 작가의식의 반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래서 비록 서술이 두드러지지 않는지라도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특징적인 면모를 주목하여 그에 내재한 작가의식의 실재를 밝히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관점을 통해 작품을 바라봄으로써 내방가사의 문학성을 연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여성이라고 해서 절대적 시간 속에서 유리되어 살아간 존재는 아니다. 인간 보편의 정서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는 수신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다. 과거, 사족충, 여성이라는 형질로 재단하기에 앞서 보편적 존재임에도 보편성을 인정받지 못한 존재라는 점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방가사 전반에 대한 적용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권영철, 「<扶餘路程記>研究」, 『국문학연구』 4, 효성여대, 1973.
- _____,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 권오윤, 「19세기 여성기행가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권정은, 「여성기행가사의 관유(觀遊) 체험 : <부여노정가>와 <금항일기>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 『규방가사 I : 가사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김동연, 「<산수가>의 작가 고증 및 전승 양상과 문학적 특징」, 『어문학』 158, 2022, 275~276면.
- 김수경, 「<부여노정가> : 최초의 기행소재 규방가사」,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100면.
- _____, 「“여행”에 대한 여성적 글쓰기 방식의 탐색 : 여성 기행가사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화회, 2008, 54~71면, 72면.
- 김수현, 「연안 이씨의 삶과 <쌍벽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2016, 206~209면.
-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박경주, 「화전가와 여성기행가사의 놀이와 여행 체험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2017, 134~147면.
- 박애경, 「장편가사 <이정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2003, 435면.
-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그린비, 2014.
- 백순철, 「조선후기 여성기행가사의 여행 형태와 현실인식」, 『고전과 해석』 5,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08, 103면, 109면.
-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 11권, 아세아문화사, 1998.
- 장정수, 「金剛山 紀行歌辭의 展開 樣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면.
- 정경재, 「<풍산 류씨 류사춘가 언간>의 기초적 고찰 : 류운 언간과 이지역 언간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52, 구결학회, 2024, 177~183면, 200~204면.
- 정한기, 「기행가사의 진술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80면.

| Abstract |

Multilayered Spatial Perception and Travel Perception of Yeonan Lee in <Buyeonojeonggi>

Kim, Dongyoun

This study aimed to approach the reality of the author's consciousness by asserting that Yeonan Lee, the author of <Buyeonojeonggi>, recognized the spaces within the work in a multilayered manner and accordingly perceived her journey in various ways.

As is known, Yeonan Lee accompanied her son when he was appointed as a local official. She moved for a public purpose. The itinerary for the appointment of a local official was tight because there was a predetermined route. Nevertheless, Yeonan Lee managed to handle personal schedules twice. And all those schedules were to recover her old ties that had been severed due to marriage.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scription of public travel and private travel. This difference seems to be due to the change in perception of travel because Yeonan Lee's spatial perception was multilayered. And this means that the spatial perception of women in the past was not structured in a single way according to certain concepts or ideologies, unlike patriarchal men.

The space called 'gyubang' is the main living space for women, so it is a place where various social restrictions and constraints are imposed. At the same time, it is also a space where one experiences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while living. So, 'gyubang' has a dual nature. It is not strange that women who recognize the dual nature of their living space perceive other spaces in a multilayered wa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ocio-cultural aspects of the time, we also looked at the spatial meaning of 'gyubang' as 'the realization of cultural hegemony possessed by the active performer of Confucian ideology'. This approach will allow us to correctly understand the author's perception, who is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where the space and ideology that constrain her bring her social status and cultural hegemony.

Key Words: <Buyeonojeonggi>, Naebanggasa, Women's Travel, Locality, Cultural Hegemony, Cultural Power

玉川 趙德鄰의 親族 관련 祭文에 나타난 애도방식과 의미

최은주*

목 차

1. 머리말	4. 상실의 승화를 통한 자기치유의 글쓰기
2. 『옥천집』 소재 제문의 현황	
3. 조덕린의 친족 관련 제문에 나타난 애도방식의 특징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옥천(玉川) 조덕린(趙德鄰)의 제문 가운데 친족을 대상으로 쓴 작품을 살펴 애도방식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제문은 흔히 망자를 칭송하고 애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용적 목적을 지닌 채 창작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이유로 관습적으로 창작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대상이 친족일 경우 슬픔의 감정을 더욱 진솔하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옥천집』에 실린 제문은 모두 20편이다. 조덕린이 그리워한 대상은 친족을 비롯하여 스승, 교유하던 인물 등 다양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가족이나 친족을 대상으로 지은 제문의 수가 전체 작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의 삶과 관계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규격화된 격식이나 상투적 표현에만 얽매어 작품이 창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출사 후 당쟁에서 비롯된 삶의 굴곡 속에서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많이 맞이하였는데, 이는 문집에 실린 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덕린의 제문은 단순히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거나 삶을 추모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망자와 함께했던 순간의 기억을 생생하게 재현해 내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거나 죽음에 대한 자책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애도를 표현한다. 망자가 실제로 작자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거나, 그가 죽음에 이르면서 남긴 말 등을 직접 제시하여 현장감을 살리고자 한 것이다. 또한 망자와의 관계를 부각하고 그가 죽음에 있어 스스로 후회스러웠던 점을 되뇌어 그의 삶과 죽음이 자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특징이 있다. 이는 그가 제문의 대상들과 단순한 교유 관계가 아니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삶과 죽음의 간극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상실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되새기며 슬픔을 치유하고자 한 것이다.

주제어 : 옥천 조덕린, 제문, 친족, 애도

1. 머리말

제문(祭文)은 신에게 공물을 올리고 소원을 비는 짧은 형식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구체적이고 수사가 가미된 축사로 발전하였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데까지 영역이 확장되면서 후대에는 주로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양식으로 자리 잡은¹⁾ 양식이다. 따라서 망자를 칭송하고 애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용적 목적을 지닌 채 창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실용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창작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강력한 경험을 토대로 창작된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품진한 감정이 녹아 있기도 하다. 특히 친족이나 친우의 죽음 앞에서는 그 감정을 더욱 더 진솔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조덕린(趙德鄰, 1658~1737)의 친족 대상 제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애도방식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덕린의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택인(宅仁), 호는 옥천(玉川)이다. 영양현(英陽縣)에서 태어나, 1691년 문과에 급제하여 교라·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 1725년 당쟁의 폐해를 논하는 10여 조의 소를 올렸다가 종성에 유배되었고, 정미환국 이후 유배에서 풀려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바로 사직하

1) 이은영, 「朝鮮 初期 祭文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면.

였다. 1728년 이인좌의 난 때에는 영남호소사(嶺南號召使)가 되어 격문을 돌리고 의병을 규합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얼마 후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몰두하였다. 1736년에 서원 남설을 반대하는 소를 올렸는데, 앞서 1725년에 올린 소와 연관되어 다시 유배가게 되었다. 이때 유배지인 제주로 가는 도중에 강진에서 사망하였다. 이처럼 그는 출사 후 당쟁에서 비롯된 굴곡진 삶을 살았다. 또한 그는 정치적 시련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많이 맞이하는 고통을 겪었는데, 이는 문집에 실린 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제문에 대해서는 양식적 특성, 특정 시기나 인물에 대한 것들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²⁾ 이들 연구를 통해 제문의 특성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의 작품이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해졌다. 조덕린의 제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인물은 친족을 비롯하여 스승, 교유하던 인물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조덕린이 남긴 제문 가운데 친족을 대상으로 지은 제문의 수가 전체 작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의 삶과 관계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규격화된 격식이나 상투적 표현에만 얽매어 작품이 창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조덕린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문학작품과 관련

2) 제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이은영, 「朝鮮 初期 祭文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과 ‘제망녀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이영호, 「관습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 : 조선후기 제문 양식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2, 한국작문학회, 2006; 황수연, 「조선후기 제문 연구: 여성 대상 제문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25, 대동한문학회, 2006; 이성혜, 「제문(祭文), 위로와 치유의 서사」, 『퇴계학논총』 23, 퇴계학부산연구원, 2014; 정시열, 「九思堂 金樂行의 祭文 研究 : 호소력의 근원에 대한 탐색」, 『東洋古典研究』 59, 동양고전학회, 2015; 김민정, 「이덕무(李德懋) 제문(祭文)의 글쓰기 방식과 특징 : <제매서처문(祭妹徐妻文)>과 <도서사화문(悼徐士華文)>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9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한의승, 「嶺南 南人の 祭文을 통해 본 家族의 의미」, 『嶺南學』 6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정병호, 「탁영(濯纓) 제문(祭文)의 양상(樣相)과 미학(美學)」, 『국학연구문총』 26, 태민국학연구원, 2020; 이승용, 「屯村 閔維重의 祭文에 관한 일고찰」, 『고전과 해석』 36, 고전문화한문학회, 2022.

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덕린의 문학작품 가운데 ‘죽음’이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데 주목하여 제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서술하겠지만, 그가 남긴 시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만시라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점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³⁾ 또한 앞서 서술한 바 있듯이 당쟁으로 인한 유배 등의 정치적 시련 속에서 가까운 이들의 잇단 죽음은 그에게 상흔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망자를 애도하는 글에는 제문 외에도 묘지명, 행장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생전의 행적을 서술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문과는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식에 기반하여 조덕린의 제문을 살펴보고 망자에 대한 애도방식의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조덕린의 사유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2. 『옥천집』 소재 제문의 현황

제문은 조선시대 거의 모든 문인들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을 만큼 당시 애용되던 양식이다. 조덕린의 제문 역시 그의 문집에 실려 전하는데, 『옥천집(玉川集)』 권9에 20편이 수록되어 있다.⁴⁾ 그 애도의 대상은 친족을 비롯하여 교유하던 인물 등으로 다양한데, 다음의 표를 보자.

3) 백순철 역시 「옥천선생문집 해제」에서 “옥천의 시문에서 먼저 주목할만한 소재는 죽음이다. 그의 문집 권1~2에 수록된 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60여수에 달하는 만시이다. 산문 역시 유서, 축문, 제문, 애사, 묘비명, 묘갈명, 묘표, 묘지명 등 자신을 포함하여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하여 생애를 평가하고 애도하는 유형의 글이 가장 많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백순철, 「옥천선생문집 해제」, 『옥천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23, 48~49면.)

4) 본고에서는 1898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한국문집총간 175)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권9에는 哀詞(<權君孝祥薨哀辭>)도 한편 실려 있다.

〈표 1〉『옥천집』 소재 제문 작품의 규모

권차	작품명	대상인물	관계	형식
권9	祭十三代祖副元帥府君墓文	趙良琪(?~?)	13代祖	4언
	祭十四代祖雙城總管府君墓文	趙 暉(?~?)	14代祖	4언
	祭葛庵李先生文	李玄逸(1627~1704)		4언
	祭松月齋李公文	李時善(1625~1715)		4언
	祭恒齋李公文	李嵩逸(1631~1698)		4언
	祭李伯起文	李震休(1657~1710)		4언
	祭權天章文	權斗經(1654~1725)		4언
	祭李悅卿文	李 浹(1663~1737)		4언
	祭權叔章文	權斗紀(1659~1722)		4언
	祭表兄鄭教授堯天文	鄭堯天(1639~1700)	表兄	4언
	祭表弟柳欽若敬時文	柳敬時(1666~1737)	表弟	4언
	祭仲父處士府君文	趙頤(1633~1686)	仲父	산문
	祭從叔父三秀堂公文	趙頤(1630~1702)	從叔父	4언
	祭伯兄壺峯公文	趙德純(1652~1693)	伯兄	4언
	祭從兄生員公文	趙德厚(1655~1682)	從兄	산문
	祭亡弟汝觀文	趙德賓(1670~1723)	弟	4언
	祭亡室恭人權氏文	安東權氏(?~1693)	妻	산문
	祭亡室恭人姜氏文	晉州姜氏(?~1724)	妻	4언
	祭李壻元鳳文	李元鳳(?~?)	壻	4언
	祭兄子喜命文	趙喜命(?~?)	兄子	산문

문집에 실린 제문을 편차대로 제시한 것이다. 13대조 조양기(趙良琪)와 14대조 조휘(趙暉)의 묘소에 올리는 제문 2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교류하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시한 표에서 대상인물을 살펴보면, 스승이었던 이현일(李玄逸)을 비롯하여, 이시선(李時善), 권두경(權斗經), 권두기(權斗紀) 등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던 이들과 조병(趙頤), 조덕순(趙德純), 안동권씨(安東權氏) 등 자신의 친족을 대상으로 제문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제문의 창작시기는 대략적으로 1682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났던 1737년까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 이를

5) 제목을 통해서만 제사의 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통해서만 대략적인 시기 파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만 여기서는 대상 인물의 물년을 기준으로 삼아 서술하

통해 볼 때 그는 생애의 절반 이상을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마주하며 보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타인의 죽음을 목도한 후 상실의 아픔을 글쓰기로 풀어내도록 하였을 것이다.

특히 조덕린의 경우 그의 문집에 실린 시 250여 수⁶⁾ 가운데 25% 가량인 60여 수가 만시(挽詩)인 것을 보면 그가 죽음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요청에 의해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나,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만시 역시 죽음이라는 특별한 소재에 따른 구성을 지니고 있어 전고나 용사 등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등 관습적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60여 수의 만시의 대상은 이휘일(李徽逸), 권두인(權斗寅), 권두경(權斗經) 등 대체로 당대 학문적으로 교유했거나 관직 생활에서 친분을 쌓은 인물들이 중심을 이룬다. 제목에서 망자의 직위와 이름, 자나 호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는 권두경(權斗經)과 같이 만시와 제문의 창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도 볼 수 있으나, 대체로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만시 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제문은 본래 망자와 가까운 관계를 지녔던 사람이 쓰는 것이 관례⁷⁾였으므로 친족 관계가 다수를 이룬다. 하지만 친족 외에도 사제, 친구 관계 등 개인적 친분에 의해 창작되는 경우도 많음을 떠올려 본다면, 조덕린의 경우 그의 삶 동안 친족의 죽음을 직접 겪고 애도해야 할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조덕린은 자신의 친족을 대상으로 제문을 지을 경우, 그 관계를 제목에 밝혀 대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제시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덕린이 친족을 대상으로 지은 제문의 수는 문집에 실린 전체 제문 작품 가운데 6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관계를 살펴보면 형, 아우, 아내, 사위 등 가까운 이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죽음 앞에서 순서를 매길 순 없겠지만, 조덕린보다 연소한 친족의 죽음을 겪었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

었다.

6) 초간본에 실린 작품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7) 이영호, 「관습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 : 조선 후기 제문 양식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2, 한국작문학회, 2006, 203면.

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실제의 삶과 관계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규격화된 격식이나 상투적 표현에만 얽매어 작품이 창작되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한 표를 살펴보면, 백형 조덕순(趙德純)과 아내 안동권씨(安東權氏)가 1693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고, 아우인 조덕빈(趙德賓)과 아내 진주강씨(晉州姜氏)가 1723년과 1724년에 세상을 떠나 연달아 상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형 조덕순의 제문에서 “공께서 돌아가시고부터 화와 별 모여들었네. 빈림 겨우 마치고 나자 아내의 부고 뒤따라 이르렀고, 올해 구월 또 누이를 곡하였네.”⁸⁾라고 한 것에서 그가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연달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쓰여지는 제문은 그 글쓰기의 대상이 명확하지만, 현재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향해 전언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그 글의 원 대상은 그 글을 읽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이 글을 읽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의식이 이루어지는 규모나 형태에 따라 그 글의 상투성이 강하게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 칭송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또한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친족과 같이 그 대상이 사적인 범위를 중심으로 할 경우 경직된 상투성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내적 정서를 표출하는 것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물론 경직된 상투성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그 형식은 대체로 4언이나 산문이 주를 이룬다. 조덕린이 지은 제문의 형식 역시 4언과 산문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4언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중부 조병, 종형 조덕후(趙德厚), 아내 안동권씨, 조카 조희명(趙喜命)에게는 산문 제문을 남겼다. 특히 이현일이나 이시선 등 사회적 관계에 따른 대상들은 모두 4언으로 작품을 남긴 데 반해, 친족의 경우에만 산문 형식으로 창작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 즉 자신의 감정을 보다 톹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산문 형식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숨

8) 趙德鄰, 『玉川集』 권9, <祭伯兄壺峯公文>. “自公之歿 釁罰來萃 殯殮纔訖 室訃踵至 今年九月 又哭妹氏”

김없는 진솔한 감정을 제약 없이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죽음을 대하고 쓴 시문⁹⁾임을 떠올려 본다면, 친족에 대한 애도와 추억이 가장 잘 담긴 형식 또한 제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제문이 현재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 전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화자가 죽은 자에게 이야기하는 대화의 방식을 통해 서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조덕린이 가까운 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으로 산문 형식의 제문을 택했다는 것은 자신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친족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감정을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솔직하게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친족 관계일 경우 비교적 장편을 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죽음에 대한 슬픔은 같지만 이처럼 표현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은 조덕린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3. 조덕린의 친족 관련 제문에 나타난 애도방식의 특징

일반적으로 제문은 작품을 짓게 된 배경을 밝히고 죽은 자의 공적을 칭송하고 남은 자의 슬픔을 드러내는 형식을 취한다.¹⁰⁾ 조덕린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형식을 따르면서도 친족일 경우 단순히 죽은 자의 삶을 추모하고 슬픔을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즉 애도의 대상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에 따라 그 죽음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리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 장에서는 제문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애도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9) 안대희, 『한국 한시와 죽음의 문제 : 조선후기 만시의 예술성과 인간미』, 『한국한시연구』 3, 한국한시학회, 1995, 79면.

10) 제문은 보통 제문 창작의 배경을 밝히는 도입, 망자의 공적을 치하하고 위로하며 생자의 슬픔을 드러내는 전개, 격식을 쓰는 종결 3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도입과 종결 부분은 형식구로 문집에 실릴 경우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이성혜, 「제문(祭文), 위로와 치유의 서사」, 『퇴계학논총』 23, 퇴계학부산연구원, 2014, 121면.)

1) 과거 기억의 생생한 재현

제문은 대체로 망자의 행적을 칭송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 다. 이때 칭송의 대상이 되는 행적은 대체로 사회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내용이 대부분이며, 그 행적 역시 시대 상황 속에서 유사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조덕린의 제문 역시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의 행적을 상투적인 어구로 칭송하기보다는 자신만이 기억하는 그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특징을 보인다. 망자와 함께했던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은 그 사람과 생전에 공유했던 추억을 소중히 하여 잊지 않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다양한 추억들이 발생하는데, 그 관계의 끝에서 되돌아본다면 그중 가장 기억할 만한 순간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다음의 자료를 보자.

아, 종씨(從氏)가 효성스러움으로 소문이 났으니 나는 종씨가 아직도 눈을 감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종씨의 병이 위독해져 반드시 죽겠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는 증부께 “제 병은 이미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효의 죄는 후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니 청컨대 박장(薄葬)하여 저의 죄를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우리 아버지께는 “백부께서 우리 집안의 일을 명하소서.”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내 손을 잡고 “나는 너와 어릴 때는 함께 놀고 커서는 함께 공부하였으니 나는 실로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으니 아, 슬프도다.¹¹⁾

종형인 조덕후를 대상으로 쓴 제문 중 일부분으로, 조덕후는 조덕린의 증부인 조병의 아들이다. 조덕린과 조덕후는 사촌 간으로 같은 곳에 살면서 밤낮으로 함께하며 우의를 다진 사이였다. 그런 사촌의 죽음 앞에서 조덕린이

11) 趙德鄰, 『玉川集』 권9, <祭從兄生員公文>. “噫嘻 從氏以孝聞 吾知從氏之目向不得瞑爾 從氏病革 自知必死 告仲父曰 子疾已不可爲矣 不孝之罪 無后爲大 請薄葬以彰吾罪 次告吾父曰 惟伯父命我家事 次執余手曰 吾與若 幼同戲 長同學 吾實珍汝 遂絕嗚呼慟哉” 이하 인용문 번역의 경우 『국역 옥천선생문집』(한국국학진흥원, 2023.)을 참고하였다.

떠올린 기억은 조덕후가 죽음을 앞두고 친족들에게 남긴 말이었다. 당시 조덕후는 부모의 병구완을 하던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덕린이 지은 조덕후의 묘갈명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잘 드러나는데, “나이 24세에 생원에 합격하였다. 일가 여러 친척 및 친구,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의지하여 중히 여겼다. 일찍이 아버지의 병환으로 의원을 찾아가다가 비를 만나 흠뻑 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말질(末疾)에 걸렸는데도 그치지 않고 분주히 달려가느라 스스로 치료할 겨를도 없었다. 이 병이 더욱 깊어져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바로 임술년 9월 8일이었다. 이때 나이가 겨우 28세였다. 죽을 때가 되자 부모에게 “불효자식입니다. 장례는 간단하게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집안 형제들을 차례로 불러 효제(孝悌)와 학업에 힘쓰라고 평소처럼 또렷하게 말하였다.”¹²⁾ 이처럼 조덕후가 세상을 떠난 지 53년이 지나고 나서 지은 이 묘갈명에서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떠올린 기억은 죽음을 앞두고 조덕후가 자신을 비롯한 친족들에게 남긴 말이었다. 부모에게는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효를 사죄하고, 백부와 종제(從弟)에게는 남겨진 집안의 일을 부탁하고 그동안의 추억과 고마움을 전한 것이다. 단순히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실제로 그가 남긴 말을 가져와 그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한편, 그의 효심과 가문을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를 드러낸 것이다. 찰나의 기억 속에 남은 망자의 언사를 통해 조덕후의 효우(孝友)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이를 통해 그러한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는 슬픔을 배가한 것이다.

조덕린은 이 외에도 망자가 남긴 말을 실제로 가져와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을 보인다. 종숙부인 조규(趙頤)의 제문에서도 자신이 의지할 곳 없이 종숙부에게 기대었을 때 각별하게 돌보아주면서 “속이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 실제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다.”¹³⁾라고 한 말을 떠올린다거나, 증부인 조병의

12) 趙德鄰, 『玉川集』 권9, <成均生員趙公墓碣銘>. “年二十四 中生員 一家諸親及他知舊過逢者 皆倚以爲重 遲其有成 嘗以親癢造醫門 遇雨蒙濕 因得末疾 猶奔走不已 不暇自治 疾益深 終至不起 實壬戌九月八日也 得年止二十有八 臨絕告父母曰 子不孝 請薄葬 次呼家人兄弟 勉以孝悌及學業 了了如平日”

13) 趙德鄰, 『玉川集』 권9, <祭從叔父三秀堂公文>. “不棄謂余 毋誕毋荒 務實則正 近名

제문에서도 서울로 가는 길에 길가에서 인사를 드리니 “먼 길을 감에 진중히 하라”¹⁴⁾라고 하는 등 사소하지만 실제 자신이 들었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작품을 창작한다. 이는 짧은 순간일지라도 망자와 나 사이에 있었던 추억을 생생하게 구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季秋之月	구월에
有事先壠	선대 묘소에 일이 있어
負土之役	흙 지고 나르는 일을
爾病不共	너는 병들어 함께하지 못했네
力疾扶曳	병중에 억지로 몸을 이끌고
來卧墳庵	분암에 와서 누웠네
畢事而還	일을 마치고 돌아와
相對涕滂	마주 보고 눈물을 흘렸네
余返于峽	나는 골짜기로 돌아왔고
爾歸于家	너는 집으로 돌아갔네
暫離足悲	잠시 떠나는 것도 충분히 슬픈데
死別則那	죽어 이별하는 것은 어찌하랴
居然一疾	어느덧 한 번 병에 걸려
日月以深	날로 달로 심해졌네
亟歸至門	빨리 돌아와 문에 이르러
聞爾呻吟	네 신음 소리를 들었네
繼之啜泣	계속 눈물 흘리며
謂我能來	내가 왔다고 말하였네
孰謂斯疾	누가 이 병을 생각했으리오
若是之乖	이와 같이 어그러질 줄을
臨絕之託	임종할 때의 부탁
男娶女嫁 ¹⁵⁾	아들 장가보내고 딸 시집보내는 것이네

乃狂”

14) 趙德鄰, 『玉川集』 권9, <祭仲父處士府君文>.

15) 趙德鄰, 『玉川集』 권9, <祭亡弟汝觀文>.

위의 제문은 자신의 아우인 조덕빈(趙德賓)을 애도하며 지은 작품 중 일부 분이다. 조덕린의 형제는 4형제로 이 가운데 셋째인 조덕신(趙德臣)은 출계하였고 조덕빈은 넷째이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형제끼리 의지하며 지내던 중에 동생의 죽음을 맞아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조덕린이 떠올린 것은 가을에 선대 묘소에 일이 있어 동생과 함께했던 기억이다. 그 당시에도 조덕빈은 이미 병중이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다만 묘소를 지키기 위해 세운 암자에 와서 누워있었을 뿐이었다. 여기서는 앞선 작품과는 달리 당시 나눈 대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구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앞서 종형인 조덕후 역시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사이였지만, 조덕빈과 같이 강렬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우 조덕빈의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형제 두 사람의 몸이 자신의 몸과 같다고 표현하면서¹⁶⁾ 친형제 간의 끈끈한 우애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친아우의 죽음은 조덕린에게 있어 더 견디기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 “갑자기 볼 수 없게 되니, 네 생각에 고통스럽네”¹⁷⁾라거나 “하늘이 우리 집안에 화를 내림에 온갖 재앙이 내려졌네”¹⁸⁾와 같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이다. 끝이 없는 슬픔 속에서 그와 함께 떠올린 것은 동생이 임종을 앞두고 형인 자신에게 부탁한 말이다. 동생의 부탁은 결국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남겨진 자식들의 혼인을 마지막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덕린이 이를 동생과 함께했던 여러 장면들 가운데 마지막 기억으로 기록하여 두었다는 것은 그 스스로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세상을 먼저 떠난 동생과의 약속을 지켜가겠다는 일종의 의지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조덕빈을 대상으로 한 제문에는 그의 행적을 돌아보거나 칭송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문이 보통 망자의 생전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반해 조덕린은 아우의 죽음 앞에서 상투적인 표현 대신 망자와의 관계와 망자와 함께했던 기억, 망자가 남긴 이야기 등에

16) 趙德鄰, 『玉川集』 권9, <祭亡弟汝觀文>. “同氣三人 二體一身” 4형제 가운데 조덕신은 출계했기 때문에 3형제로 표현하였다.

17) 趙德鄰, 『玉川集』 권9, <祭亡弟汝觀文>. “斯須不見 思爾爲苦”

18) 趙德鄰, 『玉川集』 권9, <祭亡弟汝觀文>. “天禍我家 降集百罹”

집중하여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조덕린은 가까운 친족을 대상으로 한 제문에서 단순히 행적을 칭송하기보다는 남겨진 자와 떠나간 자 사이에서 있었던 사소한 순간이나 주고받았던 대화 등을 포착하여 생생히 재현해 냄으로써 추억을 되새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더 이상 사소한 순간들을 함께할 수 없다는 상실의 토로인 동시에 둘 사이의 소중한 기억들을 오래도록 저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죽음에 대한 자책의 심화

친족을 대상으로 지은 제문은 나와 그 대상이 어떤 관계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관계가 아닌 지극히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슬픔은 보다 진솔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을 앞에서 보았다. 앞서 보았던 작품들이 망자와의 기억을 보다 생생하게 재현해 내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면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슬픔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작품들도 다수 보인다. 다음을 보자.

중부는 평소 심통을 앓아왔고 10여 년 이래 연이어 참척(慘慼)을 당하였습니다. 임술년(1682) 가을에 장자가 요절하였고 얼마 뒤에 또 중모(仲母)가 세상을 떠났으며 이듬해 봄에 과부가 된 예천 누이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건강하여 질병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혹독한 화를 당하면 회생할 수 있는 이가 드무니 하물며 여러 해 동안 병을 앓았던 중부는 어찌했겠습니까.

상란을 겪은 뒤로 가족을 이끌고 분주히 달려 세 번이나 거처를 옮겼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아이들은 약하며 약이나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의리상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옆에서 도와야 마땅하였겠지만 불초하고 못나 병을 방임하고 돌보지 못하여 끝내는 세상을 떠나게 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우리 중부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오직 조카들의 죄입니다.¹⁹⁾

19) 趙德鄰, 『玉川集』 권9, <祭仲父處士府君文>. “仲父素患心痛 十餘年來 連遭慘慼 壬戌秋 長從天逝 俄又仲母棄世 又明年春 體泉寡妹不起 雖康強無疾之人 罹此酷禍 鮮不傷生 況以仲父之積年抱痾者乎 自經喪亂之後 挈眷奔走 三移寓舍 家貧兒弱 藥膳

중부인 조병을 애도하여 쓴 제문이다. 제시한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집안에 상사(喪事)가 거듭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82년에 장자인 조덕후(趙德厚)가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고 김해(金垓, 1555-1593)의 손녀인 부인 광산김씨(光山金氏)와 딸이 세상을 연달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조덕린은 조병의 행장을 지은 바 있는데, 여기서도 “한 집에 상사가 거듭 이르자 숙부가 서글픈 나머지 초췌해져 집을 버리고 외지로 떠돌아다닌 것이 4년이였다. 숙질이 더욱 심해져 1686년 정월 12일 도부 우사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54세이다.”²⁰⁾라고 한 바 있다.

집안에 우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부마저 세상을 떠나자 조덕린은 이를 조카, 즉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사람이 죽은 후 느끼는 상실감과 외로움, 슬픔보다 자신이 미처 행동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후회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형의 죽음 앞에서도 “병이 심각하다는 것 스스로 알고서 나를 믿을 만하다고 하셨으나, 내가 일찍 도모하지 않아 병을 내버려두는 바람에 차츰 목숨이 다하기를 기다려 묵묵히 때를 맞이하였네.”²¹⁾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먼저 탓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우리 형제가 연달아 과거에 급제하는 영광을 누렸고 부모님께서 모두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탈한 즐거움도 있었네. 장차 복이 넘치려기에 재앙이 뒤따라서 여기에 이른 것이다. 만약 내가 과거 급제의 행운을 얻지 못하여 일명(一命)의 관직도 받지 못했다면 그대가 오히려 살 수 있었을까. 불행히 죽었으나 살면서 서로 지키다가 죽음으로써 서로 이별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하여금 편안히 눈 감지 못하는 한을 품게 하지는 않을 것이나 나는 끝없는 슬픔을 품을 것이네.²²⁾

不繼 獨德鄰兄弟 義當極心殫誠 左右救護 而不肖無狀 縱疾不治 遂成奄忽 此則非天喪我仲父 惟姪等罪也”

20) 趙德鄰, 『玉川集』 권17, <仲父處士府君行狀>. “已又一室喪禍荐至 叔父悲傷慘悴 棄家棲遑于外者四年 至是宿疾轉劇 丙寅正月十二日 棄世于道阜寓舍 享年五十四”

21) 趙德鄰, 『玉川集』 권9, <祭伯兄壺峯公文>. “自知病甚 謂余可恃 余不早圖 縱疾以肆奄奄待盡 默與變值”

22) 趙德鄰, 『玉川集』 권9, <祭亡室恭人權氏文>. “吾兄弟接武登科榮矣 父母俱存 兄弟

첫째 부인인 안동권씨를 대상으로 쓴 제문이다. 안동권씨와는 1677년에 혼인하여 3남 1녀를 두었다. 17세기 조선에서는 남성 유학자들이 죽은 여성 가족을 위해 지은 제문이 크게 증가²³⁾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조덕린의 제문 역시 그러한 경향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조덕린은 위에 제시한 안동권씨뿐만 아니라 후배(後配) 진주강씨 역시 제문을 지어 기렸다. 다만 안동권씨의 제문은 산문 형식을 지니고 있는 데 반해, 진주강씨의 제문은 4언의 다소 짧은 형식을 지닌 차이가 있다.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양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각의 혼인이 지속된 기간과 당시 조덕린의 사정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²⁴⁾

이 제문은 안동권씨가 죽은 후 2년이 되는 대상(大祥) 때 지은 것이다. 그 스스로 밝혔듯이 앞선 장례와 소상 때 글을 짓지 못하고 대상 때가 되어서야 제문을 지어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을 칭송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로 안동권씨가 죽음에 이르던 순간들에 주목하여 제문을 창작하고 있는데, 단순히 세상을 먼저 떠나버려서 애석하고 슬픈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던 작품들과는 다르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16년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서 가정 내에 여러 경사가 가득하였는데, 이러한 경사가 넘쳐 재앙이 뒤따랐다고 본 것이다. 결국 과거의 상황을 가정하여 현재의 상황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즉 자신이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복이 넘치지 않아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물론 상투적 표현일 수는 있으나,²⁵⁾ 제

無故樂矣 將福溢而災隨 以及是乎 使我不得幸第 不沾一命 君尚可生乎 卽不幸死 猶足相守以居 相訣以死 必不使君懷不瞑之恨 而余抱無涯之慟也”

23) 김세서리아, 「17세기 朝鮮 儒學의 微視 敍事를 통한 家族 認識 -尤庵 宋時烈과 農巖 金昌協의 祭文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57, 한국유교학회, 2014, 176면.

24) 안동권씨는 친정에 해산하러 갔다가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진주강씨는 조덕린이 함경도로 유배가는 중에 세상을 떠났다.

25) 이성혜는 이런 측면에서 제문이 ‘빛짐의 해소’라는 심리치유로 보았다. 살면서 상대에게 충분하게 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점들을 마음을 빗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기 고백서인 제문을 통해 그 빗을 조금이나마 갚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는다. (이성혜, 「제문(祭文), 위로와 치유의 서사」, 『퇴계학논총』 23, 퇴계학부산연구원, 2014.)

문의 내용에 따르면 16년의 혼인 생활 동안 함께한 것은 5~6년 정도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편하게 산 것은 며칠도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당시 아내에게 느꼈던 가슴 절절한 미안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국 서로가 멀리 있으면서 고통을 감내한 것은 “살아서 백년해로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에 자신의 관직생활을 덧없는 영화와 박한 복록이라고 표현하면서 함께하는 하루의 즐거움과 바꿀 수 없다고 단언하여 그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아, 네 병은 하루의 일이 아니었고 네가 상처를 입은 것은 여러 해의 일이었네. 너는 4대에 걸친 중한 일을 이어받았으니 다른 조카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네. 나는 네가 죽을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다스리지 못하였고, 또 그 출입을 막지 못하여 너에게 여름비를 무릅쓰고 먼길을 가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실로 죽음에 처하게 한 것이네. 만일 형님이 계셨다면 반드시 진심으로 약을 구해 너의 병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설령 네 병이 이미 깊어 치료할 수 없다면 반드시 너의 이 여정을 막아 도로에서 죽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이네.²⁶⁾

제시한 작품은 조카인 조희명(趙喜命)을 대상으로 쓴 제문이다. 조희명은 조덕린의 형 조덕순(趙德純)의 맏아들로, 생모는 태어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계모는 1691년에, 부친인 조덕순은 1693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심지어 1696년에는 조부가 세상을 떠나 짧은 시간에 상을 여러 번 치른 상태였다. 이러한 까닭에 평소에도 심복통을 앓던 것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기존 병통이 있는 데다, 집안의 상례가 잇달았고 장자로 종통이 이어지던 조선시대에 조희명이 젊어져야 할 짐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죽기 전 현풍에 시험을 치르러 떠나려고 조덕린에게 인사를 할 때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조덕린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

26) 趙德鄰, 『玉川集』 권9, <祭兄子喜命文>. “嗚呼 汝之疾非一日矣 汝之受傷 積有年矣 汝之身承四世之重 非他子姪比也 余知汝有必死之疾 而不能治 又不能制節其出入 使之冒暑雨涉遠道 此則余實置之死也 使伯氏而在 必能盡心藥餌 醫汝之疾 設汝疾已深 不能治 必能制汝此行 不至死於道路也”

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조카를 보내고 10여 일 만에 부고를 받고서 마지막 만남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제문의 다른 부분을 보면, “비록 병이 없고 기가 완전한 자라 하더라도 참으로 몸이 훼손되는 괴로움을 면하기 어렵거늘, 하물며 너는 마르고 약하여 몸에 병이 깊이 들었는데 앞뒤로 만난 것이 자면서도 놀라고 꿈에서도 놀라 차마 말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으니 그런즉 속은 삭고 겉은 쇠하여 결코 세상에 오래 살 수 없었을 것이네.”²⁷⁾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오롯이 가문의 짐을 짊어져야 할 조카를 조금 더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보았는데, 나는 너를 아들처럼 보지 못하였네”²⁸⁾라고 하며 끊임없이 조카의 죽음에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후회를 가까운 이의 죽음 앞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냄을 볼 수 있다. 조덕린 역시 생과 사는 하늘의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당시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회한을 드러내는 것이다.

4. 상실의 승화를 통한 자기치유의 글쓰기

제문은 흔히 죽은 자의 행적을 드높여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투적인 글쓰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덕린은 이러한 제문의 형식적 특성을 인지하면서도 일차적으로는 가까운 이의 죽음이 자신에게 어떠한 슬픔을 가져왔는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사소한 일상을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까닭에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 슬픔이 과잉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슬픔의 과잉은 자신이 과거에 다른 선택과 행위를 했었

27) 趙德鄰, 『玉川集』 권9, <祭兄子喜命文>. “雖無病而氣完者 固難免毀滅之憂 況汝羸弱 病痼於身 前後所遭 寢驚夢愕 有不忍言者 則宜其內鑠外周 決不能久於世也”

28) 趙德鄰, 『玉川集』 권9, <祭兄子喜命文>. “汝視余猶父 而余不得視猶子也”

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라는 자책으로 드러나기도 함을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친족이 아닌 스승이나 친구 등 다른 대상을 향한 제문에서와는 달리 드러나는 점이기도 하다.

조덕린은 자신의 스승이나 친구인 이들의 제문을 쓰면서는 망자의 행적을 칭송하고 의지할 곳 없는 슬픔 등을 드러내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의 죽음 역시 조덕린에게는 큰 슬픔이었겠지만, “도가 장차 폐해지는 것을 누가 힘써 막을 수 있겠습니까”²⁹⁾라며 도가 무너짐을 슬퍼하거나, “대아 멀리 가심에 원기가 날로 박해”³⁰⁾지거나, “나라가 시들고 병들어 백성들이 복이 없어지는”³¹⁾ 등의 표현을 살펴본다면 이것을 개인적 슬픔의 차원에서 해소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제문의 특성상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칭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상실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는 망자와 나 사이의 긴밀한 관계의 단절로 인한 상실감으로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친족을 대상으로 한 제문에서는 단순히 행적을 칭송하고, 슬픔을 몇 단어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소한 순간을 함께할 이가 사라졌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그러한 관계를 조금 더 붙잡지 못한 과거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은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상황까지도 생각해 보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과거지향의 회상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경험 가운데 자신이 앞으로 기억해 나가야 할 지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죽음이 단순히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父母疚懷	슬퍼하시는 부모님
無以慰諭	위로할 수 없고
寡嫂伶俜	홀로 남은 외로운 형수
無以寬譬	위로할 길 없으며

29) 趙德鄰, 『玉川集』 권9, <祭葛庵李先生文>. “道之將廢 誰爲之厲”

30) 趙德鄰, 『玉川集』 권9, <祭松月齋李公文>. “大雅既遠 元氣日澆”

31) 趙德鄰, 『玉川集』 권9, <祭李伯起文>. “邦之殄瘁 民之無祿”

兩姪幼駿 어리고 어리석은 두 조카
成立未易³²⁾ 장성하기 쉽지 않네

백형인 조덕순을 애도하는 제문의 끝부분이다. 가까운 친족의 죽음은 근원적인 불안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형의 죽음 앞에서 부모님과 형수를 위로할 길 없고, 두 조카 역시 장성하기 쉽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비롯하여 남겨진 자들의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기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슬픔의 토로라기보다는, 죽음 이후 자신을 비롯한 가족공동체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자 자신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는 글쓰기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할 수 없고 쉽지 않은” 일로 표현된 것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작품으로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지나간 죽음을 통해 미래의 일을 인지하는 것은, 더 이상 망자의 죽음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조덕린이 친족을 대상으로 지은 제문들을 보면 작품 속의 상황이나 문제 등이 모두 가문 내의 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사람의 부재는 남겨진 가족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존 문제라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홀로 살 수 없음을 떠올려 본다면 이는 한 가정, 가문, 사회의 상실이기도 하다. 즉 단순히 한 개인의 사적 문제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영남 남인에게 있어 가문이란 삶에 있어 든든한 울타리이지 보호막 같은 것이었으므로, 가족의 생과 사는 단순한 생사 이상의 의미³³⁾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죽음은 가족공동체 전체의 일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을 확인하고 다시 결속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너는 다행히 세 아들이 있고, 또 네가 죽을 때 한 말을 순종하고 있네.
조금 더 살아서 네 가정을 다스리고 네 자식들을 가르쳐 조금이나마 네

32) 趙德鄰, 『玉川集』 권9, <祭伯兄壺峯公文>.

33) 한의승, 「嶺南 南인의 祭文을 통해 본 家族의 의미」, 『嶺南學』 6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11면.

잘못을 속죄하기를 바라니 멀리 떠난 자의 혼 또한 괜찮겠는가.³⁴⁾

제시한 작품은 조희명을 애도하며 쓴 제문의 끝부분이다. 심복통으로 세상을 떠난 조카를 안타까워하고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조카의 가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 자신의 자책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형인 조덕순의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남겨졌던 “어리고 어리석던[幼穉]” 조카 조희명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또다시 자신이 가르쳐야 할 질손(姪孫)이 남아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제문의 창작은 단순히 망자를 애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이들이 서로 걱정하고 위로해야 하는 상황을 인식하게 하여 가족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동력으로 삼은 것이다.

조덕린은 부인 안동권씨의 장지를 정하면서도 “산 아래에 밭을 두고 장차 아들 하나에게 나누어주고서 살게 하려 하니 거의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사는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³⁵⁾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 역시 자신이 슬픔이란 감정을 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꼭 수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각과 다짐을 넘어서 가족공동체가 함께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남겨진 이들의 혈연적 결속에 바탕을 둔 정서적 교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남겨진 자의 슬픔은 끝이 없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울러 응시하며 그 스스로 상실을 인지하고 슬픔을 풀어내는 글쓰기를 통해 삶과 죽음의 간극을 인식하고 치유를 시도함을 볼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조덕린의 친족 대상 제문에 나타난 애도방식과 의미를 살펴보았

34) 趙德鄰, 『玉川集』 권9, <祭兄子喜命文>. “而汝幸有子三人 亦依汝臨絕之言 願須臾無死 經紀汝家 教誨汝子 以少贖吾悔尤 而長逝者靈 其亦可乎”

35) 趙德鄰, 『玉川集』 권9, <祭亡室恭人權氏文>. “置田山下 將分一子以居之 庶不至孤寄無依也”

다. 제문은 흔히 망자를 칭송하고 애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용적 목적을 지닌 채 창작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이유로 관습적으로 창작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대상이 친족일 경우 슬픔의 감정을 더욱더 진솔하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조덕린은 출사 후 당쟁에서 비롯된 삶의 굴곡 속에서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많이 맞이하였다. 그가 제문의 대상으로 삼은 인물은 친족을 비롯하여 스승, 교유하던 인물 등 다양한데, 『옥천집』에 실린 제문은 모두 20편이다. 그 가운데 친족을 대상으로 지은 제문의 수가 전체 작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덕린이 제문을 창작할 때 실제의 삶과 관계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규격화된 격식이나 상투적 표현에만 얽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덕린은 제문에서 단순히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거나 삶을 추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했던 순간의 기억을 생생하게 재현해 내거나 죽음에 대한 자책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애도를 표현했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상투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겪으면서 그 대상과의 밀접한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순간, 즉 생과 사의 간극을 자각하는 데서 작품이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자와 함께했던 순간의 기억을 통해 그 인물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를 기억하는 글쓰기를 통해 그 인물과 함께 속했던 가족공동체를 회복하는 동력으로 삼아 슬픔을 치유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趙德鄰, 『玉川集』(한국문집총간175)
- 趙德鄰 저, 박정민 외 옮김, 『옥천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23.
- 김민정, 「이덕무(李德懋) 제문(祭文)의 글쓰기 방식과 특징 : <제매서처문(祭妹徐妻文)>과 <도서사화문(悼徐士華文)>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9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121~148면.
- 김세서리아, 「17세기 朝鮮 儒學의 微視 敘事를 통한 家族 認識 : 尤庵 宋時烈과 農巖 金昌協의 祭文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57, 한국유교학회, 2014, 169~192면.
-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317~352면.
- 백순철, 「옥천선생문집 해제」, 『옥천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23.
- 안대희, 「한국 한시와 죽음의 문제 : 조선후기 만시의 예술성과 인간미」, 『한국한시연구』 3, 한국한시학회, 1995, 49~80면.
- 이성혜, 「제문(祭文), 위로와 치유의 서사」, 『퇴계학논총』 23, 퇴계학부산연구원, 2014, 117~142면.
- 이승용, 「屯村 閔維重의 祭文에 관한 일고찰」, 『고전과 해석』 36,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2, 197~230면.
- 이영호, 「관습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 : 조선후기 제문 양식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2, 한국작문학회, 2006, 191~226면.
- 이은영, 「朝鮮 初期 祭文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정병호, 「탁영(濯纓) 제문(祭文)의 양상(樣相)과 미학(美學)」, 『국학연구론총』 26, 택민국학연구원, 2020, 9~29면.
- 정시열, 「九思堂 金樂行의 祭文 研究 : 호소력의 근원에 대한 탐색-」, 『東洋古典研究』 59, 동양고전학회, 2015, 93~120면.
- 한의승, 「嶺南 南人의 祭文을 통해 본 家族의 의미」, 『嶺南學』 6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7~37면.
-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과 '제망녀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37~73면.
- _____, 「조선후기 제문 연구 : 여성 대상 제문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25, 대동한문학회, 2006, 403~428면.

| Abstract |

The Way and Meaning of Mourning in Cho Deok-rin's Kinship-related Jemun(祭文)

Choi, Eunju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mourning methods by examining works written for relatives among in Okcheon(玉川) Cho Deok-rin(趙德鄰)'s Jemun(祭文). The writings are usually created with a practical purpose, centering on the content of praising and mourning the dead, and for this reason, they are also customarily created. However, when the object is a relative, the feelings of sadness are often expressed in sincerity.

There are a total of 20 offerings in the 『Okcheonjip』. Cho Deok-rin(趙德鄰) missed various objects, including relatives, teachers, and people she met.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at the number of offerings to family members or relatives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 works. This also shows that works were not created because they were based on real life and relationships, bound only to standardized forms or clichés. After entering the military, he faced many deaths of those close to him amid the twists and turns of life arising from the Tang Dynasty, which can be seen through the offerings in the collection.

Cho Deok-rin(趙德鄰)'s Jemun(祭文) has a characteristic that does not stop at simply revealing emotions of sadness or commemorating life. Expresses mourning by vividly recreating the memories of the moment with the deceased or deepening the blame for death. It was intended to revive the sense of reality by remembering what the deceased actually said to the author or by directly presenting what he left when he reached his death. It is also characterized by highlighting his relationship with the deceased and reminding him of his own regrets about his death to reveal whether his life and death are closely related to him. This can be understood because he was not simply in a relationship with the objects of

his worship, but had a close relationship in private. Throug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gap between life and death, he acknowledged the reality of loss, reflected on the relationship, and tried to heal his sadness.

Key Words: Okcheon(玉川) Cho Deok-rin(趙德鄰), Jemun(祭文), kinship, mourning

유의(儒醫) 석봉(石峰) 김병태(金柄泰) 가문의 대택(大宅) 경영

김종수*

목 차

1. 머리말	3. 대택 경영의 세부적 실태
2. 김병태 가문의 ‘큰 집[大宅]’ 경영(經營)	4. 맺음말

■ 국문초록

경남 하동군에 연고를 둔 석봉 김병태는 20세기 초중반 무렵에 유자이자 의사인 유의(儒醫)로 활약을 펼쳤던 인물이다. 세칭 삼장골 김 약국을 운영했던 김병태는 장남인 김상기 사후에 집안이 급거 영락하게 되면서, 문집인 『석봉유고』가 2023년에 재발굴된 특이한 내력을 간직하고 있다. 이에 일차적으로 김병태가 부친이 타계한 21세에 의학 세계에 입문하게 된 경위와 함께, 그가 대방가라는 평을 들으면서 거부 반열에 진입하게 된 생애 약사(略史)를 소개함으로써, 후속 논의를 위한 선이해를 도모하였다.

김병태 가문의 대택 경영은 의사로서 크게 성공한 끝에, 경제적 치부를 이루면서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또한 대택 경영에는 다섯 형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영위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면에는 유교적 가르침이 투영된 전래의 가학(家學)에 연원한 형제들 간의 유다른 우애심과 화목한 가풍에 힘입은 바가 컸다. 또한 의료 활동에 주력하면서 문하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훈몽 활동도 병행했던 만행을 대신해서, 둘째·셋째 동생인 김정태·성태가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도맡아서 처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가 하면 총 8~9명에 이르는 농사 머슴과 정기[부엌] 머슴, 그리고 약

* 세명대학교 강사

방 머슴과 김병태 문하의 의술 제자들이 동참한 채 대택 경영이 이뤄진 장면도 눈길을 끌게 한다. 김병태 집안은 농사와 답수(畜收)를 병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농사 머슴의 고용을 최소화했다. 한편 약재를 다듬거나 탕약을 달이고, 약재를 운반하는 등의 약방 머슴도 3~4명에 달했다. 나아가 복수의 의술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약방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대택 경영의 공동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렇듯 약 3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된 김병태 가문의 대택 경영이란, 집안의 겨레붙이와 복수의 머슴들 및 의술 제자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혼합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작금의 현실에도 의미 있는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제어 : 석봉 김병태, 대택 경영, 농사 머슴, 정기 머슴, 약방 머슴, 화목, 의술 제자, 김상기

1. 머리말

“석용산[石聳]의 돌아가는 구름 푸른 창을 웨어싸고
 소나무 울타리 성근 곳엔 푸른 삼살개가 짚어대네
 아이더러 꽃씨 구할 것을 명하노니
 비로소 한가한 일은 절로 최고임을 알겠네!”¹⁾

위의 시는 경남 하동군 옥종면 삼장 마을에 소재한 석용산(石聳山)에서 자호(自號)인 ‘석봉(石峯)’을 취했던 김병태(金柄泰, 1887~1957)²⁾가 자신의 장수지소(藏修之所)인 석봉정사(石峯精舍)³⁾에서 앞산을 조망하며 봄날의

-
- 1) 金柄泰, 『石峯遺稿』 卷1, 「詩」, <山齋日課>의 제2수, 日新印刷社, 1987, 21면, “石聳歸雲鎖碧窓, 松籬疎處吠青獐, 分付兒童花種得, 始知閑事自無雙.”
 - 2) 鄭直教,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峯金公行狀>, 裕昌綜合印刷, 2010, 455면, “癸酉, 築亭於書齋, 因洞名, 而命之曰石峰精舍.” 본관이 영일(迎日)인 회정 정직교(1916~2004)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여러 서원(書院)의 원임(院任)·원장(院長)과 성균관(成均館) 전의(典儀) 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 3) 鄭直教,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峯金公行狀>, 455면, “命之曰石峰精舍, 爲晚年藏修之所.”

산촌 정경을 읊조린 작품이다. 20대 후반 무렵부터 ‘대방가(大方家)’라는 평을 들었던 김병태는 의학적 명성이 선사한 치부(致富)로 인하여 40대 초반경에 거부의 반열에 진입하게 된다. 그 이전부터 김병태 집안은 다섯 형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택 경영을 시도했고, 이는 만형인 석봉이 자신의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김병태가 1933년(47세)에 이르러 오랫동안 구상해 왔던 연찬(研鑽)과 진료(診療) 및 창작·사교 공간인 석봉정사를 창건했던 것도 대택 경영의 소산물이었다. 이처럼 김병태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이면에는, 김병태의 직업적 정체성이 유의(儒醫)라는 사실과 직결되어 있다. 즉, 김병태는 의사(醫師)이면서 유자(儒者)로서의 면모를 겸한 유의로 활약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자신을 ‘한사(閑士)’⁴⁾로 칭했던 김병태의 경우, 농사일과 집안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지는 않았다. 대신에 아우며 조카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큰 집[大宅]’을 교차적으로 운영했고, 이는 김병태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한편 당시 삼장골 김 약국에는 약 8~9명에 이르는 농사·정기[부역] 머슴과 함께, 이른바 약방 머슴이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김병태 문하의 의술 제자들이 약국 운영에 관여한 장면도 주목된다. 적시한 복수의 머슴들과 문하생도 대택 경영에 이바지한 공동의 구성원에 해당한다.

이에 김병태의 두 아우와 복수의 머슴들 및 의술 제자가 대택 경영에 동참한 양상을 차례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삼장골 김 약국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일구어 나간 대택 경영의 실상을 규명해 냄으로써, 전통사회에서 실재했던 대가족 커뮤니티에 관한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 낼 계획이다. 이 같은 작업은 다양한 인종과 낯선 문화가 착종(錯綜)된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도 모종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4) 金柄泰, 『石峯遺稿』 卷1, 「詩」, <山齋日課>의 제3수, 21면, “閑士疎慵不掩扉 ... 收拾群芳錦軸歸.”

2. 김병태 가문의 ‘큰 집[大宅]’ 경영(經營)

1) 석봉의 생애 약사(略史)

원래 김병태가 태어난 곳은 옛 하동의 동면 반석리(盤石里) 자택으로, 1887년(고종 24) 2월 7일의 일이다.⁵⁾ 그리고 여섯 살 때인 1893년에 부친을 따라 지금의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삼장 마을로 이사를 단행하게 되었다.⁶⁾ 이처럼 장남인 난포(蘭圃) 김석규(金錫奎, 1843~1907)⁷⁾가 어린 아들 셋을 이끌고 삼장동으로 전격적인 이거를 단행한 이면에는 김병태가 계배[繼配] [후취]인 의령여씨(宜寧余氏, 1862~1936) 부인⁸⁾의 소생이라는 사정이 내밀히 작용한 결과였다. 이에 부친 김석규는 적서제(嫡庶制)가 폐지되기 이전 시점에서 자식들의 정상적인 훈육을 위해서는 편견에 시달리지 않는 안전한 교육 공간을 모색하게 되었고, 마침내 군내의 옥종면으로의 이주를 감행하게 된 것이다.

차후 김병태는 8세 때 취학기(就學期)에 접어들었고,⁹⁾ 20세를 전후로 한 나이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장남인 김상기의 벗인 회정(晦汀) 정직교(鄭直敎, 1916~2004)는 <석봉김공행장(石峰金公行狀)>을 통해서 아래처럼 그 실상을 간략히 기술해 두었다.

“타고난 천성이 총민(聰敏)하고 단아[端]·중후[重]해서, 교독(敎督)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스스로 능히 경전을 암송하면서 배워나갔다. 그리하여 나이가 미쳐 20세[弱冠]가 되기도 전에, 『논어·맹자·대학·중용』[四子]과

5) 鄭直敎,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峰金公行狀>, 454면, “以高宗丁亥二月初七日, 生于舊河東東面盤石里第.” 옛 하동 동면은 지금의 하동군 진교면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임.

6) 鄭直敎,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峰金公行狀>, 454면, “六歲隨先公, 搬移於晉州之三壯洞.”

7) 金永根 編修, 『金海金氏監務公派維新世譜』 卷13, 1991, 105면(b), “字贊成, 號蘭圃, 憲宗癸卯五月廿四日生, 丁未十一月二日卒.”

8) 金永根 編修, 『金海金氏監務公派維新世譜』 卷13, 105면(b), “繼配宜寧余氏 ... 壬戌三月二十日生, 丙子三月二十一日卒, 生四男一女.”

9) 鄭直敎,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峰金公行狀>, 453면, “八歲, 始就學.”

제자백가서[諸書]를 모두 읽게 되어, 크게 진취(進就)함이 있었다.”¹⁰⁾

그런데 20세 이후로 김병태는 부친의 병고(病苦)로 인하여 더는 학업을 심화시킬 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다. 김병태의 문집인 『석봉유고』에 경학론(經學論)이나 주자학적(朱子學的) 거대 담론에 대한 기록이 드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친은 김병태가 20세를 전후로 해서 병세가 점점 위중해졌고, 이 같은 사태는 향후 김병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반전시키는 일대 계기적 사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대인공(大人公)이 오랫동안 앓아온 모진 중병[沈劇]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셨던 이유로 인하여, 오롯이 학업에 뜻을 쏟을 수가 없었다. 이에 공은 매일같이 의술[刀圭]을 일삼아서, 무릇 약(藥)이 되는 음식 물품들을 친히 스스로 달이고 맛보아, 아내나 집 안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¹¹⁾

위의 인용문은 김병태가 “부친의 대고(大故)[상]를 당한” 1907년(21세)¹²⁾를 전후로 한 시점부터 의학 세계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된 정황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또한 김병태는 “부친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능히 봉양(奉養)을 다 하지 못한 것에, 심히 마음 아파하였다.”¹³⁾고 한다. 이 같은 정황은 김병태가 의술학에 대한 연찬 노력을 기울인 이면에는 지극히 실존적인 동기가 관여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매우 진지한 몰입 양상을 보여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한편 부친이 타계하기 이전 시기에 문진(問診)과 처방을 의뢰한 다수의 의술인들 중에는, 명가(名家)로 칭한 춘산(春山) 박희경

10) 鄭直教,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峰金公行狀>, 453면, “八歲, 始就學, 資性聰敏端重, 不待教督, 而自能誦習, 年未弱冠, 讀盡四子諸書, 大有進就” 교독(教督)이란 학동(學童)을 일일이 가르치면서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1) 鄭直教,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峰金公行狀>, 453~454면, “... 而以大人公宿崇沈劇, 不得專意於學, 日事刀圭, 凡藥餌之物, 親自煎嘗, 不委家人.” 도규(刀圭)는 가루약을 뜨던 숟가락을 가리키나, 전하여 의술(醫術)·의약(醫藥)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또 침극(沈劇)이란 점점 병세가 매우 위중해지는 증상을 나타낸 단어다.

12) 鄭直教,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峰金公行狀>, 454면, “更以歲丁未遭大故, 哀毀踰禮 ... 三年如一, 常以不克終養爲至痛.”

13) 위의 각주 12) 참조

(朴晦卿)이라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¹⁴⁾ 그즈음에 명의 박회경이 김병태가 의학 세계로 진로를 선회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아래의 인용문은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 부친의 병환 때문에, 춘산 박회경 씨(의 약방을) 오가고 하던 참에, 의학(醫學)이 사람의 아들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바임을 들어 알게 되었다. 이에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서 『황제내경(黃帝內經)』을 탐독(耽讀)한 끝에, 그 묘한 이치를 터득하였고, 마침내 대방가(大方家)가 되었다.”¹⁵⁾

윗글에는 김병태가 의술에 입문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더불어, 박회경이 권유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황제내경』을 통해서 의학적 소양의 기초를 확립한 사실이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김병태가 침구(鍼灸)에도 능했다는 주변의 전언도 『황제내경』을 조기에 숙독한 이력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김병태는 수년 동안에 걸쳐서 『황제내경』을 반복적으로 탐독한 뒤에, 명(明)나라 이천(李梴)의 『의학입문(醫學入門)』¹⁶⁾과 운림(雲林)의 『의가십이요결(醫家十二之要訣)』¹⁷⁾ 및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비롯한 여타 고금의 의학 서적으로 공부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이 같은 추론과 관련하여 <석봉김공행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연 설명을 덧붙여 두었음이 주목된다.

“일찍이 공은 헌기(軒岐)의 학문을 마음에 두어, 옛날과 지금의 모든 의학(醫學) 서적들을 박람(博覽)하여, 그 묘한 이치를 궁구한 끝에, 점차 명성(名聲)이 먼 거리에 있는 도(道)까지 진동하였다.”¹⁸⁾

14) 金相箕, 『稼軒遺稿』 卷3, 「行狀」, <石峯府君家狀>, 102면, “或往來於當時, 有如名家朴春山晦卿氏, 間日問診, 又輻聘而來藥調治, 無所不至.”

15) 金柄泰, 『石峯遺藁』 卷3, 「附錄」, <遺事>, 126~127면, “又以親癘, 往來於朴春山晦卿氏, 得聞醫學之爲人子所宜知, 而心悅之耽讀黃帝內經有年, 得其妙理, 遂爲大方家.”

16) 金相箕, 『稼軒遺稿』 卷3, 「行狀」, <石峯府君家狀>, 102면, “古之醫門巨手, 南豐李氏, 習醫規格之訓語.” 「습의규격」은 『의학입문』의 말미인 『외집(外集)』 권7에 편집된 편명이다.

17) 金相箕, 『稼軒遺稿』 卷3, 「行狀」, <石峯府君家狀>, 102면, “及雲林氏, 醫家十二之要訣”

윗글에는 애초 『황제내경』으로 의학 세계에 입문한 김병태가 차츰 의학 공부의 범위를 넓혀 나간 사실과 함께, 수년 동안에 걸친 집중적인 노력을 펼친 끝에, 마침내 의술가로서의 명성이 자자했던 정황이 드러나 있다. 또한 아래의 글은 김병태가 20대 중후반 무렵부터 이른바 ‘대방가(大方家)’라는 평을 받았던 사실과 함께, 용하다는 입소문을 타고서 삼장동 김 약국이 문전 성시를 이루었던 정황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황제내경』을 탐독하여, (마침내) 대방가가 되었다. 그러자 사방의 수레바퀴[輪]·말굽[蹄][곧 거마(車馬)]이 명성을 듣고서 나란히 나아가, 집에는 항상 신발이 가득하였다. 이에 공(公)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들을 응대[應]하기를 마치 (『장자』 속의 포정이) 능란한 솜씨로 칼을 놀려[遊刃] 여유가 있는 듯이 하였다.”¹⁹⁾

윗글은 같은 향리 사회의 후배(後生)인 양재도(梁在道)²⁰⁾가 쓴 <유사(遺事)>이기에, 기록의 객관성과 생동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장인인 김병태로부터 의술을 배운 사위(外甥) 강대정(姜大正) 또한 스물 안팎의 나이인 “묘년(妙年)[묘령]에 황헌(黃軒)의 학(學)으로 처방(處方)이 신묘한 경지에 들었다.”²¹⁾는 증언한 바가 있다. 따라서 김병태가 획득한 대방가로서의 면모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 이상의 전거(典據)를 들이대는 일을 자제하도록 한다.

이번의 논의와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김병태가 대방가라는 평을

18) 鄭直教,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峰金公行狀>, 454면, “公嘗留意於軒岐之學, 博覽古今醫學諸書, 究其妙理, 名聲稍解振遠道.” ‘헌기(軒岐)’는 의약(醫藥)의 시조로 알려진 황제(黃帝) 현원씨(軒輊氏)와 신하인 기백(岐伯)을 통칭하는 말이나, 『황제내경』으로 표상되는 의학을 가리키는 말로 전화(轉化)되었다.

19) 金柄泰, 『石峯遺藁』 卷3, 「附錄」, <遺事>, 127면, “四方之輪蹄, 聞聲駢進, 戶屢常滿, 公誠心應之, 遊刃之恢恢.” 유인(遊刃) 운운한 부분은 『莊子』, 「第3 養生主」 편에서 소를 잡는 포정(庖丁)의 능수능란한 솜씨를 형용한 “其於遊刃, 必有餘地矣.”에 전거를 둔 표현이다.

20) 金柄泰, 『石峯遺藁』 卷3, 「附錄」, <遺事>, 128면, “丁卯仲秋節, 鄉後生梁在道謹撰.”

21) 金柄泰, 『石峯遺藁』 卷3, 「附錄」, <祭文>, 107면, “妙年, 以黃軒之學, 處方入神... 外甥姜大正.”

들은 20대 중후반 무렵부터 환자 수효에 비례하는 엄청난 의료 수입이 뒤따랐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대단한 재산가로 발돋움한 김병태는 40대 이후로 재실(齋室)·정사(精舍)를 순차적으로 건립하게 된다. 물론 그 이전 시기부터 김병태 가문은 이른바 ‘큰 집[大宅]’²²⁾을 공동으로 경영해 오던 터였다. 그렇다면 이제 김병태 가(家)의 다섯 형제와 복수의 머슴들, 그리고 문하의 의술 제자들까지 가세한 대택 경영의 실상을 차례대로 추적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2) 대택 경영의 배경과 주역, 시한

산골 마을인 삼장골에 소재한 김병태 가문이 대택을 경영하게 된 이면에는, 이 집안의 유다른 우애심과 화목한 가풍(家風)에 기인한 점이 주목된다. 기실 김병태의 고조(高祖)인 눌암(訥庵) 김운화(金胤華)의 경우, “효행(孝行)으로 『진양지(晉陽誌)』에 수록되었던” 만큼,²³⁾ 유교적인 전통에 입각한 가학(家學)이 면면하게 전승되어 온 가문이었다. 뒤이어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제수된 조부인 농와(農窩) 김도원(金道源, 1816~1897)²⁴⁾ 또한 “유정(幽貞)한 효심(孝)·우애[友]를 실천한” 끝에, 공자(孔子)가 극찬한 제자 민자건(閔子騫)에 비견될 정도로 살아있는 지효(至孝)로 향리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²⁵⁾

이에 장남인 김상기가 그런 증조부를 추모(追慕)하는 마음을 담아서 “조상신[神]과 후손[人]들이 서로 기뻐할” 만한 제향 공간인 용산재(聳山齋)²⁶⁾를

22) 金相箕, 『稼軒遺稿』 卷2, 「祭文」, <祭仲父文>, 92면, “言必稱大宅, 不可不瞻支子, 欠小不足畏也.”

23) 金相箕, 『稼軒遺稿』 卷3, 「行狀」, <石峯府君家狀>, 101면, “諱胤華, 號訥庵, 以孝行載晉陽誌.”

24) 金永根 編修, 『金海金氏監務公派維新世譜』 卷13, 105면(b), “道源: 字敬瑞, 號農窩, 壽通政大夫, 純祖丙子十一月二十日生, 丁酉十二月二十日卒.”

25) 金相箕, 『稼軒遺稿』 卷3, 「附錄」, <聳山齋上梁文>, 113면, “恭惟我曾王考農窩公, 鄉里良士, 盛代逸民 ... 幽貞孝友, 盡常行之軌範, 閔子令名, 無間於父兄宗族, 生至孝有鄉黨戰.”

26) 金相箕, 『稼軒遺稿』 卷3, 「附錄」, <聳山齋上梁文>, 113면, “代遠肯構, 實是後孫之追慕不替, 龜筮協從, 神人胥悅.” “거북점과 시초점이 화합하여 따랐다.[龜筮協從]”는

1986년 5월경에 건립하였다.²⁷⁾ 부친 김병태가 1928년(42세)을 전후로 하여 창건한 영모재(永慕齋)를 계승하여 김상기가 용산재를 건립한 처사란, 그간 면면하게 전승되어 온 김해김씨(金海金氏) 감무공파(監務公派) 일문(一門)이 발휘한 가풍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병태는 40대 초반 무렵부터 의술학(醫術學)이 추수한 자자한 명성으로 인하여 거부(巨富)로 반열에 진입하였다. 그럼에도 김병태는 “부지런하고 검소함(勤儉)으로 집안의 살림살이며 재산을 잘 다스린 끝에, 가세(家勢)가 차츰 여유롭게 되자,”²⁸⁾ “여러 종족과 모의하여, 선영(先塋) 아래쪽의 땅을 살피보고 재실(齋) 하나를 건립하고, 이름짓기를 ‘영모재[永慕]’라 하여, 재숙(齋宿)하는 공간으로 삼았다.”²⁹⁾ 고 <석봉김공행장>은 전언한다.

이처럼 김병태가 경제적인 여유로움에 힘입어 첫 번째 사업으로 조상을 추모하기 위한 제향 공간인 영모재를 건립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 이른바 “선조[先]를 받드는 도리[道]”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둘째, 재실 혹은 재사(齋舍)·재각(齋閣)으로 표방되는 문중의 구심적 공간을 확보하여 후손들의 유대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의도를 반영해 준다. 지적인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김상기는 <석봉부군가장(石峯府君家狀)>을 통해서 부친이 생전에 문중을 위해 기울인 신중한 노력을 아래처럼 회고해 두었다.

“더욱 선조[先]를 받드는 도리[道]를 정성스럽게 해서, 종가의 맏아들[宗子]을 세우고 대를 잇는 자식[後嗣]을 잇게 한 뒤에, 전답을 쪼개서 사는

구절은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전거를 둔 표현이다.

- 27) 許潤, <聳山齋記>(金海金氏 監撫公派 所藏版), 1986, “余曾爲玉山書院院任 ... 書此爲金氏來世厲焉, 歲丙寅端午節, 盆城許潤記.” 분성(盆城)은 고려 때 김해의 옛 지명임. 본관이 양천인 진암(振菴) 허형(許涇)은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한 유학자다.
- 28) 鄭直教,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峰金公行狀>, 455면, “安分守拙, 勤儉治產, 家勢稍裕.”
- 29) 鄭直教,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峰金公行狀>, 455면, “與諸族謀, 相地於仙塋之下, 建一齋, 名以永慕, 以爲齋宿之所.” 상지(相地)란 풍수지리에서 땅의 생김새를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일을 말하며, 재숙(齋宿)은 제관이 재소(齋所)[재실]에서 재계(齋戒)하면서 밤을 지내는 것을 말한다.

밀천으로 삼도록 하였다. 또 매년 각기 (집집마다) 돈[錢]과 곡식[穀]을 내도록 하고, 실 틈 없이 바쁘게 일해서 제전(祭田)을 장만[置]하여, 해마다 한 번 드리는 향사(享祀)에 이바지하게끔 조치하였다.”³⁰⁾

따라서 후론될 김병태 가문의 대택 경영이란,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화목한 가풍에 입각한 결속력 있는 공동체적 기반 위에서 추구된 문중 사회학적 맥락을 간직하고 있을 것임이 예상된다. 이 같은 예단은 김병태가 소속된 김해김씨 감무공파 일문의 삼장동의 취락(聚落) 구조며 우애심의 정도를 통해서도 판단의 적실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형제 다섯 사람이 담장(牆)을 잇닿게 해서 한곳에서 같이 살았기에, 우애(友愛)가 더욱 독실하였다. (또한) 다른 길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시경』의 이른바) ‘상채(常棣)[형제]의 즐거움’으로 항상 화목(怡怡)한 듯하였다.”³¹⁾

다섯 형제에 이어 장남인 김상기 대의 족속(族屬)마저도 거의 타계한 지금까지도 “담장을 잇닿게 해서 동거(同居)한” 자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윗글의 연장선에서 김상기(44세)는 중부(仲父)인 김정태(金慶泰, 1889~1950)³²⁾가 타계한 1주년을 맞이하여 지은 <제중부문(祭仲父文)>을 통해

30) 金相箕, 『稼軒遺稿』 卷3, 「行狀」, <石峯府君家狀>, 102면, “尤誠於奉先之道, 立宗子繼後嗣, 割田資生, 又各出錢穀, 拮据累年, 置祭田, 以供歲一之享.” <석봉김공행장>에는 오탃자(誤脫字)나, 잘못 변환된 한자가 너무 많아 독해 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31) 金柄泰, 『石峯遺稿』 卷3, 「附錄」, <家狀>, 114면, “兄弟五人, 連牆同居, 友愛尤篤, 不以他歧爲心, 常棣之樂, 常怡怡如也.” ‘불이타기위심(不以他歧爲心)’을 정직교는 “집안에는 사이를 이간하는 말이 없어서[庭無間言]”라는 표현으로 치환하였다.(454면) 한편 ‘상채(常棣)’ 운운한 부분은 “아기위 꽃송이 활짝 피어 울긋불긋, 지금 어떤 사람들도 형제만 한 이는 없지. [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고 읊조린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상채(常棣)> 시에 전거를 둔 표현으로, 형제 사이의 우애를 상징하는 시어다.

32) 金永根 編修, 『金海金氏監務公派維新世譜』 卷13, 106면(b), “子 慶泰: 字祥彦, 高宗己丑生, 忌三月十七日.” 물론 대신에 ‘기(忌)’ 자(字)로 대체했으나, 손 아래 동생인 성태(性泰)와 같은 해인 1950년[庚寅]에 타계하였다. 金相箕, 『稼軒遺稿』 卷3, 「祭

서, 화락했던 5형제의 관계를 아래처럼 회고해 두기도 하였다.

“우리 둘째아버지는 형제가 5인으로, 우리 부친은 맏형에 해당한다. 서로 오고 가며 노래하고, 왕래하며 화목하심에, 그 또한 인륜(人倫)의 지극한 기쁨으로, 이웃 마을에서도 모두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곤 하였다.”³³⁾

그뿐만이 아니다. 김병태는 일찍 홀로 된 큰 누님이 자식이 없자, 자형(姊兄)의 사촌 형제의 아들로 대를 잇게 조치하기도 했다.³⁴⁾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日本)으로 간 양자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노년에 이르도록 궁핍함을 면하지 못하자, “누님으로 하여금 여러 형제와 인근한 곳인 같은 동네로 거처를 옮기게끔 하고, 살만한 밭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³⁵⁾ 따라서 삼장동에는 여섯 명의 형제자매가 옹기종기 모여서 생활을 하는 공동의 주거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한해 약 700여 석의 벼섬을 수확하는 거부 집안의 경영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동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6인에 이르는 형제자매가 공동의 취락 구조를 형성했던 삼장동 김병태의 가문에서 대택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간 방식은 과연 어떠했던가? 일단, 이 사안과 관련하여 김상기는 직접 육체적 노동에 관여하지 않았던 ‘한사(閑士)’³⁶⁾인 부친을 대신해서 중부인 김경태가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직접 처리하는 집사(執事) 역할을 전담했던 것으로 아래처럼 기록해 두었다.

“우리 부친께서 집안일을 보살피 다스리고 집안의 재산을 다스리심에, 크고 작은 일할 것 없이 일체를 둘째아버지께 (맡겨) 믿으셨습니다. 경사

文」, <祭仲父文>, 92쪽, “天禍孔酷, 仲父下世之踰月, 叔父, 又下世, 天耶, 壽耶.”

33) 金相箕, 『稼軒遺稿』 卷3, 「祭文」, <祭仲父文>, 92면, “吾仲父五人兄弟, 而吾父居伯, 相往還之唱也, 之和也, 其亦人倫之至歡, 而鄰里之所共稱美也.”

34) 鄭直教, 『晦汀遺稿』 卷4, 「行狀」, <石峯金公行狀>, 454면, “長姊鄭婦孺人, 早寡無子, 以其從姪爲嗣.”

35) 金柄泰, 『石峯遺稿』 卷3, 「附錄」, <家狀>, 114면, “其從姪爲嗣, 至晚年, 渡海未還, 家道又濫落 ... 使之移居于同閨, 諸弟隣近處, 爲之資生.”

36) 金柄泰, 『石峯遺稿』 卷1, 「詩」, <山齋日課>의 제3수, 21면, “閑士疎慵不掩扉 ... 收拾群芳錦軸歸.”

스러운 일을 축하하는 것과 제사(祭祀)를 모시는 일이며, 저 우환(憂患)·상척(喪戚)에 미쳐서는, 아버님의 심력(心力)이 다할 수 있는 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부께서) 몸소 논밭을 갈고 몸소 농사를 지으시면서, 말 씀하실 때마다 반드시 이르시기를, ‘대택(大宅) (경영에는) 만아들 이외의 아들[支子]들이 넉넉하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되니, 조금만 부족하더라도 죽히 두려워할 만한 정도가 아니란다.’고 하셨습니다.”³⁷⁾

김상기는 이처럼 대택 경영을 자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둘째아버지를 두고, “이것은 아마도 중부의 타고나신 성품으로, 불초(不肖)가 어찌 그 그리하신 연유(然)를 알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로써,³⁸⁾ 일순 고인을 향해서 깊은 추념(追念)에 잠기기도 하였다. 여하간 위의 인용문에는 손아래 동생을 향한 만형인 김병태의 깊은 신뢰와 함께, 대택 경영에 진심으로 임한 김경태의 평소 소견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큰 집[大宅]’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의 공동의 역할을 강조한 이면에는, 앞서 소개한 바대로 “형제 다섯 사람이 담장[牆]을 잇달게 해서 한곳에서 같이 산” 화락한 우애심을 전제로 한 언술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김병태 가문의 집사로 활약했던 김경태가 1950년 3월에 향년 62세의 나이로 타계했고, 중형(仲兄)과 호흡을 맞춰서 대택 경영의 동반자로 활동했던 김상기의 숙부(叔父)인 김성태(金性泰, 1892~1950)³⁹⁾마지막 달 뒤에 유명을 달리하는 상화(喪禍)에 직면하게 된다.⁴⁰⁾ 김성태는 조부 김석규의 묘지를 정비하는 일에 대한 의론을 확정하여 이행토록 조치한 바가

37) 金相箕, 『稼軒遺稿』 卷3, 「祭文」, <祭仲父文>, 92면, “吾父之治家治產也, 事無大小, 一切仲父是恃, 而慶賀也, 祭祀也, 及夫憂患喪戚, 非父心力所盡者也, 躬耕躬稼, 言必稱大宅不可不瞻支子, 欠小不足畏也.”

38) 金相箕, 『稼軒遺稿』 卷3, 「祭文」, <祭仲父文>, 92면, “此蓋仲父天性, 而非不肖孰能知其然哉.”

39) 金永根 編修, 『金海金氏監務公派維新世譜』 卷13, 106면(b), “子 性泰: 字周彦, 高宗壬辰十二月二日生, 庚寅二月五日卒.” 『가현유고』와 『김해김씨감무공파유신보』의 기록 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견되나, 한 달 간격으로 두 형제가 사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40) 金相箕, 『稼軒遺稿』 卷3, 「祭文」, <祭仲父文>, 92면, “天禍孔酷, 仲父下世之踰月, 叔父, 又下世, 天耶, 壽耶.”

있을 뿐만 아니라, 증조부 김도원의 묘의(墓儀)와 관련하여 “임종(臨終) 시에 명(命)을 남겼을”⁴¹⁾ 정도로 집안의 중요한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왔던 인물이다. 따라서 부친 김병태가 중풍(中風)으로 신음하는 와중에 중부와 숙부가 잇달아 사망하게 된 사태란, 삼장동 감무공파 일문의 근저(根底)를 뒤흔든 심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인된 것이다. 이에 김상기는 “중부·숙부님의 인후(仁厚)하심은, 마땅히 그 한없이 미수(眉壽)[장수]하셔야 하거늘,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라며,⁴²⁾ 울부짖으며 애통하기 그지없는 심경을 토로했던 것이다.

그런데 “복(福은) 겹쳐서 오지 않고, 화(禍)는 한 가지만 생기지 않는다.”⁴³⁾ 고 설파한 전한(前漢)의 유학자인 유향(劉向)의 지적처럼, 불행한 사태는 그 정도선에서 끝나질 않았다. 설상가상 격으로 동년인 1950년 11월[冬月]에는 김상기의 막냇동생인 상무(相武, 1919~1950)의 아내인 안동권씨(安東權氏) 부인(1924~1950)⁴⁴⁾이 향년 26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는 연속적인 ‘천화(荐禍)’⁴⁵⁾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⁴⁶⁾ 여하간 부친이 중풍의 병고를 치르는 가운데, 두 동생인 김경태·성태가 연이어 타계한 1950년의 사태는 이 일문이 공동으로 추구해 온 대택 경영의 근간을 요동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 집안에 연거푸 들이닥친 비극적인 사태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철학자인 폴 리쾨르(Paul Ricoeur, 1913~2005)는 ‘고통을 당한 악(le subi de

-
- 41) 金相箕, 『稼軒遺稿』 卷3, 「祭文」, <祭叔父文>, 92면, “先祖考修墓事, 叔父在一世時, 既有定議, 而去年臘月, 始加修治, 曾祖考墓儀, 叔父臨終之遺命.”
- 42) 金相箕, 『稼軒遺稿』 卷3, 「祭文」, <祭仲父文>, 92면, “仲父叔父之仁厚, 宜其眉壽無疆, 而何至於此也.” 미수(眉壽)란 눈썹이 하얗게 세도록 오래 산다는 뜻인.
- 43) 李裕元, 『林下筆記』 卷30, 「春明逸史」, <記現成語>, “福無雙至禍不單行, 劉向語也.”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DB에서 취했음.
- 44) 金永根 編修, 『金海金氏監務公派維新世譜』 卷13, 106면(a), “配安東權氏父球煥 ... 甲子十一月五日生, 庚寅十一月晦日卒.”
- 45) 張福樞, 『四末軒集』 卷8, 「祭文」, <祭藏園黃公文>,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一未報效, 尙祈安寧, 那意荐禍, 及此耄齡.” 천화(荐禍)란 재앙이나 액화가 연속적으로 들이닥치는 불행한 사태를 말한다.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DB에서 취했음.
- 46) 金相箕, 『稼軒遺稿』 卷3, 「祭文」, <祭仲父文>, 92면, “去年冬月, 季弟相武喪室, 其所生三男妹, 呱呱爲慘, 不可見也. 운위된 상실(喪室)은 상처(喪妻)·상배(喪配)와 같은 뜻인.

souffrance)’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⁴⁷⁾

한편 김병태의 셋째 동생인 원태(瑗泰, 1900~1960)⁴⁸⁾의 아들인 김상정(金相政, 1937~現) 옹(翁)⁴⁹⁾의 증언에 의하면, 해방 이후부터 차츰 기울기 시작한 가세(家勢)가 1950년에 이르러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국면으로 이행했다고 한다. 삼장동에서 나고 자란 김상정 옹(88세)은 이곳의 감무공과 일문이 맞이한 흥망성쇠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구술(口述) 자료의 제 공자이다. 그즈음에 본채를 정면 다섯 칸[間] 규모로 확장하는 공사도 추진했다고도 한다. 높다란 천장과 건실한 목재들, 그리고 커다란 섬돌과 높이 쌓아서 올린 축담 등의 전경이란, 이 가옥이 거부의 저택임을 여전히 웅변하고 있다. 집 동쪽 <계단 위의 접시꽃>으로 명한 칠언절구 한 수(首)⁵⁰⁾와 석봉정사 좌측 뜨락에 식재된 회화나무,⁵¹⁾ 그리고 집 앞의 커다란 활엽수 따위를 통해서 볼 때 집안 곳곳에 적절한 조경(造景) 공사까지 추수된 자취가 엿보인다.

그런데 1950년을 전후로 한 시점에 삼장동 감무공과 일문의 정신적·경제적 구심점이었던 김병태는 중풍(中風)으로 인한 병고(病苦)를 감당 중이던 터라,⁵²⁾ 연이은 상화까지 겹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매우 암울한 지경에 처해진 것이다. 그런 연유로 김상기는 중부와 숙부가 연이어 별세한 뒤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 세상을 (외롭게) 홀로 가는 발자국이시니, 무슨 말로써 마

47) 폴 리피르는 경험적 입장에서 악의 종류를 당한 악과 ‘도덕적으로 범한 악(le mal moralement commis)’로 분류하였다. 김형효, 『물학 심학 실학』 청계, 2003, 17~18면.

48) 金永根 編修, 『金海金氏監務公派維新世譜』 卷13, 107면(a), “子 瑗泰: 字倫彦, 高宗庚子十一月二十六日生, 庚子二月三日卒.”

49) 金永根 編修, 『金海金氏監務公派維新世譜』 卷13, 107면(a), “子 相政: 字舜則, 丁丑四二七〇年五月九日生.” 필자는 2023년 12월과 1월 및 2024년 4월, 총 3회에 걸쳐서 김상정 옹을 만나서 집의 목록에 따른 채록(採錄)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일일이 각주로 증언을 나타내지 않는다.

50) 金柄泰, 『石峯遺藁』 卷1, 「詩」, <階上蜀葵>, 22면, “愛汝葵花種屋東, 青莖作顆秀童童 ... 閑自層層爛漫紅.”

51) 金柄泰, 『石峯遺藁』 卷1, 「詩」, <山齋日課>의 제5수, 21면, “茅亭暇日小長成 ... 午鷄唱罷槐陰轉.”

52) 金相箕, 『稼軒遺稿』 卷3, 「記」, <石峯精舍重修記>, 114면, “時當東亞大戰, 府君幹務細叢, 於一身不遑, 啓居頤養, 偶以中風症, 委臥八九年, 久爾棄世.”

음이 놓이게 위로해 드리며, 어떻게 섬겨서 편안하고 즐겁게 해드린단 말입니까?”라며,⁵³⁾ 중부·숙부가 부재한 빈자리를 메꿀 길이 없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토로한 것이다.

따라서 재실·정사 영건을 통한 복합적인 활약상을 수반한 삼장동 감무공파 일문이 선보인 온전한 대택 경영의 시한이란, 김병태가 의사로 차츰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30대 중반 무렵인 1920년경⁵⁴⁾에서 두 동생인 김경태·성태가 연달아 사망한 1950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으로 설정하는 편이 적절해 보인다. 실제 김상기는 중부 김경태가 사망한 후 1주년을 맞이해서 지은 <제 중부문>을 통해서 삼장동 감무공파 일문이 처한 상황을 “차가워진 심기(心氣)”⁵⁵⁾로 아래처럼 술회해 보였음이 자못 주목된다.

“지난해 여름[곧 6월]에 (북괴군이) 남쪽을 침략[南下]한 난리란, 옛날과 지금의 천하에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로, 온 진양(晉陽)이 불에 타서 남은 재로 돌변했습니다. (이에) 불초(不肖)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삼장 마을[里]로 돌아와 보니, 고요하고 쓸쓸한 전답과 동산이란, 더는 중부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전원(田園)이 아니었으며, 또 집 대문 안의 뜰도, 더 이상 중부께서 이 세상에 계실 적의 문정(門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불초는) 큰 소리로 통곡하다 목이 메인 나머지, 우는 것을 그칠 줄을 몰랐으니, 어찌 다만 아버지 같으시고 자식 같은 정(情)일 뿐이었겠습니까?”⁵⁶⁾

위의 인용문에는 6·25 사변으로 인해 완전 초토화된 진주권과 삼장동의

53) 金相箕, 『稼軒遺稿』 卷3, 「祭文」, <祭仲父文>, 92면, “吾父之躋跡斯世, 何事以寬慰, 何事以安樂也.”

54) 金柄泰, 『石峯遺藁』 卷2, 「書」, <答鄭源卿然準, 辛酉>, 39면, “去月旬間, 暫有北川行, 邂逅逢李君道植, 言及於兄之極困, 則又以後日迎拖, 此亦不可專恃, 奈何.” 이 서신은 1921년(35세)에 전한 답서로, 의학적 명성에 따라 왕진(往診) 활동을 확인시켜 준 첫 번째 기록에 해당한다.

55) 金相箕, 『稼軒遺稿』 卷3, 「祭文」, <祭仲父文>, 92면, “言之至此, 心氣寒.”

56) 金相箕, 『稼軒遺稿』 卷3, 「祭文」, <祭仲父文>, 92면, “去年夏, 南下之亂, 古今天下未曾有, 而晉陽灰燼, 不肖撤還里, 蕭條田園, 非復仲父在世時田園, 門庭, 非復仲父在世時門庭, 於是乎, 大哭失聲, 不知知之者, 豈但爲猶父猶子情也已哉.”

전원(田園)·문정(門庭)으로 인하여, 중부가 생전에 선보인 안정적인 대택 경영의 노고를 몸소 절감하게 된 김상기의 솔직한 고백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중부 김경태가 삼장동 감무공파 집안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간 주역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에 장조카인 김상기는 둘째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부자지간이나 다름이 없음을 토로하면서, 재차 절절한 그리움에 잠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의술학 연구와 의료 활동에 전념하면서 의술 제자와 인근의 학동(學童)까지 가르쳤던 한사(閑士) 김병태를 대신해서, 두 아우인 정태·성태 형제가 공동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대택을 경영해 나갔던 세부적인 실황을 추적해서 차례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3. 대택 경영의 세부적 실황

1) 농사 머슴과 정기 머슴

2024년도 현재 옥중면 삼장 마을에 거주하는 김해김씨 감무공파 구성원은 네댓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담장[牆]을 잇닿게 해서 한곳에서 같이 사는” 취락 구조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임은 앞서 논급한 바와 같다. 김병태가 타계한 195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섯 형제자매에 각각의 집에 딸린 족속들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구성원들이 공동생활을 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훗날 김상기가 <용산재상량문>(1986)을 빌려서, “화수(火樹)[종친]를 노래하여, (그 소리가) 집 프락에 가득히 어지러이 흐르니, 이는 위가(韋家)의 아름다운 정경[이요!]” 운운했던 것도⁵⁷⁾ 바로 이처럼 번성했던 감무공파 일문의 화목한 분위기를 묘사해 보인 것이다.

또한 김상정 옹의 전언에 의하면, 전성기 적의 김병태 집안은 매년 약 700여 석(石)에 달하는 벼섬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여기에 대방가로 칭해진 김병태가 의료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수입까지 합산하면, 족히 천석꾼에 근접하

57) 金相箕, 『稼軒遺稿』 卷3, 「附錄」, <聳山齋上梁文>, 113면, “歌花樹, 盈庭渾, 是韋家誌佳景.” 위가(韋家)는 옛날 중국의 거부로, 이 문장은 『근사록(近思錄)』의 ‘화수위가 종회법(花樹韋家宗會法)’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는 거부(巨富) 반열에 올라섰을 것으로 추산된다.⁵⁸⁾ 그에 따라 농사일과 ‘약방(藥房)’⁵⁹⁾[약국] 운영을 위한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임이 예측되기도 한다. 실제 세칭 ‘삼장골 김 약국’으로 불렸던 당시 김병태 집안에는 다양한 직함을 가진 남녀 머슴들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김병태의 두 아우인 김정태·성태 주도하에 관리·운영되었을 김 약국 집안 머슴들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2024년 4월에 접한 김병태의 조카인 김상정 옹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날 이 집안에는 통상 3~4명 정도로 농사일을 전담하는 머슴들을 고용했다고 한다. 이들 머슴은 조선시대에는 고용살이를 하는 일꾼을 뜻하는 ‘고공(雇工)’⁶⁰⁾으로 칭했다. 그러다가 1527년(중종 22)에 나온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 고공이 머슴으로 표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즉, 한자어인 ‘고공(雇工)·고용(雇傭)·용인(傭人)’ 등의 어휘를 언문(諺文)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머슴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머슴은 다시 큰 머슴과 작은 머슴, 온머슴과 반머슴 따위로 분류된다. 연중 농사일을 돕는 건장한 이들은 큰 머슴 혹은 온머슴으로 분류되었고, 소를 먹이는 이른바 ‘꼴땀이’[혹은 꼴땀]는 작은 머슴으로 불렸다고 한다. 반머슴의 사전적 정의는 정식 머슴은 아니나, 머슴이나 다름없이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옥종면지』(2000)에 의하면 “머슴의 연봉은 최고 벼 6석(石)부터 최저 반 석까지였다.”는 기록이 발견된다.⁶¹⁾ 이 내용은 전통사회에서 머슴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고공전(雇工錢)’⁶²⁾ 즉 급여 체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록에 해당한다.

그런데 연간 700여 석에 달하는 벼섬을 수확했을 정도의 대농(大農)치고

58) 김중수, 「석봉 김병태의 유의 행적과 재실·정사 영건」, 『2024년 동남어문학회 춘계전국학술대회 논문집』, 동남어문학회, 2024, 29면.

59) 金柄泰, 『石峯遺藁』 卷2, 「書」, <寄兒相箕>, 72~73면. “此處鍾鳳專任藥房, 且以家間細瑣事, 暫無休暇悶悶.”

60) 『太宗實錄』 卷34, 태종 17년 8월 28일[辛亥], “無此律也, 但有雇工人部民之律.” 인용문과 같이 고공을 고용인(雇工人)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61) 玉宗面誌編纂委員會, 『玉宗面誌』, 回想社, 2000, 865면.

62) 高士襲 等, 『大明律直解』 卷1, 「名例律」, <23條 給沒贓物>, “若計雇工錢者, 一人一日爲銅錢六十文.”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DB에서 취했음. 이하 각주 63), 64)도 동일.

는, 3~4명 내외의 머슴 인원이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이 같은 의문과 관련해서 김상정 옹은 과거 김 약국 집안에서는 직접 토지를 경작하여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전답을 임대한 대가로 취득하는 수입인 답수(畓收)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머슴에게 치르는 인건비를 줄이는 조치이면서, 변모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주기도 한다. 한편 조선 후기에 죽석관(竹石館) 서영보(徐榮輔, 1759~1816)와 두실(斗室) 심상규(沈象奎, 1766~1838) 등이 왕명으로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행정·정책서인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해서(海西)와 관동(關東)에서는 답수는 대미(大米)[쌀]를 받고, 전수(田收)는 전미(田米)를 받는다.”⁶³⁾는 내용 외에도, 아래와 같은 기록도 포함되어 있어 다소 참고가 된다.

“정종 병진(1796, 정조 20)에 특교(特敎)로 이속(移屬)시켰는데, 전답(田畓)에서 쌀 14석 남짓(零)을 거두어 돈으로 바꿔서 선혜청(宣惠廳)에 상납하였다.”⁶⁴⁾

단, 윗글에는 답수를 산출하는 농지의 단위 면적에 관한 정보가 누락된 상태다. 그럼에도 제시한 두어 사례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답수로 벼의 껍질을 벗긴 알맹이를 뜻하는 ‘쌀’[곧 정미(精米)]을 내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수세(收稅) 규정은 관청이 아닌 김병태 집안에도 적용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또한 이처럼 김병태 집안에서 답수를 거둬들인 것은, 지주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어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지대를 받는 경작 제도인 소작제(小作制)를 채택한 사실을 방증해 준다. 그러나 지주로부터 소작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인인 ‘마름[畝音]’⁶⁵⁾을 두지는 않았을 것

63) 徐榮輔 外, 『萬機要覽·財用編二』, 「收稅」, <三手米>, “海西·關東, 畓收大米, 田收田米.” 전미(田米)는 밭에 심은 벼에서 수확한 쌀을 말한다.

64) 徐榮輔 外, 『萬機要覽·財用編三』, 「大同作貢」, <收租外上納>, “正宗丙辰, 特敎移屬, 田畓收米十四石零, 作錢納于惠廳.” 작전(作錢)이란 현물로 내던 세금을 돈으로 환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65) 『承政院日記』 820冊, 영조 12년 2월 26일(庚寅), “치사를 접대할 때 민역(民役)이 번거롭고 무거우므로 조정에서 춘등(春等) 대동미 1말을 감해 주었는데, 각 전장(田莊)의 마름(畝音)이 그 이익을 독차지하고 전주(田主)와 경작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

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삼장골 김 약국의 경우, 직접 농사를 지어서 거둔 수확물과 토지를 임대한 대가로 거둬들인 답수, 의료 활동에 따른 의료 수입이라는 세 부류의 경제적 밑천에 의존하여 대택을 경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가 하면 정기[부엌] 머슴이라든가, 길쌈 머슴과 방아를 찧는 머슴 등의 경우에는 소위 고공전 대신에 먹여주고 재워 주는 것으로 정식 급여를 대신했다고 한다. 근근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끼니를 때웠을 만큼 몹시도 가난한 시절이었기에, 숙식을 제공하고 연말 선물 격인 세의(歲儀)로 옷 한 벌을 마련해 주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소개한 이 내용은 아래 동네인 불무마에 거주하는 강대순(姜大順) 여사(86세)⁶⁶⁾의 설명으로, 사천시 곤명면 삼정리 탑동(塔洞)[탁골]의 세칭 ‘강(姜) 부잣집’의 사례를 예시(例示)한 것이다. 실제 지난날 갓 혼례식을 마친 불무마을의 한 신부가 궁핍한 시댁 살림살이로 인하여 결혼한 그해에 탑동의 강 부잣집을 찾아가서 1년 동안 길쌈·방아 머슴살이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강씨네 부잣집에서는 길쌈·방아 머슴의 호칭과 관련해서, 이 집에 들어온 달에 맞춰서 ‘삼월·구월이’ 따위로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삼장골 김 약국 집안의 경우에는 정기 머슴을 한 사람만 두었고, 여타의 길쌈·방아 머슴과 반찬이며 음식을 장만하는 ‘찬선(饌膳)’⁶⁷⁾ 따위는 고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그 이면에는 “형제 다섯 사람이 담장[牆]을 잇닿게 해서 한곳에서 같이 살았기에,” 5형제의 부녀자·딸들이 길쌈이나 방아 찧기 등과 같이 여성이 맡았던 잡다한 일에 협조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8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김상정 옹은 지난날 백부 집안에서 일했던 정기 머슴에 대한 아스라한 기억을 아래처럼 회고해 보았다.

니다.[支勅時，民役繁重，故自朝家減給春大同米一斗，而各庄舍音，獨專其利，田主及力耕之民，不得蒙澤。]

66) 晉州姜氏漢陽大同譜編纂委員會，『晉州姜氏漢陽大同譜』卷3，「下編 第17編」，1953，123면(a)，<子 庚熙：字泰秀，庚戌生，十一月七日卒，○室宜寧南氏。 강대순은 부친 강태희와 모친 의령남씨 사이의 4대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67) 찬선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모든 음식물을 가리킨다. 달리 반찬이나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예컨대 고려 때 궁중의 음식을 만들거나, 제사나 연회 시의 요리를 맡아보던 관아인 태관서(太官署)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정기 머슴은 면내 양구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주로 음식 장만을 조력(助力)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처녀 적에 백부 집으로 왔다가 결혼할 때까지 머물렀으니까, 꽤 오랫동안 이 집안에서 일한 셈이지요!”

부엌에 대한 정상도 방언인 정기에서 안주인의 음식 장만을 돕는 역할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행한 이면에는, 아마도 꽃다운 나이에 시작한 머슴살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뒤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김병태 집안에서 선보인 대택 경영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인 약방 머슴과 의술 제자의 역할과 함께, 그 실상에 관한 소개를 간략하게 진행하기로 한다.

2) ‘지기[直]’와 약방 머슴

이른바 약방 머슴이란 김병태가 운영한 삼장골 김 약국과 관련된 모든 일을 도우면서, 그에 따른 급여로 생활을 이어나간 특별한 고용인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다소 생소한 단어인 약방 머슴의 전통은 18세기 후반 무렵에 서울 출신의 유자(儒者)인 통원(通園) 유만주(俞晩柱, 1755~1788)가 기록한 약 13년간의 일기체 기록인 『흙영(欽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약림(藥林)[약재]이 아침에 도착해서, 환제(丸劑)[환약]에 하얀 눈 같은 산삼을 첨가했다. 시험 삼아 다시 잘게 빻으니 조금 말라졌기에, 비로소 낱알[丸]들을 합쳤으나, (너무) 짹아서 덜 끝난 걸 (스스로) 나무란다. ...(중략)... 하여 환약을 (만드는) 수고로움을 칭찬하고, 인하여 환제 지기[直]에게 13냥(兩) 32문(文)을 상으로 주기를, 봄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또) 탕제(湯劑)[탕약] 지기[直]에게 5냥 93문을 상으로 주었다. 이제부터 표준(標)을 써서 약(藥)을 취(取)할 것을 약속한다.”⁶⁸⁾

68) 俞晩柱, 『欽英』 6冊[1785.10.28.](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58면, “藥林朝至, 添丸劑以山蔘之雪, 試更略擣稍乾, 始合丸, 以咎短未了, 特貽江山文章, 大玄二笏, 以稱丸勞, 仍賞丸劑之直, 十一兩三十二文, 及自始春至今, 湯劑之直, 五兩九十三文, 約自今用標取藥.”

위의 인용문은 1785년 10월을 전후로 하여 서울에 소재한 대형 약방에서 환약(丸藥)을 조제(調劑)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함께, 환약과 탕약(湯藥)을 전담한 기술자인 ‘지기[直]’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 체계가 드러나 있다. 다소 까다로우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환제지기[直]’가 훨씬 더 높은 보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병태는 1940년대 후반 무렵에 “약재(藥材)가 평순(平順)하므로, 늙은이·어린이 할 것 없이 서너 알[丸]씩을 복용하면, 그 효과가 심히 빠를 것”이라는 설명하에, 산청의 사돈 조보경에게 당해 여름에 조제한 소채환(消滯丸)을 증정한 사실이 있다.⁶⁹⁾ 물론 이는 18세기 후반 서울의 제반 동향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환약을 자체적으로 조제해 왔을 정도의 제약(製藥)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번 제(2)항의 논의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사실은 상기 인용문에서 특정한 약방에 소속되어 환약과 탕약을 조제하는 기술자를 ‘지기[直]’로 칭했다는 점이다. 이때 ‘직(直)’ 자(字)는 품삯을 주고 고용하는 인부(人夫)인 고직(雇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삼봉집(三峯集)』에도 고려 후기의 최고 행정기구인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청사(廳舍)를 건립할 때 “모든 재목을 자르고 기와를 굽는 일들은 다 고직(雇直)들에게 시켜 공사를 부지런히 하도록 독려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⁷⁰⁾ 따라서 ‘고직’ 개념의 기원은 고려 말엽인 1389년[己巳] 이전으로까지 소급되는 기나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이 간취된다. 또한 후대의 창고지기[庫直]·산지기[山直]이라든가, 오늘날의 등대지기·문지기 등과 같은 어휘들도 이 ‘지기[直]’에서 연원한 어휘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삼장골 김 약국에서는 이 ‘지기[直]’라는 용어 대신에, 머슴이라는 단어를 계승한 차이가 있다. 머슴이란 부농이나 지주에게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일이나 잡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사내를 이르던 말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제(1)절에서 소개한 농사·정기 머슴과 정히 부합되는 설명 방식이랄 수

69) 金柄泰, 『石峰遺稿』 卷2, 「書」, <答曹普卿>, 58면, “且以消滯丸呈, 似夏間新製者矣, 藥材平順, 老幼間, 三四丸服用, 則其效甚速, 或爲家庭常備之一助否.”

70) 鄭道傳, 『三峯集』 卷4, 「記」, <高麗國新作都評議使司廳記(己巳)>, “凡削材塼瓦, 皆役雇直之徒, 而督勤工繕, 經營於旬月之間, 民不知勞.”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DB에서 취했음.

있다. 그러나 고용된 일꾼이라는 점에서는 고직과 머슴 간에는 아무런 개념적 차이가 없다. 다만, 삼장동 김 약국에서는 ‘환제 지기·탕제 지기’라는 분화된 명칭 대신에, 약방 머슴 혹은 약칭 약 머슴으로 호칭을 일원화한 차이가 있다. 여하간 약방 혹은 약국에 소속된 지기와 머슴들은 전근대 시기 사회에서 신분적·계층적 관계에 얽매인 중(從)·하인(下人)과는 다르게, 다소 특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았던 인력임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지기와 약방 머슴은 주인을 위해 무한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경적 맥락에서의 충직한 머슴⁷¹⁾과도 결을 달리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어쨌든 삼장동의 약방 머슴들도 약재료를 다듬고 탕약을 달이거나, 환약을 조제하면서 약국의 운영을 돕는 일을 담당했겠지만, 구술 자료 외에 문헌적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상정 옹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삼장골 김 약국에는 통상 서너 명의 약국 머슴이 활동했다고 한다. 이처럼 3~4명의 약방 머슴이 상존한 이면에는, “멀고 가까운 지역[間]에서, 약(藥)을 지으려는 자들이 이어져서, 지계문[戶]을 닫지 않았다.”고 했을 정도로,⁷²⁾ 성황리에 김 약국을 운영했던 정황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당시 약방 머슴 중에는 김병태의 조카인 달여(達汝)[자] 김상준(金相駿, 1919~?)⁷³⁾과 당질인 영석(永錫)[자] 김상진(金相鎭, 1923~?)⁷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다. 아마도 김상준·상진 두 사람은 백부이자 큰 당숙인 김병태의 지시에 따라 머슴들의 역할을 조정하거나 관리·감독하면서, 자신들이 맡았던 약국 업무에 충실하였을 것이다.

한편 김상정 옹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 약방 머슴 중에는 멀리 진주까지 나가서 지계로 약재를 지고 나르는 인력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역은 김병태 집안사람 외의 약방 머슴이 맡았던 듯하다. 이를테면 약재

71) 배재욱, 「섬김을 이루기 위한 머슴신학 이해 : 은파에게 나타난 머슴 이해와 관련하여」, 『신학사상』 153, 한신대 신학사상연구소, 2011, 6~10면.

72) 金相箕, 『稼軒遺稿』 卷3, 「行狀」, <石峯府君家狀>, 102면, “遠邇間, 藥者續, 不斷戶.”

73) 金永根 編修, 『金海金氏監務公派維新世譜』 卷13, 106면(b), “子 相駿 字達汝, 己未四二五二年, 六月十八日生.” 이 증언은 2023년 12월에 김상준의 장남인 김종현(金鐘炫, 1946~現) 씨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것이다.

74) 金永根 編修, 『金海金氏監務公派維新世譜』 卷13, 108면(a), “湊泰子 相鎭, 字永錫, 癸亥二月二十八日生.” 차후 김상진은 하동향교의 전교(典校)를 역임하기도 했다.

를 운반한 머슴 가운데는 삼장 동민인 조월봉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약재 운반책 역할을 도맡아서 처리했다고 한다. 아마도 조월봉은 1900년(광무 4년)에 삼장마을 내의 죽전동(竹田洞)으로 전입한 조용(趙鏞, 1887~1970)⁷⁵⁾과 관련된 사람일 것으로 추정해 본다.

3) 의술 제자의 경우

그런가 하면 “점차 명성(名聲)이 먼 거리에 있는 도(道)까지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김병태는 30대 초중반 무렵 이후로 잦은 왕진(往診) 요청을 받게 되면서, 김 약국을 열흘 이상 비우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⁷⁶⁾ 『석봉유고』에 수록된 주요 사건에는 대부분 연월일 표기가 생략된 경우가 많은 탓에, 시공의 좌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0대 후반부터 대방가로 칭해졌던 김병태의 경우, 30대 초반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왕진 활동을 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하간 이번 제3)절의 논의와 관련해서 보다 중요한 점은, 왕진 활동에 따라 약국을 자주 비우게 됨에 따라 주인인 김병태를 대신해서 약국을 운영할 만한 대체 인력이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일단,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들 상기(相箕)에게 부침>이라는 제하의 아래의 서신이 대단히 주목된다.

“(삼장동의) 집안 소식을 듣지 못한지가 벌써 십수 일째인 탓에, 나는 네가 가까운 곳에 온 줄을 알지도 못했단다. 집안 식구들[奉率]은 모두 편안하여 아무런 탈(頃) 없이 지내고 있는 게냐? 이곳에서는 종봉(鍾鳳)이가 약방(藥房)을 전적으로 맡고 있으나, 또 온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잠시도 쉴 겨를이 없어서 매우 답답한 심정이란다.”⁷⁷⁾

75) 金相箕, 『稼軒遺稿』 卷3, 「墓表」, <竹處士墓表>, 88면, “庚子于三壯竹田洞, 以爲農畝之可資生.”

76) 金柄泰, 『石峯遺藁』 卷2, 「書」, <答鄭源卿然準 辛酉>, 39면, “去月旬間, 暫有北川行, 邂逅逢李君道植, 言及於兄之極困, 則又以後日迎拖, 此亦不可專恃, 奈何.” 이 서신은 1921년(35세)에 전한 답서로, 김병태의 왕진 활동을 입증해 주는 기록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77) 金柄泰, 『石峯遺藁』 卷2, 「書」, <寄兒相箕>, 72~73면, “不聞家信, 已十數日矣, 未知邇來, 奉率, 皆安在無頃否, 此處鍾鳳專任藥房, 且以家間細瑣事, 暫無休暇悶悶.” 상봉

윗글 <기아상기(寄兒相箕)>는 김병태가 1948~1949년경에 산청군 덕산면 대포리에 피신하여 거주하면서 장남에게 부친 서신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최종적으로 취헌(翠軒) 김종봉(金鍾鳳, ?~?)⁷⁸⁾이라는 인물로 고증된 문하생에게 약방 운영에 관한 전권을 일임한 정황과 관련해서다. 김상정 옹의 증언에 의하면 본관이 김해로 군내 북천면 화정리 출신인 김상봉의 경우, 삼장동 김 약국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의술 제자였다고 한다. 김종봉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삼장동에서 유숙(留宿)했고, 그 결과 스승인 김병태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의술 제자로 보인다. 아마도 김종봉은 일제 강점기 때인 1940년에 삼장동을 떠나 진주의 신지(新知)로 반이(搬移)[이사]한 이래로,⁷⁹⁾ 줄곧 김병태를 수행하면서 약방 운영을 도왔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서울 출신의 남인 계열의 지식인인 옥유당(玉莪堂) 한치윤(韓致胤, 1765~1814)이 저술한 『해동역사(海東譯史)』의 <관제(官制)> 항목에는, 논의 중인 약국의 의술 제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록을 남겼음이 눈길을 끌게 한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또 이르기를, ‘약국(藥局)에 세 등급의 관원을 두었는데, 첫째는 태의(太醫), 둘째는 의학(醫學), 셋째는 국생(局生)이라 하며, 푸른색의 옷에 목홀(木笏) 차림으로, 날마다 직에 임한다.’고 하였다.”⁸⁰⁾

송(宋)나라의 사신이었던 서궁(徐兢)의 『고려도경』에도 고려 때의 약국이

하술(上奉下率)의 준말인 봉술(奉率)은, 위로는 모시고 있는 부모님과 아래로는 거느리고 있는 처자식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78) 金相箕, 『稼軒遺稿』 卷1, 「詩」, <次金翠軒韻鍾鳳辟韻>, 39면, “花溪溪屋生春華, 甲當年有人罔極, 勞詎可忘悲懷孤 ... 人間慶樂在此辰.”

79) 金相箕, 『稼軒遺稿』 卷3, 「行狀」, <石峯府君家狀>, 102면, “庚辰搬移于晉州新知 ... 擬欲并州之鄉.”

80) 韓致胤, 『海東譯史』 卷31, 「官氏志 2」, <官制 2>, “圖經見上, ○又云, 藥局建官三等, 一曰太醫, 二曰醫學, 三曰局生, 綠衣木笏, 日莅其事.” 도경(圖經)이란 1121년에 고려의 개성에 사신(使臣)으로 왔던 서궁(徐兢)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약칭 『고려도경』]을 가리킨다.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DB에서 취했음.

‘태의·의학·국생’으로 직제가 분화된 상태에서 운영되었던 정황이 나타나 있다. 약국생(藥局生)의 준말인 국생은 태의와 의학으로부터 의술학을 배우면서, 의약을 조제하기도 한 수련생으로, 오늘날 수련의인 인턴(intern)과 유사한 직제로 분석된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봉은 고려 때의 국생의 전통을 계승한 김병태의 의술 제자 혹은 문하생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날 삼장골 김 약국에는 소개한 김종봉 외에도, 복수의 의술 제자들이 일정한 시기별로 번갈아 이곳을 거쳐서 나갔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에는 김병태 사후에 찬(撰)한 <묘지명(墓誌銘) 병서(并序)>(1987)를 통해서 자신이 스승 김병태의 문하생이었음을 밝힌 최인찬(崔寅巘)을 우선적으로 지목할 수 있다.

“옛날 우리 스승[先子]께서는 손꼽을 만한 군자유(君子儒)로, 매양 석봉 김공을 거론[擧]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이런 마음으로 남몰래 공경하여 우러러 사모한 지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⁸¹⁾

본관이 삭녕(朔寧)인 최인찬의 경우, 김병태 문하에서 배출된 마지막 의술 제자 그룹을 형성했던 인물이다. 반면에 최인찬보다 앞선 시기인 1926년에 19세의 나이로 김병태(40세)의 문하에 접어든 이래로, “9년 동안 한술밥을 먹은 정의(情誼)”를 나눴던 문생(門生) 정문석(鄭文錫)⁸²⁾은 초기에 배출한 제자에 해당하는다. 정문석도 20대 후반 무렵에 면내 신촌마을에서 약방을 차려서 독립하기 이전 시기에는, 앞서 소개한 김종봉처럼 ‘국생’에 준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또한 정문석과 마찬가지로 면내 주포에서 성황리에 약방을 운영했던 정환철(鄭煥喆)도 초기 의술 제자로, 스승은 김병태와 수십 년

81) 金柄泰, 『石峯遺藁』 卷3, 「附錄」, <墓誌銘 并序>, 128~131면, “昔吾先子, 指屈君子儒, 每舉石峯金公不已, 以是心, 竊欽仰者 已久 ... 光復丁卯冬至節, 朔寧崔寅巘謹撰” 정묘년은 1987년임.

82) 金柄泰, 『石峯遺藁』 卷3, 「附錄」, <帝文>, 106면, “念昔丙寅往讀高門, 偏愛微躬教誨, 諄溫然, 而小子愚昏, 朝受暮思, 百不一存, 令胤相箕, 以同年之生, 實心相愛, 無異兄弟, 況復九年同鼎之誼乎 ... 門生晉陽鄭文錫.” 동정(同鼎)은 동정식(同鼎食)의 준말임. 같은 술으로 지은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한집에서 같이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간 인연을 이어나갔던 인물이다.

“고문(高門)에 드나든 지 어언 십수 년
공(公)과 같은 지조[操]·행실[履], 이전에 또 누구셨던가
따스하고 화목한 집안엔 규모(規模)는 조밀했고
순후(純厚)하신 인간 됨됨이에 덕행으로 얻은 명망도 온전하셨지요!”⁸³⁾

삼장골의 김병태 문하를 거쳐 간 의술 제자는 최종적으로 약 8~9명 정도로 집계되었지만, 지면상의 사정으로 더 이상의 확장된 논의는 자제하기로 한다. 이번 제3)절의 논의와 관련해서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차례대로 예시해 보인 김종봉·최인찬·정문석·정환철 4인의 경우, 김병태 가문이 영위한 대택 경영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네 사람은 최소 9년에서 최장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삼장골 김 약국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한 조력자였기에, 앞서 소개한 약방 머슴과 더불어 김병태 가문의 대택 경영의 한 축을 형성한 그룹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의 개괄적인 논의를 통해서 20세기 초중반 무렵에 선보인 김병태 가문의 대택 경영의 실상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큰 집[大宅]’ 경영을 위한 원초적 조건에 해당하는 김병태의 의학 세계 입문 경위와 함께, 대방가라는 평판이 추수한 치부(致富)를 둘러싼 논의를 우선적으로 개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삼장동 감무공과 일문이 전시한 화목한 가풍과 우애심을 아울러 소개함으로써, 대택 경영을 위한 제반 필요조건을 죄다 상기시키는 논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약 30여 년간 지속된 김병태 가문의 대택 경영의 이면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83) 金柄泰, 『石峯遺藁』 卷3, 「附錄」, <挽章>, 88면, “出入高門十數年, 如公操履復誰前, 溫和家人規模密, 純厚人間德望全.”

유익미한 선행 여건이 충족되었기에 가능한 사례였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선, 이번 논의를 통해서 한 집안의 정신적·경제적 구심점에 해당하는 만형인 김병태의 타고난 우애로운 성품과 포용의 덕목에 주목하게 된다. 이 같은 김병태 생애적 천성(天性)과 포용력은, 감무공과 일문을 ‘대택’이라는 이름으로 결집케 한 원천적 동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두 아우인 김경태·성태 형제가 대택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주역으로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김병태가 견지한 가내(家內) 리더로서의 면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김경태·성태 형제가 1950년에 이르러 한 달 간격으로 사망하면서 대택 경영의 기초가 크게 위협받았던 정황이란, 이들 두 사람이 대택 경영에서 발휘한 크나큰 기여도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둘째, 김병태 집안에서 고용한 8명 내외의 머슴들과 함께, 의술 제자들이 수행한 역할 또한 대택 경영을 위한 기본 인자로 작용한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활용한 일련의 구술 자료들은, 전근대 시기의 머슴의 유형과 그 역할과 관련해서 대단히 소중한 지적 원천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농사·정기 머슴 외의 존재들인 약방 머슴과 의술 제자들의 역할도, 한 국의학사의 한 단층(斷層)을 복원해 내는 작업에서 중요한 논의 거리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하동 삼장골 김 약국 집안에서 선보인 대택 경영은 그 원천적 동력인 지친(至親) 사이의 우애와 화목의 가치의 중요성과 더불어, 대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믿음(信)과 연대의 덕목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일깨워준 경험적·역사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농사·정기 머슴과 의술 제자들이 김병태 가문의 대택 경영에 동참했던 것도, 신뢰와 연대의 덕목에 힘입은 결과였다.

■ 참고문헌

- 高士禔 等, 『大明律直解』(한국고전번역원 DB)
- 金柄泰, 『石峯遺稿』, 진주: 日新印刷社, 1987.
- 金相箕, 『稼軒遺稿』(金海金氏 監務公派 所藏筆寫本).
- 金永根 編修, 『金海金氏監務公派維新世譜』 卷13, 서울: 金永根, 1991.
- 李裕元, 『林下筆記』(한국고전번역원 DB)
- 朴世堂, 『西溪集』(한국문집총간 134), 한국고전번역원, 1994.
- 徐榮輔 外, 『萬機要覽·財用編二』(한국고전번역원 DB)
- 『承政院日記』 820冊, 영조 12년 2월 26일[庚寅]
- 『詩經』·『書經』·『近思錄』·『莊子』
- 玉宗面誌編纂委員會, 『玉宗面誌』, 回想社, 2000, 865면.
- 俞晚柱, 『欽英』(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張福樞, 『四末軒集』,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한국고전번역원 DB)
- 鄭道傳, 『三峯集』(한국고전번역원 DB)
- 鄭直教, 『晦汀遺稿』, 부산: 裕昌綜合印刷, 2010.
- 晉州姜氏漢陽大同譜編纂委員會, 『晉州姜氏漢陽大同譜』 卷3, 1953.
- 『太宗實錄』 卷34, 태종 17년 8월 28일[辛亥]
- 許濶, <聳山齋記>(金海金氏 監撫公派 所藏版), 1986.
- 김종수, 「석봉 김병태의 유의(儒醫) 행적과 재실(齋室)·정사(精舍) 영건」, 『2024년 동남어문학회 춘계전국학술대회 논문집』, 동남어문학회, 2024, 29면.
- _____, 「유의(儒醫) 석봉(石峯) 김병태(金柄泰)의 하동 ‘삼장골 김 약국’ 운영과 의료 활동·의 철학」, 『한국유교문화』 2-1,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4.
- 김형효, 『물학 심학 실학』, 청계, 2003, 17~18면.
- 배재욱, 「섬감을 이루기 위한 머슴신학 이해 : 은파에게 나타난 머슴 이해와 관련하여」, 『신학사상』 153, 한신대 신학사상연구소, 2011, 6~10면.

| Abstract |

**Confucian Doctor(儒醫) Seokbong(石峰)
Kim, Byung-tae(金柄泰) Family's
Management of Head House(大宅)**

Kim, Jongsu

Based in Hadong-gun, Gyeongsangnam-do, Seokbong Kim, Byung-tae was a person who made impressive activity as a Confucian doctor(儒醫) in the early and id-twentieth century. Thus, this manuscript introduced outline history(略史) of Kim, Byung-tae's life about joining the ranks of millionaires with a reputation as a great scholar(大方家) along with details in entry into the world of medicine at the age of 21 when his father passed away.

Management of head house by joint participation of five brothers started in earnest when Kim, Byung-tae succeeded as a medical doctor and accumulated economic wealth. The forgoing was indebted much to extraordinary brotherhood between brothers and tradition of harmonious family originated from family scholarship(家學) that emphasized on the Confucian teachings. And Kim, Byeung-tae's second and third brothers Kim, Gyeong-tae(金慶泰)·Seong-tae(性泰) also took on all the tasks of their family instead of medical doctor Kim, Byung-tae.

Meanwhile, it is also noted that head house was managed by participation of 8~9 farm and kitchen servants, pharmacy servants and medical students under Kim, Byung-tae. Kim, Byung-tae's family minimized employment of farm servants through the method of combining farming and harvesting(畜收).

By the way, the number of pharmacy servants responsible for preparing medicinal ingredients or decocting medicinal herbs and transporting medicinal ingredients amounted to 3~4 persons. Further, a multiple number of medical students were also positioned as members by participating in management of pharmacy.

This way, management of head house by Kim, Byung-tae's family that continued for more than 30 years provides a meaningful case of a mixed community living together in a sense that it was an outcome that siblings, a multiple number of servants and medical students established by joint efforts.

Key Words: Seokbong Kim, Byung-tae, management of head house, farm servant, kitchen servant, pharmacy servant, harmony, medical student, Kim, Sang-gi

레비나스에게 가족의 의미

— 『전체성과 무한』 4부 C “번식성” 및 D “에로스 속의 주체성”에 대한 한 가지 해석 —

김동규*

목 차

1. 머리말	3. 부성, 모성, 그리고 책임
2. 가족의 탄생: 『전체성과 무한』에서 에로스와 번식성	4. 정상성과 책임: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5.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이 글은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4부의 C, “번식성”과 4부 D “에로스 속의 주체성”에 대한 독해와 해석을 통해 그가 암시한 가족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 그 의의와 한계를 논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는 레비나스에게 가족 탄생의 발단 역할을 하는 『전체성과 무한』에서의 에로스론을 간략하게 살펴 본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레비나스의 논증에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으며, 각 존재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탐구를 기반으로 삼아 『전체성과 무한』에서 레비나스가 그려낸 가족 이해의 의의와 한계를 짚는다. 한편으로 그의 가족 이해는 책임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혈연관계로 이해되는 전통적인 가족 이해를 넘어선다. 다른 한편으로 레비나스에게 아버지, 어머니, 아이의 역할은 다분히 (가족) 정상성의 범주 안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적어도 『전체성과 무한』에서의 그의 가족 이해가 다소간 전통적인 정상 가족의 한계 안에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레비나스, 나, 책임, 가족, 아이, 아버지, 어머니, 미래, 타자성, 시간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머리말

흔히 레비나스를 타자성의 철학자라고 부른다. 이는 분명 레비나스를 적절하게 묘사한 것이지만, 그의 철학은 단지 타자성이라는 주제 하나만을 위해 전개되지 않는다. 레비나스의 윤리적 형이상학은 윤리나 종교만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관한 많은 통찰을 제공한다. 점에서 훨씬 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며, 그것은 정치, 사회, 에로스, 국가 등 실천적인 주제로까지 확장된다. 이 가운데 가족에 관한 그의 접근도 간과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레비나스에게 가족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의 주저인 『전체성과 무한』을 고찰하려 한다. 특히 『전체성과 무한』 4부의 C와 B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구성원인 아버지, 어머니, 아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에 이 글은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4부의 C, “번식성”과 4부 D “에로스 속의 주체성”에 대한 독해와 해석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의 관점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의의와 한계를 논한다.

이를 위해 이 논고는 레비나스에게 가족 탄생의 발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전체성과 무한』에서의 에로스론을 간략하게 해명하고, 다음으로 그에게서 가족 관계 안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아이의 존재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레비나스가 분명하게 의도하지만 너무 함축적으로 다루어진 부모의 의미를 잘 파헤친 리사 건터의 해석을 경유한다. 끝으로, 이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평가함으로써 레비나스의 가족 이해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낼 것이다. 한편으로 그의 가족 이해는 혈통보다는 책임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삼는 전통적인 가족 이해를 넘어서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레비나스에게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 아이의 역할이 다분히 정상성의 범주 안에 고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가족 이해가 다소간 전통적인 정상 가족의 한계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전체성과 무한』에서 에로스와 번식성: 가족의 탄생

레비나스에게 가족의 탄생은 우선 에로스와 관련한다. 기본적으로, 이때 에로스는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사랑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주로 남성 주체의 입장에서 기술된다.¹⁾ 에로스에 대한 논의는 『시간과 타자』 등 그의 다른 주요 저술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레비나스의 철학적 논증 구성 및 『전체성과 무한』에서의 독특한 드라마적 구성을 고려할 때,²⁾ 그것은 주체가 자기의 삶의 유한성을 넘어서 무한의 시간을 맞이하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논의된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전체성과 무한』은 주체와 타자의 만남을 통해 전체성 너머의 삶과 현대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레비

- 1) 이것은 레비나스의 주체성과 타자성에 관해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목 중 하나다. 다만 본 논고의 주요 논지를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여기서 깊게 다룰 수는 없다. 다만 레비나스의 남성 중심의 에로스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보기 위해서는 뤼스 이리가래의 다음 글들을 참조하라. Luce Irigaray, "Fécondité de la caresse, lecture de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section IV, B, 'Phénoménologie de l'éros,'" in *Éthique de la différence sexuelle*, Les Éditions de Minuit, 1984, pp.173-199; "Questions à Emmanuel Levinas: la divinité de l'amour," *Critique* 522 (1990): pp.911-920.
- 2) 『전체성과 무한』을 한 편의 드라마로 읽을 수 있다는 관점은 사이먼 크리츨리에게서 착안한 것이다. 그는 레비나스가 이 책을 통해 "한편의 드라마, 한편의 성스러운 이야기(a drama, a holy story)를 쓰고자 한다"고 말한다. Simon Critchley, *The Problem with Levinas*, ed. Alexis Dianda,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10. 심지어 장-미셸 살랑스키는 『전체성과 무한』을 일종의 소설로 읽을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우리는 『인간 경험』에 대한 장편 소설로, 행복하고 선한 인간 경험에 대한 교훈적 소설(roman édifiant)로 읽을 수 있다. 이 소설은 향유, 삶에 대한 자기 충족에서 시작하고, 거주와 노동을 통해 세계에 이치에 맞게 거주하는 일을 거쳐,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얼굴과 마주함이라는 절정의 에피소드에 이른다. 뒤이어 주인공은 사랑의 행복을 알고 아이라는 축복을 얻는다." Jean-Michel Salanski, "Horizons de Totalité et infini," in *Le concret et l'idéal: Lévinas vivant III*, Klincksieck, 2015, pp.219-20. 레비나스 역시 『전체성과 무한』의 주요 주제인 나 또는 자아에 대해, "나는...여러 막으로 된 드라마다"라고 말한다. Emmanuel Le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Phaenomenologica* 8, Martinus Nijhoff, 1961; deuxième édition, 1965, p.258. 국역본: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옮김, 그린비, 2018, 428면. 앞으로 본서를 할 때는 프랑스어 원문 면수와 한글 번역본 면수를 본문에 나란히 적도록 한다.

나스가 향유의 주체로서의 무신론자를 정립함으로써 이미 “전체성의 파열”(90/167)을 낸다는 점이다. 대체 무신론자가 어떻게 전체성에 흠집을 내는가? 그것은 환대의 주체성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물론 전체성의 극복은 타자를 맞이하는 주체가 환대의 주체성으로 내면성의 정의를 발휘할 때 오롯이 성취된다. 하지만 그것은 환대의 주체성에 앞서는 주체성의 정립 및 자아의 삶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레비나스는 무신론적 주체를 역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구별되는 독자적 존재, 고독하면서도 행복한 삶의 향유가 가능한 자아로 간주한다. 만일 정치와 역사의 이념에 속박된 주체라면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삶이 아닌 역사의 소명이나 정치적 진보와 혁명을 위한 희생양처럼 살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된 주체, 곧 무신론자는 그 자체로 이미 전체성과의 거리두기를 꾀하는 자이며, 전체성의 규율로 움직이지 않는 자이다. 향유와 행복의 주체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집에서의 삶, 자신의 고유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므로, 역사나 정치의 소명이나 심판 따위가 그 또는 그녀를 좌우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무신론자의 삶은 단지 그 또는 그녀 자신만의 행복 추구로 끝나지 않는다. 자기 집으로 대변되는 자기의 존재경제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무신론자인 향유의 주체는 타자의 부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일대 전환을 겪는다. 타인의 얼굴을 마주함으로써 향유의 자아는 도덕적 심판대에 서게 되고, 이에 자기 집을 열어 타인을 환대하는 환대의 주체로 거듭나길 요구받는다.

이것이 『전체성과 무한』에서 전개되는, 특히 1부에서부터 3부까지 이어지는 주체의 삶의 이야기 또는 드라마의 요약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체성과 무한』의 4부인데, 여기서 레비나스의 논지는 에로스로 전환되고, 다시금 타자보다는 주체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다. 왜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가? 우선 레비나스가 생각하는 에로스의 의미를 짚은 다음, 그러한 전환의 이유를 규명하자.

그가 에로스를 이해하는 핵심 계기는 그것이 “둘의 에고이즘”(244/404)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타자성의 철학자인 레비나스의 기본 논지를 비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일종의 에고이스트인 향유의 주체가 타인을 마주

함으로써 에고이즘의 짐을 덜어내게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타적 존재로 서게 된 주체가 에로스의 관계에서 다시 에고이즘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즉, 나는 내가 사랑하는 타인과 더불어 둘만의 세계, 윤리적 책임과는 거리가 있는 둘만의 향락에 몰입하는 관계로서의 에고이즘의 삶에 진입한다.

레비나스에게 에로스의 향락은 철저히 사적인 것이고, 둘만의 시간과 삶이다. “보편화에 근본적으로 반발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향락 속에서 수립하는 관계는 사회적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관계는 제삼자를 배제하며 내밀함에 머문다. 둘만의 고독으로 닫힌 사회로, 전형적인 비-공적 관계로 머문다. 여성적인 것, 그것은 타자다. 그것은 사회에 반발하며, 둘이 이루는 사회의... 구성원이다”(242/401-02). 에로스의 얼굴에 이끌려 나와 내가 사랑하는 타인은 자기들만의 사회, 절대 공적이지 않은 관계로 맺어진 둘만의 사회를 이룬다. 특히 에로스 안에서 “욕망되고 또한 향락적인 자유는 타자의 얼굴이 지닌 밝음 속에 있지 않고, 모호함 속에 있다”(243/403). 여기서 모호함은 다른 것들로부터 차단된 둘만의 비밀스러운 향락의 관계를 지켜준다. 아울러 모호함 속에 둘만이 그들만의 (공적이지 않은) 사회를 이룬다는 점에서 이것 역시 에고이즘이다. 다만 향유가 나의 에고이즘이었던 것인 반면, “사랑은 쾌락이고 둘의 에고이즘(*égoïsme à deux*)이다”(244/404). 즉, 나는 이기적인 나의 삶의 향유에 머무르는 자였다가 윤리적인 초월에 의해 책임의 주체, 환대의 주체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다시 에고이즘으로, 단, 나만의 에고이즘이 아니라 둘만의 에고이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타인을 만남으로써 둘의 에로스를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아이를 낳고 자손을 번식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무한한 미래의 시간의 갱신이 일어난다.

타자인 동시에 나 자신인 아이와의 관계-아이에 대한 갈망-는 이미 향락 속에서 그려지며, 아이 그 자체 속에서 성취된다(그 종말 속에서 소진되지 않고 그 만족 속에서 누그러지지 않는 욕망 *Désir*이 성취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범주 앞에 선다. 존재의 문 뒤에 있는 것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모자란 것-에로스는 이것

을 그것의 부정성에서 떼어 내고 범속화하는데-앞에 선다. 이때 초점이 되는 것은 불안의 무와는 다른 무, 즉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모자란 것의 비밀 속에 묻혀 있는 미래의 무다. (244/404)

아이를 낳는 일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일견 고귀하며, 심지어 성스러워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레비나스에 의하면, 그것은 범속한, 상대방의 몸을 탐닉하는 향락의 에로스를 거쳐야 한다. 이때 번식되는 아이는 (현존재 같은) 나 자신이 아니므로 “불안의 무와 구별되고, 무의 불안과 구별되고, 소멸과도 구별되는, 존재도 비-존재도 아닌, 아직 아님이라는 무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담겨진” 것으로서, “죽음 너머의 삶”을 내다본다.³⁾ 즉, 내가 죽더라도 나의 아이는 자기만의 미래를 열어가며, 타자의 미래는 내가 규정할 수 없는 무한의 시간으로 펼쳐진다. 물론 아이는 내가 아니고, 아이의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인 나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부모로서 아이와 더불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무한한 시간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레비나스에게 가족의 탄생, 곧 에로스에서 아이로 이어지는 사건이다. 정리하자면 에로스는 번식성으로, 곧 아이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시간적으로나 사건과 사건의 관계에서나 에로스가 없이는 아이의 탄생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와 아이로 이어지는 가족의 탄생과 확장의 시발점은 에로스에 있다. 하지만 이 에로스는 처음에는 둘만의 에고이즘이었다가 부모가 소유할 수 없는 타자인 아이를 낳는 번식성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가족은 지금 둘만의 관계를 넘어 내가 소유할 수 없는 타자의 시간, 곧 아이의 미래라는 시간을 내다보며 현재 너머로 나아가는 시간성의 특징을 함축한다.

우리가 현대의 주체로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나의 삶에만 그친다면 결국 나는 나로만 남으며, 나의 유한한 시간을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나의 집의 문을 열고 타인을 맞이하더라도, 여전히 타인과 분리된 나는, 나의 집에 머물러야 하는 나는 고독하고, 분리된 주체다. 이때 나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

3) John Llewelyn, *Emmanuel Levinas: The Genealogy of Ethics*, Routledge, 1995, p.119.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레비나스의 주요한 문제의식이다. 내가 타자인 아이와 연결될 때, 나는 아이가 열어갈 미래의 시간에 가닿는다. 그리고 여기서 에로스는 핵심 계기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에로스의 향락적 관계 없이는 아이의 탄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레비나스가 타자에게 문을 여는 이타적 삶에서 에고이즘의 관계인 에로스적 관계로 논의를 전환시킨 이유다.

3. 부성, 모성, 그리고 아이를 향한 책임

레비나스는 에로스를 통해 아이인 타자가 일어나는 사태를 우선 변식성으로 설명한다. 내가 홀로 있는 존재였다가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나는 동일자이고, 아버지의 동일성을 갖춘 동일자가 될 뿐이다. 이 동일자는 아이를 자신의 소중한 보물처럼, 심하면 자신의 분신처럼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변식성 안에서 자아는 나의 동일자에 관여된 자로 변식한 것이 아니라 나와 전적으로 다른 자로 변식된 자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나의 타자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타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일관되게 레비나스는 주체를 아버지처럼 다루고, 아이를 자기만의 자식처럼 여기는 듯이 보이지만, 그 아이가 나만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관계는 “타자가 철저히 타자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나(moi)인 타자와의 관계다. 아버지인 자신은, 소유물이 아닌 그의 것인” 아이의 “타자성과 관련하게 된다.”⁴⁾ 더 나아가 이 관련성은, 아이가 한 존재가 아니라 부와 모, 곧 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독특하다. 즉, “아들은 부모 두 사람의 존재의 변식이며, 그러므로 어느 한쪽의 단독의 존재가 아니다.”⁵⁾ 다시 말해 아이는 나의 소유물도, 나의 생물학적 유전자를 분유 받은 자도, 오직 나만의 가능성이나 나만의 자식인 것도 아니다. 이 점을 레비나스는 다음과 같이 명징하게 말한다.

4) Emmanuel Levinas, *Éthique et infini: Dialogues avec Philippe Nemo*, Fayard, 1982, p.72; 국역본: 『윤리와 무한』, 김동규 옮김, 도서출판 100, 76~77면.

5) Llewelyn, *Emmanuel Levinas*, p.119.

내 아이는 단지 내 작품이나 내 창조물이 아니다. 피그말리온처럼 내가 내 작품이 살아나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해도 그렇다. 향락 속에서 갈구된 아들은 행동에 주어지지 않으며, 능력들에 부적합한 것으로 남는다....그런데 가능한 것 저편에서, 기획투사 너머에서 아이의 미래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여성인 타인(Autru)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미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배아(존재보다 모자란 것, 모자란 존재)도 아니고, 존재 그 자체를 이루지만 미래와의 관계를 주체의 힘으로 변형시키는 하이데거의 가능성도 아니다. 내 것인 동시에 내 것이 아닌 것, 나 자신의 가능성이지만 또한 타자의, 사랑받는 이의 가능성, 이것이 나의 미래다. (245/406)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아이는 아버지인 나와 어머니인 여성의 사랑을 함께 받는 아이다. 그리고 이 둘의 미래가 바로 아이의 삶으로 빚어질 아이라는 타자가 펼칠 미래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에로스적 관계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쁨으로써 미래의 시간과 관련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아이를 가진 가족의 삶은 더 이상 자기들만의 삶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 삶은 아이와 함께 사는 삶이면서, 내가 거머쥔 수 없는 삶의 시간 안에 나를 맡기는 삶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이에게 제아무리 부모의 경험, 지식, 예견을 투영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자라지 않는다. 더 나아가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 미래의 어느 때에 자기만의 삶을 또한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인 아버지, 또 어머니와 전적으로 다른 자이다. 이런 점에서 아이는 나의 힘 또는 권력의 자장을 벗어난 자다. 번식성은 바로 나의 존재-가능(하이데거)이나 힘에의 의지(니체)와 구별해서 나의 주체성 바깥의 존재와의 초월의 관계를 성취한다.

이 초월, 곧 “아이와의 관계, 다시 말해 능력이 아닌 번식성인 타자와의 관계는 절대적 미래 또는 무한한 시간과의 관계를 수립한다”(246/407). 아이를 통해 시간은 나의 시간으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번식성 안에서 타자인 아이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고, 이 아이와의 관계는 바로 그 점에서 아이의 무한한 미래, 내가 예측하거나 손아귀에 넣을 수 없는 미래의 시간과 관계가 된다. 궁극적으로 내가 무한을 맞이하는 삶은 바로 이렇게 아이와 관련하는 가

족의 삶에서 가능해진다.

혹자는 물을 수 있다. 아이도 아이의 고유한 삶이 있을 것인데, 왜 내가 계속 아이와 연결되는가? 레비나스에게 그러한 연결은 바로 책임으로 설정되며, 이 점이 번식성 및 가족과 관련한 레비나스의 가장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다. 논의를 첨예화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묻자. 아이가 분명 나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절대적으로 다른 자로서 타자라고 한다면, 나와 아이가 맺는 관계가 어떻게 무한과의 관계로 지속될 수 있겠는가? 이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윤리, 가족으로서 아이를 떠맡아야 할 책임으로 말해진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에 대한 책임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책임이지만 아이를 소유할 권리는 없는 책임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로버트 깁스가 말한 것처럼, “아이와의 관계는 나의 삶이나 나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책임과 관련한 번식성을 나타낸다.”⁶⁾ 물론, 내가 나의 책임적 행위를 통해 아이의 삶을 떠맡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내 아이지만, 자기의 삶을 사는 아이로 남는다. 이 점에서 번식성은 나의 힘과 소유를 벗어나는 특징을 여전히 가진 채로 나의 책임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식성 안에서 형성되는 가족 관계에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말해질 수 있을까? 레비나스의 가족 이해에서 책임이 핵심에 위치한다면, 바로 그 책임, 더 정확하게는 책임으로 엮이는 가족의 의미의 요체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그 구체적 청사진을 온전히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에 우리는 리사 건터의 해석을 따르는 가운데 번식성 안에서의 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얻고자 한다.

건터는 레비나스가 비록 괄호 안에 넣기는 했지만, “번식성”을 해명하는 가운데 그가 이사야 49장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 우선 레비나스의 언급부터 보자. “내 아이는 낯선 이(이사야 49장)지만 그 아이는 단지 내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에 낯선 나

6) Robert Gibbs, “The Discontinuity of the Generations: Grandparents and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Brock University Conference on Love and the Family (St. Catharines, ON, Canada), 11.

다”(245/405-6). 나이면서 나에게 낯설다는 것은 분명 아이가 나와 나의 사랑받는 이로부터 번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낯선 자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49장을 굳이 언급한 것은 아이에 대한 나의 책임을 언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건터의 해석이다. 물론 위의 짤막한 문장에서는 그저 아이가 나에게 이방인, 곧 낯선 자라는 것만 확인될 뿐이다. 그런데 건터는 이사야 49장이 잠시 뒤에 한 번 더 언급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식은 시(poème)나 어떤 대상처럼 단지 나의 작품이나 제작물이 아니며, 내 소유물은 더욱 아니다. 능력의 범주나 앎의 범주는 나와 아이의 관계를 기술하지 못한다. 자아의 번식성은 원인도 지배도 아니다. 나는 내 아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나는 내 아이다 아버지됨은 타인이면서—“이것들을 누가 나에게 나누어주었을까? 나는 자식을 여의고 다시 낳을 수도 없는 몸이었는데”(이사야, 49장)—나이기도 한 낯선 이와 맺는 관계다. 아버지됨은 자기와 맺는 관계, 그렇지만 내가 아닌 자기와 맺는 관계다. 이 ‘나는 존재한다’ 속에서 존재는 더 이상 엘레아학파의 단일성이 아니다. 존재함 그 자체 속에 다수성과 초월이 있다. 이 초월에서 나는 스스로를 탈취하지 않는다. 자식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자식이다. 자아의 번식성, 그것은 자아의 초월 자체다. (254/421)

건터에 의하면, 이사야 49장에 대한 “이 이중의 참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탈무드의 학생으로서 레비나스는 경전을 가볍게 언급하지 않는다.”⁷⁾ 이에 그녀는 이 이사야 49장의 진술이 시온의 아이에 대한 언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체 이사야 49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조금 길더라도 이 성서 본문을 면밀히 보아야 한다.

“야훼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너 시온은 말하였지.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

7) Lisa Guenther, *The Gift of the Other: Levinas and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6, p.90.

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 하리라.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나의 눈앞에 있다.

너를 다시 일으킬 자들이 서둘러 모이니 너를 허물고 짓밟던 자들이 달아나리라.

고개를 들어 둘러보아라. 모두 너에게로 모여오고 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그들은 네 몸에 걸친 패물과 같으니 네가 신부처럼 아름다우리라.

짓밟혀 쑥밭이 되고 폐허가 되었던 땅이, 이제는 비좁아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어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모두 물러가리라.

여원 줄로 알았던 자식들이 돌아와, 이곳은 살기 좁으니 자리를 넓혀 달라고 떼쓰는 소리를 네 귀로 들으며,

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리라. ‘이것들을 누가 나에게 낳아주었을까? 나는 자식을 여의고 다시 낳을 수도 없는 몸이었는데 누가 이것들을 이렇게 키워주었을까? 나 혼자만 살아남았었는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⁸⁾

여기서 시온은 야훼의 아이를 의미한다. 처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야훼가 자신을 “여인”, 곧 어머니인 여성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즉, 레비나스에게 번식성 안에서의 타자, 아이와의 관계에서의 책임은 부성과 모성을 모두 동반하는 것이 된다. 실제 우리는 앞서 레비나스가 “아이의 미래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여성인 타인(Autru)과의 만남”(245/406)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음을 알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직접적으로 어머니됨, 곧 모성 역시 아이와의 관계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레비나스는 모성을 다음과 같이 중요하게 언급한다. 유년기의 “자식은 아직 아버지 속에서 존속하는 실존으로 실존하는 것이다. 자식은 ‘자립하지’ 못한 채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게 맡기고, 그 결과로 자신의 존재를 즐긴다. 이러한 실존 양태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부모의 실존에

8) 이사야 49: 14~21. 인용을 위해 『공동번역 성서』(한국 성서공동번역위원회 편찬, 1977; 1999)를 사용했다.

본질적으로 기대는 유년기로 생산된다. 이 의존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에 모성(maternité)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255/423).

이 역시 위에서 길게 인용한 이사야에 언급된 대목이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이사야 49:15) 아이는 처음부터 성인이 되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갓난아이에 서부터 유년기를 거쳐 점차 성장하며, 이때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기대한다. 아이의 미래에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투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미래를 잠식하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아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의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다. 이 돌봄의 핵심에 어머니의 자리가 있으며, 이때 레비나스가 말하는 책임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 곧 돌봄과 양육과 거의 유사하다. 즉, 가족 안에서 부모의 책임은 돌봄인 것이다. 이에 건터는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 구절에서 신은 자신을 자신의 자식을 잊지 못하는 양모(nursing mother)에 비유한다.…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는 신의 기억이 수유 중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기억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신의 무한한 기억은 시온의 성벽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시온의 몸을 재건한다.…이 기억은 과거를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준다.”⁹⁾

건터의 말처럼, 아이에게는 돌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까지 내다본다. 말하자면 레비나스가 언급한 이사야 구절의 의미는 신이 자신을 어머니로 간주하여 시온을 돌보는 자로 상징하며, 이 돌봄이 실은 현재적인 것을 넘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구절에서 신은 무너진 시온의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아이의 돌봄은 회복에 대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인 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이 점에서 성서의 인용은 적절하면서도 또한 우리 인간 존재와 신의 간극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므로 건터에 의하면, 우리는 신의 신실한 약속과 더불어 시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신은 시온을 재형성하고자 하는데, 이때 재형성된 시

9) Guenther, *The Gift of the Other*, p.91.

온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 구절에서 신이 전망하는 시온의 모습은 적대자들을 물리치고 단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인 줄로 알았던 자식들이 돌아와, 이 곳은 살기 좁으니 자리를 넓혀달라고 떼쓰는 소리”(이사야 49:20)가 울려 퍼지는 곳이다. 즉, 이 구절의 독특성은 시온을 돌보는 어머니처럼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것이 돌아온 자식들을 책임지는 부모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신이 회복을 약속한 시온의 땅은 자식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의 실천이 일어나야 할 땅이 되는 것이다. 즉, 한편으로 “시온에게 신은 『전체성과 무한』에서의 ‘여성적 타자’와 같은 존재가 된다. 여성인 신은 문 앞에 당도한 낯선 이들을 맞이할 능력을 주는데, 이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환대의 자원 그 이상을 베풀기를 명령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시온은…소박한 에고이즘으로 시작하지 않는다.…오히려 시온은 소유의 순간을 거치지 않고 주어짐에서 줌으로 전환한다. …시온의 회복은 동시에 친숙한 낯선 이에게로 확장된 환영이다. 여기에 거주와 환영 사이에 개입할 남성적 에고이즘의 계기는 없다.”¹⁰⁾

즉, 이사야 49장은 한편으로 신의 모성적 돌봄을 이야기하지만, 이 돌봄이 신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 시온 자신의 아이들에게 시행되어야 함을 함께 이야기한다. 신이 약속하고 전망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온의 회복이고, 이에 회복된 시온은 더는 남성적 힘의 주체가 아니라 환대의 주체성을 발현하는 부모와도 같은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레비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번식성 안에서의 아이에 대한 책임은 모성적 돌봄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것은 레비나스가 이 맥락에서 필수적으로 모성을 도입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며, 이 모성에 대한 요청이 이사야 49장에서의 모성적 환대와 돌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이 돌봄에 근거해서 아이의 미래가 열린다는 점이 건터의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이며, 우리는 이를 가족의 의미로 적용하여 레비나스에게 가족 안에서 부모의 책임이 돌봄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즉, “자아의 초월 자체”인 “자아의 번식성”은 에로스 안에서 타자인 아이를

10) Guenther, *The Gift of the Other*, p.92.

남음으로써, 가족을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이 번식성 안에서의 초월로 인해 아버지인 나, 또는 어머니인 나, 혹은 모성과 부성을 모두 함축한 내가 나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간다.

4. 정상성과 책임: 레비나스와 더불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이제 지금까지의 독해와 해석을 기반으로 삼아 레비나스의 아이에 대한 돌봄 윤리, 혹은 가족 윤리라고 해도 좋을 번식성과 모성적 책임에 대한 레비나스의 강조점이 내포한 의의와 한계를 가족이라는 범위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레비나스는 분명 『전체성과 무한』에서 가부장적이라고 할만한 여러 언급을 하는데, 이러한 가부장성은 에로스를 거쳐 나온 나의 자아가 기본적으로 아버지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가부장성은 에로스의 뒤를 잇는 번식성과 자식성의 맥락에서도 당연히 유지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비나스가 의도하는 가족에서 나의 주체성이 오롯이 남성적 주체성으로만 설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남성인 아버지에게도 모성은 필요하며, 아이를 위해서는 분명 돌봄으로서의 모성이 필요하다. 레비나스는 부단하게 남성적 힘을 비판하면서 모성적 주체성이 내 안에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며, 바로 그런 점에서 어머니됨이 아이에 대한 돌봄과 책임의 핵심 요소임을 밝혔다. 비록 레비나스에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에로스가 남성 주체의 시선에서 그려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책임의 주체가 구성원인 가족 관계에서의 돌봄에서 모성과 부성이 교차하여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이 맥락에 내재해 있다. 즉, 레비나스의 윤리를 가족 윤리로 받아들이 수 있다면, 그때 윤리적 책임의 주체는 모성과 부성을 가로지르는 다차원적인 환대의 주체가 된다.

이 점에서 레비나스의 가족 이해는, 적어도 가족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자, 부모로서 존재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나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가르침을 선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에 대한 책임이다. 아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설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 이미지를 전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부모가 가지는 일종의 실정성이나 확정성을 넘어서는 듯한 의미를 발휘한다. 많은 경우 자식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생물학적 의미를 떠올린다. 남녀의 결합을 통해 배아가 태아가 되고, 아이가 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어져 온 가족의 생물학적 성격, 부모됨의 생물학적 성격을 오롯이 보여준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가 생물학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에로스의 성적 결합을 생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레비나스에게 에로스는 생물학적인 것보다는 일종의 에로스의 에로스적 환원으로 다루어졌다.¹¹⁾ 그리고 에로스를 통해 탄생한 아이는 또 다른 나처럼 보이지만, 나의 타자라면 이 아이는 나에게서 유래하면서도 나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것 너머의 어떤 것이 제기될 여지가 생긴다.

물론, 에로스의 관계가 부모와 아이의 생물학적 관계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분명 다른 글에서 “생물학적 혈연관계 없이도 자식성을 인간 존재들 사이의 한 관계로 매우 잘 파악할 수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¹²⁾ 『전체성과 무한』에서도 앞서 인용한 것처럼, 아이를 배아에서 태아로, 또 갓난아이와 성인으로 이어지는 생물학적 목적론을 따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관계로 사유한다는 점에서, 그는 가족의 구성에서 혈연관계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넘어서려 한다. 물론 『전체성과 무한』에서 한정해서 보자면, 에로스의 성적 향락이 아이로 이어지므로, 가족 구성을 혈연 또는 혈통 관계에 근거해서 설명하려는 레비나스의 경향이 이 1961년 저술의 가족 이론에 분명하게 기입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또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런 레비나스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직 혈연이나 혈통만으로 참된 가족이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¹³⁾

11) 나는 에로스적 환원(réduction érotique)이란 말을 장-뤽 마리옹에게서 빌려왔다. Jean-Luc Marion, *Au lieu de soi: L'approche de Saint Augustin*,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8, p.88.

12) Levinas, *Éthique et infini*, p.74; 국역본: 『윤리와 무한』, 78면.

특별히 레비나스는, 앞서 보았듯이, 아이와의 관계를 말할 때 시간성, 무엇보다 미래의 시간성을 언급한다. 아이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나의 분신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한 존재로 국한된 채로 살지 않는다. 아이는 미래의 시간을 내다보며, 자라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부정적이고 모성적인 형태, 특히 이사야에 대한 그의 언급을 고려하자면 모성적인 돌봄이라는, 번식성 안에서의 돌봄으로 구체화된 책임적 주체로서의 부모로 아이와 관계를 맺는다.

즉, 레비나스에게 부모됨이란, 그리고 (아이가 포함된)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책임이다. 우리가 건터의 해석에 합류하면서 살펴본 것은 레비나스가 아이의 타자성에서 내다보는 것이 바로 이 미래라는 점이며, 이 미래는 유일무이한 자로서의 아이 스스로 열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따라 자신의 시간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단지 늙어가기만 할 뿐이 아니라 나의 아이에게서 삶의 젊음, 또는 삶의 젊어짐을 체험한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서 비롯하는 나의 변화에 관한 세바의 기술은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나는 있음의 무규정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식으로 인해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동시에 나는 이제 타자의 부름, 즉 아들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참된 의미에서 나 자신이 된다. …나의 자식의 신실하지 않음이 신실함 그 자체이고, 그 덕분에 나도 나 자신이 된다.”¹⁴⁾ 즉, 나는 단순히 내가 아니라 나의 아이를 신실하게 돌봄으로써 내가 되며, 바로 그렇게 내가 된 존재가 다른 아닌 부모로서의 나다.

그러므로 나는 순전한 에고이즘의 나로 머물 수 없다. 나는 바로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려는 돌봄을 통해 나를 더 타자에게 신실하고 충실한 자로 만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나에게 신실한 것은 아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어기기도 하고, 부모가 정한 기준에서 잘 벗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신실하지 않음은 주고받음의 상호성이 아니라 아이의 절대적 타자

13) 아울러 반복하건대,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전체성과 무한』 이후 그의 후기 철학으로 가면 가족을 혈연관계에 국한하려 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섬세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따로 더 살펴야 할 쟁점일 것이다.

14) François-David Sebbah, “Levinas: Father / Son / Mother / Daughter,” *Studia Phaenomenologica* 6 (2006), p.265.

성을 입증해주며, 나는 아이의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신실하게 아이를 돌보는 자로 미래를 맞이한다. 이렇게 나를 초월한 타자인 아이의 시간에서 나의 죽음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무한의 시간이 열리며, 이 시간은 나의 부모로서의 돌봄과 책임을 통해 열린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내가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아이는 나를 젊어지게 만든다. 나의 생물학적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얼마나 늙었더라도 아이의 시간을 통해 나는 다른 시간을 내다보게 된다. 이것은 아이를 통해 내 시간이 아닌 다른 자의 시간이 있음을, 그것이 미래로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나의 생물학적 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불연속적인 다른 시간, 타자의 시간의 미래가 나의 책임적 돌봄과 더불어 열린다는 말이다. 나를 기다리는 죽음의 불가능성은 나에게 삶의 허무를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내가 극복하거나 선취함으로써 다시 나의 가능성으로 삼아야 할 불가능성의 가능성이 아니다. 나의 삶은 죽음으로 향하더라도 나의 아이의 삶, 다른 세대의 삶을 내다본다. 나는 양육과 돌봄으로 그 세대의 삶에 이바지한다. 나의 섬김을 통해 나를 초월한 타인의 시간, 초월의 시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자, 타인인 아이, 다른 세대의 시간을 여는 것, 이것이 부모됨의 핵심이다. “번식성은 늙음을 생산하지 않고서 역사를 지속시킨다. 무한한 시간은 늙어가는 주체에게 영원한 삶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아이의 고갈될 수 없는 젊음들로 구획되어 세대들의 불연속성을 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246/408).

바로 이런 식으로 부모는 번식성 안에서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통해 선 또는 선함을 성취한다. “이 덕택에 우리는 주체의 불가피한 늙음 속에서 이뤄질 가능한 것의 단순한 갱신을 넘어설 수 있다. 타인을 위함인 초월, 얼굴에 대해 상관적인 선함은, 선함의 선함이라는 더 깊은 관계를 정초한다. 번식성을 낳는 번식성은 선함을 성취한다”(247/409). 이처럼 번식성은 선함과 관련한다. 사랑하는 이들이 만나 에로스 안에서 낳은 아이, (꼭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얻게 된) 아이의 번식성은 돌봄과 책임에서 새로운 젊음을 내다보는 것이며, 이것은 아이라는 타인에 대한 돌봄과 헌신에서 비롯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비나스에게 참된 가족이란 생물학적 유대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과 돌봄의 관계에서 비로소 성취된다.

이런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각에서 레비나스의 가족 이론에 던질 수 있는 비판적 요점이 있다. 나는 여기서 정상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우선 레비나스에게 가족 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주체는 시종일관 부모로 서술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 점에서 아이는 돌봄을 받을 대상으로만 이해되고, 부모는 아이를 돌보아야 할 책임 주체로만 상정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족 관념을 그대로 투영한 것으로서 부모는 아이를 지도하는 가운데, 아이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돌봄을 받는 아이는 지나칠 정도로 수동적인 존재자로 상정된다. 이러한 가족 구성은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전통적인데, 왜냐하면 레비나스에게 부모 또는 부모의 역할을 모두 하는 양육자와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로 이루어진 가정이 마치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적어도 『전체성과 무한』에서는—상정되기 때문이다.

보통 아이가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 우선 그리고 대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러한 아이가 너무나도 과도하게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자로 길러진다면, 부모와 아이 간의 수평적 대화의 관계는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레비나스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실제 방금 언급한 돌봄과 돌봄 받음, 더 나아가 명령과 복종의 관계처럼 이해하고 있다. “또 자식이 자신의 단일성을 아버지의 선택에 빚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양육될 수 있고 명령받을 수 있으며 복종할 수 있는 것이다”(256/424).

이런 식의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성과 정상성에 대한 천착 또는 집착은 이미 레비나스가 에로스를 강조할 때 나타나는 바이기도 하다. 그에게 아이는 언제나 에로스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반드시 남녀 간의 에로스나 심지어 동성 간의 에로스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 미혼모나 자발적 미혼부의 경우처럼, 아이를 입양하거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정자를 자신의 신체에 수용하여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 관계는 에로스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은 반드시 사랑하는 나와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간의 에로스에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설사 여기에 에로스가 작동한

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레비나스의 에로스는 아닐 것이다. 레비나스의 에로스론과 번식성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가족 현상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을 가진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가족을 통해 선함을 성취하기

오늘날 가족이나 가족 관련 법에서 우리는 여전히 윤리적 책임보다 생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부여된 ‘친권’이 부모의 권한과 아이의 지위와 관련해서,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예측적인 형태로 설정되는 사례를 많이 본다. 아무런 돌봄의 책임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라는 법적, 생물학적 권위는 유지되고, 심지어 이것이 미래 세대의, 자식의 삶을 가로막는 사례가 우리 귀에 들려온다. 혈연관계에서 비롯한 부모의 권한만이 우선시되고, 아이에 대한 책임은 도외시되는 이 현실에서 레비나스는 책임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한다. 혹자는 돌봄과 책임이 혹시라도 일으킬지 모르는 어떤 보상 심리, 부모가 아이에게 가지는 또 다른 우월성이나 자기 욕구의 투영을 지적할지 모른다. 하지만 레비나스의 윤리적 책임의 작동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가 도스토예프스키를 원용하면서 말했듯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이 앞에서 모두에 대해 죄가 있고,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죄가 많다.’ 이는 실제로 나의 것인 이런저런 죄책 때문이 아니며, 혹은 내가 범했을 잘못 때문이 아니다. 다만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응답하고, 다른 이들 안의 모든 것에 응답하고, 심지어 그들의 책임에까지 응답하는 총체적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것(le moi)에는 언제나 다른 모든 이들보다 책임이 한층 더 있다.”¹⁵⁾ 이것은 부모에 대해서도, 번식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레비나스에게 가족은 선함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며, 윤리적 책임이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를,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졌건 아니건 간에, 그러한 관계를 선함으로 성취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가족, 그 본질은 바로 책임이며, 그것은 생물학적 유대가 아니라 주체와 타자의 윤리적 관계에서 비롯한다.

15) Levinas, *Éthique et infini*, 105; 국역본: 『윤리와 무한』, 112~13.

다만 레비나스에게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일방적으로만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부모는 책임지는 자이고, 아이는 돌봄을 받는 자로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만 설정되어 있다. 즉, 레비나스의 나의 드라마에서 ‘나’는 언제나 성인 부모—그 가운데서도 일단 주로 ‘부’로 발화된 채—로만 그려지며, 아이는 주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자처럼 묘사된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성이 혈연보다는 책임의 관계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이때 구성원은 여전히 돌보는 자와 돌봄 받는 자가 수직적 관계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이와 아버지와의 관계, 또는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정해진 자리에만 놓인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우리는 정상성 범주에 대한 도전을 목도하고 있다. 에로스에서부터 남녀의 범주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고, 부와 모의 존재, 그리고 아이의 유무(有無)가 과연 가족 구성의 본질적 구조를 형성하는지, 레비나스의 가족에 대한 전제는 돌볼 수 있는 부모와 돌봄 받는 아이가 사회적으로 잘 정립된 안정성 속에 자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상 가족에 의존한 개념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질 수 있다.¹⁶⁾ 또한 레비나스는 적어도 『전체성과 무한』에서는 분명하게 남녀의 성적 관계에서 비롯하는 아이의 탄생에 주목하는데, 레비나스의 이런 식의 가족관은 바로 이런 변화하는 범주에 관한 이해 속에 재고찰될 필요가 있으며, 그가 말하는 책임적 가족 관계 역시 정상성의 한계와 함께 비판적으로 성찰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아이의 존재를 반드시 기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이를 사랑하는 사이의 성적 쾌락의 산물로만 얻는 것도 아니다.

혹자는 이러한 정상성에 입각한 비판이 지나치게 오늘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진 평가라고 할지 모른다. 분명 그렇다. 이것은 시대의 한계 속에 있는 한

16) 여기서 나는 가족의 정상성이나 정상 가족이란 말을 캐롤라인 노울스의 정의에 의존하여 사용했다. “‘정상’ 가족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위험성의 사회심리학적 병리학 사이의 균열에서 암묵적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그것은 위험성이 드러나는 기준이 되는 말해지지 않은 표준이다. …정상 가족은 위험한 가족이 아닌 것이다. 이 가족은 가난하지 않다. 이 가족은 복지의 감시 대상이 아니다. 이 가족은 한부모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Caroline Knowles, *Family Boundaries: The Invention of Normality and Dangerousnes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pp.73 ~ 74.

철학자로서의 레비나스에 대한 가혹한 비판일 수 있다. 하지만 텍스트를 오늘의 지평에서 해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며, 수용하는 독자의 삶의 자리가 해석에서 배제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의도적 배제는 오늘날 우리가 펼치는 전유와 적용의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지 못하므로, 레비나스의 입장을 오히려 더 협소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특히나 실천 철학적인 맥락에서, 바로 실천의 의미에서 보자면, 이 실천은 오늘날의 실천을 배제하고서는 옳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레비나스를 정상성 관념으로 포섭하는 것이 다소간 가혹하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그의 가족 이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해석학적 전유의 문제를 고려하자면, 정상 가족 신화와 레비나스를 연관 짓는 비판 역시 시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비평임이 틀림없다.

아울러 이런 비판적 논점에도 불구하고 남겨지는 윤리적 책임 관계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지니는 유효한 함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며 해당 논의를 갈무리하고 싶다. 정상 가족 신화에 대한 비판 이후에 도래하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의 관계에서도 책임적 관계는 남아 있지 않은가? 가족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책임은 가족 관계에서—어쩌면 언제나—필수적인 것으로 남지 않을까? 우리는 레비나스가 강조했던 가족 관계에서 책임과 돌봄의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오늘날의 맥락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유해야 하는가? 새로운 가족 형태의 도래에서 부모의 책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택의 성취는 어떤 방식으로 갱신될 것인가? 그것은 부수적인 요소인가, 필수적인 요소인가? 바로 이러한 물음들이 레비나스와 더불어 또 레비나스를 넘어 바람직한 가족의 모형에 관해 우리가 더 깊이 사유해야 할 주제들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성서공동번역위원회 편, 『공동성서 번역』. 대한성서공회, 1977; 1999.
- Critchley, Simon, *The Problem with Levinas*.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Guenther, Lisa, *The Gift of the Other: Levinas and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6.
- Irigaray, Luce, “Fecondite de la caresse, lecture de Levinas, Totalite et Infini, section IV, B, ‘Phenomenologie de l’eros.” In *Ethique de la difference sexuelle*, pp.173~199. Les Editions de Minuit, 1984.
- Irigaray, Luce, “Questions a Emmanuel Levinas: la divinite de l’amour.” *Critique* 522 (1990): pp.911~920.
- Knowles, Caroline. *Family Boundaries: The Invention of Normality and Dangerousnes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 Levinas, Emmanuel, *Éthique et infini: Dialogues avec Philippe Nemo*. Fayard, 1982. 국역본: 『윤리와 무한』, 김동규 옮김, 도서출판 100.
- Levinas, Emmanuel,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Phaenomenologica 8. Martinus Nijhoff, 1961; deuxième édition, 1965. 국역본: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옮김, 그린비, 2018.
- Llewelyn, John, *Emmanuel Levinas: The Genealogy of Ethics*. Routledge, 1995.
- Marion, Jean-Luc. *Au lieu de soi: L’approche de Saint Augustin*.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8.
- Salanski, Jean-Michel, “Horizons de Totalite et infini.” In *Le concret et l’ideal: Levinas vivant III*. pp.219~239. Klincksieck, 2015.
- Sebbah, François-David, “Levinas: Father / Son / Mother / Daughter.” *Studia Phaenomenologica* 6 (2006): pp.261~273.

| Abstract |

The Meaning of Family for Levinas

- An Interpretation of *Totality and Infinity*, Part 4, C “Fecundity” and D “Subjectivity in Eros” -

Kim, Dongkyu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family that Levinas alludes to through my own close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otality and Infinity*, Part 4, C, “Fecundity,” and Part 4, D, “Subjectivity in Eros,” and then discusses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To achieve this, I first briefly elucidate Levinas' theory of eros in *Totality and Infinity*, which serves as the trigger for the birth of the family. Next, this essay examin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 is described in the text and how each being is understood in terms of family membership. Finally, building on this exploration, the article points ou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Levinas' understanding of the family in *Totality and Infinity*. On the one hand, his understanding of family transcends the traditional view of family as simply kinship, as it is based on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because Levinas sees the roles of father, mother, and child as more or less fixed within the category of (family) normality, the article concludes that his understanding of family, at least in *Totality and Infinity*, is largely confined within the limits of the traditional notion of the normal family.

Key Words: Levinas, Ego, Responsibility, Family, Child, Father, Mother, Future, Otherness, Time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 공무원과 회사원의 비교 —

우양호**

목 차

1. 서론	4. 결과분석과 해석
2. 이론적 고찰과 개념의 논증	5. 결론 및 함의
3. 연구의 틀과 조사	

■ 국문초록

본 연구의 주제는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Work-Family Balance)’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 여성의 삶과 가족의 영역에 있어서 연구 개념의 적용과 결과의 해석에 여전히 학문적으로 비워진 부분은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일의 차원, 가족의 차원, 개인 속성으로 구분하고, 이론적으로 총 18개의 영향요인을 설정하였다. 또한 직업적 특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직장여성은 공공부문의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회사원 표본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에서 가사 분담의 수준, 일-가정 양립문화, 업무의 자율성, 가족과의 소통, 업무 스트레스, 가족과의 동거, 급여 등의 순서로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무원 표본에서는 급여, 가족과의 동거, 업무 스트레스, 가사 분담의 수준, 일-가정 양립문화, 가족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일과 가족의 균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8076112).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형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회사원 표본에서는 업무의 자율성, 직장의 규모, 업무 스트레스, 가사 분담의 수준, 가족과의 동거, 일-가정 양립문화, 미취학 자녀 등의 순서로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직업군에 따라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한 영향요인의 차이점이 드러났다. 회사원 여성은 직장의 규모, 업무의 자율성, 미취학 자녀 등이 유의했고, 공무원은 급여와 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유의했던 차이가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에 근거한 합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일과 가족 균형, 직장여성, 일, 가족, 영향요인, 공무원, 회사원

1. 서론

본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Work-Family Balance)’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꾸준히 확대되어왔고, 이제 여성이 직장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사회에서 여성이 크게 늘었다고 하지만, 남녀의 성별에 따라 일상적 삶에서 차지하는 ‘일과 가족’의 비중은 상대적 차이가 있다. 여성이 기혼자일 경우와 아이까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도 가정과 가족에 대한 돌봄노동은 종종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직장여성에 대한 일과 가족의 균형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서 크게 중요해진 주제로 평가된다. 여성의 일과 삶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늘고 있다.¹⁾

과거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을 시행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도 흔들리고 있다. 당초에 초과근로의 제한 정책은 직장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가정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초과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연차나 휴가로 보

1) 강은진·김윤희·박제용, 「한국 여성의 일·가정의 균형과 삶의 만족」, 『공공사회연구』, 12.1, 2022, 78~114면; 김요섭·여영훈, 「기혼 여성관리자의 일·삶 균형 변화」, 『여가학 연구』, 18.3, 2020, 107~125면.

상하려는 시책 변화도 이런 맥락이었다. 하지만 업무 자체가 많거나 직장의 근로 상황이 열악하면, 가족 친화적(Family-Friendly) 정책은 현장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젊은 MZ세대의 조기 퇴사와 이직률 증가도 이제 새롭지 않은 사회현상의 하나가 되었다. 직장에서도 속칭 '워라밸'이나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의 지형이 크게 바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한쪽 성별을 차지하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일과 가족의 균형'과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시의성을 갖는다. 물론 그동안 기혼여성의 일과 삶에 대한 경험과 사례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연구는 일과 가족 사이의 역할갈등이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직장 기혼여성의 삶과 가족의 영역에 있어서 연구 개념의 적용과 결과의 해석에 여전히 비워진 부분은 남아 있는 것이다.²⁾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의 요인들에 대해 이론적 논증을 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해 본다.

한국의 직장인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며, 이를 대표하는 직업은 각각 공무원과 회사원이다. 직장근로자의 대표성을 갖는 공무원과 회사원은 직업적 특성이나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일정한 차이가 난다. 특히 여성은 직업이 공무원이냐, 회사원이냐에 따라 실제로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비교하는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과 민간의 직장에서 향후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족 친화적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직업적 성공과 안정의 지향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재완·강혜진, 「워라밸과 삶의 만족 : 세대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2018, 267~291면; 홍미영, 「지방공무원의 여성관리자에 대한 차별원인과 태도 및 행태의 구조적 관계」, 『한국행정논집』, 17.4, 2005, 1207~1230면.

2. 이론적 고찰과 개념의 논증

1) 직장여성과 일-가족의 균형(Work-Family Balance)

흔히 직장인은 일상에서 공적인 ‘일(Work)의 영역’과 사적인 ‘가족(Family)의 영역’을 함께 갖고 있다. 해외에서 직장인의 ‘일과 가족의 균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루어진 연구주제이며, 많은 자료와 성과가 축적되었다.³⁾ 반면에 국내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변화된 1990년대 이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일과 삶의 가치를 측정하고 균형점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나왔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일과 가족의 균형(Work-Family Balance: 약칭 WFB)’이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우리나라 직장사회에서 가족 친화적 정책이 시작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⁴⁾

일과 가족의 균형은 직장가 가정, 일과 가족의 중첩지대에 놓여 있는 직장인이 시간과 에너지를 적절하고 균형감 있게 배분하여 삶의 주체성과 생활의 만족감을 얻는 상황을 의미한다. 바쁜 직장인이 가족의 영역에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배분하는 것이 무척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이유가 일과 가족의 균형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직장여성에게 일과 가족의 균형은 곧 ‘역할의 균형(Role Balance)’에 관한 문제로 정의된다. 일과 가족의 균형은 직장여성이 직장가 가정에서 각각 직장인, 배우자, 부모, 자식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하면서 어느 것에도 소홀하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직장영역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족 영역으로 부정적인 전이가 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핀다.⁵⁾

기혼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삼은 일과 가족의 균형 연구는 젠더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였다. 일과 가족의 균형 혹은 둘의 양립에 관한 기존 연구는

3) Greenhaus, J. H., & Allen, T. D., 『Work-Family Balance: A Review and Extension of the Literature』, 2011, pp.1-89; Jain, S., & K. Nair, S., 『Research on Work-Family Balance: A Review』, 『Business Perspectives and Research』, 2(1), 2013, pp.43~58.

4) 김선희, 「공공조직에서 여성의 일-가정 갈등 결정요인 분석」, 『행정논총』, 48.1, 2010, 171~196면.

5) Clark, S. C.,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2000, pp.747~770.

직장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일과 가족의 성별 역할,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직장의 업무와 가족의 돌봄 사이에 상충하는 갈등에서 여성은 물리적 시간의 배분과 역할 관계의 문제가 남성보다 빈번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직장여성이 일과 가족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려면, 가족의 영역 쪽에서 시간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 불가피하다.⁶⁾

직장여성은 성별과 개인의 특성, 가족의 특성에 따라 균형감을 인식하는 에너지와 시간도 다르다는 주장이 기존 연구의 쟁점이다. 기존 연구에서 가정인 직장여성은 시간이 부족하며,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으로 크게 드러나고 있다. 직장여성에게 일과 가족의 균형은 육체와 정신의 회복과 동기를 주며, 삶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은 주로 자녀 및 부모로서의 역할, 배우자로서의 역할, 기타 자기시간과 여가생활의 균형감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⁷⁾

2) 일(Work) 관련 요인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일과 직장 쪽의 상황이다. 직장은 주로 생계를 위한 일터이고, 이것은 가족의 부양과 직결되므로 일과 가족의 균형에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변인이다. 이러한 일 관련 요인(Variable of Work)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보면, 여기에서 동의하는 일 관련 요인으로서는 대략 7가지가 요약된다. 그것은 직장의 규모, 업무의 환경, 업무 스트레스, 업무의 자율성, 업무적 인간관계, 업무적 몰입도, 일과 가족 양립문화 등의 요인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들 각 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과 논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의 규모(Size)는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연구들이 밝힌 점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에 따라 일과 가

6) 우양호,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유리절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108.1, 2021, 5~38면.

7) 손영미·박정열, 「남녀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변인과 결과변인의 차이 연구 : 기혼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9.2, 2014, 161~190면.

족의 균형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에서 일과 가족의 균형이 존중받는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의 규모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므로, 일과 가족의 균형을 챙길 여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있다.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감시와 분위기에 민감하고 직장여성에 대한 일과 가족의 균형이 장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여서, 중앙정부나 규모가 큰 국가부처 공무원일수록 일과 가족 양립이 원활하다. 소규모 공공조직이나 지방행정기관의 하위 일선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렵다는 보고도 있다.⁸⁾

둘째, 업무의 환경(Condition)은 직장에서 부여받는 기본적인 근무조건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정규직 고용의 신분, 연봉이나 수당, 주당 근무시간, 교대 근무 여부, 야간근로의 정도나 횟수, 출퇴근과 유연근무 등의 사항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개인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장으로부터 당초에 약속을 받았던 제반적 사항을 의미한다. 그래서 업무의 환경이나 조건이 좋을수록 일과 가족의 균형이 촉진되는 긍정적 비례관계가 있다. 반대로 업무의 환경이나 신분 조건이 열악하면 일과 가족의 균형은 깨지거나, 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업무의 환경은 일에 관련된 기본적인 조건과 특성이므로, 가족의 영역과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⁹⁾

셋째, 업무 스트레스(Stress)는 직장과 일에서 받는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누적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일과 가족의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직장에서 받는 업무 스트레스는 단시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고, 퇴근 이후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삶의 영역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는 부정적 요소로 가족의 영역으로까지 넘어갈 개연성이 있으며, 가정에서의 정서적 불안정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세부적으로는 업무 스트레스의 인지도, 감정성, 불가피성 등의 항목으로 측정된다. 결국 이런 스트레스는 가족의 영역과 반비례적 관계인데, 업무수행에서 야기된 스트레스 증가는 일과 가족의 균형

8) Brough, P., & Kalliath, T., 「Work-Family Balance: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cement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5), 2009, pp.581~585.

9) 박진우, 「일과 삶의 균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6, 2022, 165~200면.

을 무너뜨린다.¹⁰⁾

넷째, 업무의 자율성(Autonomy)은 일과 가족의 균형과 관련한 이론에서 근래에 주목을 받는 변인이다. 업무의 자율성은 업무의 스트레스와는 반대편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업무 자율성은 직장에서 업무를 계획하고 이를 스스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량을 갖고, 그 방법과 과정을 정하는 자율성을 뜻한다.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회사의 지원과 격려도 포함된다. 업무의 자율성은 직장인에게 직업적 만족감과 효능감을 주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인식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능동적인 업무 태도와 동기유발을 자극하면서 업무의 속도와 능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긍정적 만족감도 높인다. 결국 이런 업무의 만족감은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¹¹⁾

다섯째, 업무적 인간관계는 직장인이 생각하는 업무의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일과 가족의 균형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크게 상사, 동료, 부하와의 관계로 구분된다. 이들의 유형적 혹은 무형적 지원과 지지는 일과 가족의 균형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점이 기존 이론의 공통된 맥락이다. 예컨대, 업무적 인간관계는 감정과 도구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감정의 차원은 가족의 영역에 대한 칭찬, 관심, 충고, 조언, 격려, 이해 등이며, 도구적 차원은 시간과 물리적 지원, 배려나 도움을 주는 행동 등이 있다. 특히 일과 가족의 균형이 불안정하거나 힘들 경우에 공감하고 위로나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은 직장의 상사, 동료, 부하이다. 그래서 이들과의 상호 친밀감, 공감과 환기, 비공식적 인간관계는 일과 가족의 균형과 인식에 중요한 요인이다.¹²⁾

여섯째, 업무 몰입도는 업무를 직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이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이는 개인이 업무에 대하여 생각

10) 박정열·손영미,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2016, 693~705면.

11)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2003, pp.510~531.

12) 우양호,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의 공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방정부연구』, 14.4, 2011, 61~85면.

하고 참여하는 수준이며, 업무가 삶과 일의 영역에서 만족감을 주는 정도를 뜻한다. 업무 몰입도는 일과 가족의 균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일에 대한 몰입이 가족과의 균형에는 부정적 요인이 된다는 의견과 긍정적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과 가족의 균형에 업무 몰입도가 부정적이라는 주장은 소위 워커홀릭(Workaholic), 일 중독과 같이 업무에 대한 집착과 과한 열정으로 인해 가족과 사생활의 영역이 방해받거나 침해당한다는 논리이다. 반대로 적절한 업무 몰입도는 직장인의 자부심, 자기 효능감, 근로의욕의 재생을 고취하여 일과 가족의 균형에도 확장된 만족감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¹³⁾

마지막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문화는 직장의 영역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요소로서, 문헌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요인이다. 이 개념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개인 시민으로서의 역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골고루 수행하도록 배려하는 조직의 분위기나 문화이다. 직장인에 대한 일과 가족 양립문화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정도와 분위기에는 사회별, 직장별로 차이가 있다.¹⁴⁾ 특히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을 보장하거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각종 휴가와 결근 및 조퇴 등이 가능한 분위기인지, 휴직 자리에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가 있는지 등은 일과 가족의 양립문화를 개인이 체감하는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¹⁵⁾

3) 가족(Family) 관련 요인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하나의

13) 박정열·손영미·신규리, 「기혼 직장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2016, 69~81면.

14) Clark, S. C., 「Work Cultures and Work Family Bal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2001, pp.348~365.

15) 홍미영,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보직차별의 성차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8.3, 2007, 65~87면.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 관련 요인(Variable of Family)이다. 다수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보면, 가족 관련 요인으로는 대략 7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그것은 결혼 여부, 가족과의 동거, 나와 가족의 건강, 미취학 자녀, 가사 분담의 수준, 가족과의 소통, 결혼 만족도 등이다. 이들 각 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과 논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Marriage) 여부는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기초적 요인이다. 미혼자이나 기혼자이나에 따라, 가족의 구성 여부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혼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일과 가족의 균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통상적으로 직장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일과 가족의 균형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흔하다. 기혼여성은 일이 아닌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보다 가족에게 시간과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¹⁶⁾

둘째, 가족과의 동거(cohabitation)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과 같이 지내는 가,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지를 묻는 개념이다. 배우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편하고 시간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외롭거나 일과 가족의 균형을 인식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반대로 배우자, 자녀와 동거하는 사람은 물리적 시간과 여유는 부족하지만, 동거자가 심리적 버팀목이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가족과의 동거가 가족에 대한 배려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¹⁷⁾

셋째, 나와 가족의 건강(Health)은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때의 건강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잘 유지되면, 일과 가족의 균형도 유지될 확률이 높다. 반대로 자신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서 투병 중인 환자가 있으면, 일과 가족의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직장인은 대체로 가족의 부양자 위치이기 때문에, 자신과 피부양자의 건강은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

16) 강현주, 「중년 기혼 여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경험과 의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30.1, 2024, 29~63면.

17) 허준영·권향원 「일과 삶 균형 저해요인에 관한 탐색적 이론화 연구 :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근거이론의 적용」, 『행정논총』, 54.2, 2018, 1~30면.

에 대한 기본 조건이 된다.¹⁸⁾

넷째, 미취학 자녀(Preschool Children)는 직장인이 일과 가족의 무게추를 느끼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보육이나 돌봄과 관련된 요인이며, 최근 해외 사례나 국내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현실적으로 미취학 자녀의 기준은 대략 7세 이하의 자녀이며, 학교에 가지 않는 어린이나 유아가 해당한다. 미취학 자녀는 특히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이유는 엄마의 손길과 돌봄이 크게 필요한 시절이기 때문이다. 아거나 어린 자녀를 가진 직장여성일수록 직장업무의 질과 성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도 많이 보고되어 있다.¹⁹⁾

다섯째, 가사 분담의 수준은 일과 가족의 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사노동(Household Labor)은 집에서 가족을 위해 하는 노동이다. 가사노동을 누가, 얼마나 분담하느냐의 문제는 가정의 화목과 직장생활의 질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여성의 경우에 퇴근 이후의 삶, 즉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일과 가족의 균형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직장여성의 가사 분담 시간과 그 수준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²⁰⁾ 배우자나 가족의 가사 분담 수준이 높고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직장여성이 가족의 영역에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²¹⁾

여섯째, 가족과의 소통(Communication)은 일과 가족의 균형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가족과의 삶에서 소통이 잘되면, 직장에서도 업무도 잘된다는 논리이다. 반대로 가족과의 불화 상태이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일의 영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가족과의 대화와 의사소통의 수월성은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이것은 여성의 직장생활, 사회참여에

18) Hirschi, A., Shockley, K. M., & Zacher, H.,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An Action Regulation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1), 2019, pp.150~171.

19) Brochard, D. & Letablier, M. T., 「Trade Union Involvement in Work-Family Life Balance: Lessons from Franc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1(4), 2017, pp.657~674.

20) 김지현·최영준, 「가족정책이 일·생활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6.2, 2022, 359~394면.

21) 홍미영, 「여성공무원의 '유리천장' 현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남녀공무원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3, 329~363면.

대한 가족의 지원과 지지(Support)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가족 중에서 배우자와 자녀 혹은 부모의 지지와 지원이 심리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결과에 근거한다.²²⁾

마지막으로 결혼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는 일과 가족의 균형과 연관이 있는데,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에 그렇다는 주장이 많다. 가족의 영역에서 남편과 자녀가 배우자와 엄마의 시간과 휴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만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일과 가족의 균형을 찾게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구에서 이런 점이 계속 검증되는 추세에 있다.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남편 육아휴직이나 가족 요일제 등의 도입은 직장여성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찾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²³⁾

4) 개인적(Personal) 속성 요인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 요인(Variable of Personality)에는 연령, 학력, 직급, 급여, 직업군 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들 요인은 일과 가족의 균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변인(Control Variable)이자, 개인적 특성의 주요 변인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들 각 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과 논증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연령(Age), 직장에서의 직급(Position)은 일과 가족의 균형을 바라보는 가치관 및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장인의 연령과 사회생활의 경력은 서로 비례하는 경향이 흔한데, 나이가 들고 직장경력이 쌓일수록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젊은 직장인일수록 일과 가족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연구가 많아서, 특정 연령대의 변이 가능성을 말해준다.²⁴⁾ 개인의 직급 역시 일과 가족의 균형에 있어서 중요한

22) Rahman, M. M. & Rahaman, M. S., 'Work to Family, Family to Work Conflicts and Work Family Balance as Predictors of Job Satisfaction of Malaysian Academic Community',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14(4), 2020, pp.621~642.

23) White, J. M., 'Work-Family Stage and Satisfaction with Work - Family Balanc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0(2), 1999, pp.163~175.

데, 직장에서 직급이 높아지면 일의 영역이 커지고 성과가 중요해져서 가족의 영역이 침해된다는 논리가 나와 있다. 반대로 낮은 직급에서도 상사들의 눈치나 회사 분위기를 봐야 해서, 일과 가족의 균형을 챙기기 어렵다는 결과도 있다.²⁵⁾

한편, 개인의 학력과 교육의 수준(Education)이 높을수록 일과 가족의 균형을 크게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학력자와 전문직일수록 일과 가족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생각이 강하며,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유의적으로 고려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²⁶⁾ 급여나 월수입(Monthly Income)의 경우, 직장인의 금전적 수입의 높고 낮음이 곧 일과 가족의 균형과 상관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직장인 개인의 급여가 높을수록 가정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일과 가족의 영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남성보다 직장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는 결과도 있다.²⁷⁾

직업군(Occupational Group)의 경우는 일과 가족의 균형에 중요한 통제요인으로 취급되는데, 이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크게 회사원과 공무원으로 구분한 것이다. 국내 및 해외의 공공과 민간에서 근로자의 대표성을 갖는 공무원과 회사원은 직업 특성이나 업무수행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의 직업군에서 신분이 안정적이고 공공의 봉사자인 공무원이나, 경쟁과 성과가 더 중요시되는 회사원이냐에 따라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일과 가족의 영역에 대한 직업군의 변이는 적지 않기 때문에, 직업별 분리나 분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²⁸⁾

24) Cadigan, J., 「The Impact of Family-Friendly Compensation: An Investigation of Military Personnel Policy」,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6(1), 2006, pp.3~20.

25) Grzywacz, J. G., & Carlson, D. S., 「Conceptualizing Work - Family Balance: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Research」,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9(4), 2007, pp.455~471.

26) 우양호, 「공직사회 성차별의 양가적 차원과 요인 검증 :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1, 2013, 173~202면

27) Lewis, J., 『Work-Family Balance, Gender and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2009, pp.1~70; 우양호,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양가적 성차별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의 규명」, 『행정논총』, 52.1, 2014, 271~301면.

28) 김선아·김민영·김민정·박성민, 「일과 삶 균형 정책과 정책 부합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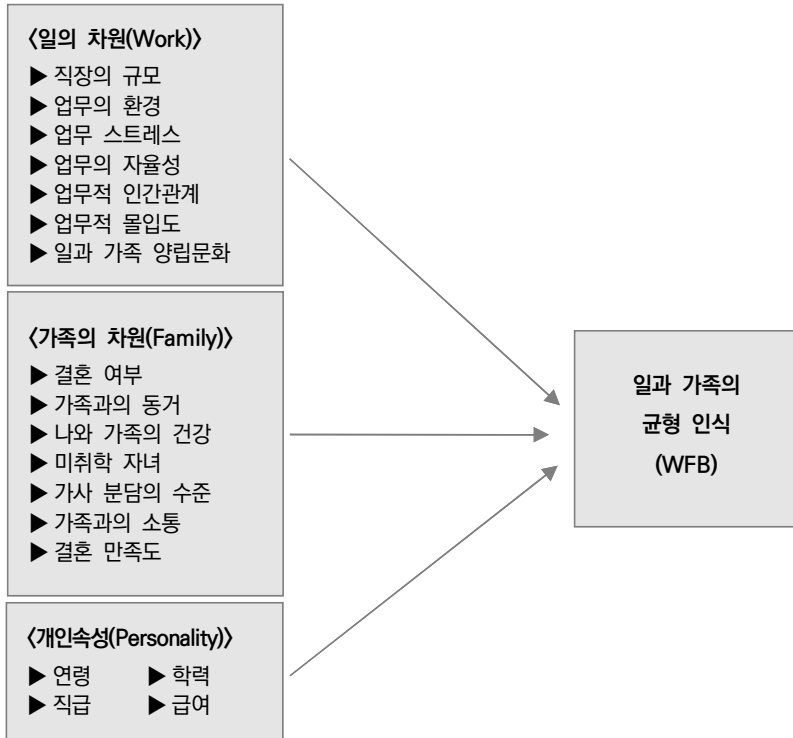
3. 연구의 틀과 조사

1) 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는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증하고, 경험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려는 목적이 있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는 기존 이론과 문헌을 토대로 일과 가족의 균형(Work-Family Balance: WFB)에 대한 개념의 조작화, 그리고 그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일의 차원(Variable of Work), 가족의 차원(Variable of Family), 개인의 차원(Variable of Personality)에서 각각의 요인을 전반적으로 논증하였다. 또한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한 변인 간의 인과성도 이론적으로 논증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연구의 틀을 구성할 차례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다룰 경험적 변인은 이론적으로 논의와 추출이 이루어진 총 19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앞선 논의에 따르면, 우선 연구의 종속변인(Dependent Variable)으로는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WFB)'이 설정되었다. 종속변인의 성격은 직장여성이 일과 가족의 관계가 균형적이라고 느끼면서, 지각하는 심리적인 개념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독립변인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런 이유로 각 변인에 대해서는 주관적 측정과 조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을 수 있었다.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Independent Variable)으로는 총 18가지가 설정되었다. 일 관련 차원에서 직장의 규모, 업무의 환경, 업무 스트레스, 업무의 자율성, 업무적 인간관계, 업무적 몰입도, 일과 가족 양립문화 등의 7가지가 설정되었다. 가족 관련 차원에서는 결혼 여부, 가족과의 동거, 나와 가족의 건강, 미취학 자녀, 가사 분담의 수준, 가족과의 소통, 결혼 만족도 등의 7가지가 설정되었다. 독립변인이자 통제된 변인의 성격으로는 개인적 속성 요인에서 연령, 학력, 직급, 급여 등의 4가지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앞선 이론적 논리와 모집단의 직업적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업군은 공무원과 회사원으로 나누어 표본 분할 및 전체 병합 방식으로 각각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런 내용이 취합된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림 1〉 연구의 틀

2) 측정과 조사설계

이론적 논증을 통해서 연구의 틀을 만든 결과, 총 3가지 차원에 분포된 18가지의 독립변인은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론적 고찰과 논증을 통해 이들 변인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부분 인식(Perception)의 문제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개념이 다수였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무척 중요해지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해외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경험적 연구일수록 측정 방식과 도구의 신뢰성은 중요한 의미를 띠며, 개별 질문이 세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적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의 균형의 측정을 앞에서 다룬 문헌연구에 기반을 두고,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절차로 문항을 제작하였다.

〈표 1〉 측정의 세부 항목과 신뢰도

변인(문항 수)	측정항목(문항 내용)	신뢰도
직장의 규모(1)	대규모 조직(=0), 중견·소조직(=1)	D.V.*
업무의 환경(3)	근무조건의 유연성, 신분계약의 합리성, 기타 처우 만족도	.9071
업무 스트레스(3)	스트레스의 인지도, 불가피성, 감정의 소진	.8766
업무의 자율성(3)	직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업무의 재량권, 지원과 격려	.8964
업무적 인간관계(3)	상사/동료/부하와 소통, 이해와 배려, 공감과 환기	.9104
업무적 몰입도(3)	업무의 자부심, 업무의 자기 효능감, 근로의욕과 적극성	.9123
일-가정 양립문화(3)	가족 가치의 배려, 대체근로, 연차/휴가/조퇴의 수월성	.8955
결혼 여부(1)	미혼/결혼하지 않음(=0), 기혼/결혼하였음(=1)	D.V.*
가족과의 동거(1)	가족들과 동거(=0), 그렇지 않음(=1)	D.V.*
나와 가족의 건강(3)	나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가족 건강	.9021
미취학 자녀(1)	미취학 자녀 없음(=0), 미취학 자녀 있음(=1)	D.V.*
가사 분담의 수준(3)	가사 분담의 수월성, 공정성, 만족감	.8852
가족과의 소통(3)	가족 대화의 횟수, 소통의 시간, 소통의 수월성	.8912
결혼 만족도(3)	배우자의 배려심, 개인적 존중감, 직장생활 이해도	.9025
연령(1)	20대(=0), 30대(=1), 40대 이상(=2)	D.V.*
학력(1)	대졸(=0), 대학원졸(=1), 고졸(=2)	D.V.*
직급(1)	대리급/7급 이하(=0), 팀장급/6급 이상(=1)	D.V.*
급여(1)	300만 미만(=0), 300~500만(=1), 500만 이상(=2)	D.V.*
일과 가족의 균형(4)	배우자 및 부모의 역할 균형,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일과 자기시간의 균형,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9749

주) D.V.*: 모조변인(Dummy Variable), 직장의 규모는 상시직원 1,000명 기준(고용노동부).

첫째, 일과 가족의 균형에 관한 척도는 주로 여가학, 사회학, 인사관리, 심리학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해외에서도 일과 가족의 균형 문제가 비교적 장기간 연구되고 있었고, 충분한 측정과 이론이 전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선행연구의 측정기준과 도구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여, 문항의 선별과 정제를 진행했다. 둘째, 국내와 해외의 일과 가족의 관련 연구 척도와 제작된 도구를 비교하고, 공통된 항목을 다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전문가의 자문회의(Advisory Meeting)를 통해서 수정 제안을 받았다.

고, 이를 반영한 예비조사 10부를 실험적으로 진행해서 응답오류의 가능성과 문항에 재수정을 진행하였다. 최종 측정을 위한 도구는 총 19개의 변인에 42개의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응답 방식은 적극 긍정(5점)과 적극 부정(1점)이 양극단으로 설정된 리커트(Likert-Type) 5점 척도로 설정했다. 이상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도구의 세부 내용과 신뢰도 검증 수치는 <표 1>과 같이 요약하였다.

조사의 설계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단위와 분석수준은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으로 정의된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 단위의 인식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집단은 우리나라 직장여성으로 하였으며, 직장의 범위는 공공부문의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회사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과 회사원의 한쪽 성별은 여성이며, 일과 가족의 균형 주제에 있어서 직장여성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적으로 공무원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소속 공무원, 민간기업은 수도권 대기업 5곳과 지방에 본사가 있는 중견기업 2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는 다수의 여성이 고르게 재직하고 있었다.

조사의 진행 과정 중에 응답오차 방지를 위해서 단순 배포식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면접조사원이 직접 응답자를 만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계약된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공무원과 회사원 각 400부씩, 총 800부의 질문지가 투입되었다. 조사 3개월 뒤에 760부로 회수된 응답지에서는 일부 결함이 보였던 9부를 제외했고, 유효 표본은 751부로 나타났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핀 결과, 공무원과 회사원으로 일하는 우리나라 직장여성을 대표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²⁹⁾

29) 유효표본(N=751)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30대 여성이 391명(51.9%), 40대 이상 여성이 253명(33.8%), 20대 여성이 108명(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은 4년제 대졸이 562명(74.8%), 대학원 졸이 115명(15.3%), 고졸이 74명(9.8%)이었다. 셋째, 직급은 팀장급/6급 이상이 281명(37.3%), 대리급/7급 이하가 470명(62.7%)로 나타났다. 넷째, 급여는 300만원 미만인 361명(48.1%), 300~500만원은 297명(39.5%), 500만원 초과는 93명(12.4%)이었다. 다섯째, 기혼여성은 468명(62.3%), 미혼여성은 283명(37.7%)으로 나타났다.

4. 결과분석과 해석

1) 자료의 타당도

연구의 주제인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은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연구 개념과 이론적 논증에 따라 조사를 했고 측정의 신뢰도가 검증되었지만, 분석개념의 타당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확보된 자료의 타당도에 관한 요인분석을 먼저 했으며, 통계적으로 추출되는 요인을 분석변인으로 삼아 충분한 타당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산출된 결과는 <표 2>에서 제시하였다.

<표 2> 변인의 항목과 타당도 검증

항목	최초	최종	GFI	AGFI	NFI	RMSR	χ^2	p
업무의 환경	3	3	0.983	0.901	0.975	0.022	7.351	0.058
업무 스트레스	3	3	0.982	0.956	0.928	0.014	6.524	0.063
업무의 자율성	3	2	0.931	0.959	0.981	0.027	6.842	0.051
업무적 인간관계	3	3	0.935	0.957	0.952	0.035	5.892	0.082
업무적 몰입도	3	3	0.931	0.939	0.956	0.047	6.426	0.069
일-가정 양립문화	3	3	0.929	0.925	0.940	0.031	6.346	0.071
나와 가족의 건강	3	3	0.985	0.957	0.973	0.028	4.527	0.089
가사 분담의 수준	3	3	0.982	0.907	0.977	0.029	8.315	0.026
가족과의 소통	3	3	0.953	0.945	0.967	0.043	6.404	0.034
결혼 만족도	3	3	0.971	0.922	0.964	0.036	5.421	0.092
일과 가족의 균형	4	4	0.934	0.948	0.021	0.940	6.755	0.069

조사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IBM SPSS Statistics ver.25.0의 확인적 요인분석이었다. 이 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달리 기존 이론과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독립변인의 속성과 측정된 문항의 자료 내용 전체를 산술적으로 요약하면서 자동으로 하위 개념을 추출해준다. 이 과정에서 자료에서 드러난 문항군집의 단일차원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등을 계량화한다. 등간비율척도 변인에 대해서는 GFI, RMSR, NFI 및 카이제곱 등으로 타당성이 판별된다. 결과적으로 문항의 유형화 정도는 각 변인에 적합하게 묶어진 것으로 보

였다. 확인된 요인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자동으로 삭제된 문항은 1개였다.

설명적 회귀분석(Explanatory Regression)에 앞서, 모든 독립변인이 상호독립성을 갖는지에 대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확인 결과에도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 모든 변인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1보다 컸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은 전부 10.0 미만을 보였다. 이렇게 확인요인분석(CFA)으로 추출된 요인들은 새로운 변인으로 재저장되었으며, 프로그램 분석이 가능하도록 처리되었다. 자료 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의 결과가 무난했던 것은 본 연구가 기존의 일과 가족의 균형 관련 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경험치를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³⁰⁾

2)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의 틀에서 제안되었던 핵심 내용을 상기하면, 독립변인으로서 일의 차원(Work), 가족의 차원(Family), 개인 속성(Personality)의 차원에 속한 각각의 변인이 종속변인으로 정의된 일과 가족의 균형(Work-Family Balance) 인식에 갖는 영향력을 직장여성의 표본으로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차원적 검증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했다.

연구의 틀과 가정에 따라서 본 연구는 3가지 차원, 총 18가지의 독립변인이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앞선 이론적 논증 결과에 따라, 직장여성의 대표성 확보와 직업적 특성 고려 차원에서 공무원, 회사원으로 나눈 표본 분할과 전체 표본의 병합 방식으로 전체 변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종합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30) 본 연구가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경험적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기존 이론이나 가설이 있을 경우에 사용한다. 즉 변수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다. 반면에 탐색적 요인분석(EFA)은 선행이론이나 가설이 불명확할 경우,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처음 파악하면서 새로운 요인과 개념으로 축약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표 3〉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표본집단 독립변인*2	공무원(N=390)		회사원(N=361)		전체(N=751)	
	b	β	b	β	b	β
(상수)	.624***	-	.586***	-	.830***	-
직장의 규모	2.741E-02	.016	.145	.191**	1.874E-02	.015
업무의 환경	6.823E-02	.082	4.138E-03	.005	7.142E-02	.080
업무 스트레스	-.121	-.165**	-.141	-.182**	-.121	-.156**
업무의 자율성	5.524E-02	.032	.162	.207***	.154	.195**
업무적 인간관계	1.187E-02	.014	7.545E-03	.006	5.470E-02	-.024
업무적 몰입도	2.531E-02	.007	7.843E-02	.028	6.752E-02	.026
일-가정 양립문화	.119	.143**	.116	.164**	.193	.231***
결혼 여부	5.485E-02	.072	6.698E-02	.091	2.621E-02	.015
가족과의 동거	.139	.192**	.128	.175**	.103	.144**
나와 가족의 건강	3.132E-02	.018	4.301E-02	-.029	5.743E-02	.031
미취학 자녀	-2.341E-02	-.024	-.127	-.126*	-4.526E-02	-.064
가사 분담의 수준	.126	.159**	.130	.181**	.197	.237***
가족과의 소통	8.172E-02	.120*	1.564E-02	.034	.405	.181**
결혼 만족도	1.711E-02	.004	4.508E-03	.009	2.504E-02	.014
연령*1	-3.662E-02	-.012	-.068	-.051	-4.622E-02	-.073
학력*1	6.173E-02	.024	.067	.083	3.199E-02	.072
직급*1	4.908E-02	.021	-.109	-.034	7.537E-02	.060
급여*1	.167	.203***	6.123E-02	.087	.129	.135*
Adjusted R2	.563		.574		.592	

주) *** $p < .001$, ** $p < .01$, * $p < .05$

*1: 앞 <표 1>의 모조변인(Dummy Variable)

*2: 다중공선성 검증 기준: 공차한계(TOL) > 0.1, 분산팽창요인(VIF) < 10.0.

전반적으로 회귀함수 모델의 설명력(Adjusted R^2)은 표본 집단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공무원 표본(N=390)에서는 모델 설명력이 56.3%, 회사원 표본(N=361)에서는 모델 설명력이 57.4%, 전체 표본(N=751)에서는 모델 설명력이 59.2%로 각각 나타났다. 세 가지 회귀모델의 전반적인 설명력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제안된 연구모델의 경험적 타당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입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일과 가족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요인을 본 연구가 체계적으로 논증하였고, 모델 구성에도 변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의한 각 회귀모델의 결과와 요인을 중심으로 개별 요인의 표준화계수(β) 및 유의확률(p)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해석을 전개할 수 있다.

첫째, 전체 표본에서 일과 가족의 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7가지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β) 및 유의확률(p)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사 분담의 수준($\beta = .237$), 일-가정 양립문화($\beta = .231$), 업무의 자율성($\beta = .195$), 가족과의 소통($\beta = .181$), 업무 스트레스($\beta = -.156$), 가족과의 동거($\beta = .144$), 급여($\beta = .135$)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전체 표본의 경우 일의 차원에서 3가지, 가족의 차원에서 3가지, 개인적 차원에서 1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공무원 표본에서 일과 가족의 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6가지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β) 및 유의확률(p)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급여($\beta = .203$), 가족과의 동거($\beta = .192$), 업무 스트레스($\beta = -.165$), 가사 분담의 수준($\beta = .159$), 일-가정 양립문화($\beta = .143$), 가족과의 소통($\beta = .120$)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일의 차원에서 2가지, 가족의 차원에서 3가지, 개인적 차원에서 1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공무원 표본에서는 급여가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영향력이 있었고, 다른 요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공무원 직장여성의 급여가 아직 민간기업에 비해서 높지 않거나 개인의 급여상승 욕구가 높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공무원 표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되었다.

셋째, 회사원 표본에서 일과 가족의 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7가지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β) 및 유의확률(p)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업무의 자율성($\beta = .207$), 직장의 규모($\beta = .191$), 업무 스트레스($\beta = -.182$), 가사 분담의 수준($\beta = .181$), 가족과의 동거($\beta = .175$), 일-가정 양립문화($\beta = .164$), 미취학 자녀($\beta = -.126$)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일의 차원에서 4가지, 가족의 차원에서 3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특히 회사원 표본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미취학 자녀 요인은 종속변인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민간기업 회사원 표본에서만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민간기업의 회사원 여성은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해서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와 미취학 자녀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사원으로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일과 가족의 균형이 깨질 상대적 위험성과 개연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경쟁과 성과가 중요한 민간기업에서 회사원 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 이런 점들은 일정한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공무원 집단과 회사원 집단의 분석 결과에는 양쪽 모두 공통의 영향력을 갖는 변인들이 발견되었다. 통계적으로 양쪽 집단에서 공통의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4가지였다. 그것은 업무 스트레스, 일-가정 양립문화, 가족과의 동거, 가사 분담의 수준이었다. 이는 직장여성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냐에 상관없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일과 가족의 균형에 있어서 중요한 공통요인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하는 여성의 직업 유형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일과 가족의 균형 유지에 있어서 일반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공무원 집단과 회사원 집단의 분석 결과에 요인별로 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준 변인도 있었다. 통계적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는 요인은 5가지였다. 그것은 직장의 규모, 업무의 자율성, 미취학 자녀, 가족과의 소통, 급여 등이었다. 직장여성이 회사원일 경우 직장의 규모, 업무의 자율성, 미취학 자녀 등이 일과 가족의 균형에 유의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직장여성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직장여성이 공무원일 경우에 가족과의 소통, 급여 수준은 일과 가족의 균형에 유의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 특히 직장여성이 회사원일 경우에 급여는 일과 가족의 균형에 유의성이 없었는데, 공무원일 경우에는 유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자신의 급여, 임금의 지급 수준이나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의 직업군에 따라 유의한 변인들의 서로 다른 차이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함의

1)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 긍정적 요인은 더 강화하고,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주요 함의와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 균형 관련 ‘연구의 지평과 시각의 확장’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양한 군집의 변인 설정을 통해 공무원과 회사원이 포함된 다수의 직장인 표본을 연구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일과 가족의 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했고, 상당히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즉 일의 차원(Work), 가족의 차원(Family), 개인 속성(Personality)에 유의적인 요인이 고루 퍼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직장여성에 대한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려는 방향이나 정책이 어느 한쪽에만 쏠리지 않아야 함을 시사했다. 즉 정부나 기업이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의 영역, 가족의 영역, 개인의 영역 모두에 걸쳐서 종합적 시각을 갖고, 제도와 정책을 폭넓게 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의 차원(Work)에서는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 균형을 위해 기존 업무 제도와 직장문화의 변화와 수정을 제안한다. 통계적 유의성으로 기준으로, 우선 직장여성에 대한 기존의 일-가족 양립제도와 문화 확산, 업무의 자율성 확대는 일과 가족 균형에 올바른 방향이었으며,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일과 가족의 균형은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또한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경쟁적이면서 성과 지향적 업무문화와 가족의 영역

이 균형점을 찾도록 회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함을 할 수 있었다. 예컨대, 직장여성의 자기 선택형 유연근무제, 자기 주도적 탄력근로 시간제, 주말·공휴일·초과근무 규제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회사는 일의 스트레스가 가족의 영역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만드는 근로환경을 제공하면서, 직장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직장여성에게 일과 가족 양립과 관련된 제도들의 질을 계속 높이는 것도 정부와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셋째, 가족의 차원(Family)에서는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 균형을 위해서 가족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읽을 수 있었다. 우선 직장여성의 가사 부담과 가족과의 동거, 가족과의 소통 등은 일과 가족 균형에 중요한 공통 요인이었다. 즉 가족이 얼마나 도와주고 배려하느냐가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취학 자녀도 민간기업 여성에게는 일정한 부담이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 균형은 가족과의 소통을 통한 가사 노동과 육아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은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이 나서서 직장여성이 육체적,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만드는 배려가 필요해 보였다. 국가적으로는 남편 출산휴가, 아빠 육아휴직, 가족 휴가, 직장 보육을 선진국 제도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도 발견했다.

넷째, 우리나라 직장여성에게는 일과 가족 균형 정책에 대한 '직업 맞춤형(Job Specific)' 모델 개발이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가 공무원과 회사원으로 직장여성을 구분하고 비교했던바, 일과 가족 균형의 영향요인에 있어서 직업적 변이(Variation)가 유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회사원 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는 직장의 규모, 업무의 자율성, 미취학 자녀 등이 중요했지만, 공무원은 그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공무원 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는 급여와 금전 문제가 유의했지만, 회사원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 우리 사회는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 균형을 위한 논의를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업군에 따라 정교한 조사와 근거자료가 수집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여성의 직업적 참여가 계속 늘고 있어,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 균형은 단시일에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담론의 문제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2) 제언과 방향

본 연구는 공무원과 회사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 균형에 대한 경험적, 다차원적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 균형 문제를 경험적으로 다루었지만, 일부 한계와 아쉬운 점도 남아 있다. 대규모 표본과 변인을 탐색한 경험적 연구였지만, 일과 가족의 균형(WFB)을 다룬 기존 국내의 연구토대가 풍부하지 못한 상태임을 느꼈다. 그래서 향후 일과 가족 균형을 다루는 주제의 보완적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일과 가족 균형, 성별 차이에 따른 비교 연구는 꼭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과 가족의 무게추에 있어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과 남성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여전히 다른 것 같다.

본 연구는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이 일하는 여성에게 더 시급한 현안이라 판단했으며, 현실적으로 결혼, 출산, 가사, 육아 부담이 남성보다 더 큰 직장여성 그룹을 우선적으로 연구했다. 또한 직장여성과 직장남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한 질적 비교 연구도 필요하며, 남녀의 다양한 경험적 사례와 자료도 계속 쌓여 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이것은 앞으로 일과 가족의 균형에 관한 연구가 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 생각된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직장사회의 일과 가족의 균형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인문·사회 분야에서 일과 가족의 균형 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은진·김윤태·박제용, 「한국 여성의 일·가정의 균형과 삶의 만족」, 『공공사회연구』, 12.1, 2022, 78~114면.
- 강현주, 「중년 기혼 여성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에 관한 경험과 의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30.1, 2024, 29~63면.
- 김선아·김민영·김민정·박성민, 「일과 삶 균형 정책과 정책 부합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7.1, 2013, 201~237면.
- 김선희, 「공공조직에서 여성의 일-가정 갈등 결정요인 분석」, 『행정논총』, 48.1, 2010, 171~196면.
- 김요섭·여영훈, 「기혼 여성관리자의 일·삶 균형 변화」, 『여가학연구』, 18.3, 2020, 197~175면.
- 김지현·최영준, 「가족정책이 일-생활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6.2, 2022, 359~394면.
- 박건우, 「일과 삶의 균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6, 2022, 165~200면.
- 박정열·손영미,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2016, 693~705면.
- 박정열·손영미·신규리, 「기혼 직장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2016, 69~81면.
- 손영미·박정열, 「남녀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변인과 결과변인의 차이 연구 : 기혼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9.2, 2014, 161~190면.
- 우양호,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유리절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108.1, 2021, 5~38면.
- _____, 「고위직 여성의 '유리절벽' 현상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태규명과 비교」, 『행정논총』, 58.1, 2020, 271~301면.
- _____,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의 공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방정부연구』, 14.4, 2011, 61~85면.
- _____, 「공직사회 성차별의 양가적 차원과 요인 검증 :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1, 2013, 173~202면.

- _____,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양가적 성차별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의 규명」, 『행정논총』, 52.1, 2014, 271~301면.
- 우양호·강성철, 「지방정부간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의 성공조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3, 2006.
- 우양호·홍미영, 「공직부처의 성별직무분리에 관한 탐색적 분석 : 단순한 차이인가? 의도적 차별인가?」, 『지방정부연구』, 22.1, 2018.
- 이재완·강혜진, 「워라벨과 삶의 만족 : 세대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2018, 267~291면.
- 허준영·권향원, 「일과 삶 균형 저해요인에 관한 탐색적 이론화 연구 :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근거이론의 적용」, 『행정논총』, 54.2, 2018, 1~30면.
- 홍미영, 「여성공무원의 ‘유리천장’ 현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남녀공무원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3, 2004, 329~363면.
- _____, 「여성관련 연구수요와 전망에 관한 델파이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2008.
- _____, 「지방공무원의 여성관리자에 대한 차별원인과 태도 및 행태의 구조적 관계」, 『한국행정논집』, 17.4, 2005, 1207~1230면.
- _____,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보직차별의 성차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8.3, 2007, 65~87면.
- Brochard, D. & Letablier, M. T., 「Trade Union Involvement in Work-Family Life Balance: Lessons from Franc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1(4), 2017, pp.657~674.
- Brough, P., & Kalliath, T., 「Work-Family Balance: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cement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5), 2009, pp.581~585.
- Cadigan, J., 「The Impact of Family-Friendly Compensation: An Investigation of Military Personnel Policy」,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6(1), 2006, pp.3~20.
- Clark, S. C., 「Work Cultures and Work Family Bal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2001, pp.348~365.
- _____, 「Work-Family Border Theory :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2000, pp.747~770.

- Greenhaus, J. H., & Allen, T. D., 『Work-Family Balance: A Review and Extension of the Literature』, 2011, pp.43~58.
-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2003, pp.510~531.
- Grzywacz, J. G., & Carlson, D. S., 「Conceptualizing Work-Family Balance: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Research」,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9(4), 2007, pp.455~471.
- Hirschi, A., Shockley, K. M., & Zacher, H.,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An Action Regulation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1), 2019, pp.150~171.
- Jain, S., & K. Nair, S., 「Research on Work-Family Balance: A Review」, 『Business Perspectives and Research』, 2(1), 2013.
- Lewis, J., 『Work-Family Balance, Gender and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2009, pp.1~70.
- Rahman, M. M. & Rahaman, M. S., 「Work to Family, Family to Work Conflicts and Work Family Balance as Predictors of Job Satisfaction of Malaysian Academic Community」,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14(4), 2020, pp.621~642
- White, J. M., 「Work-Family Stage and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0(2), 1999, pp.163~175.

| Abstract |

Influencing Factors on Women's Perception of 'Work-Family Balance' in the Workplace

- Comparis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Employees -

Woo, Yangho

The topic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working women's perception of work-family balance. There is a gap in the research and interpretation of work-family balance in the life and family issues of working women. In this regard, this study categoriz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work-family balance into work dimensions, family dimensions, and personal attributes, and theoretically established a total of 18 influencing factors. In addition, considering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representativeness, the sample of working women was divided into public sector employees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ample of women in the public sector, 1) salary, 2) living with family, 3) stress from work, 4) division of household labor, 5) family-friendly workplace culture, and 6) communication with famil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work-family balance. Second, in the sample of women in the private sector, 1) work autonomy, 2) company size, 3) stress from work, 4) division of household labor, 5) cohabitation with family, 6) family-friendly workplace culture, and 7) preschool childre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ptions of work-family balance. Third, this study revealed differences in the influencing factors on women's perceptions of work-family balance according to their occupational group.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Key Words: Work-Family Balance, Working Woman, Work, Family, Influencing Factors, Public Employees, Private Employees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방안

— 제주지역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

윤선숙·조유영 *

목 차

1. 서론	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한
2.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의	고전시가 감상 교육의 실제
이론적 고찰	4. 결론

■ 국문초록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혼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단기 체류 외국인들과 달리 한국에서 정주하며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기에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한 수업만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가질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고전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을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안해 보고자 하였다.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은 결혼이민자들이 작품 감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반응을 형성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문학 감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반응 중심 문학교육 이론 및 수업 모형을 살피고 결혼이민자 대상

* 윤선숙(제1저자), 제주시 가족센터 강사 / 조유영(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교수

문학교육 방안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응 준비-반응 형성-반응 명료화-반응 심화’의 단계로 수업 모형을 구성하였고, 단순히 작품 이해를 넘어 ‘말하기’, ‘듣기’, ‘쓰기’가 통합된 한국어교육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전시가 <가시리>를 활용한 반응 중심 문학 감상 교육 교수·학습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중가요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고, 이별의 정한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작품을 통해 확인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문학 감상 교육, 반응 중심 문학교육, 제주지역

1. 머리말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은 2023년 10월 기준 249만 명에 이른다.¹⁾ 이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혼이민자²⁾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들은 단기 체류 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에 정주(定住)하면서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필수적이다. 또한 그들이 이루는 가족공동체의 범위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삶의 터전이 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이 결혼이민자들에게는

1) 법무부 2023년 10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2023년 10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10월
총계	1,956,781	2,245,912	2,496,092

2) 본 연구에서의 ‘이민자’는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학문 목적 학습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1년 이상 장기 목적 체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이민과 통합』, 2017, 창간호 참조) 통계 월보에서는 ‘결혼이민자는 국민의 배우자로 F-2-1(국민의 배우자),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10월 통계 월보 참고) 또한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라 함은 남성 결혼이민자까지 모두 포함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여성 결혼이민자로 제한하고자 한다.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10월 기준 제주지역 등록 외국인인 24,585명이며, 이 중 결혼이민자는 3,001명에 달한다.³⁾ 또한 제주지역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 이후, 혹은 한국 내 거주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가족센터 등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입국 초기 정착을 위해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다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가정사에 의해 학습 기회가 단절되거나, 취업 등과 같은 경제적 이유로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오래된 결혼이민자라도 한국어 능력이 초급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한국어 발음 또한 화석화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한 까닭으로 제주지역 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⁴⁾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삶의 터전이 되는 한국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국내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국가간 이주를 하여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타국의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문화적 민감성과 그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정서적 태도인 문화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이 필요하다.⁵⁾

3) '등록 외국인'은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단기 체류 외국인인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수를 말하며 2023년 10월 기준 1,331,547명이다. 이중 결혼이민자(F-6)는 139,556명이다(법무부, 2023년 10월 통계 월보, 참고).

4) 현재 제주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이며,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능력시험 토픽(읽기, 듣기, 쓰기)',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그림책으로 배우는 한국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담당 강사에 의하면 여타의 한국어교육과 유사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5) 김옥순, 「한·중 예비교사들의 문화간 감수성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8(1), 한국비

즉 이러한 문화간 감수성은 타문화에 적응하고 화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⁶⁾ 따라서 한국에 정주하여 살아가야 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쉽게 발생하는 문화 충격 및 심리적 또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간 감수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고전시가를 활용한 문학 감상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은 의사소통만을 중심으로 한 언어 학습의 차원을 넘어, 기능의 통합, 다양한 소재의 융합, 그리고 상호문화주의에 의한 문화 교육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효용성이 주목받고는 있으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 활용은 대부분 읽기 수업의 교육 제재로만 활용되거나, 현행 초·중등 교육과 같이 작품의 일부만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추론해 보는 수업이 대부분이다.⁷⁾ 하지만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은 언어 교육의 도구와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감상 교육을 위한 교육 제재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⁸⁾ 또한 문학 작품 감상 교육은 외국인일지라도 문학이 담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성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내적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한국 고전문학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인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 곧 한국의 역사와 생활 및 한국인의 사고와 감정 등을 이해할 수 있고,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

교교육학회, 2008, 193~217면 참조.

- 6) 천수연,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문화교육 현황과 문화간 감수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36면.
- 7) 윤영(「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비판적 수용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 9(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3년 223~230면 참조)은 한국어교육기관의 10종 교재의 시 교육방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공교육의 작품 해석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8) 윤여탁(「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은 의사소통 교육은 물론 사회 문화교육, 한국 문학 자체 교육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조금부터 목적에 따라 교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진다. 특히 고전시가는 이에 더해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 표현, 비유, 운율 등을 통해 시문학적 사고력과 감상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결혼이민자들에게 고전시가 작품을 통한 한국어교육은 충분히 교육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시가의 교육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고전시가는 현대 한국 사회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과 시공간적 거리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현대 소설이나 현대 수필과는 달리 시어가 함축적이며 고어로 이루어져 있기에, 외국인 학습자가 작품 감상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근원적 한계를 가진다.¹⁰⁾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성인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에는 대부분 고전시가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고전시가 작품을 접할 기회 자체가 없다. 최근 들어 학계에서는 학문 목적의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진 바는 있으나,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로 한정되어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고전시가 교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¹²⁾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시가가 가진 이러한 교육적 효용성을 극대

9) 이명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문학 교수학습 모형 연구 : 시가문학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6),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3, 210면.

10) 고등학교 11종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시가 학습 활동을 분석한 오수엽의 연구(「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고전시가 단원 분석 연구」, 『어문학』 140, 한국어문학회, 2018, 21면)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고전시가 작품도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원심적 해석이나 작품 자체 번역, 혹은 내용 파악 등 분석 위주에 그치고 있어 온전한 작품 감상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하였다.

11) 현재 국내의 성인 대상 한국어 교재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1~4)』, 『세종 한국어(1~4)』에는 고전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 고전시가를 한국어교육에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양민정(「외국인을 위한 고전시가 활용의 한국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 『외국문학연구』 2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김혜진(「시집살이 노래 수용에서 공감의 양상 연구 :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26,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2010), 하윤섭(「한국문화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의 유용성 : 결혼이주여성과 <시집살이> 유형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진미나(「상호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학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대 석사학위논문, 2017), 김영(「구성적 상호텍

화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필요해 보인다.

최근 문학교육 현장에서는 독자의 반응과 감상을 중시하는 반응 중심 문학 교육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반응 중심 문학교육은 작품에 대한 분석 보다는 독자의 반응을 중요시하면서, 작품의 감상에 초점을 맞추는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후, 현재 문학 작품 감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반응 중심 교육 방법을 고전문학 교육에 접목한 여러 연구들이 있으며,¹³⁾ 한국어교육에서도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에 주목한 연구가 존재하지만,¹⁴⁾ 고전문학 특히 고전시가를 활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전시가 감상 교육과 관련하여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을 적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고전시가는 한국 문화가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 제재이다. 특히 고전소설이나 설화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형태로 되어 있고, 비유나 상징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시와는 다르게, 일상의 노래 문학으로서 그 표현적 특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외국인 대상 문학 감상 교육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고전시가 작품이 보여주는 보편적 정서와 주제는 현대 사회의 대중가요와도 정서적·내용적 유사성

스트성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감상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조홍윤(「해의 한국어문학 전공자 대상 창작 중심 시조 교육 사례 연구 :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1), XUSHIHAN(「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고려가요 <가시리>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1) 이명애(「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문학 교수학습 모형 연구 : 시가문학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6),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3) 등이 있다.

- 13) 박지원(「감상 능력 향상을 위한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9), 김명환(「반응 중심 고전소설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1), 장정순(「문학교육에서의 ‘반응 중심 학습’에 대한 이론적 재고」, 『문학교육학』 5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김덕희(「<박씨전>과 <홍계월전>의 반응 중심 교육 방안 연구」, 우석대 석사학위논문, 2017) 등이 대표적이다.

- 14) 윤영(앞의 논문, 2013), 서영애(「다문화 시를 통한 문학수업 방안 : 하종오 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4,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21), 김수연(「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시 교육 방안」,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22) 등은 반응 중심 문학 교육방법을 현대 시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출신 국가의 노래와 비교 학습을 통해 문화간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의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반응 중심 문학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모형을 고찰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어교육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방안을 특정 작품을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에 있어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고전시가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주체적인 읽기와 감상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의 이론적 고찰

1)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이론적 배경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신비평 중심의 문학 이론에 근거한 문학교육은 독자는 배제하고 작품에 내재한 다양한 형식 요소들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의미에만 중점을 두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미국 중심의 독자 반응이론(reader-response theory)¹⁵⁾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배제되었던 독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독자반응이론은 독자 개개인의 반응을 중시하면서 의미 구성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지나치게 독자를 중요시함으로 인해 주관적인 해석이 난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이론가가 로젠블랫(Rosenblatt)이라 할 수 있다.

로젠블랫의 이론에서는 독자의 반응과 텍스트 모두를 중시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로 듀이(Dewey)의 ‘거래(transaction)’ 개념을 가져왔다. 이러한 까닭

15) 독자반응이론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권혁준의 연구(『문학비평 이론의 시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신비평과 독자반응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7) 참조.

에 그녀의 이론을 ‘거래 이론’으로 지칭하기도 한다.¹⁶⁾ 또한 로젠블렛이 제시한 이론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용어는 ‘반응(response), 거래(transaction), 심미적 독서(aesthetic reading)’라 할 수 있으며, 그녀의 이론은 ‘반응 중심 학습’의 이론적 바탕이 되어 국내 문학교육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하게 된 바 있다. 한국에서도 경규진¹⁷⁾에 의해 소개된 이후 국어교육의 문학교육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에는 한국어교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¹⁸⁾

먼저 로젠블렛은 ‘반응’을 작품을 접하고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으로 이해하면서, ‘반응’이 갖는 용어의 의미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환기’라는 개념 또한 중요하게 본 바 있다. ‘환기(evocation)’는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형성의 과정으로 ‘반응’에 선행하며, ‘반응’은 텍스트와의 거래를 통해 독자 개개인의 머릿속에 ‘환기’된 의미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경규진²⁰⁾ 또한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반응은 텍스트의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고 독자의 위치를 부상시키며, 감정에 국한되지 않은 복잡한 인식 작용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로젠블렛이 제시한 ‘거래(transaction)’는 모든 독서 행위의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독자와 텍스트 간의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독자와 텍스트의 일차 거래 이후에는 독자와 독자 사이의 거래

16) 이희정(「초등학교의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9, 26면)에서는 ‘거래’ 대신 ‘교류’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경규진(「문학교육을 위한 반응 중심 접근법의 가정 및 원리」, 『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은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기도 했다. 듀이의 거래라는 용어를 수용하여 상호 간에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를 조절하거나 조절되기도 하는 관점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상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래를 교류로 변경하기도 하나, 대부분 ‘거래와 교류’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 앞의 논문, 1993.

18) 한국어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학교육 방법에 반응 중심 문학교육을 활용하고자 한 윤영의 연구(앞의 논문, 2013)가 대표적이다.

19) 정정순, 「문학교육에서의 ‘반응 중심 학습’에 대한 이론적 재고」, 『문학교육학』 5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261면 재인용.

20) 경규진, 「문학교육을 위한 반응 중심 접근법의 가정 및 원리」, 『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5면.

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같은 문학 작품을 읽더라도 독자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독자끼리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의 반응은 구체화되고 명료화된다. 즉 일차적인 독자와 문학 작품과의 거래(교류)가 독자와 독자들과의 거래(교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¹⁾

마지막으로 ‘심미적 독서’란 독서하는 동안 독자가 갖는 관심의 초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원심적 독서’가 텍스트가 가지는 정보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심미적 독서’는 자신에게 집중하여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아이디어·태도 등 의식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독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미적 독서는 스스로를 위한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을 가지려는 바람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²⁾

이처럼 로젠블렛의 이론은 독자가 가진 창의적 감상 능력을 인정하면서, 독자가 주체적으로 문학을 감상하게 하고, 문학 작품에 대한 반응과 거래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학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에서도 이러한 점은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모형

우리나라에서 처음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한 것은 경규진²³⁾이다. 이 연구에서는 로젠블렛의 이론인 ‘독자-텍스트, 독자-독자, 텍스트-텍스트의 거래’ 각각을 ‘반응의 형성 단계, 반응의 명료화 단계, 반응의 심화 단계’로 대응시켰으며, 이후 이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다 있다.

21) 이희정, 앞의 논문, 36면 재인용.

22) 경규진, 앞의 논문, 1995, 8면.

23) 경규진, 앞의 논문, 1993.

〈표 1〉 경규진(1993)의 반응 중심 문학 교수·학습 모형

단계	내용
1단계 반응의 형성	텍스트와 학생의거래 1) 작품 읽기 - 심미적 독서 자세의 격려 / 텍스트와의 거래 촉진
2단계 반응의 명료화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1) 반응의 기록 - 짝과의 반응의 교환 2) 반응에 대한 질문 - 반응을 명료히 하기 위한 탐사질문 / 거래를 입증하는 질문 - 반응의 반성적 질문 / 반응의 오류에 대한 질문 3) 반응에 대한 토의 (토의 또는 역할 놀이) - 짝과의 의견 교환 / 소그룹 토의 / 전체 토의 4) 반응의 반성적 쓰기 - 반응의 자유 쓰기(혹은 단서를 놓고 쓰기) / 자발적인 발표
3단계 반응의 심화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관계 1) 두 작품의 연결 2)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

또한 이희정의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 문학 수업에서 토의 활동에 집중한 수업 모형으로, 반응 중심 이론을 중심으로 스키마 이론, 구성주의적 관점, 토의 학습의 원리 등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였다.²⁴⁾ 이에 따라 전체 학습의 구조는 ‘계획 단계-지도 단계-평가 단계’로 이루어져 교육과정의 유기성을 갖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표 2〉 이희정(1999: 84)의 반응 중심 문학 토의 학습 모형

단계	내용
1단계 반응 형성을 위한 준비	동기 유발 및 목표 확인
	- 텍스트에 대한 동기 유발 - 텍스트에 대한 스키마 형성 - 낯선 개념 친숙하게 하기 - 목표 확인

24) 이희정, 앞의 논문, 1999, 8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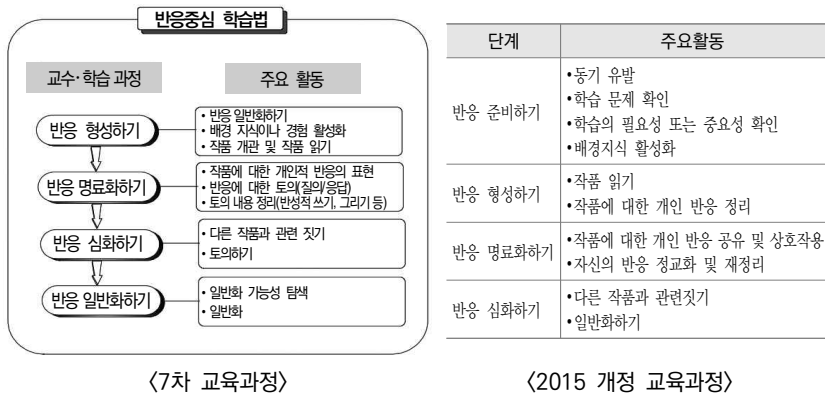
단계	내용
2단계 반응의 형성	텍스트와 학생의 교류
	- 심미적 자세로 작품 읽기 - 자신의 체험과 관련지으며 읽기 -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읽기
3단계 토의 전 개인의 반응 성찰	학생 개인의 교류 과정 성찰
	- 독서하면서의 느낌이나 생각 개인적으로 정리하기 - 반응 일지에 기록하기 - 그림으로 반응 표현하기
4단계 토의를 통한 반응의 확장 심화	교사와 학생의 교류(교사 중심 전체 토의)
	- 개인적 질문에 의한 토의 - 해석적 질문에 의한 토의 - 평가적 질문에 의한 토의
	학생과 학생의 교류(학생 중심 소집단 토의)
	- 소집단 토의 준비 및 안내 - 토의 화제 선정 및 화제에 대한 토의 -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련성 토의
5단계 토의의 정리 및 평가	토의 내용(방법)의 정리 및 평가
	- 토의 내용 정리 - 소집단별 토의 내용 발표(감상문이나 편지 쓰기) - 토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이희정의 연구에서는 3단계 전체 학습의 구조 중 ‘지도 단계’의 교수학습 모형을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반응 형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텍스트에 대한 스키마를 형성하는 등 반응 형성을 위한 준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와 함께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대상 모형에 맞게 그림 그리기나 편지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면서 활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으로 전체 수업을 마무리한다.

두 모형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심미적 읽기’와 ‘토의’다. 먼저 ‘심미적 읽기’는 독자 중심으로 작품을 읽고(거래) 창조되는 반응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반응을 심화시키고 반응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두 모형은 ‘토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토의를 통해 독자의 반응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적 전제에 근

거하여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990년대 중후반 반응 중심 문학교육에 대한 여러 수업 모형이 제시된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 당국에서도 교육과정 안에 반응 중심 문학교육을 반영한 반응 중심 문학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모형이라 할 수 있다.²⁵⁾ 이들은 위의 두 모형보다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료화하여 제시된 점이 특징이다.



먼저 <7차 교육과정>에는 ‘반응 형성하기-명료화하기-심화하기-일반화하기’ 단계로 제시되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반응 준비하기-형성하기-명료화하기-심화하기’ 단계로 제시되어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반응 준비하기’와 ‘반응 형성하기’는 <7차 교육과정>의 ‘반응 형성하기’를 세분화하여 구분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반응 형성하기’는 두 교육과정 모두 작품을 읽는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의 반응을 정리하는 단계도 포함

25) 교육과정평가원, 『초등학교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2002, 66면.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 국어 6-1』, 2019, 398면. 현재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고에서는 과거 두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만 비교하였다.

하고 있어 <7차 교육과정>의 ‘반응 명료화하기’의 내용 중 일부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반응 일반화 하기’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반응 심화하기’에 포함하여 ‘일반화’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분명하게 한 듯 보이며, 다른 작품과의 관련성 속에서 반응을 일반화시키는 과정 즉 반응의 내면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토의라는 용어 대신 ‘작품에 대한 반응 공유 및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학습자(초6)의 수준을 감안하여 토의 대신 감상의 반응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활동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과정에 제시된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모형들은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문학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던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작품을 읽고 반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문학 감상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로젠블렛의 반응 중심 문학 이론은 앞서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 초중등 국어에서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는데,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독자의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면서 문학 감상을 더 풍성하게 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과 교수·학습 모형을 문학 교육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습자의 반응만으로 수업을 온전히 이끌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며,²⁶⁾ 이러한 감상 교육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작품 선정, 교육 시간, 학습자 수준 등의 변인을 철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반응 중심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교수·학습 모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는 충분히 적용 가능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은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평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함께, 문학 작품 감상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한국 문학 작품을 읽기 수업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현재 한국어교육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문학 작품 감상 교육

26) 입시 위주의 수업 방식과 평가를 마냥 배제할 수 없는 공교육의 현실적 문제 또한 크다.

을 실천하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으로 반응 중심 문학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의 실제

1) 고전시가를 활용한 문학 감상 교육 적용 대상 및 작품 선정

결혼이민자는 가족은 물론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들을 떠나온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 등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 또한 가지고 있는 이们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입국 초기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다 임신과 출산, 육아, 취업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놓친 경우도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고전시가를 활용한 반응 중심 문학 감상 교육은 한국 거주 기간 2년 이상이며 한국어 능력 중급 이상을 갖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²⁷⁾ 이들은 반응 중심 교육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주 이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문화간 감수성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응 중심 문학 감상 교육은 다양한 배경의 결혼이민자들이 특정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고 공유하면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들 중 다수는 국민의 배우자로, 부모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겪은 감정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함께 안고 살아가기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반응 중심 문학 감상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 문화

27) 본고의 주저자는 제주지역에서 10년 넘게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를 진행한 바 있고 이를 통해 국적 취득 이후 혹은 거주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한국어 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다수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으로 특히 제주지역에서 제주 방언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해와 함께, 정서 순화와 인성 교육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반응 중심 문학 감상 교육은 학습자의 작품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작품 안에 있는 보편적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깨달아 내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관점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고전시가 작품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²⁸⁾에서 제시한 ‘한국 문학 정전 목록’의 고전시가 작품들 중 <가시리>를 결혼이민자 대상 반응 중심 문학 감상 교육 제재로 선정하고자 한다. 고려가요 <가시리>는 2015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재 11종 중 6종에 수록되어 있을 만큼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작품이다.²⁹⁾ 또한 대중가요와 같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어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작품이다.³⁰⁾ <가시리>에는 이별한 임을 그리며 기다리는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데, 떠나는 임에게 다시 오라는 말을 놓치지 않고 호소하는 적극적인 여성 화자로 읽어낼 수는 있는 측면이 있다.³¹⁾

<가시리>는 총 4연으로 이루어진 연장체(聯章體) 시가로서, 각 연은 2행으로 이루어지며, 각 연의 끝에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후렴구³²⁾가 존재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당대 기층민들에 의해 불려지던 민요가 고려 궁중에 유입되면서 송도성(頌禱性)을 드러내는 후렴구가 추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궁중악으로서의 성격을 배제하고 노래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전형적인 이별의 노래로 이해된다. 작품의 1연과 2연에서 화자는 떠나가는 임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3연에서는 임을 보내지 않고 잡아 두고 싶지만 ‘선후면(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화자의 심적 변화가 나

28) 윤여탁 외,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정전 목록 선정 연구 : 한국, 미국, 중국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29) 오수엽,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실행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20, 326~329면.

30) XUSHIHAN,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고려가요 <가시리>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1.

31) 엄은열,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192면.

32) 위 중즐가 太平盛代대평성덕

타난다. 그리고 마지막 4연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눈/가시는 듯 도서 오소서 나눈’에서는 ‘듯’이라는 표현이 갖는 절묘함과 애매함에 기대어 임의 회향을 바라는 화자의 적극적 호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가시리>의 화자가 보여주는 이별에 대한 태도와 정서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에 나타나는 이별을 단순히 임과의 이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과의 열린 이별로 해석한다면 결혼이민자들의 여러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결혼이민자 대상 반응 중심 문학 감상 교육의 교육 제재로 적절하다. 이처럼 고려가요 <가시리>는 결혼이민자들이 고향을 떠나오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이별의 경험과 정서를 환기하게 하고, 나아가 한국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 대상 반응 중심 문학 교육을 위한 교육 제재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 및 실제

본 절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읽기, 말하기, 쓰기를 통합한 반응 중심 문학 감상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활용한 문학교육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히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 생각된다. 또한 학습자는 미성년 학생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이므로 작품에 대한 반응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결혼이민자 대상 문학 수업에서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은 매우 적절한 수업 모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시리>의 원문은 정보 차원에서 제시하되, 현대역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이 작품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작품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과 이를 통한 깊이 있는 감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구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결혼이민자들이 반응을 공유하고 공감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반응을 내면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도 낯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고전문학을 배우는 것은 고되고 지루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언어적 한계와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수업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좀 더 명료화된 수업 모형이 적합할 것이며, 작품을 통한 반응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는 모형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본 구조는 ‘반응 준비-반응 형성-반응 명료화-반응 심화’의 단계로 세부 내용을 재구성하며, 각 단계별 세부 활동도 간략하면서 핵심적인 활동으로 구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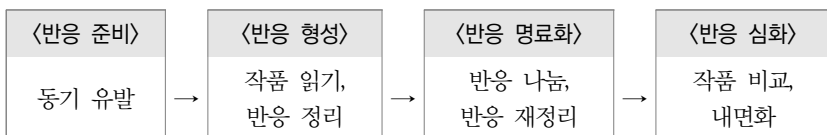
먼저 ‘반응 준비 단계’는 작품을 접하기 전이므로 동기 유발 차원의 활동으로, 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반응을 준비시키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관련 노래나 영상 등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여 배우게 될 작품(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제를 의식하며 작품을 읽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동기 유발 자체가 첫 반응일 수 있으나, 본격적인 작품 감상을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 간단히 구성한다. 그리고 본 수업의 목표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반응 형성 단계’는 앞선 준비 단계에서 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본격적으로 읽는 과정이다. 고전시가라는 갈래의 특성상 이민자들이 작품을 원전 그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해석본을 중심으로 읽게 하여 첫 반응을 나누게 하고, 이때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여 학습자 자신이 작품과 직접 만나 느끼는 반응(느낌)이 어떤지를 이야기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추측해 보게 한다. 이후 교사는 원심적 읽기의 과정을 도입하여 작품의 배경과 어휘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 줌으로써 작품에 대한 학생들이 갖는 반응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작품을 읽으며 자신의 반응을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반응 명료화 단계’는 작품을 읽고 난 뒤 정리한 반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단계이다. 이때 단순히 개인의 반응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교사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반응을 기록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제공해 준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그룹에 나온 반응의 공통점 및 특이한 반응 등을 기록하게 한다. 이는 수동적인 듣기에서 능동적인 듣기 과정에 해당하며 이로써 반응이 개인적 느낌에서 확장된 그룹의 반응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반응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며, 반응을 명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반응 심화 단계’는 작품을 읽고 자신만의 반응을 내면화하는 단계로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반응을 확장하는 단계이다. 반응을 나누고 객관화하는 과정을 통해 처음 반응과 비교하여 자신의 반응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교사는 비슷한 주제의 다른 작품을 소개하여 비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반응을 심화하고 점차 내면화하게 된다. 또한 이민자 모국의 비슷한 주제를 가진 다양한 작품(시, 노래, 영화 등)을 조사하여 비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문화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면화된 반응을 만화 그리기, 편지쓰기, 역할극, 내용 각색하기 등의 창조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 과제로 제시하거나 그룹 과제로 제시하고 이후 전체 발표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반응을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쓰기·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결혼이민자 대상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모형은 고전시가 외에도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대상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결혼이민자 대상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

다음으로 본 절에서는 제주지역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가시리> 작품을 활용한 반응 중심 교수·학습의 실재를 제시하고자 하며, 앞에서 제시한 ‘반응 준비-반응 형성-반응 명료화-반응 심화’의 단계에 맞춰 구성할 것이다.

먼저, 반응 준비 단계에서는 제주 방언이 혼합된 노래로 알려진 <감수광(1977)>을 들려준다. <감수광>은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소재로 하였으며, 원 노래가 수록된 당시 앨범에 <감수광(제주도 가시리 노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³³⁾ 또한 제주 방언 ‘감수광’과 ‘가시리’가 가지는 어휘적 유사성

33) 1977년 히트레코드사에서 발매된 ‘혜은이 VOL.5’ 앨범의 뒷면에는 <감수광>의 가사가

은 이 노래의 창작에 고려가요 <가시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이 노래는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들의 수업에 대한 동기 유발과 <가시리>를 통해 이별의 정서를 공유하게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³⁴⁾

아래 <표 3>은 <감수광> 가사의 일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가시리> 전문이다.

〈표 3〉 〈감수광〉 가사와 〈가시리〉 원문

감수광 ³⁵⁾	가시리 ³⁶⁾
바람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많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도 많지요 감수광 감수광 나 어명허렌 감수광 설론사람 보냄시메 가거들랑 혼저 읍서에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줄가 太平盛代(대평성덕)
겨울오는 한라산에 눈이 덮혀도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봄이 한창이라오 감수광 감수광 나 어명허렌 감수광 설론사람 보냄시메 가거들랑 혼저 읍서에	날리는 엇디 살라 흐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줄가 太平盛代(대평성덕)
어쩌다가 나를 두고 떠난다 해도 못 잊어 그리우면 혼저 돌아읍서에 감수광 감수광 나 어명허렌 감수광 설론사람 보냄시메 가거들랑 혼저 읍서에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히면 아니 올세라 위 증줄가 太平盛代(대평성덕)
	설은 님 보내읍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줄가 太平盛代(대평성덕)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제목에는 ‘감수광(제주도가시리노래)’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본고에서 설정한 학습 대상이 제주지역 결혼이민자이므로 제주 방언을 접목한 노래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제주지역 방언 노래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노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시리>를 모티브로 한 대중가요 중 SG워너비의 ‘가시리(2007)’나 버블 시스터즈의 ‘가시리(2010)’ 정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35) <감수광>(노래 해은이, 작사 작곡 김옥윤, 히트레코드사, 1977) 가사는 현재 제주 방언 표기에 맞게 최소한으로 수정하였다.

반응 준비 단계에서는 교사는 <감수광>이 제주 방언으로 된 노래이며, <가시리>와 같이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임을 인식시켜 준 다음, 함께 노래를 듣고 이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단, 너무 방언 자체 설명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래의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반응 형성 단계에서는 <가시리>의 원문을 보여주고 교사가 읽어준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해석본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작품에 집중하여 반응 즉 작품을 통해 느낀 점을 중심으로 활동지에 적고 이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에는 교사가 작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학습자들이 자신의 처음 반응과 <가시리>의 주제를 연결하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가시리>와 <감수광>에서 이별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내용을 비교하여 화자의 정서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는 심미적 독서와 원심적 독서를 혼합하여 서로 보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시리>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이해하며, 개인의 반응이 주제와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 명료화 단계는 다른 학습자들과 반응을 나누는 단계로 자신의 반응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확인한다. 이때 교사는 질문지를 나눠주고 반응을 나누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학습자들이 반응을 명료화하도록 지도한다. <가시리>의 배경이나 화자의 기분, 작품으로 읽고 느낀 나의 반응을 중심으로 활동지에 쓴 뒤, 서로 질문하고 반응을 공유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반응이 확장되고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이별 경험을 나누며 그때의 심정에 대해 이야기해 봄으로써 <가시리> 작품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반응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반응 심화 단계에서는 고전시가 중 이별을 주제로 한 다른 작품을 소개해 준다. 예를 들면 조선 전기 기녀시조이며,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황진이의 <어저 내 일이야>³⁷⁾의 번역본을 보여주고 <가시리>와 비교해

36) 박영목 외, 『고등학교 국어』, 천재교육, 2018, 242면 인용.

37) 서철원 『고전시가수업』, 지식의 날개, 2022, 171~172면 재인용.

어저 내 일이어 그릴 쫓을 모르든가
이시라 흐드면 가라마는 제 구뜬여

보게 한다. <어저 내 일이야>는 우선 내용이 짧고 <가시리>처럼 이별의 아쉬움과 후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 결혼이민자들의 반응을 심화하는데 적합한 작품이라 판단된다. 이때에도 교사는 작품 해석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간단하게 <가시리>와의 유사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활동 이후에는 <가시리>와 내용적·주제적으로 유사한 결혼이민자들의 모국 작품(시, 노래, 영화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들이 검색을 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며, 이후에는 소그룹이나 전체 앞에서 작품을 소개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혼이민자들이 발표를 통해 이별을 주제로 한 타 문화권의 작품들을 알게 됨으로써 이별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하기 경험은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시리> 감상을 통한 반응을 학생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나만의 이별시 만들기’를 과제로 제시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한다. 학생들은 이별시 창작 과정을 통해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반응을 내면화하고 감정을 순화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반응 중심 문학 작품 감상 수업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고전시가의 대표적 작품을 배우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며, 결혼이민자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이별에 대한 정서 순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가시리>를 교육 제재로 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시 수업(50분)을 기본으로 하되 심화 단계에서의 조사 및 발표를 고려하여 2차시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가시리〉를 활용한 반응 중심 감상 교육 교수·학습안

단계(시간)	교수·학습 내용	유의점
반응 준비하기 (5분)	■ ‘감수광’ 노래 듣기 • 노래를 들려주고 어떤 주제인지 질문한다. • 노래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노래를 들은 후 느낌을 나눈다. ■ 학습 목표 제시 • 감수광과 관련하여 배우게 될 내용을 소개한다.	• 노래 감상이 목적이 아니므로 동기 유발에 초점을 맞춘다.
반응 형성하기 (15분)	■ <가시리> 원문을 제시 • 교사가 원문을 한 번 읽어준다. • 처음 듣고 어떤 내용인지 질문한다. ■ <가시리> 번역본 읽기 • 번역본을 PPT로 제시하고 자료도 나눠주고 소리 내어 읽어보게 한다. • 읽으면서 학습자들이 작품에 집중하도록 한다. • 작품에 대한 학습자들의 느낌에 대해 질문한다. ■ <가시리> 어휘 및 내용 설명 • 작품에 나온 새로운 어휘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처음 반응과 비교하기 • 설명을 듣고 난 뒤 처음 반응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반응의 변화나 심화된 정도가 어떤지 질문한다.	• 획일적인 지식 전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반응 명료화하기 (20분)	■ 소그룹 나누기 •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 교사가 준비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가시리>를 읽은 후 느낌과 질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다. ■ 반응 재정리 •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들은 후 자신의 반응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먼저 질문지를 나눠주고 개인적으로 정리하도록 한 후 소그룹으로 나눔.
반응 심화하기 (10분)	■ 작품 비교 • 이별을 주제로 한 고전시가 작품 중 <어저 내일이야>의 번역본을 보여주고 <가시리>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게 한다. ■ 일반화하기 • 자신의 나라에 <가시리>와 비슷한 시, 영화, 노래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정리한다. • 소그룹이나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한다.	• 작품 비교가 목적이므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공통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게 한다. • 조사 시간에 따라 과제로 제시하여 2차시 수업으로 진행함.
과제	■ 나만의 이별 시 쓰기 • 이별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시 쓰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다음 시간에 시 낭송회 시간을 갖는다.	• 또는 자신의 시를 전시하는 시화전으로 확장할 수 있음.

4. 결론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에 정주해 살아가는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교육 수업을 받더라도 한국의 고전문학 작품을 접할 기회는 매우 적다. 고전시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현행 한국어교육에 쓰이는 교재 대부분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결혼이민자들이 문학 작품 감상을 통해 정서적 함양과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가질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고전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방안을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구안해 보고자 하였다.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은 결혼이민자들이 작품 감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반응을 형성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문학 감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반응 중심 문학교육 이론 및 수업 모형을 살피고, 결혼이민자 대상 문학교육 방안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반응 준비-반응 형성-반응 명료화-반응 심화’의 단계로 각 단계별 핵심 활동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말하기, 듣기, 쓰기가 통합된 활동으로 작품 이해를 넘어 통합적인 한국어교육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전시가 <가시리>를 활용한 반응 중심 문학 감상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중가요를 접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별의 정한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작품을 통해 확인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 순화와 인성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수업 방안을 통해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고전시가 작품을 한국어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한 수업 방안은 제주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적 특징을 살려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감상 교육에 적용할

만하다. 다만 실제 수업으로 진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 방안의 효과를 검증해 보지 못한 한계는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경규진, 「문학교육을 위한 반응 중심 접근법의 가정 및 원리」, 『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1~23면.
- _____,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 공미선, 「공감적 이해를 위한 고전시가의 교수·학습 방안」, 경원대 석사학위논문, 2010.
-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 국어 6-1』, 미래엔, 2019.
- 권혁준, 「문학비평 이론의 시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신비평과 독자반응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7.
- 김기완 외, 『고전문학의 향유와 교육』, 역락, 2021.
- 김덕희, 「<박씨전>과 <홍계월전>의 반응 중심 교육 방안 연구」, 우석대 석사학위논문, 2017.
- 김명환, 「반응 중심 고전소설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수연,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시 교육 방안」,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22.
- 김 영, 「구성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감상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 김옥순, 「한·중 예비교사들의 문화간 감수성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2008, 193~217면.
- 김종철 외, 『키워드로 열어보는 고전문학 교육』 박이정, 2022.
- 김혜진, 「시집살이 노래 수용에서 공감의 양상 연구 :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26,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2010, 145~176면.
- 류수열, 「고전시가 독서의 재미 요소 탐구 : 시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교육』 2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5~29면.
- 문혜진, 「고전문학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09.
- 박경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문학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연구』 1,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4, 35~56면.
- 박광옥 외,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의 시조 교육 효과 연구 :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한 실험수업을 중심으로」, 『제11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237~250면.
- 박영목 외, 『고등학교 국어』, 천재교육, 2018.

- 박지원, 「감상 능력 향상을 위한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9.
- 법무부, 「5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23.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7/578968/artclView.do>
- 서영애, 「다문화 시를 통한 문학수업 방안 : 하종오 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4,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21, 95~113면.
- 서철원, 『고전시가 수업』, 지식의 날개, 2022.
- 신주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고전시가 활용의 한국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 『외국문학연구』 2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237~261면.
- 염은열 외,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오수엽,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고전시가 단원 분석 연구」, 『어문학』 140, 한국어문학회, 2018, 321~347면.
- _____,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실행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20.
- 윤여탁,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31~152면.
- 윤여탁 외,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정전 목록 선정 연구-한국, 미국, 중국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359~388면.
- 윤 영,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비판적 수용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 9(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3, 215~243면.
- 이루리, 「고려속요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0.
- 이명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문학 교수학습 모형 연구 : 시가문학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6),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3, 209~232면.
- 이지호, 「문학교육에서의 ‘이해’와 ‘감상’의 문제」,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57, 한국어교육학회, 1996, 23~41면.
- 이희정, 「초등학교의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전두리, 「낭독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법 모색」, 『새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569~590면.

- 정구향, 「초등학교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 정홍순, 「문학교육에서의 ‘반응 중심 학습’에 대한 이론적 재고」, 『문학교육학』 5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253~279면.
- 조하연, 「고전시가 평설에 나타난 감상의 즐거움」,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61~192면.
- _____, 「문학 감상 교육 연구-고려속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 조홍윤, 「해외 한국어문학 전공자 대상 창작 중심 시조 교육 사례 연구-터키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1, 85~110면.
- 조희정, 「고전시가 감상 국면의 재미 흥미 의미 : <백설이 죽자진 끝에>의 감정이입과 공감 체험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5~43면.
- _____, 「고전시가 교육에서 학습자의 정서와 비평-정서 비평을 제안하며」, 『고전문학과 교육』 2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5~38면.
- 진미나, 「상호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학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대 석사학위논문, 2017.
- 천수연,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문화교육 현황과 문화간 감수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35~49면.
- 하윤섭,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의 유용성 : 결혼이주여성과 <시집살이> 유형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41~65면.
- 한창훈, 『시가와 시가 교육의 탐구 II』, 월인, 2008.
- 황민경,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한 희곡 지도 방안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5.
- XUSHIHAN,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고려가요 <가시리>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1.

| Abstract |

The Educational Plan for Appreciating Classical Poetry Using Response-Based Literary Education Methods

- Targeting Marriage Immigrants in the Jeju Area -

Yoon, Seonsook · Jo, Yuyoung

Many of the foreigners currently residing in Korea are marriage immigrants. Unlike short-term foreign residents, these individuals must live as members of family communities in Korea. Therefore, not only basic Korean language skills but also an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re essential. However, the curr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s is primarily focused on improving basic communication skills. Therefore, it is now necessary to consider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various literary works, including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this paper, a detailed plan was developed for using a response-based literary education method to teach classical poetry appreciation to marriage immigrants in the Jeju area. The response-based literary education method allows marriage immigra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ppreciation of works, enabling them to form and deepen their responses, thereby constituting an effective literary appreciation education. This paper examines response-based literary education theories and teaching models, and aims to reconfigure them as a method of literary education tailored for marriage immigrants. In this paper, a specific teaching and learning plan for response-based literary appreciation using the classical poem <Gasiri> was presented, targeting marriage immigrants in the Jeju area.

Key Words: Marriage immigrant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ponse-Based Literary Education, Jeju area

노인 돌봄의 특징과 현실, 정책의 전환*

— 지역공동체 디지털 돌봄을 위하여 —

정숙정**

목 차

1. 머리말	4. 노인 돌봄의 대안적 모색
2. 노인 돌봄의 특징과 현실	5. 맺음말
3. 노인 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전환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노인 돌봄의 구조적 특징과 현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한국은 2050년 인구의 25%가 고령 인구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디지털 헬스의 도입과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높은 노인 사망률과 노인 부양 문제와 직결되는 ‘노인 돌봄’에 대하여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노인 돌봄은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가족 돌봄과 시설 돌봄 형태가 있다. 전자는 장자 돌봄을 원칙하에 비용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족관계의 갈등 요인이 되더라도 가족이 돌보는 것이고, 후자는 가족 내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몸 상태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정 상태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돌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 돌봄은 몇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가족 돌봄을 받는 노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둘째, 장기간 시설에서 돌봄 생활을 하는 노인의 경우 우울감을 높이고 셋째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고려했으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유는 커뮤니

* 이 논문은 한양대 미래사회연구소의 인문학 일자리 창출 발표구상을 보완한 것임.

** 사회복지법인 해냄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터 개념과 영역에 대한 혼선과 모호성에 기인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 돌봄의 새로운 지역공동체 디지털 돌봄 모델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공동체 정서를 기반으로 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의 주체를 분명하게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의 스마트 돌봄으로, 청년과 여성, 건강한 노인이 함께 하여 Ai 돌봄 일자리 체계를 통해 돌봄을 실행함으로써 노인 돌봄이 세대통합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주제어 : 노인 돌봄, 가족돌봄, 시설돌봄, 지역공동체 디지털 돌봄 모델, 스마트 돌봄, Ai 돌봄 일자리

1. 머리말

한국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2050년에 인구의 25%가 노인 인구가 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없다. 노인 돌봄은 부모의 부양에 관한 것으로 사회학적으로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인구관리의 문제이지만, 정책적으로는 노인 복지를 위한 돌봄실행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노인을 돌보고 동시에 돌봄을 받으면서 노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생을 마감해 갈 것인가 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인 돌봄에 대한 이해는 노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과 성찰을 동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되는 정책은 보다 다각적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대안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노인 돌봄을 민간의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다.¹⁾ 이렇게 장기 요양 서비스로 확대된 노인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국가의 재정에 의존하면서 수익을 내며 확대되는 구조적 특징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현실적으로 노인 돌봄의 질²⁾을 개선하는 데에 적지 않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1)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 5,384개 가운데, 민간기관은 2만 5,140개소고, 국, 공립기관은 244개소로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함. 최성은, 2022, 27면 참조

노인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돌봄 행위의 가치와 윤리가 요양 서비스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노인 돌봄은 관심과 애정을 동반해야 윤리적 행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급여의 저렴한 본인 부담금 비용으로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되어 노인 돌봄 행위에서 관심과 애정이라는 돌봄의 윤리와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노인 돌봄의 가능 여부가 요양 보호사의 수급정도에 좌우되는 아이러니한 돌봄 공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생각하면, 노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실행체제와 장기요양 서비스의 구조와 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라는 팬 데믹의 확산으로 인해 시설 돌봄이 이루어지는 요양병원에서 수많은 노인이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과연 윤리적이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시설 돌봄의 현실적인 운영문제, 제도의 문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대우상황, 노인 구타와 방치 등과 같은 노인 인권 문제의 심각성 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는 새로운 사회계층으로서 “노인 세대”의 부상을 예고한다. 이들 노인 세대의 부상은 노인 돌봄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체계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핵심문제임을 부각시키며, 성찰과 정책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노인 돌봄에 대하여 노인 세대에게는 부양의무를 가진 자녀들로부터 자립할 것인가, 의존할 것인가 문제를, 자녀들에게는 어디까지 어떻게 부모를 부양해야 할 것인지 부양의무의 제한과 한계를, 사회적 돌봄으로 대체한다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정책적 쟁점과 결정을 노인 부양을 둘러싼 내재적인 갈등과 함께 대두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돌봄을 단순히 수혜자와 제공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돌봄을 둘러싼 사회체제와 관계 안에서 인간과 노인의 삶에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문제의 식으로 삼고, 현재 노인 돌봄의 특성과 현실을 진단하여 보다 바람직한 노인 돌봄을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노인 돌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의 가능성으로 전제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노인 돌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노인 돌봄의 특성과 현실

1) 노인 돌봄의 변화와 특성

김혜경(2019)은 노인 돌봄에 대하여 2000년대 이전까지 가족 돌봄은 머느리 돌봄이 주를 이루어 노인들의 “부담(burden)”이 문제의식으로 나타났던 것이 특징인 반면에 2000년대 이후에는 노인의 의존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독립적이어야 하는지 등의 노인의 의존과 독립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라 한다.³⁾

즉 노인 돌봄에서 주로 노인이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맞는지를 논의하였고, 돌봄 현실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점차 독립적인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면서 노인의 독립적인 삶과 노인 돌봄에 대하여 전통적인 자율성 개념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존의 정상성’을 강조하면서 독립과 의존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존의 정상성”이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노인을 돌보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규범 진리로 부합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육아를 하는 것처럼 노인도 늙으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 의존해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의존의 정상성을 강조하는 것은 노인 돌봄의 당위와 필요성을 수궁하게 하고, 노인 스스로 돌봄을 받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부식시키는 효과를 갖게 했는데, 문제는 노인 돌봄에 대하여 현재 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끼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인이 편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노인 돌봄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존의 정상성’이라는 인식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면서 2010년대 이후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돌봄과 돌봄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실행체계의 개선에 관한 성찰이 확산되었다.⁴⁾

3) 김혜경, 「재가돌봄 노인의 일기를 통해 본 “돌봄 받음”의 경험과 인식」, 『가족과 문화』, 2019, 138면 참조

4) 김혜경, 「재가돌봄 노인의 일기를 통해 본 “돌봄 받음”의 경험과 인식」, 『가족과 문

‘돌봄 경제(caring economy)’가 대표적인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제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므로 돌봄을 하나의 사회적 서비스로 보고,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적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체계를 제도화하고 산업적인 효과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노인 돌봄이 대부분 장기요양 서비스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특정한 수행체계를 갖추어서 산업적 효과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으로 바탕으로 탈 시설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커뮤니티 케어의 커뮤니티 개념이 모호하고 영역이 불분명하여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를 사회적 서비스를 전환할 때, 이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어떤 산업적 효과가 가능할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어 결과적으로 과도한 비용지출의 문제점만 드러났다.⁵⁾ 그러므로 커뮤니티 케어의 본래 취지인 지역공동체 돌봄에 대하여 본래 효과의 제고를 위해 돌봄의 경계와 돌봄 서비스영역의 구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노인 돌봄의 현실

노인 돌봄은 가정 내에서 요양 보호사나 방문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가족 돌봄과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주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돌봄을 받는 시설 돌봄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관할 주소지에서 행정청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특별 노인 돌봄이 있다. 가족 돌봄의 경우 누가 노인을 돌보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체로 가족 구조의 위계와 가족 문화적으로 결정되나 현실적으로 장남의 돌봄 의무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모로부터 이익은 얻지만, 부양의무는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혼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돌봄의 의무를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⁶⁾ 반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시설 돌봄의 경우 돌봄 행위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짐에

화』, 2019, 138면 참조

5) 손동기, 2019 논문 참조

6) 이렇게 비혼 자녀가 혼자 부모를 전적으로 돌보게 되는 경우를 “독박 돌봄”이라 한다. 김혜경 2019 위 논문 참조

따라 돌봄을 직접 담당하는 요양 보호사나 간호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여러 명을 돌봐야 하는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노인 돌봄은 노인 연령이 80대에서 90대로 갈수록 가족 돌봄의 비율은 감소하고 시설 돌봄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경향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체로 장기요양기간이 2년 넘으면 돌보는 사람 유무에 상관없이 노인 돌봄은 가족 돌봄에서 시설 돌봄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는 가족 돌봄을 오래 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평과 돌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환경의 고충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국 시설의 부담금을 지급하고 방문하는 편리한(?)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결과로 “한국 가족주의 현실이자 역설을 드러내는 것”이다.⁷⁾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 당사자가 거부하면 가족 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돌봄이 지속되는 것도 특징이다.

중요한 것은 시설 돌봄이 노인에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인가 하는 점인데, 노인 돌봄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 노인 가운데 동거가족이 있고 ‘요양’이 필요한 경우 78.6%가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인정을 받는 80대 노인 가운데 가족 돌봄을 받는 비율은 62.1%이지만, 시설 돌봄을 받는 비율은 37.9% 정도이다. 90대 노인 가운데 가족 돌봄을 받는 비율은 57.5%로 80대 노인과 비교할 때 감소하고 시설 돌봄을 받는 비율은 42.5%로 80대 노인에 비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⁸⁾ 이런 변화는 고령 노인으로 갈수록 가족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워 시설에서 돌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판단을 부추기는 요인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OECD 회원국의 노인 돌봄 현실은 한국과 다르다. 한국은 가족 돌봄보다 시설 돌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한국의 노인 돌봄과 가족주의 입장에서 우려할만한 일이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7) 김혜경, 같은 글 171면.

8) 위의 논문 주2 참조, 석재은·이기주, 「장기요양 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유지 및 이탈에 대한 영향요인: 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한 탐색」, 『보건사회연구』 37(4), 2017, 5~42면.

다르게 가족이 집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시설 부담금내는 것을 부양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부모 부양에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윤추구가 편승한 결과로, 돌봄의 의무와 가치는 실종하고 노인 돌봄이 이들 기관의 이윤대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노년 대부분을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의 우울증 증가, 노년의 생활 만족도 저하 등으로 노인 사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설 돌봄에 지급하는 비용이 점차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즉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강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을 통해 노인 돌봄의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노인 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전환

1) 노인 돌봄의 구조적 문제

현대사회는 근대사회에서 탈근대사회로,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족을 중시하던 가족주의 경향도 가족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탈가족주의로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노인 돌봄도 몇 가지 구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첫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 돌봄이 사회적 돌봄이 되었으나, 공적 영역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돌봄이 제공되면서 노인 돌봄이 국가재정을 토대로 한 민간의 이윤추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노인 돌봄이 의료산업과 사회서비스 산업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한편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애정과 관심을 기반으로 한 노인 돌봄의 노인과 보호자, 요양보호사 관계가 이익을 위한 대가 행위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는 것은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이다. 둘째 노인 인구의 증가와 돌봄 서비스 확대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⁹⁾

9) 도입 당시 5,549억 원이었던 지출이 2022년 기준 약 10조 원대에 이른다.

〈표 1〉 노인 돌봄의 재정: 의료 서비스 부분재정사업과 제도

구분	예방관리		돌봄 요양			임종지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인지저항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이동지원비 치매가족 휴가제	시설급여, 재가급여 통합 재가급여 시범사업 가족요양 보호사지원		
정부 재정	· 방문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일차의료만성 질환관리 자살예방사업	· 치매관리 체계구축 · 노인건강 관리(치매 관리)		·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운영 · 노인요양시설 확충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양로시설 운영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
국민 건강 보험	· 건강검진지원 건강백서 운동교실 노인건강 마일리지	· 중증 산정특례			· 요양보험	· 요양보험 호스피스 시범사업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돌봄 요양 이외에 정부재정으로 예방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자살예방, 치매관리 체계와 치매관리를 지원하며 돌봄 요양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과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양로시설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을 지원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도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건강검진, 건강백서, 운동교실, 노인건강 마일리지, 중증산정 특례, 요양보험, 호스피스 시범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 돌봄 재정 확대는 노인의 증가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돌봄의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 돌봄과 관련한 국가의 재정지출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 돌봄의 현장인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중복 지출을 줄이

고, 새로운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

셋째 노인 돌봄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지출 확대에 따르는 효과성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 인구의 증가, 대상자 수의 증가, 돌봄 수요의 확대, 돌봄 서비스 공급자의 인건비 상승, 수가 인상 등은 지출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2017년 6.55%, 2018년 7.38%, 2022년 12.27%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서 5년 만에 약 2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한 지출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매우 회의적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가족 돌봄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시설 돌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노인 돌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다섯째 노인 돌봄이 불충분하고, 불필요한 시설이용과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노인 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돌봄의 필요보다 돌봄 제공자의 이윤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확장해 왔던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증 대상자 증가율이 경증 대상자 증가율보다 높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점이다. 이 역시 언급한 노인 돌봄의 구조적 문제로 노인 돌봄이 요양병원의 수익사업으로 인식되고 노인의 삶과 죽음이 의료산업과 의료시설 제도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노인 돌봄의 현실은 노인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 돌봄에 대한 전환적 인식과 성찰이 시급하다.

2) 돌봄의 순환과 정책의 전환

사회학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은 통상 가족에서 태어나 유년기와 사춘기 동안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는 돌봄 수혜자로 점차 자립하게 되면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남편이나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돌봄 제공자가 된다. 돌봄을 제공하고 받은 "돌봄의 순환 사이클" 속에서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며, 돌봄은 사회적인 인간이 맺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관계이자 실천인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돌봄도 돌봄의 순환 사이클 속에서 필수적

으로 맺는 애정 관계로 인식되어야 하며, 생명에 대한 경외, 인간의 사회문화적인 공존과 사회적 배려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 돌봄을 위해서 돌봄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인 돌봄 모델을 만드는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례로서 프랑스의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공동체에서 노인을 돌보자는 것인데, 실질적인 돌봄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돌봄을 어떻게 제공할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의 커뮤니티 개념이 분명한 경계와 사회적 연결망 영역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커뮤니티 개념을 한국에 적용할 때 그 개념이 의미하는 공동체 개념이 사회공동체, 지역공동체, 민족공동체, 국가공동체 등 다양하여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돌봄 제공자를 하나의 모델로 명시하고 노인 돌봄이 이윤추구보다는 돌봄의 윤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하려는 정책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¹⁰⁾

4. 노인 돌봄의 대안: 지역중심 디지털 돌봄

1) “지역중심 디지털 돌봄” 모델

지난 10년 동안 노인 돌봄 시설에서 노인 사망 원인으로 크게 부상한 질병은 폐렴이다. 폐렴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미생물 감염에 의해 폐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중증의 호흡기 감염병으로, 바이러스, 세균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고 독감이 심하게 진행되기도 한다.¹¹⁾ 면역력의 필요성은 코로나19의 경험으로 노인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시설 돌봄에 있는 고령 노인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기청정 등 시설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Ai, 디지털 헬스로 노인 돌봄 환경이 감염 등 지속적인 청정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딸이나 며느리, 시설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

10) 노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지역현실이 그만큼 다양각색이므로 일반화시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임.

11) 구글 검색, 다른 명칭은 뉴모니아 Pneumonia. 위키 백과 참조

사나 요양보호사로서 노인 돌봄의 제공자가 대부분이 여성으로서 보편적인 돌봄 제공자라 할 수 있다. 지역에서도 여성이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제공하는데, 가정에서 여성의 돌봄 노동은 무보수이고,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로서 돌봄 노동의 보수는 열악하고 차별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으며, 더욱 심각한 돌봄 공백을 야기할 수 있어 지역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돌봄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노인 돌봄에서는 디지털 헬스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의 진단은 물론 예방과 관리까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노인 돌봄의 영역을 가정과 시설로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부모와 동네 노인은 우리 동네에서 돌본다.’는 “지역공동체 노인 돌봄 방식”을 고려하고 개발해야 한다. 부모의 부양이나 소외된 1인가구 돌봄의 제도화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공존과 필수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돌봄의 순환은 과거의 나를 돌봐준 현재의 부모와 미래의 나를 돌보는 것이므로 보다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필요하고, 이러한 돌봄의 질 향상은 지역공동체의 환경과 사회를 좋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돌봄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의 돌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디지털 돌봄(가칭)” 모델이 대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 모델은 노인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돌봄을 파악하고 제공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돌봄을 조직하고 설계함으로써 노년의 삶을 요양병원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돌봄의 방식을 노년의 삶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노인 돌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로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고, 노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AI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젊은 청년 세대가 노인 돌봄 영역에 추가되는 디지털 헬스의 주역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인 돌봄의 시설 돌봄에서의 예산 낭비를 막고 새로운 돌봄을 위한 효과적인 전환에 있어서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가 통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디지털 헬스, 돌봄 일자리

최근 디지털 헬스의 부상과 관심은 노인 돌봄의 모델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디지털 헬스 케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게 보다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돌봄을 ‘스마트 혹은 디지털 돌봄’이라 하는데, 이들 돌봄에 청년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디지털 헬스 케어를 위한 스마트 혹은 디지털 돌봄을 위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돌봄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노인 돌봄이 통합 돌봄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¹²⁾

〈표 2〉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선진국의 시간제 일자리 참고유형¹³⁾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시간제 근로 정책의 주목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주의 사회보장비 기여	법적 부과	법적 부과	제한적 부과	제한적 부과	규제조항 없음
시간제 근로자의 실업수당 자격	보유	보유 ¹⁴⁾	제한적 보유	제한적 보유	규제조항 없음
건강보험 자격	보유	보유	제한적 보유	자격 보유	규제조항 없음
연금제 자격	보유	보유	제한적 보유	제한적 보유	규제조항 없음
시간제 근로로 전환권리	보유	제한적 보유	보유	권리 미보유 (고용주에게 존중할 것을 권장)	미보유
전일제 근로로 전환 권리	보유	제한적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융합대학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육성, 소프트 웨어 활용 등 세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음.

13) 위 연구보고서

14)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자)

<표 2>는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미국, 영국의 사회적 일자리로서 시간제 일자리의 요건 등에 관한 것이다. 청년, 여성, 장년을 위한 일자리 유형으로 예시된 국가들의 사회적 일자리는 한국의 돌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돌봄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학업과 보육, 자기개발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분야별로 법적, 제도적인 권리 보유, 미보유 형태로 보장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은 물론 청년의 취업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노인 돌봄에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지역 공동체 디지털 돌봄 모델에 있어서 청년 등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유익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증가와 노인 돌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과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진단하였다. 현대인의 삶은 결국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고령화의 과정이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시대이고, 디지털 헬스의 도입과 확산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부모 부양과 직결되는 노인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노인 돌봄의 문제는 ‘돌봄의 순환 사이클’에서 볼 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부모, 미래의 나에 대한 돌봄이라는 인식으로 윤리와 책임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노인 돌봄의 현실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의 이윤 추구하라는 구조적 특징과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커뮤니티 케어”는 커뮤니티 개념과 영역의 혼선과 돌봄 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한 실정이다. 코로나 19 이후 사회는 ‘돌봄의 순환적인 사이클’ 측면에서 보편적인 돌봄 제공자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 돌봄은 달라지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고 새롭게 돌봄의 윤리와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재검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 케어가 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노인 모델을 검토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 모델은 구체적인 지역 안에서 청년, 여성, 장년 등이 돌봄 주체로서 참여하여 돌봄 노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케어 모델로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 등의 디지털 돌봄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돌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돌봄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돌봄을 제공받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케어 모델은 보다 효과적이고 질 좋은 돌봄이 가능하고, 시설 돌봄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돌봄 모델에 참여하는 돌봄 관리자 및 제공자인 청년, 여성, 장년, 요양보호사와 돌봄 제공을 받은 노인들의 Ai 및 디지털 리터러시, 즉 Ai와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역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지역의 경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지역대학이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지역민들의 디지털 케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즉 AI 및 디지털 헬스의 디지털 노인 돌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Ai 리터러시 해소와 인재 육성, 돌봄 인력양성을 공동 기획하여 ‘디지털 돌봄 관리자(가칭)’ 같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며, 디지털을 활용하는 글쓰기나 그림그리기, 가족과의 챗봇 채팅 활용은 노인들의 심리적 우울과 고립감이 해소될 수 있고 세대 통합 돌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확대와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 권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22.
- 권기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 23 No. 3. 551~558면.
- 권오균, 「노인의 라이프케어 증진을 위한 디지털 역량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JKEIA』 Vol. 17 No. 2, 2023.
- 김가원, 「자기돌봄(Self-Care), 노인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사회의 역할」, 『복지저널』 제151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1.
- 김수현·김동은·박철민·김민아·심민영·김창업·우석균·백소영·조한진희·강성은·정석찬·박한선, 『포스트 코로나 사회』, 파주: (주)글항아리, 2020.
- 김유휘, 「일본과 대만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_____, 「한국 노인돌봄 일자리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연구: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5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 김혜경, 「재가돌봄 노인의 일기를 통해 본 “돌봄 받음”의 경험과 인식」, 『가족과 문화』, 2019, 138면, 171면.
- 김혜경·마경희·석재은·신경아·박기남·김수영·남궁명희·이순미·유은주·손주연, 『노인돌봄(Elderly care)의 경험과 윤리: 좋은 돌봄을 위하여』, 파주: 양서원, 2011.
- 노경혜, 「가족 내 노인 돌봄 현황과 경기도의 과제: 저출생고령화시대, 성평등환경을 논하다」, 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3.
- 문세연, 윤영미, 한태화, 이상은, 장혁재, 송시영, 김현창,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8, No. 4, 2017.
- 민주노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최,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 토론회」, 서울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2.
- 박주희, 「광주지역 공동체형 노인돌봄 지원방안」, 광주여성재단, 2015.
- 배지영·양난주·박은희, 「지역사회 노인돌봄 전문인력 역량 및 교육요구 분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9.

- 보건복지부 [편],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모형 개발 연구』, 일반도서 세종보건복지부, 2020.
- 서경화,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경향」, 7호, 의료정책연구소, 2020.
- 석재은·이기주, 「장기요양 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유지 및 이탈에 대한 영향 요인 : 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한 탐색」, 『보건사회연구』 37(4), 2017, 5~42면.
- 손동기, 「노인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프랑스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공공정책』 제160호, 한국자치학회 공공정책연구원, 2019.
- 원사연,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지방자치』 311호, 미래한국재단, 2014.
- 윤경아·손의성·길태영,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이용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희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72권 2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7.
- 정숙경, 『노인 질환 치료를 위한 AI digital Technology care와 돌봄일자리 창출』,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연개발지원단, 2023.
- 정숙경·장익관, 『한국형 시간제 일자리 모델 개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4.
- 최성은,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월간 재정포럼』 308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Carretero, S., Technology-enabled services for older people living at home independently: lessons for public long-term care authorities in the EU Member States. No. JRC96022. Joint Research Centre (Seville site). 2015.
- GatesNotes, What will the world look like after COVID-19? Retrieved from <https://www.gatesnotes.com/Podcast/What-will-the-world-look-like-after-COVID-19> 2020.
- Henwood, M., Why the idea of ‘care robots’ could be bad news for the elderly. World Economic Forum. Retrieved from <https://www.weforum.org/agenda/2019/11/care-robots-ai-4ir-elderly-social/> 2020.
- Sætra, H. S. The foundations of a policy for the use of social robots in care. Technology in Society, 2020. 63, pp.101~383.

| Abstract |

A Special Features and Reality of Elderly Caring, Policy Shift: For Digital Care Model at Local Area

Jung, Sookky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rope a alternative policy for new elderly caring model after that is understand and diagnosing a structural features and reality of elderly caring. Korea society is going to be supper aging society which 25% of populations of that will be aging population. And it will come digital health introduction and diffusion of it. So it is to be needed that a basic and radical reflections against elderly caring in relations to higher death rate of old man and elderly care problems directly connected.

Elderly caring consist of family caring and facilities caring based o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former is family are caring their parents even though the cost and burden of it can be conflict factors within family relations with the principle of care of eldest son.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s to care at nursing hospital and nursing home depending on their financial situation in case of that they no one to take care of family or their body conditions are inconvenient for everyday life.

Practically elderly care have a structural problems such as. first it will be provide a psychological burden to elderly people receiving family care. the second it will be increase depression to elderly people whose are living at a caring facility in a long time. the thirdly it will be deteriorates health insurance finances.

So it was raised community care. as a alternative that this problem is to be resolve it as much as possible. But it was revealed that community care did not achieved effects that has been expected. The reasons are the conceptual confusion of community care and ambiguity of domains of it.

Therefore this paper is suggested that policy review and policy shift about elderly care which should be to consider changed social environment and to enforce ethics and publicity and accountability of caring newly is needed. And it suggested that new community digital care model has to be developed. New community digital care model for elderly care that is focus on a special area within community emotion should be make clear the subject of caring and is to be smart caring that is to digital health should be use digital technology. Also this model that is to be participate with youth and woman and work together for old man. So this model will bring to generational care effect by implementing caring though ai caring jobs.

Key Words: elderly caring, family caring, facilities caring, smart care, digital care model, caring jobs etc

| 서평 |

캐런 윌슨-부터바우, 권희정 옮김, 『아기 떼가기 시대 : 미국의 미혼모, 신생아 입양, 강요된 선택』, 안토니아스, 2023.

‘잃어버린’ 모성과 상실의 트라우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김재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¹⁾ 그러나 동위원회는 20여년 전인 2005년 설치되었고, 저출생을 이미 국가위기로 규정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었다. 한편 국가책임 하에 모든 아이를 소중하게 키우겠다는 의지가 무색하게 2023년에도 79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으며,²⁾ 미혼모에 의한 아동유기 관련 언론보도는 ‘범죄’행위임을 강조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4. 6. 19.)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서울신문(2024. 6. 20.) 尹 “사회부총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620002006>) 참조. 인구위기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더라도 여전히 ‘합법적’ 혼인관계에 기초한 ‘정상’ 가족 모델 중심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혼모’ 가족구성 등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국내외입양아동의 발생사유는 72.9%가 미혼모, 23.6%가 유기아동이다. 유기아동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출생이 유기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96%에 해당하는 아동의 친생모는 결혼제도 바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입양통계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5. 11.)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 국가가 책임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여전히 자녀를 키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미혼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은 아동을 위한 방안이라는 목소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하며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적 대응은 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원인을 찾기보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일 뿐이다. 결국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저출생 대책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사각지대를 외면한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 미혼모에 대한 변화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는 2017년 출간(2023년 번역)된 『아이 피가기 시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었던 미국 사회에서 미혼모와 자녀의 분리가 ‘최선’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으로 2차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행해졌던 ‘아기 피가기 시대’의 차별의 역사를 당사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한 어머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여 자녀를 ‘빼앗겼던’ 여성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아기 피가기 시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입양구조에서 비가시적인 존재로 애써 외면하고자 했던 미혼모의 목소리를 전면에 드러내며, 경험적 차원에서-저자가 언급하고 있듯-몰랐던 입양실천의 이면을 알게 하고 토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35) 우리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4년 7월 시행예정인 ‘출생등록’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호출산제)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관련하여 『아기피가기 시대』는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1. 영구적 상처를 남기다

영구적인 상처는 개인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질문과 분석은 중요하

까. 2025년 새로운 입양법 시행에 발맞추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국가에게 입양체계에서 친생모가 ‘결혼’이라는 틀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방법인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이 지속될 경우 시행 예정인 ‘보호출산제’를 통해 제도 바깥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더욱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공고화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다. 그 어떤 사회문제도 개별적으로, 주변의 다른 조건들과 분리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 차원에서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적 고통의 상호연결성을 인정하는 것(조효제, 2018)은 입양을 둘러싼 구조에 접근하는 출발점이다. 미국에서 미혼모성을 억압했던 역사는 한국사회에서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과거부터 성도덕의 강조, 특히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정숙한’ 여성을 좋은 여성의 규범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좋은 여성’이란 현모양처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임당의 삶이었고,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 가족에게 헌신하는 역할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벗어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미혼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가시화된 존재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다. 미혼모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경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장벽이었다. 자연스레 그들에게 입양은 가장 좋은 선택지로 권장되었고, 반(半)강제적으로 입양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기를 입양 보냄으로써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고, 죄를 씻은 순결한 처녀가 되어 사회로 ‘복귀’(105)하는 것을 강요했다. 결국 입양 가능한 아기들 뒤에는 그 아기의 엄마인 미혼모가 있다는 사실(89)은 감춰진 진실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서도 미혼모의 자녀 수가 급증하는 1970년대 ‘아기 퍼가기 시대’(권희정, 2019:28)로 재현되며 ‘비정상적’인 미혼모성을 입양을 통해 ‘정상’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엄마와 자녀의 분리가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사회복지 영역이 전문화되면서 미혼모에 대한 관점은 변화(142)하였는데, 사회복지 실천을 명목으로 미혼모로부터 자녀를 분리하는 것은 갱생 과정의 일부(120)로 간주하였고 혼외임신을 죄로 규정하여 처벌의 일환으로 영구적 분리를 선호하였다(119), 그러나 아이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엄마는 ‘입양 보낸 후 나는 예전의 나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33)’는 사실로 인해 영구적인 깊은 상처로 남는다. 강요된 선택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을 모두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나눌 수 있을까? 『아이 퍼가기 시대』는 아동뿐 아니라, 아동과 가장 내밀한 관계에 있는 엄마의 입장

에서 분리로 인한 상실의 트라우마를 지적하며 입양이 갖는 위험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미혼모는 일반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입양산업과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더욱 부추겼다. 이로 인해 입양으로 아기를 잃은 엄마들은 평생 상실, 슬픔, 건강 악화로 고통받는 삶을 살았다(272). 이러한 아픔은 현재까지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사회인식에 기반하여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혼모 문제는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장벽을 근거로 입양을 권유하는 방식이 여전히 주류적인 입장이라면, 그렇다면 원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미혼모의 발생 원인 역시 사회구조적 요인보다 일탈행위의 결과로 보는 현실에서 『아기 피가기 시대』는 왜 근본적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한다. ‘나는 추방된 어머니다’(295)라는 증언은 스트레스, 트라우마, 수치심의 경험을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는 입양이라는 결론(68)에 이르렀던 미혼모의 잊히지 않는 영구적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

2. 누구를 위한 “최선의 이익”인가

부모가 되는 것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했던 미국 사회(휘비네트, 2012: 179)에서 무자녀 부부라는 낙인을 벗어나 ‘완벽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111) ‘별을 받아야 하는’ 미혼모(112)와 아이가 필요한 무자녀 부부를 매개하는, 즉 아이 없는 부부들의 가족 만들기(114)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정말로 집 없는 아이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에서 아이를 제공하는 일로 입양이 변화(112)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입양을 선호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유(121)로 아이를 ‘넘기는’ 행위를 ‘선물’로 묘사하며 그 선물이 ‘미혼모를 해방시켜 줄 유일한 길’이라며 아이의 포기를 유도하였는데, 결국 수령자는 입양기관이었다(94~95). 미혼모들은 입양 복지사, 미혼모 시설 종사자, 부모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 아이를 입양으로 ‘잃었다’(135). 또한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부도덕함을 묵인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입양 장려는 미혼모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137~138). ‘미혼모는 통상적으로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처럼 작동했던 ‘강압에 의한 입양’이었던 것이다(140~141). 세상의 모든 아이는 가정을 권리가 있다는 ‘가정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입양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녀없는 가정을 위해 아이를 찾는 일이 아니’(박창우, 2007: 92)’라는 입장을 취하지만 ‘아이 퍼가기 시대’의 상황은 ‘정상 가족’ 만들기를 위해 미혼모와 자녀의 분리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입양은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정을 가질 권리가 모든 아이에게 필수적이라는 서사로 인식되고 있다.³⁾ 그러나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정을 가질 권리는 ‘입양으로 아이를 구원하려면 그 엄마를 먼저 파멸시켜야 한다(169)’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동의 이익이 실현되는지 의심하게 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인간으로서 최소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입양을 설득하는 논리(92)가 되었다. 미혼모와 그 자녀를 재정과 보육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집단으로 규정하였고, 복지 비용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집단(157)으로 역사상 가장 파괴적 복지는 미혼 출산율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158)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했다. 반면 백인 미혼모는 불임 부부에게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생식자’로 여겨졌다(157). 인종간 입양의 백인의 특권(휘비네트, 269)은 백인 미혼모가 백인 아기를 공급하는 귀중한 자원(114)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친생모’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출산한 사실을 아예 지워버리고자’ 했다(139). 사회복지사들의 ‘미혼모에 대한 모순적인 이해와 태도’를 견지하여 ‘아이를 위해’ 회색하도록 압박(140)하는 등 부정적 태도의 사회 전방위적인 강요는 미혼모에게 자녀를 포기하도록 하여 ‘모성’을 부정당하였다.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입양 부모의 욕구에 맞추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던(90) 입양 실천은 누구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 말할 수 있을까?

3) 동아일보(2023. 5. 9.) 입양시기 놓치기 전, 아이에게 새 가정을(<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230509/119196825/1>) 참조

3. 아동공수의 수요와 공급

『아기 떼가기 시대』는 ‘부모 자격’을 규정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명목상 모두의 이익으로 허울 좋게 포장하여 반강제적 방식으로 분리하였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등 유럽 전역에서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한 강제적 집단 이주의 역사가 실재했다.⁴⁾ 놀랍게도 19세기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는 집시 아동을 가톨릭 가정으로 납치하였고, ‘잃어버린 새들(lost birds)’이라 불린 인디언 아동을 백인 가정으로 보내거나, 문명화 계획의 일환으로 영국계 가정에 배치했던 호주의 ‘도둑맞은 세대’ 등 대규모 아동 강제이주가 존재했다. 2차대전 이후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명 ‘고아 열차(orphan train)’로 불렸던 사례를 찾을 수 있다(권희정, 2019: 18, 휘비네트, 2012: 268~271참조). 즉 ‘아기 떼가기(baby scoop)’는 추방대상을 규정하고 실행단계에까지 가능하게 했던 외부적 요인(힘)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권력 관계의 작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아기 떼가기 시대’에 왜, 어떻게 미혼‘어머니’와 자녀의 강제적 분리가 가능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미혼모를 차별적으로’ 대하고(247)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차별적 낙인으로 취약한 지위로 전락한다. 결국 정상성 회복을 명목으로 미혼모 자녀는 입양산업의 공급원 역할을 담당하며 대량 공수되었다. 아동공수를 위해 전세기를 활용했던 사례⁵⁾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입양 ‘산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기만적 행위(86)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혼모에게 자녀 포기를 전략적으로 강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돈을 지불하고 확보하면 그것은 상품이(284) 되는 것이다. ‘강제적’ 포기는 입양 ‘산업’을 촉진하는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였다. 미혼모는 부도덕하고 ‘문란함’이라는 병리적 행위를 입양보내는 것으로 책임

4) 아일랜드 미혼모시설에서 발생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필로미나의 기적”(스티븐 트리어스, 2014)과 영국 아동의 호주 강제이송 사건을 토대로 영화화한 “추방된 아이들”(짐 로치, 2013) 참조.

5) 세계일보(2019. 5. 13.) 전세기 타고 해외입양 간 ‘2198+α’명, 잘 살고 있을까(<https://www.segye.com/newsView/20190513500111>) 참조.

져야 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도록 상담하는 것은 일종의 ‘처벌’이며 입양 선택은 미혼모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이중 구속적 논거(124~125)에 기반하여, ‘아기 매매가 있다 해도 그게 뭐가 나쁜가? 아기에게 필요한 사랑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 … 아이도 부모도 행복’(283)하다는 인식의 정당성으로 포장된다. 또한 우생학적 관점과도 연결되는 입양산업의 문제(283~288)는 장애 유무와 인종차이에 따라 입양시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시대적 상황을 조명하는 일종의 폭로(4)인 『아기 피가기 시대』의 사회적 고발은 자격없는 엄마와 자녀의 분리가 입양산업을 급성장하게 한 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입양 ‘자체’가 갖는 순기능의 이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고려한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의 이면은 사회적 부정으로 인한 잃어버린 모성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서 아동이 필요했던 부부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4. ‘양육할 수 있는’ 자격: ‘보호출산’이라는 이름의 은밀한 차별의 재생산

『아기 피가기 시대』는 양육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질문한다. 자격을 갖춘 ‘좋은’ 부모는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련된다. 미혼모의 속죄방법은 좋은 부모에게 아동을 보내는, 즉 ‘포기’였다. 그렇다면 입양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자격을 갖춘 반면, ‘결함있는’ 친생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의미인가? ‘부모’의 자격을 누가 규정할 수 있는가? 아동의 관점에서 친생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은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그럼에도 ‘아이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미혼모에 대한 주류적 관점은 여전히 존재한다(150).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상성’의 확보(112)와 엄마될 자격이 없는 여성의 출산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은 ‘건전한’ 가정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속되는 해외 입양이 대부분 미혼모 자녀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그러나 ‘친모는 돕지 않고 아이와 헤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면서

그들의 불안정한 환경을 입양의 지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미혼모에 대한 고정 관념'(276)을 강화할 뿐이다.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양육의지가 있는 미혼모에게서 아기를 빼앗아간 일은 불법행위(296)라는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비판적인 우려의 목소리에 힘입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도적 보완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 논쟁은 진행 중이며 특히 곧 시행될 보호출산제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듯하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아동의 양육환경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부분 위기임산부는 '혼외'상태라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견고함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보호출산제는 오히려 사회적 낙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에게 제도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우려가 있다. 결국 '보호'라는 명목으로 친생모와 그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다시말해 보호출산제는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보다 '병리적'인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기 떼가기 시대』를 읽고 한국사회의 현실을 돌아볼 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의문으로 남는 것은 엄마와 자녀를 분리하는 것이 누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이다. 민주적 삶의 가능성을 자기 결정의 영역과 관련한다면 가장 원초적인 임신과 출산이라는 행위로 맺어진 엄마와 자녀의 인위적 분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 『아기 떼가기 시대』는 온전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실현 방향을 찾아가는 단초를 제공한다. 『아기 떼가기 시대』가 미국이 아닌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드는 것은 옮긴이가 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 이 떼가기 시대'에 아동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사회복지 실천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다(17~19). 『아기 떼가기 시대』는 저자가 20여 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아기 포기를 경험한 엄마들을 연구(298)하여 차별적 사회구조를 분석하였다. 어떤 진실보다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밝히는 작업이 출발이라는 점에서 이 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어느 연구보다 가치 있다고 하겠다. 미혼모를 비롯한 정상을 벗어난 존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겸허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기 퍼가기 시대』는 명목상 아동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혼모를 둘러싼 모든 관계자, 즉 사회전체가 개입하여 이뤄진 총체적 문제였음을 알려준다. ‘누가 미혼모를 적법하지 않은 어머니(298)’로 만들었는지 의도를 성찰하고, ‘강요와 강압’에 의한 선택이 도덕적이고 윤리적(299)인 방식이었는지 ‘지금, 여기’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성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옮긴이 서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미혼모의 역사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추적하며 논의를 확장하고 있는 『미혼모의 탄생』도 일독하길 권해본다.

■ 참고문헌

-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안토니아스, 2019.
- 박창우, 『세상의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홍성사, 2007.
- 조효제, 「인권 실현의 통합적 접근」, 『인권연구』 1(1), 2018, 37~71면.
- 토비아스 휘비네트, 뿌리의 집 옮김, 「고아 열차에서 아동 공수까지」, 제인 정 트렌카 외 역음,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 집, 2012.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및 투고 규정

1. 공통 사항

- 가.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자격과 절차, 원고 작성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나. 『가족과 커뮤니티』는 가족, 커뮤니티, 미래 공동체와 관련된 인문학 등 전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수록하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 1)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본 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우선적으로 게재하되, 질의 토론 시간에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어 수정된 논문으로써 심의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원칙적으로 인문학, 사회학 등 전 학문 영역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생 이상 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교신저자를 두어 투고가 가능하다.
- 라.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소유한다. 이에 대하여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마. 투고자는 동일 호수에 논문을 2편 이상 투고할 수 없다.

2. 발간 횟수 및 시기

- 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매년 2회 발간한다.
- 나. 발행일은 1월 31일, 7월 31일로 한다.

3. 접수 시기

- 가. 원고의 접수는 11월 30일, 5월 31일에 각각 마감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연기될 수 있다.

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로 넘긴다.

4. 투고 방법

가. 투고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나.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개인 정보나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지 않는다.

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 및 저작권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논문 구성 형식

가. 원고 분량은 원고지(200자)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가 넘는 경우에는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제목
- 2) 저자명
- 3) 목차
- 4) 국문초록
- 5) 본문
- 6) 참고문헌
- 7) 영문초록

라. 국문초록은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와 대표할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주제어(5~10개 정도)를 첨부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주제어(5~10개 정도)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6. 논문 작성 양식

가. 모든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여 투고한다.

- 1)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한다.
- 2) 논문의 장, 절, 항의 부호는 1, 1), ①로 표시한다.
- 3) 저자의 이름은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예: 한국대학교 교수]. 대학 소속의 경우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의 경우 ‘교사, 학생’, 연구원 소속의 경우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표시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논문의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제1저자를 앞에 표시한다.[예: 홍길동(제1저자)·김국중(제2저자)]
- 4) 각주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인용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
단행본	필자명, 『書名』, 출판사, 발행년도, ?~?면.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 5) 참고문헌 목록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단행본	필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단행본 또는 학회지 속의 특정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이 수록된 도서의 해당 면수를 밝혀야 한다.)

- 6) 기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구분	표기 방법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강조, 간접 인용	‘ ’
논문	「 」	직접 인용	“ ”
작품	< >		

- 7)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표기 형식을 따른다.

【부칙】

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논문 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의무

- 가. 편집위원회는 임원의 추천과 원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 라. 학회 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2. 심사위원 위촉

- 가. 편집위원회의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 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편집위원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단, 투고자와 연고가 없는 학자 가운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 가. 투고기간 종료 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 지표	방법론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사적 의의 및 활용도	상(20~17)	중(16~14)	하(13~10)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상(20~17)	중(16~14)	하(13~10)
	자료 검증의 충실성	상(20~17)	중(16~14)	하(13~10)

- 라.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4등급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사정한다.
- 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2점), 수정 후 게재(1점), 게재불가(0점)로 심사위원 3인 판정 점수 합계 3점 이상의 논문은 수록한다.

0-1점	게재불가
2점	수정 후 재심
3-5점	수정 후 게재
6점	게재

* 편집위원회 결정

- 사.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 아.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자.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후 수정한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이때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를 한 후 해당 논문을 심사가 완료된 게재불가 논문으로 재판정한다.

4. 재심사의 절차 및 기준

- 가.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 후에 게재한다. 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나. 논문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후 수정 보완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새로 투고한 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에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의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 철회 요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되었다는 이유로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 나.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사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다.

7. 게재 기준

- 가.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술지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학술지에 우선 수록한다.
- 나.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학제 간 연구의 특성상 2인 공동 집필 논문은 주집필자와 부집필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명기된 집필자를 주집필자로 인정한다.
- 다. 게재자는 3회 연속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3회 연속 심사 결과 ‘게재/수정 후 게재’를 받은 경우 세 번째 ‘게재가’ 논문을 다음 호 게재로 이월한다.

8.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한다.
- 나. 학술지는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씩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부칙】

-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 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필자의 연구 윤리

제1조(책임) 본 연구원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2조(표절 금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인용 또는 참고 표시) 논문의 필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 또는 이전에 공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반드시 인용 또는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장 윤리 규범 준수에 대한 사후 심사

제4조(사후 심사) 본 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후 심사 접수)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 심사 개최)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제8조(사후심사요청서 내용)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사후 심사 심의 및 윤리위원회의 소집)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

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윤리위원회

제10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역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부 사항)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경우.
2.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3. 연구자가 특수관계인, 곧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심사 절차)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개시하고, 위원장은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연구원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4.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

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6.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9.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제14조(심사 통보)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3.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5.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6. 심사 결정 내용

제15조(징계 내용)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3. 연구소 공개 사과
4. 회원 자격 정지
5.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제16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과 관련 기관에 알린다.
2.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이 삭제되었음을 공지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장 비밀 유지

제17조(익명성 보장)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시 조치) 위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위 1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5장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 윤리

제19조(이해충돌 방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1.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해당 위원을 껄적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20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투고를 금지한다.
3.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4. 제재 사항은 6조의 조항에 의거한다.
5.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 04. 10. 개정판)을 준수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수정은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3. 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지침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임원 명단

■ 편집위원

위원장	류도향(전남대)
편집위원	김청우(부경대), 김형주(전남대) 박미선(전남대), 신선혜(호남대), 이현재(서울시립대), 정미선(전남대), 최대희(전남대), 한우리(전남대), 한의승(전남대)
편집간사	전영선(전남대)

■ 연구윤리위원

위원장	김병인(전남대)
연구윤리위원	김양현(전남대), 엄태식(조선대), 오세인(울산대), 정병호(경북대), 조경순(전남대), 함형석(전남대)

■ 운영위원

위원장	정미라(전남대)
운영위원	박상철(전남대), 백승주(전남대), 류도향(전남대), 신해진(전남대), 양순자(전남대), 이성원(전남대), 김성훈(전남대), 한의승(전남대)

『가족과 커뮤니티』 투고 신청서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자	성 명			소속 기관		
				직 위		
	연락처	자택 전화	()	E-mail		
		직장 전화		(우편물 수령) 주소		
		휴대 전화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기타 사항	투고 일자					
	원고 매수	매 (200자)	연구비 수혜여부			
위 본인은 상기논문을 귀 연구원 기관지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제〇〇집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_____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하						

저작권 위임 및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위의 논문을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위임합니다.

7. 공동 저자 또한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저 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년 월 일

대표 저자 : 성명 _____ (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중

『가족과 커뮤니티』 수록 목록

『가족과 커뮤니티』 1집 (2020. 3.)

창간호 발간사

정미라 | 『가족과 커뮤니티』를 창간하며

일반논문

류명옥 | 시어머니와 며느리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 형성과 ‘길들이기’의 의미

Adam F. Braun | “Everyone Deserves a Family”: The Triple Bind of Family in Ari Aster’s Horror

이순구 | 소론 구성에 보이는 조선 가족관계의 특성

김소영 | 19세기 말~20세기 초 한(韓)·중(中) 서화가들의 교류와 오세창(吳世昌)의 전각(篆刻)

박주희 |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 나타난 교육적 세계관

안용주 | 기혼남녀의 성만족 관련변인 연구

서평

강의혁 | 자본으로 구획화된 도시에서 윤리적 공간의 창출은 가능한가라는 질문

『가족과 커뮤니티』 2집 (2020. 9)

일반논문

권영희 | 여주인공의 가족 갈등에 나타나는 조력자들의 충(忠)과 그 의미 - <정을선전>을 중심으로 -

전설련 | 백하 김대락의 한시에 구현된 가족애와 그 의미

진건화 | <오후강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가족 구성 욕망과 실천의 의미

류재한 | 모파상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의 비정상성’에 관한 고찰: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김종수 |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가계와 예학세계

서평

류도향 | 연대하는 신체들의 커뮤니티 - 위태로운 삶의 정치적, 윤리적, 생태적 가능성에 대하여 -

『가족과 커뮤니티』 3집 (2021. 3.)

일반논문

- 정지아 | 『고계정실기(古溪亭實記)』를 통해 살펴본 효자 정려의 의미
 한익승 | 조선후기 필기집에 수록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록과 서술 방식
 - 『골동록(汨董錄)』을 중심으로 -
 최은주 | 19세기 향촌 지식인의 일기에 나타난 일상과 그 의미
 - 『김병항일록』을 중심으로 -
 박일우 | 재만조선인문학에 나타난 가족 해체 양상 연구
 - 1930년대 일제의 아편정책과 매매혼 서사를 중심으로 -
 김종수 | 조선후기 역병(疫病) 감염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대응 양상

서평

- 엄태식 | 이념과 사랑으로 읽은 17세기 장편소설
-

『가족과 커뮤니티』 4집 (2021. 9.)

특별기고

- 이정옥 | 가족 정책의 분절과 재통합의 전망: 공동체와 개인화의 융합

일반논문

- 김소연 | 『쇄미록』에 나타난 오희문의 전란 체험과 가족에
 김종구 | 경당 장흥효의 가족에 및 가문 형성과 그 의미
 - 『경당일기』를 중심으로 -
 김미라·홍은실 |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

서평

- 김기성 | 가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읽다
-

『가족과 커뮤니티』 5집 (2022. 3.)

일반논문

류명옥 | 설화에 나타난 경쟁-공감의 구조와 가족 서사의 확장성

구태운 |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에 나타나는 노현자(老賢者)의 역할과 의미

노연숙 | 공동체의 허상과 사랑의 이상: 토마스 빈터베르그의 <사랑의 시대(The Commune)> (2016)에 대하여

김종수 |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의 효제(孝悌) 철학

서평

박선아 | 기꺼이 고통의 장소들 속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6집 (2022. 9.)

일반논문

윤정안 | 계모형소설의 ‘친밀’한 이복남매
- <황월선전>의 월선과 월생

한양하 | 구비 설화에 나타난 돌봄정서의 아버지

성민경 |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인척 관계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에 대하여

이재숙 | 덕수 이씨의 면천 세거(世居)와 문학적 전승

신호식 | 재미(在美)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박건우 |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실증 분석

문창배·최영진 |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평

윤수진 | 위기의 시대, 돌봄의 정치학이 갖는 저항의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7집 (2023. 3.)

특별기고

김미경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성평등정책의 과제

일반논문

황명환 | 성호 이익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 연구

김종수 | 청풍승평계(淸風昇平契)의 형식적 특징과 기금 운용

이원석 | 북송대의 입양 습속에 대한 구양수의 견해

- 그의 복의(濮議)를 중심으로 -

위민호·류도향 | 커뮤니티를 통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의 현재성 -

박건우 |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아동 사례를 중심으로 -

홍성호 | 가족의 분거와 삶에 대한 만족

문창배·최영진 | 일반계고등학교생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

현장 & Issue

장화선 | 광합성 광주를 꿈꾸며

서평

추주희 | ‘가족’을 폐기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가족과 커뮤니티』 8집 (2023. 7.)

기획특집: 한국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이현주 | 한국 고대의 ‘가(家)’의 기원: 신라의 골(骨)과 족(族)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이정란 | 고려시대 여성사의 연구성과와 가족·친족제

박미선 |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0~2022년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홍양희 | ‘가족의 시대’에서 ‘포스트-가족’의 시대로: 한국 근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반논문

진서금 | 『신설서유기도상(新說西遊記圖像)』에 나타난 유가적 관점에 관한
고찰

정천구 | <사복불언>에 나타난 모자(母子)의 수행과 성불

최희영 |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 양상: 『두 이민의
꿈(The Dreams of Two Yi-min)』 분석을 중심으로

양소영 | 김윤성과 정한모 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 연구: 초기시를 중심으로

이지연 | 어느 조산사의 구술사: 체험과 경험의 이야기

김덕삼·이경자 |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와 학교의 역할 탐구

서평

정미선 | 가족의 약속으로부터 돌봄을 구하기

『가족과 커뮤니티』 9집 (2024. 1.)

민무숙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20년 성과와 향후 방향:
여교수 임용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김병인 | ‘나주 어향론(御鄉論)’과 고려 혜종에 대한 재평가
류명옥 | <曆中日記>를 통해 본 사대부의 일상과 가족의 의미
유해인 |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여성 비애담의 특징과 그 의미
황지현 | <홍계월전>의 가족각본, 수용과 위배
김주원·강의혁 | 산드라 스테인그래버의 『믿음을 갖기』에 나타난 모성 윤리와
돌봄의 보편화 가능성
김란영·주승섭·엄윤정·류도향 | 한국 성인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
김나경·김경학·강영신·김수정·선봉규·정종민 |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한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과 의미
최마티·신지원 | Unveiling Health and Safety Challenges for Season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김덕삼·이경자 | 공동체에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검토와 제안: 도교적
이론과 사례를 참고하여

현장 & Issue

황민호 | 마을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와 국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서평

한우리 |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복합위기를 넘어 횡단적 연대를 재구축하기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저서 목록

1. 연구총서

-
- 박미선 외, [연구총서1] 가족주의와 가족의 경계들, 한국문화사, 2020. 2. 29.
- Elsa Dolin 외, [연구총서2] 가족의 재의미화 커뮤니티의 도전, 한국문화사, 2021. 1. 30.
- Brett Nielson 외, [연구총서3] 역동하는 관계와 가족커뮤니티, 한국문화사, 2023. 1. 27.
- Uma Krishnan 외, [연구총서4], 가족커뮤니티와 다성적주체론, 한국문화사, 2024. 2. 23.
- 추주희·나영정 외, [국가전략총서1] 가족커뮤니티 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류도향·추주희 외, [국가전략총서2]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고광이·허진원, [국가전략총서3]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별 가족 만족 종합지수 분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한의승 외, [국가전략총서4] 가족커뮤니티 윤리와 가족실천,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1. 31.
-

2. 번역총서

-
- Tony Blackshaw 지음, 강의혁 외 옮김, [번역총서1] 커뮤니티 연구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2021. 1. 30.
- 박성원 지음, 양순자·조우진·정영수 옮김, [번역총서2] 돈효록: 조선 선비의 효경 집대성, 한국문화사, 2019. 5. 31.
- Lodger Pries 지음, 최대희·장영숙 옮김, [번역총서3] 초국화: 경계를 넘는 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23. 2. 28.
- Avishai Margalit 지음, 박의연·오창환·추주희 옮김, [번역총서4] 기억의 윤리, 한국문화사, 2023. 6. 19.
- 岡野八代 지음, 이수진·박경희 옮김, [번역총서5] 가족 — 새로운 「친밀권」을 찾아서, 한국문화사, 2023. 9. 27.
-

3. 시민문화총서

강의혁 외, [시민문화총서1] 안과 밖의 경계 가족과 공동체의 풍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 28.

정미라 외, [시민문화총서2] 가족인문학: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드림미디어, 2021. 1. 29.

김석봉 외, [시민문화총서3] 평화와 연대의 인문학,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류도향 외, [시민문화총서4] 우리 시대의 가족을 묻다: 인문학과 종교의 대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4.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

류도향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1]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가까운 사이,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28.

류도향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2]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2. 나와 타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28.

박미선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3]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3. 함께하는 시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2. 28.

가족과 커뮤니티 (제10집)

FAMILY AND COMMUNITY

발 행 일: 2024년 7월 31일

발 행 인: 정미라

발 행 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jnuinmun.org/>

연 락 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062-530-5218

E-mail: familycommunity@naver.com

인 쇄 처: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연 락 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 화: 062-530-0571~5

팩 스: 062-530-0579

홈페이지: <http://www.cnup.co.kr>

E-mail: cnup0571@hanmail.net

이 학술지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됨(NRF-2018S1A6A3A04042721)